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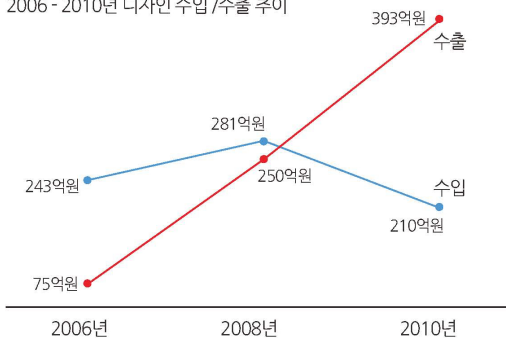
# 2011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전체 조사대상 기업 수

187,786개



2006 - 2010년 디자인 수입/수출 추이



주요 5개 업종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8,419,265

(단위 : 백만원)

2010년 전문디자인기업 수





# 2011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연구진** 최원도 | 한국디자인진흥원 정책본부 본부장  
강필현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략연구실 실장  
조진희 | 한국디자인진흥원 조사분석팀 팀장  
김순희 | 한국디자인진흥원 조사분석팀 과장

**첫 인쇄** 2011년 12월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략연구실 조사분석팀  
**발행인** 김현태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전화** 031-780-2022  
**팩스** 031-780-2040  
**웹사이트** 한국디자인진흥원 | <http://www.kidp.or.kr>  
디자인DB | <http://www.designdb.com>

© 한국디자인진흥원

이 보고서에 실린 「2011 산업디자인통계조사」의 결과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esigndb.com>)를 통해 제공됩니다.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위에 기재된 전화, 팩스, 주소 등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전재할 수 없습니다.



# 2011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2011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목차

I.  
조사  
개요

17

01 조사설계

조사 연혁 / 조사 항목 /  
주요 용어

18

II.  
2010년  
디자인 산업  
규모  
디자인 인력

21

01 조사방법

18

02 디자인 산업 규모

23

02-1. 5개 업종 일반기업의 디자인 산업 규모

25

02-2. 전문디자인기업의 산업 규모

26

02-3. 공공부문(중앙부처/지자체) 디자인 산업 규모

27

02-4. 프리랜서 디자인 산업 규모

27

02-5. 고등교육 서비스 영역 디자인 산업 규모

28

03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29

04 디자인관련 기업 수

30

04-1. 디자인 활용기업 수

30

04-2. 전문디자인기업 수

31

05 디자인 인력

32

05-1. 5개 업종 일반기업의 디자인 인력

34

05-2. 전문디자인기업의 디자인 인력

36

05-3. 공공부문(중앙부처, 지자체)의 디자인 인력

37

05-4. 프리랜서 디자이너 수

37

05-5. 고등교육서비스 영역 디자인 인력

37



Ⅲ.  
세부  
조사 결과  
요약

39

디자인 활용기업

01 디자인 활용 현황	40
02 디자인 투자 관련	43
03 디자인 역량	45
04 인력 현황	49
05 디자인 재교육 관련	55

전문디자인기업

01 일반 현황	58
02 매출액, 자본금 및 투자 현황	61
03 디자인 기반 역량	62
04 인력현황	65
05 디자인 재교육 관련	68
06 애로사항 및 경영전략	72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01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현황	73
02 디자인 예산 및 인력 현황	74
03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 및 디자인 용역 방법별 현황	75
0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76
05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77
06 직원 디자인 교육 관련	78

디자인관련 고등교육기관

01 대학(원)의 디자인과 보유 학교 및 학교 현황	79
02 2010년 대학(원) 디자인학과 학생 현황	81
03 2010학년도 대학(원)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82



IV.  
조사결과-1.  
일반기업/  
디자인  
활용기업

83

01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	84
02 디자인 활용 현황	86
02-1. 디자이너 고용 여부	86
02-2.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외주 용역 여부	88
02-3. 디자인 활용 분야	90
02-4. 디자인 개발 시 사내/외부 인력 활용 비중	92
02-5-1. 디자인 활용기업 종사자 수 (평균)	94
02-5-2. 디자인 활용기업의 성별/채용상태별 종사자 수 (평균)	96
02-5-3. 디자인 활용기업의 디자이너 수 (평균)	98
02-5-3-1. 디자이너 고용기업의 디자이너 수 (평균)	100
02-5-4. 디자인 활용기업의 성별/채용상태별 디자이너 수 (평균)	102
02-6.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104
02-7-1. 2010년 재무 및 투자 현황	106
02-7-2. 2009년 재무 및 투자 현황	108
02-8. 매출액 중 디자인 투자 금액 적정 비중	110
02-9-1. 2011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112
02-9-2. 2011년 디자이너 고용전망	114
02-10.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중	116
02-11. 주력제품의 디자인 평균 기대 수명	118
02-12.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120
03 디자인 역량	122
03-1. 해외 교류 여부	122
03-1-1. 해외인력 및 자사 교류 방법 비중	124
03-1-2. 교류하는 해외 지역	126
03-2.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용역기업 참여 단계	128
03-3. 디자인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 경험 비율	132
03-4-1.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134
03-4-2.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136
03-4-3.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정보	138
03-4-4.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작업 공간	140



04 디자인 인력	142
04-1. 디자이너 평균 근무 년수	142
04-2. 디자인 부서 생성 시기	144
04-3.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 지위	146
04-3-1.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 전공	148
04-4. 디자인 부서 인력 전공의 다양성	150
04-4-1. 디자인 부서에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	152
04-5-1. 디자인전담부서와 타부서간 커뮤니케이션(협업) 수준	154
04-5-2. 생상품 디자인 결정에 대한 디자이너 관여 수준	156
05 디자인 재교육 관련	158
05-1.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별 교육 경험률	158
05-2.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160
05-3.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162
05-4.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164
06 기타	166
06-1. GD 마크 인지도	166
06-2. 디자인 마크 기여도	168
06-3.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170
01 일반현황	174
01-1. 국내기업/외국계기업 구분	174
01-2. 전문디자인기업의 주요 서비스 디자인 분야	176
01-3-1. 전문디자인기업 종사자 수 (평균)	178
01-3-2. 전문디자인기업 디자이너 수 (평균)	180
01-3-3.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평균)	182
01-3-4. 1년 이하 비정규직 근무 인원수 (평균)	184
01-4.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186
01-5. 디자이너 근무년수	188
01-6-1.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190
01-6-2. 매출 건수 평균	192



IV.  
조사결과-2.  
전문디자인기업

01-6-3. 용역 형태별 매출 건수 (평균)	194
01-7. 매출액 기준 고객 구성 비중	196
01-8-1. 2010년 재무 및 투자 현황	198
01-8-2. 2009년 재무 및 투자 현황	200
01-9-1. 2011년 매출액 전망	202
01-9-2. 2011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204
01-9-3. 2011년 디자인 투자 전망	206
 02 인적자원 관리	 208
02-1.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별 교육 경험률	208
02-1-1. 직원역량 향상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	210
02-2.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211
02-3.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213
02-4.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장되어야 할 교육	215
02-5.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217
 03 디자인 기반 역량	 219
03-1.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여부	219
03-1-1.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방법 비중	221
03-1-2. 교류 해외 지역	223
03-2.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225
 04 디자인 인증	 227
04-1. GD 마크 인지도	227
04-2. 디자인 마크 기여도	229
 05 애로사항 및 경영전략	 231
05-1. 필요 정부 지원 분야	231
05-2.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	233
05-3. 타산업 대비 디자인 산업 취약 부분	235
05-4.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237
05-5. 매출 증대 방안	239
05-6. 디자인용역제공이 고객(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	241



05-6-1. 디자인용역제공이 고객(기업)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	243
05-7-1. 디자인권 소유 비중	245
05-7-2. 디자인권 소유 건수 (평균)	247
05-8-1.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249
05-8-2.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251
05-8-3.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정보	253
05-8-4.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작업 공간	255

IV.  
조사결과-3.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257

01 디자인 전담 부서 보유 여부	258
01-1. 2010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평균)	260
01-1-1.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평균)	262
01-2. 디자인 전담 부서 생성 시기	264
01-3-1.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266
01-3-2. 디자이너 수 (평균)	268
01-4.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공공디자인 담당 사업 부서	270
0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271
03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별 비율	273
04 디자인 발주 방법별 비율	275
05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277
06 2010년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279
07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직원 디자인 교육 방식	281

IV.  
조사결과-4.  
교육통계  
(문헌조사)

283

01 대학(원)의 디자인과 보육 학교 및 학과 현황	284
02 2010년 대학(원) 디자인학과 학생 현황	286



V.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293
별첨 표본 설계	313

01 연구 필요성	294
02 연구 목표	297
03 연구 내용	298
04 문헌적 고찰	299
04-1. 기존 연구	299
04-2. 해외 선진국가의 사례 조사	300
05 연구 분석	303
05-1. 산업과 디자인	303
05-2. 연구 분석틀	304
06 경제적 가치 분석 결과	306
06-1. 추진 전략 및 방법	306
06-2. 경제적 가치 분석 결과	309
01 디자인 활용기업(일반기업) 조사	314
02 전문디자인기업 조사	320
03 공공부문(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조사	322



////////////////////////////////////

표 목차

표 2-1	'10년 전문디자인기업의 디자인 산업 규모	26
표 2-2	공공부문 디자인 산업 규모	27
표 2-3	'10년 일반기업 중 디자인 활용기업 수	30
표 2-4	평균 디자이너 수	34
표 3-1	디자인 활용 분야	41
표 3-2	2010년 기업 디자인 투자 현황	43
표 3-3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중	44
표 3-4	디자인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 경험 비율	47
표 3-5	종사자 및 디자이너 현황	49
표 3-6	디자인 활용기업의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50
표 3-7	사내 디자이너 위상	54
표 3-8	디자인 재교육 현황	55
표 3-9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장되어야 할 교육	57
표 3-10	전문디자인기업 서비스 분야별 분포	58
표 3-11	2010년 재무 및 디자인 투자 현황	61
표 3-12	종사자 및 디자이너 현황	65
표 3-13	활동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66
표 3-14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장되어야 할 교육	70
표 3-15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장되어야 할 전공분야	71
표 3-16	애로사항 및 경영전략	72
표 3-17	2010년 대학(원) 디자인학과 학생 현황	81
표 3-18	2010학년도 대학(원)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82
표 4-1-1	업종별 디자인 활용 여부	84
표 4-1-2	권역별/규모별 디자인 활용 여부	85
표 4-1-3	업종별 디자이너 고용 여부	86
표 4-1-4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 고용 여부	87
표 4-1-5	업종별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외주 용역 여부	88
표 4-1-6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외주 용역 여부	89
표 4-1-7	업종별 디자인 활용 분야	90
표 4-1-8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용역별 디자인 활용 분야	91
표 4-1-9	업종별 디자인 개발 시 사내/외부 인력 활용 비중	92
표 4-1-10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용역별 디자인 개발 시 사내/외부 인력 활용 비중	93
표 4-1-11	업종별 디자인 활용기업 종사자 수 (평균)	94
표 4-1-12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용역별 디자인 활용기업 종사자 수 (평균)	95
표 4-1-13	업종별 디자인 활용기업의 성별/채용상태별 종사자 수 평균	96
표 4-1-14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용역별 디자인 활용기업의 성별/채용상태별 종사자 수 (평균)	97
표 4-1-15	업종별 디자인 활용기업의 디자이너 수 (평균)	98
표 4-1-16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용역별 디자인 활용기업의 디자이너 수 (평균)	99
표 4-1-17	업종별 디자이너 고용기업의 디자이너 수 (평균)	100
표 4-1-18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용역별 디자이너 고용기업의 디자이너 수 (평균)	101
표 4-1-19	업종별 디자인 활용기업의 성별/채용상태별 디자이너 수 (평균)	102
표 4-1-20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용역별 디자인 활용기업의 성별/채용상태별 디자이너 수 (평균)	103
표 4-1-21	업종별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104
표 4-1-22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105
표 4-1-23	업종별 2010년 재무 및 투자 현황	106
표 4-1-24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2010년 재무 및 투자 현황	107
표 4-1-25	업종별 2009년 재무 및 투자 현황	108
표 4-1-26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2009년 재무 및 투자 현황	109
표 4-1-27	업종별 매출액 중 디자인 투자 금액 적정 비중	110
표 4-1-28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매출액 중 디자인 투자 금액 적정 비중	111



////////////////////////////////////

표 목차

표 4-1-29	업종별 2011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112
표 4-1-30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2011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113
표 4-1-31	업종별 디자이너 고용전망	114
표 4-1-32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 고용전망	115
표 4-1-33	업종별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중	116
표 4-1-34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중	117
표 4-1-35	업종별 주력제품의 디자인 평균 기대 수명	118
표 4-1-36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주력제품의 디자인 평균 기대 수명	119
표 4-1-37	업종별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120
표 4-1-38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121
표 4-1-39	업종별 해외 교류 여부	122
표 4-1-40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해외 교류 여부	123
표 4-1-41	업종별 해외인력 및 자사 교류 방법 비중	124
표 4-1-42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해외인력 및 자사 교류 방법 비중	125
표 4-1-43	업종별 교류 해외 지역	126
표 4-1-44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교류 해외 지역	127
표 4-1-45	업종별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 참여 개입 단계	128
표 4-1-46	업종별 개발 프로세스 중 용역기업 참여 개입 단계	129
표 4-1-47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 참여 단계	130
표 4-1-48	권역별/규모별/고용별 개발 프로세스 중 용역용역기업 참여 단계	131
표 4-1-49	업종별 디자인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 경험 비율	132
표 4-1-50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 경험 비율	133
표 4-1-51	업종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134
표 4-1-52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135
표 4-1-53	업종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136
표 4-1-54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137
표 4-1-55	업종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정보	138
표 4-1-56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정보	139
표 4-1-57	업종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작업 공간	140
표 4-1-58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작업 공간	141
표 4-1-59	업종별 디자이너 평균 근무 연수	142
표 4-1-60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 평균 근무 연수	143
표 4-1-61	업종별 디자인 부서 생성 시기	144
표 4-1-62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부서 생성 시기	145
표 4-1-63	업종별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 지위	146
표 4-1-64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 지위	147
표 4-1-65	업종별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 전공	148
표 4-1-66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 전공	149
표 4-1-67	업종별 디자인 부서 인력 전공의 다양성	150
표 4-1-68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부서 인력 전공의 다양성	151
표 4-1-69	업종별 디자인 부서에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	152
표 4-1-70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부서에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	153
표 4-1-71	업종별 디자인전담부서와 타부서간 커뮤니케이션(협업) 수준	154
표 4-1-72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전담부서와 타부서간 커뮤니케이션(협업) 수준	155
표 4-1-73	업종별 생산품 디자인 결정에 대한 디자이너 관여 수준	156
표 4-1-74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생산품 디자인 결정에 대한 디자이너 관여 수준	157
표 4-1-75	업종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별 교육 경험률	158
표 4-1-76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별 교육 경험률	159
표 4-1-77	업종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160
표 4-1-78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161



////////////////////////////////////

표 목차

표 4-1-79	업종별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162
표 4-1-80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163
표 4-1-81	업종별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장되어야 할 교육	164
표 4-1-82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장되어야 할 교육	165
표 4-1-83	업종별 GD 마크 인지도	166
표 4-1-84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GD 마크 인지도	167
표 4-1-85	업종별 디자인 마크 기여도	168
표 4-1-86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마크 기여도 (100점환산 평균)	169
표 4-1-87	업종별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170
표 4-1-88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171
표 4-2-1	업종별 국내기업/해외기업 구분	174
표 4-2-2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국내기업/해외기업 구분	175
표 4-2-3	업종별 전문디자인기업의 주요 서비스 디자인 분야	176
표 4-2-4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전문디자인기업의 주요 서비스 디자인 분야	177
표 4-2-5	업종별 전문디자인기업 종사자 수 (평균)	178
표 4-2-6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전문디자인기업 종사자 수 (평균)	179
표 4-2-7	업종별 전문디자인기업 디자이너 수 (평균)	180
표 4-2-8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전문디자인기업 디자이너 수 (평균)	181
표 4-2-9	업종별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평균)	182
표 4-2-10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평균)	183
표 4-2-11	업종별 1년 이하 비정규직 근무 인원수 (평균)	184
표 4-2-12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1년 이하 비정규직 근무 인원수 (평균)	185
표 4-2-13	업종별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186
표 4-2-14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187
표 4-2-15	업종별 디자이너 근속년수	188
표 4-2-16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 근속년수	189
표 4-2-17	업종별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190
표 4-2-18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191
표 4-2-19	업종별 매출 건 수 (평균)	192
표 4-2-20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매출 건 수 (평균)	193
표 4-2-21	업종별 용역 형태별 매출 건 수 (평균)	194
표 4-2-22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용역 형태별 매출 건 수 (평균)	195
표 4-2-23	업종별 매출액 기준 고객 구성 비중	196
표 4-2-24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매출액 기준 고객 구성 비중	197
표 4-2-25	업종별 2010년 재무 및 투자 현황	198
표 4-2-26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0년 재무 및 투자 현황	199
표 4-2-27	업종별 2009년 재무 및 투자 현황	200
표 4-2-28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09년 재무 및 투자 현황	201
표 4-2-29	업종별 2011년 매출액 전망	202
표 4-2-30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1년 매출액 전망	203
표 4-2-31	업종별 2011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204
표 4-2-32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1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205
표 4-2-33	업종별 2011년 디자인 투자 전망	206
표 4-2-34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1년 디자인 투자 전망	207
표 4-2-35	업종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별 교육 경험률	208
표 4-2-36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별 교육 경험률	209
표 4-2-37	직원역량 향상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	210
표 4-2-38	업종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211
표 4-2-39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212
표 4-2-40	업종별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213



## 표 목차

표 4-2-41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214
표 4-2-42	업종별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215
표 4-2-43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216
표 4-2-44	업종별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217
표 4-2-45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218
표 4-2-46	업종별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여부	219
표 4-2-47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여부	220
표 4-2-48	업종별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방법 비중	221
표 4-2-49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방법 비중	222
표 4-2-50	업종별 교류 해외 지역	223
표 4-2-51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교류 해외 지역	224
표 4-2-52	업종별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225
표 4-2-53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226
표 4-2-54	업종별 GD 마크 인지도	227
표 4-2-55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GD 마크 인지도	228
표 4-2-56	업종별 디자인 마크 기여도 (100점환산 평균)	229
표 4-2-57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마크 기여도 (100점환산 평균)	230
표 4-2-58	업종별 필요 정부 지원 분야	231
표 4-2-59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필요 정부 지원 분야	232
표 4-2-60	업종별 필요 정부 지원 분야 디자인산업 육성 · 발전 장애 요인	233
표 4-2-61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산업 육성 · 발전 장애 요인	234
표 4-2-62	업종별 타산업 대비 디자인 산업 취약 부분	235
표 4-2-63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타산업 대비 디자인 산업 취약 부분	236
표 4-2-64	업종별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237
표 4-2-65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238
표 4-2-66	업종별 매출 증대 방안	239
표 4-2-67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매출 증대 방안	240
표 4-2-68	업종별 디자인용역제공이 고객(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	241
표 4-2-69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용역제공이 고객(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	242
표 4-2-70	업종별 디자인용역제공이 고객(기업)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	243
표 4-2-71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용역제공이 고객(기업)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	244
표 4-2-72	업종별 디자인권 소유 비중	245
표 4-2-73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권 소유 비중	246
표 4-2-74	업종별 디자인권 소유 건수 (평균)	247
표 4-2-75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권 소유 건수 (평균)	248
표 4-2-76	업종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249
표 4-2-77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250
표 4-2-78	업종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251
표 4-2-79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252
표 4-2-80	업종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정보	253
표 4-2-81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정보	254
표 4-2-82	업종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작업 공간	255
표 4-2-83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작업 공간	256
표 4-3-1	구분별 디자인 전담 부서 보유 여부	258
표 4-3-2	지자체별/지자체v예산별 디자인 전담 부서 보유 여부	259
표 4-3-3	구분별 2010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평균)	260
표 4-3-4	지자체별/지자체v예산별 2010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평균)	261
표 4-3-5	전담부서별 2010년 지자체 예산 (평균)	262
표 4-3-6	지자체별 2010년 지자체 예산 (평균)	263
표 4-3-7	구분별 디자인 전담 부서 생성 시기	264



////////////////////////////////////

표 목차

표 4-3-8	지자체별/지자체v예산별 디자인 전담 부서 생성 시기	265
표 4-3-9	구분별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266
표 4-3-10	지자체별/지자체v예산별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267
표 4-3-11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이너 수 (평균)	268
표 4-3-12	지자체별/지자체v예산별 디자이너 수 (평균)	269
표 4-3-14	구분별/전담부서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272
표 4-3-15	지자체별/지자체v예산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272
표 4-3-16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별 비율	273
표 4-3-17	지자체별/지자체v예산별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별 비율	274
표 4-3-18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발주 방법별 비율	275
표 4-3-19	지자체별/지자체v예산별 디자인 발주 방법별 비율	276
표 4-3-20	구분별/전담부서별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277
표 4-3-21	지자체별/지자체v예산별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278
표 4-3-22	구분별/전담부서별 2010년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279
표 4-3-23	지자체별/지자체v예산별 2010년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280
표 4-3-24	구분별/전담부서별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직원 디자인 교육 방식	281
표 4-3-25	지자체별/지자체v예산별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직원 디자인 교육 방식	282
표 4-4-1	2010년 대학(원)의 디자인과 보유 학교 수	284
표 4-4-2	2010년 대학(원)의 예체능 계열 소계열별/학교구분별 디자인 학과 수	285
표 4-4-3	2010년 대학(원)의 비예체능 계열 학교구분별 디자인 학과 수	285
표 4-4-4	2010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계열별 디자인학과 재적학생 수	286
표 4-4-5	2010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계열별 디자인학과 재학생수	287
표 4-4-6	2010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계열별 디자인학과 입학자 수	288
표 4-4-7	2010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계열별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	289
표 4-4-8	2010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계열별 디자인학과 취업자 수	290
표 4-4-9	2010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계열별 디자인학과 취업률	291
표 5-1	디자인산업의 패러다임	295
표 5-2	2010년 각 산업별 규모	309
표 5-3	2010년 각 산업별 디자인 투자에 의한 시장규모	310
표 5-4	2010년 각 산업별 디자인 경제적 가치	311
표 6-1	일반기업 디자인활용 여부 조사 모집단 및 표본 크기	316
표 6-2	디자인 활용기업 모집단 및 표본 크기	318
표 6-3	전문디자인기업 조사 모집단 및 표본 크기	320
표 6-4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모집단 크기	322
표 6-5	중앙부처 조사 대상	322



그림 목차

그림 2-1	디자인 산업 규모 및 인력 조사영역	22
그림 2-2	'06-~'10년 분야별 디자인 산업 규모 비교	24
그림 2-3	'10년 5개 업종 일반기업의 디자인 산업 규모	25
그림 2-4	'06-~'10년 디자인 수입/수출 추이	26
그림 2-5	대학 디자인과 교수 연봉 추정	28
그림 2-6	디자인 학과 연구비	28
그림 2-7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29
그림 2-8	'10년 전문디자인기업 수	31
그림 2-9	'06-~'10년 분야별 디자인 산업 인력 규모 비교	33
그림 2-10	1단계 디자인 산업 인력 추이	33
그림 2-11	'10년 디자인 활용기업 및 디자인 인력 규모	35
그림 2-12	'10년' 08년 전문디자인기업의 디자인 인력 규모 비교(종사자 기준)	36
그림 2-13	공공부문 디자인 인력 현황	37
그림 2-14	'10년 대학 디자인과 교원 수	37
그림 3-1	디자인 활용 현황	40
그림 3-2	디자인 개발 시 사내/외부인력 활용 비중	42
그림 3-3	해외 인력 및 지사 교류기업 비율	45
그림 3-4	해외 교류 방법	45
그림 3-5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용역기업 참여 단계	46
그림 3-6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중요도	47
그림 3-7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48
그림 3-8	디자이너 평균 근무 연수	51
그림 3-9	디자인 관련 부서 총괄 책임자의 지위	52
그림 3-10	디자인 관련 부서 총괄 책임자의 전공	52
그림 3-11	디자인 부서 인력 전공의 다양성 및 필요 타인력 분야	53
그림 3-12	재교육 시 애로사항	56
그림 3-13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56
그림 3-14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비중	59
그림 3-15	매출액 기준 고객 구성 비중	60
그림 3-16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비율	62
그림 3-17	해외 인력 지사 교류 방법	62
그림 3-18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63
그림 3-19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중요도	64
그림 3-20	디자인권 소유 비중	64
그림 3-21	디자이너 평균 근무 연수	67
그림 3-22	디자인 재교육 현황	68
그림 3-23	재교육 시 애로사항	69
그림 3-24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69
그림 3-25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73
그림 3-26	디자인 부서 예산 및 인력 현황	74
그림 3-27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 및 디자인 발주 방법별 비율	75
그림 3-28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보유 비율	76
그림 3-29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77
그림 3-30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연간 평균 교육 횟수 및 시간	78
그림 3-31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직원 디자인 교육 방식	78
그림 3-32	2010년 대학(원)의 디자인과 보유 학교 수	79
그림 3-33	2010년 대학(원)의 예체능 계열 디자인학과 수	80
그림 3-34	2010년 대학(원)의 비예체능 계열 디자인학과 수	80
그림 4-1-1	디자인 활용 여부	84
그림 4-1-2	디자이너 고용 여부	86



그림 목차

그림 4-1-3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외주 용역 여부	88
그림 4-1-4	디자인 활용 분야	90
그림 4-1-5	디자인 개발 시 사내/외부 인력 활용 비중	92
그림 4-1-6	디자인 활용기업 종사자 수 (평균)	94
그림 4-1-7	디자인 활용기업의 성별/채용상태별 종사자 수 (평균)	96
그림 4-1-8	디자인 활용기업의 디자이너 수 (평균)	98
그림 4-1-9	디자이너 고용기업의 디자이너 수 (평균)	100
그림 4-1-10	디자인 활용 기업의 성별/채용상태별 디자이너 수 (평균)	102
그림 4-1-11	디자인 활용 기업의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104
그림 4-1-12	2010년 기업 재무 및 디자인 투자 현황	106
그림 4-1-13	2009년 재무 및 디자인 투자 현황	108
그림 4-1-14	매출액 중 디자인 투자 금액 적정 비중	110
그림 4-1-15	2011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112
그림 4-1-16	2011년 디자이너 고용전망	114
그림 4-1-17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중	116
그림 4-1-18	주력제품의 디자인 평균 기대 수명	118
그림 4-1-19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120
그림 4-1-20	해외 교류 여부	122
그림 4-1-21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방법 비중	124
그림 4-1-22	교류 해외 지역(중복응답)	126
그림 4-1-23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용역기업 참여 단계	128
그림 4-1-24	디자인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 경험 비율	132
그림 4-1-25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134
그림 4-1-26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136
그림 4-1-27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정보	138
그림 4-1-28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작업 공간	140
그림 4-1-29	디자이너 평균 근무 연수	142
그림 4-1-30	디자인 부서 생성 시기	144
그림 4-1-31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 지위	145
그림 4-1-32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 전공	148
그림 4-1-33	디자인 부서 인력 전공의 다양성	150
그림 4-1-34	디자인 부서에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	152
그림 4-1-35	디자인전담부서와 타부서간 커뮤니케이션(협업) 수준	154
그림 4-1-36	생산품 디자인 결정에 대한 디자이너 관여 수준	156
그림 4-1-37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별 교육 경험률	158
그림 4-1-38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160
그림 4-1-39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162
그림 4-1-40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164
그림 4-1-41	GD 마크 인지도	166
그림 4-1-42	디자인 마크 기여도	168
그림 4-1-43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170
그림 4-2-1	국내기업/외국계기업 구분	174
그림 4-2-2	전문디자인기업의 주요 서비스 디자인 분야	176
그림 4-2-3	전문디자인기업 종사자 수 (평균)	178
그림 4-2-4	전문디자인기업 디자이너 수 (평균)	180
그림 4-2-5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평균)	182
그림 4-2-6	1년 이하 비정규직 근무 인원수 (평균)	184
그림 4-2-7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186
그림 4-2-8	디자이너 근무연수	188
그림 4-2-9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190



# 그림 목차

그림 4-2-10	매출 건수 평균	192
그림 4-2-11	유통 형태별 매출 건수 평균	194
그림 4-2-12	매출액 기준 고객 구성 비중	196
그림 4-2-13	2010년 재무 및 투자 현황	198
그림 4-2-14	2009년 재무 및 투자 현황	200
그림 4-2-15	2011년 매출액 전망	202
그림 4-2-16	2011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204
그림 4-2-17	2011년 디자인 투자 전망	206
그림 4-2-18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별 교육 경험률	208
그림 4-2-19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212
그림 4-2-20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213
그림 4-2-21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장되어야 할 교육	214
그림 4-2-22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217
그림 4-2-23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여부	219
그림 4-2-24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방법 비중	221
그림 4-2-25	교류 해외 지역	223
그림 4-2-26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225
그림 4-2-27	GD 마크 인지도	227
그림 4-2-28	디자인 마크 기여도	229
그림 4-2-29	필요 정부 지원 분야	231
그림 4-2-30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	233
그림 4-2-31	타산업 대비 디자인 산업 취약 부분	235
그림 4-2-32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237
그림 4-2-33	매출 증대 방안	239
그림 4-2-34	디자인용역제공이 고객(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	241
그림 4-2-35	디자인용역제공이 고객(기업)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	243
그림 4-2-36	디자인권 소유 비중	245
그림 4-2-37	디자인권 소유 건수 (평균)	247
그림 4-2-38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249
그림 4-2-39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251
그림 4-2-40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정보	253
그림 4-2-41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작업 공간	255
그림 4-3-1	디자인 전담 부서 보유 여부	258
그림 4-3-2	2010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평균)	260
그림 4-3-3	2010년 지자체 예산 (평균)	262
그림 4-3-4	디자인 전담 부서 생성 시기	264
그림 4-3-5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266
그림 4-3-6	디자이너 수 (평균)	268
그림 4-3-7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271
그림 4-3-8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별 비율	273
그림 4-3-9	디자인 발주 방법별 비율	275
그림 4-3-10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277
그림 4-3-11	2010년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279
그림 4-3-12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직원 디자인 교육 방식	281
그림 5-1	KDPI의 개별상품의 디자인 선호지수 산출식	300
그림 5-2	디자인 산업규모 및 정의	304
그림 5-3	디자인 가치와 디자인 산업규모 비교	305
그림 5-4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307
그림 5-5	기존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	307



## 조사개요

###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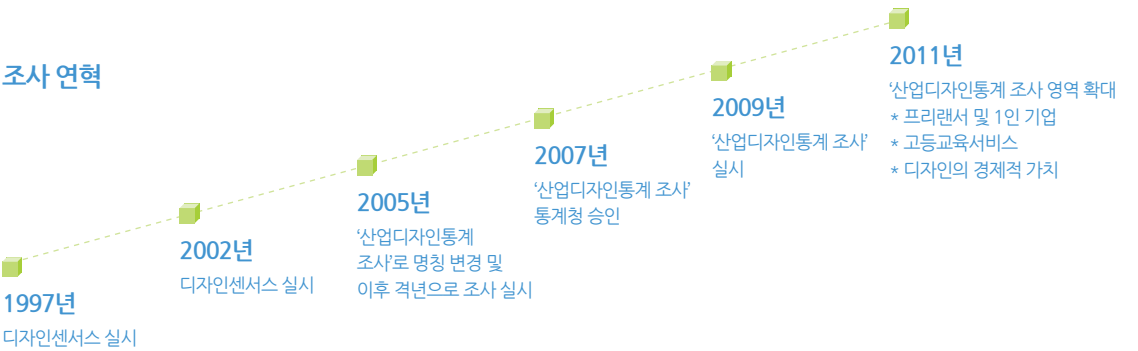
디자인 산업 및 환경에 대한 정확한 기초조사를 통해 디자인 산업 현황, 투자 및 개발현황, 경쟁력, 인식 및 선호도 등 디자인 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자료를 확보하고, 디자인 산업 현황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구축을 통해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디자인 정책 및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조사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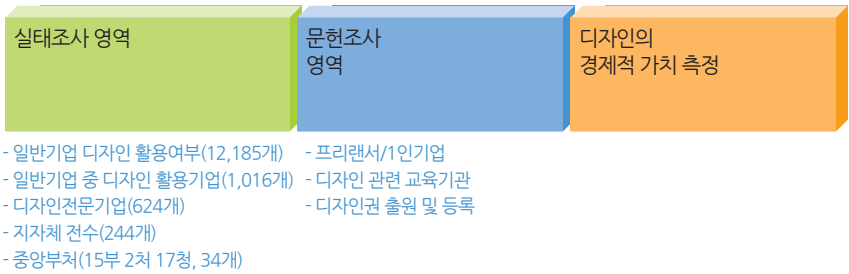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3항(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제 11526호)



01  
조사설계



조사 영역 및 대상



조사 항목

조사대상	조사 항목	
일반기업	- 2010년 12월 기준 디자이너 종사 여부 - 최근 2년 이내 디자인개발 여부	
디자인 활용기업	- 기업 일반 현황 - 디자인 활용 현황 - 디자인 역량 현황	- 디자인 인적 자원 관리 - 디자인 교육 관련 - 기타
전문디자인기업	- 사기업 일반 현황 - 디자인 인적자원 관리 - 디자인 기반 역량	- 디자인 인증 - 애로사항 및 경영전략
중앙부처 및 지자체	- 디자인 활용 현황 - 디자인 사업 발주 현황	- 디자인 교육 관련
기타	- 프리랜서/1인기업 매출액 -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 현황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 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



## 주요 용어

### 1. 기업

#### 1) 디자인 활용기업

- 디자이너 고용 또는 디자인개발 의뢰 경험이 있는 일반기업
- 신제품 출시 및 디자인변경 경험이 있는 일반기업

디자인 활용 구분		
디자인은 디자이너에 의해 개발된 디자인만 해당, 경력이 짧은 디자인 비 전공자가 기존 디자인을 수정하여 만든 것은 디자인으로 보지 않음	외부 기업에 의뢰한 것은 최근 2년 이내에 의뢰한 것만 해당. 2년 이전에 의뢰한 디자인으로 계속 생산물을 만드는 기업의 경우 디자인 활용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외부 기업은 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이너가 있는 기업만 해당. 디자이너가 있는 인쇄기업, 출판기업에 의뢰한 경우도 디자인 활용기업에 해당 됨.

#### 2) 전문디자인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9차)에 따라 디자인업(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 상시종사자수가 1인 이상인 기업
- 기업 구분이 단독기업, 본사/본점인 기업(공장, 지사(점), 영업소는 제외)

#### 3) 기업 형태

- 개인기업 : 법인격 없이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 법인이 아닌 개인이 공동 경영하는 기업, 대리점, 특약점, 가맹점 등의 개인기업
- 회사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및 외국회사<sup>1)</sup>
- 회사이외 법인 :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각종 공사 등
-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각종 협회, 조합,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등

1) 외국회사: 외국(미국 등)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 설립한 회사를 말하며 주로 국내에 설치된 외국인의 지사(점), 영업소 등으로 이루어짐

#### 4) 사기업 구분

단독기업  
(1기업 1기업)

본사(점), 본부, 중앙회  
(1기업 다기업)

지사(점), 출장소, 영업장  
(1기업 다기업)

#### 5) 종사자수

- 종사자에 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 포함
- 종사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 1년 미만 고용 인력, 일일 수당 고용인력,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로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 파견직, 파트타임, 교육훈련생 등

#### 6) 기업 규모 구분 방법

	☘ 소기업	🏢 중기업	🏢 대기업
🏭 제조업	5~99명	100~299명	300명~
🏗️ 건설업	5~49명	50~299명	300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9명	10~299명	300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9명	10~199명	200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5~9명	10~199명	300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하였음.



## 7) 자본금, 매출액, 연구개발비

- ① 자본금 : 기업의 소유자가 사업의 자본으로 기업에 제공한 금액
- ② 총 매출액 : 연간 상품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벌어들인 매출액, 출하, 판매, 지원금 등
- ③ 연구개발비 : 연구비, 개발비, 경성개발비의 합으로 구성됨

8) 디자인관련 총 지출 금액 : 디자인관련 인건비, 연구개발비, 기자재 구입비, 관리운영비, 외주용역 발주비, 교육비, 기타 디자인관련 비용

9) 디자이너 기준 : 전문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혹은 전문 디자인 학원에서 디자인 교육을 이수한 자로 현재 업무에서 디자인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

10) 디자인 분야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 환경디자인, 패션디자인

## 11) 출원/등록 구분

- ① 출원 : 산업재산권의 등록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해 법률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행위
- ② 등록 : 출원된 서류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를 만족한 경우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처분

## 12) GD(Good Design) 마크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선정제도는 1985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음. 현재 국내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상품을 대상으로 조형성, 경제성, 편리성 등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정부에서 우수디자인상품임을 인증하여 GD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디자인 구분

## 공간

도시  
기반시설

공원, 운동장, 광장, 놀이터, 집회시설, 보도, 자투리 공원, 주차장, 터널, 도로, 철로, 교량, 육교, 고가도로, 하천, 하수처리장, 산업공단, 변전소, 발전소 등

건축 및  
실내 환경

마을회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동사무소, 군사시설, 교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정부 행정부처 건물, 외국공관 건축물, 시민회관, 문화재,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국공립 복지시설, 국공립 의료시설, 보육원,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휴게소,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휴게실,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아원, 교육원, 훈련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등

## 시설물

## 편의시설물

벤치, 의자, 쉼터, 옥외용 테이블,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화장실, 세면장, 매점, 무인 키오스크, 자동판매기, 신문가판대 등

보행 및  
운송시설물

보행신호등, 횡단, 방음벽, 블라드, 가드레일, 가로표식,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육교, 정류장, 자전거 주차대, 보행 유도등, 신호등, 교통차단물, 속도 억제물, 주차시설, 주차요금징수기, 공공기관 소유차량 등

## 관리시설물

맨홀, 전신주, 가로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우체통, 소화전, 방재시설, 범죄예방장치, 신원확인장치 등

## 정보시설물

공중전화, 풍향계, 시계, 온습도계, 정보부스, 지역/관광안내시설, 시(도)계 경계석, 지자체 상징탑, 교통정보판 등

## 행정시설물

제복, 가구, 문구, 표찰, 무인 민원처리기 등

## 이미지

## 정보매체

이정표, 교통표지판, 지역/관광 안내도, 버스노선도, 지하철노선도, 방향유도사인, 규제사인, 자동차 번호판, 각종 픽토그램, 광고판,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간판, 배너, 기, 홍보영상 등

## 상징매체

국가 및 행정부처·지방자치단체·각급 공공기관 상징시스템(상징사인, 증명서, 공문서,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화폐, 주민등록증,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

## 환경연출

벽화, 수퍼그래픽, 미디어 아트, 오감연출매체 (sound scape, light scape), 미술장식품 등

도시마스터  
플랜/  
가이드라인


녹지 벨트 확보를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도시별 이미지 구축을 위한 디자인 개발



## II



# 2010년 디자인 산업 규모 / 디자인 인력





# 01 조사방법

## 디자인 산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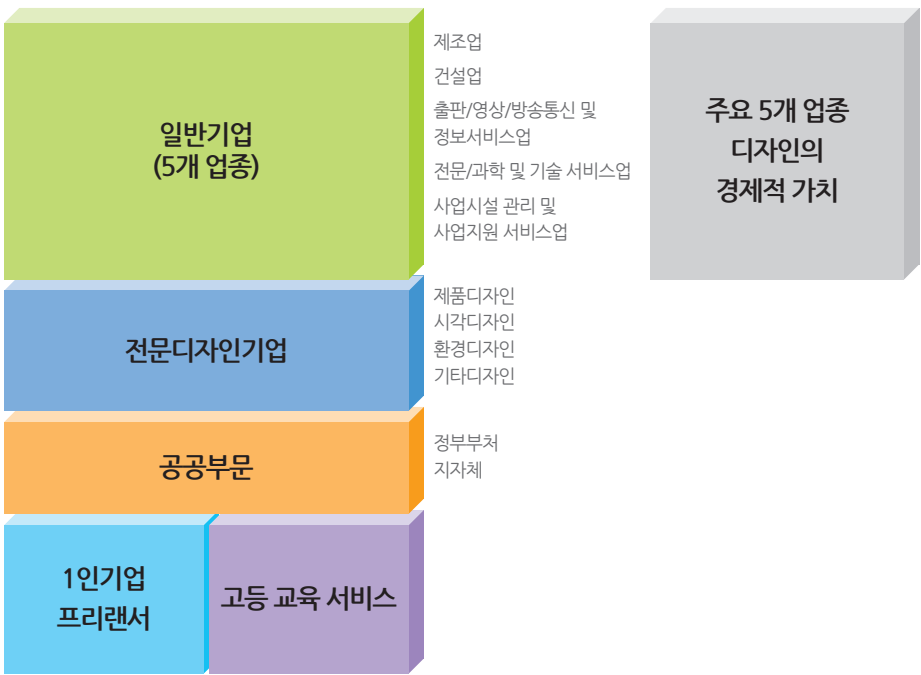
5개 업종 일반기업, 전문디자인기업, 공공부문(지자체, 정부부처)영역,  
1인기업, 프리랜서, 고등 교육서비스 영역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 5개 업종 일반기업의 디자인 경제적 가치

## 디자인 산업 인력

디자인 산업 규모 영역구분과 동일 : 일반업체의 디자이너, 전문디자인기업 종사자, 공공부문(지자체, 정부부처)의 디자인 전담 부서 직원,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 고등교육기관 교원

<그림 2-1> 디자인 산업 규모 및 인력 조사영역





## 02

## 2010년 디자인 산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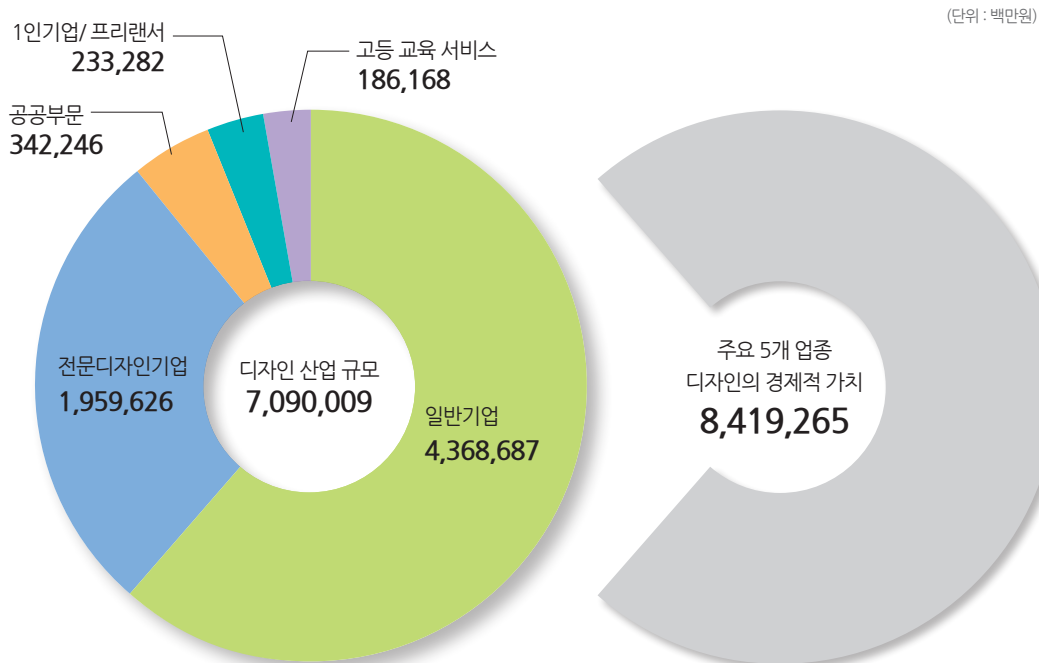
## 2010년 디자인 산업 규모 : 7조 900억 900만원

✦ 5개 업종 일반기업 디자인투자액, 전문디자인기업 매출액, 공공부문(지자체, 정부부처) 디자인 투자액 : 6조 6,705억 5,900만원

✦ 프리랜서 매출액은 2,332억 8,200만원, 고등교육서비스 1,861억 6,800만원

\* 주요 5개 업종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 8조 4,192억 6,500만원

## 디자인 산업 규모



\* 디자인 산업 규모 중 1인기업/프리랜서, 고등교육서비스영역은 신규로 추가된 조사영역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디자인의 효용가치(매출증대 역할)를 의미하며, 디자인의 경제학적 가치측정에 관한 연구('02)의 기 개발된 경제적 가치 측정모형을 개선하여 활용하여 측정.



### 디자인 산업 규모 추이

2010년 디자인 산업 규모는 7조 900억 900만원으로 2008년(5.2조원) 대비 3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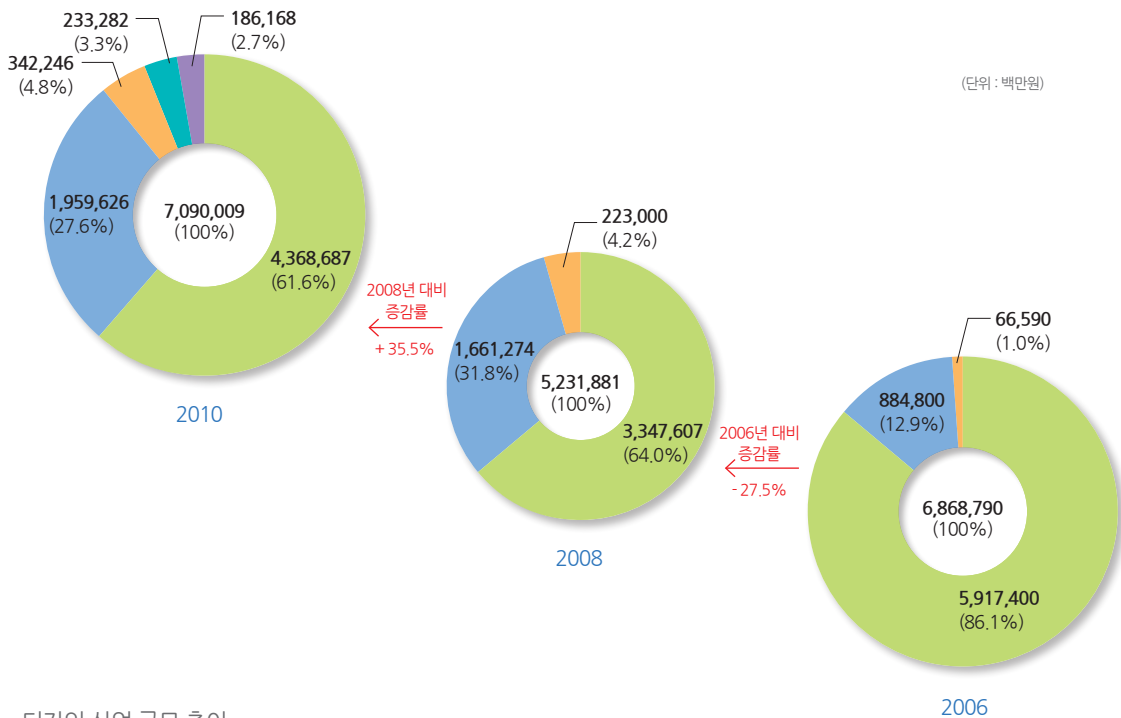
〈그림 2-2〉 '06 - '10년 분야별 디자인 산업 규모 비교

■ 합계  
■ 전문디자인기업<sup>1</sup>  
■ 프리랜서  
+ 전년대비 증감률

■ 디자인 활용기업  
■ 공공부문<sup>2</sup>  
■ 고등교육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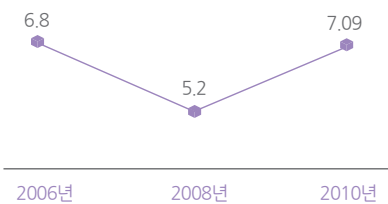
\* 프리랜서, 고등교육서비스 2010년 신규 측정

1) 전문디자인기업 산업 규모 : 전문디자인업 매출액으로 추정. 업종별/지역별/종사자수별 매출액 평균 × 모집단 수  
2) 공공부분 산업 규모 : 지자체와 정부부처 중 디자인부서가 있는 기관의 부처 예산 총합  
2008년에는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투자금액으로 추정하였음. 2008년과 2010년 추정 방법이 다름



디자인 산업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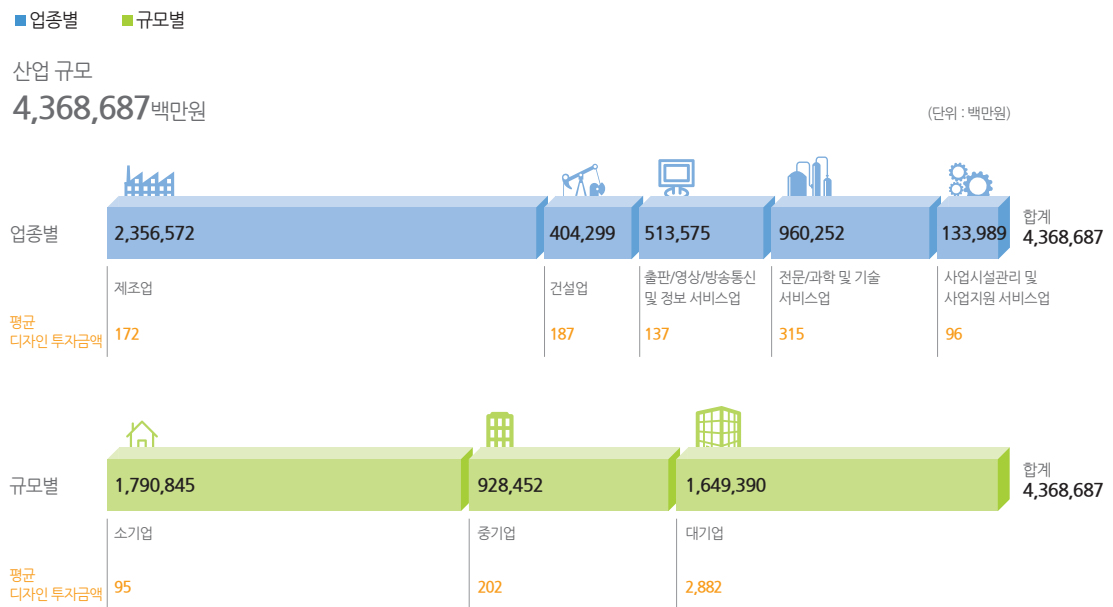




## 02-1. 5개 업종 일반기업의 디자인 산업 규모

- + 5개 업종 일반기업의 산업 규모는 4조 3,686억 8,700만원 (기업 평균 1억 8,200만원)
-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조 3,565억 7,200만원으로 디자인 활용기업 전체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603억원),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136억원) 등의 순임.

〈그림 2-3〉 '10년 5개 업종 일반기업의 디자인 산업 규모



활용 기업  
24,054개

업종별					규모별		
제조업	건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13,679개	2,166개	3,761개	3,047개	1,401개	18,871개	4,607개	576개
합계 : 24,054개					합계 : 24,054개		

\* 5개 업종 일반기업의 산업 규모는 디자인투자액으로 측정



02-2. 전문디자인기업의 디자인 산업 규모

➤ 전문디자인기업의 디자인 산업 규모는 1조 9,596억 2,600만원 (기업 평균 6억 4,8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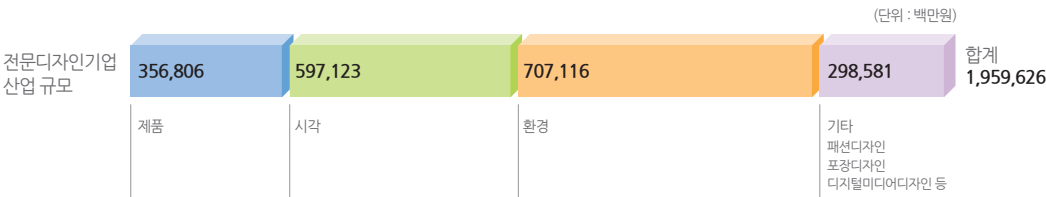
산업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환경디자인업(7,071억 1,600만원)이었고, 전문 디자인업 산업 규모의 36.1%를 차지함.

다음은 시각디자인업(5,971억 2,300만원), 제품디자인업(3,568억 600만원), 기타디자인업(2,985억 8,100만원) 순으로 높음.

<표 2-1> '10년 전문디자인기업의 디자인 산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업 수	산업규모	평균 매출액
합계	3,023	1,959,626	648.2
제품	717	356,806	497.6
시각	1,118	597,123	534.1
환경	733	707,116	964.7
기타	455	298,581	6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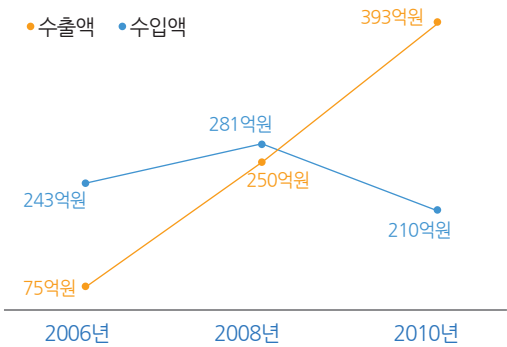


<참고 : 디자인 수입 / 수출 규모>

- 1) 디자인 수입 규모 : 210억원
- 2) 디자인 수출 규모 : 393억원

\*디자인 수입 : 5개 업종 일반기업의 디자인수입금액  
\*디자인 수출 : 전문디자인기업의 디자인수출금액

<그림 2-4> '06-'10년 디자인 수입 /수출 추이



\* 전문디자인기업의 산업규모는 매출액으로 측정



02-3 공공부문(중앙부처/지자체) 디자인 산업 규모

공공부문 디자인 산업 규모 : 3,422억 4,600만원

중앙부처 디자인 전담 부서 예산 총합 : 514억원, 지자체 디자인 전담 부서의 예산 총합 : 2,908억 4,600만원

〈표 2-2〉 공공부문 디자인 산업 규모

(단위 : 백만원)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총합	
합계	342,246
중앙부처	51,400
지자체	290,846

\* 공공부문의 디자인 산업 규모는 대상 기관 디자인 전담 부서의 예산 총합으로 함

02-4 프리랜서 디자인 산업 규모

프리랜서 디자인 산업 규모 : 2,332억 8,200만원.

\* 프리랜서 디자인 산업 규모는 2010년 지역별고용조사<sup>3)</sup> 결과를 활용하여 프리랜서 디자이너 수를 조사하고, 조사된 프리랜서 디자이너 수에 디자이너 임금율 곱하여 산업 규모를 산출함

3) 2010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승인조사(승인번호 제 10167 호). 매년 전국 175,000 가구대상 조사 임. 조사 항목 중 직업 분야 및 평균 임금에 대한 문항이 있음.



## 02-5 고등교육 서비스 영역 디자인 산업 규모

✚ 고등교육 서비스 영역 디자인 산업 규모: 1,861억 6,800만원

디자인과 교수 연봉 총계 159,570백만원, 디자인학과 연구비 총계 26,598백만원

\* 교육 부문 디자인 투자 금액 규모는 대학 디자인학과의 교원 임금 추정치와 디자인과 연구비 추정치의 합으로 산출됨

〈그림 2-5〉 대학 디자인과 교수 연봉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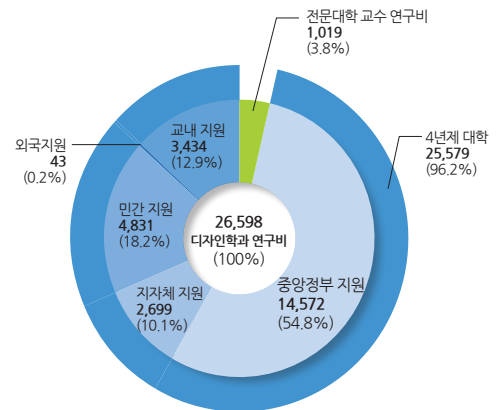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단위 : 백만원)

디자인과 교수 연봉 총계 159,570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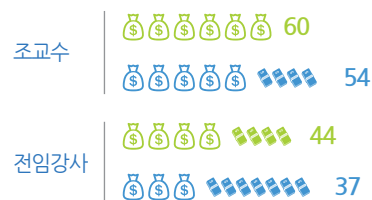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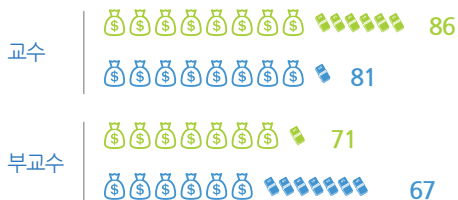
〈그림 2-6〉 디자인학과 연구비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단위 : 백만원)



- 2011년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결과, 교과부, 한국연구재단

〈참고 : 교수 연봉 평균〉



\* 교수 연봉 및 디자인과 교원 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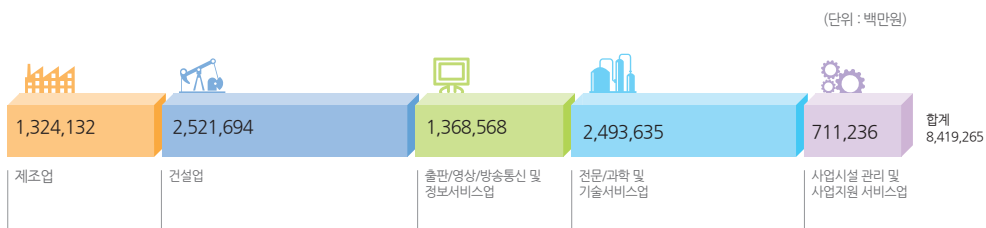
주요 5개 업종의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5개 업종에 기여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 8조 4,192억 6,500만원

〈그림 2-7〉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구분	제조업	건설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디자인투자액× 투자승수 <sup>4)</sup>	21,615,270	29,503,845	13,460,161	14,951,890	3,763,343
디자인기여율 <sup>5)</sup>	28.6%	27.5%	23.8%	31.8%	26.8%
부가가치율 <sup>6)</sup>	21.4%	31.1%	42.8%	52.4%	70.5%

- 4) 투자의 증가분에 대한 소득의 증가 비율  
 5) 디자인기여율은 디자인투자액 산출에 반영된 산업별 가중치는 반영하지 않은 수치임  
 6)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2010년,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산출함

## 〈참고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매출증대에서의 디자인 기여도를 고려함.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디자인 투자로 증가되는 각 산업별 매출액 곱하기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로  
 (디자인투자액 × 투자승수 × 디자인기여율) ×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임

$$DesignSales_i = Sales_i \cdot (\alpha + \beta_1 \Delta DC + \varepsilon_i) \cdot DF_i$$

$\Delta Sales_i$  : 해당기업의 총매출액 변화량

$\Delta DF_i$  : 매출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중 디자인의 비중

최종적인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은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 각 산업별  $DesignSales_i$  ×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

= (디자인투자액 × 투자승수 × 디자인기여율) ×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



04  
디자인관련 기업 수

27,077개

+ 2010년 디자인관련 기업 수는 27,077개로 2008년 22,684개 대비 19.3%(4,393개)증가.

일반기업 중 디자인 활용기업은 24,054개, 전문디자인기업은 3,023개로, 디자인 활용기업은 전체의 88.8%, 전문디자인기업은 전체의 11.2%를 차지함.

04-1. 디자인 활용기업 수

24,054개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활용기업 수가 13,679개로 가장 많음. 다음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761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47개, 건설업 2,166개,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401개 순임.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종에서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은 38.5%로 가장 높고, 건설업에서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은 5.7%로 가장 낮음.

<표 2-3> '10년 일반기업 중 디자인 활용기업 수

업종별

구분	일반기업 수	디자인 활용기업 수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
제조업	108,949	13,679	12.6%
건설업	37,821	2,166	5.7%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779	3,761	38.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506	3,047	14.2%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9,731	1,401	14.4%
합계	187,786	24,054	12.8%

규모별

소기업	166,692	18,871	11.3%
중기업	20,061	4,607	23.0%
대기업	1,033	576	55.8%
합계	187,786	24,054	12.8%

(단위 : 개)

디자인 활용기업 수

일반기업 수

24,054

187,786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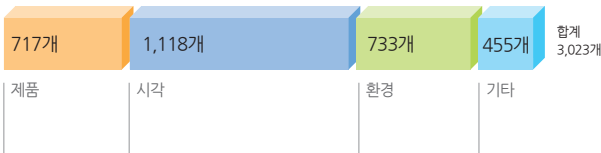


04-2. 전문디자인기업 수

3,023개

+ 전문디자인업 업종 중 기업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시각디자인(1,118개)이고, 그 다음은 환경디자인(733개), 제품디자인(717개), 기타디자인(455개) 순임.

〈그림 2-8〉 '10년 전문디자인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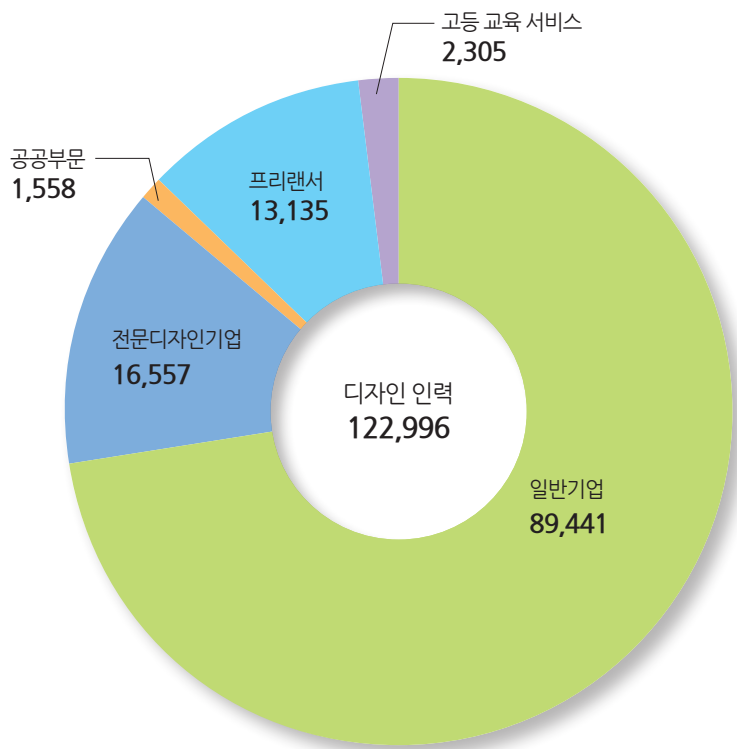
05  
디자인 인력

2010년 디자인 인력 규모 : 122,996명

- + 5개 업종 일반기업, 전문디자인기업, 공공부문(지자체, 정부부처) 디자인 고용 인력 규모 : 107,556명
- + 프리랜서 13,135명, 고등교육부문 2,305명

디자인 인력

(단위 : 명)



\* 디자인 인력 중 공공부문(정부부처, 지자체), 프리랜서와 고등교육 부분의 디자인 인력은 신규로 추가된 조사영역.



+ 2010년 디자인 산업 인력 : 122,996명

+ 디자인 활용기업 종사 디자이너 수는 89,441명, 전문디자인기업 종사자 수는 16,557명(디자이너 기준 11,477명), 공공부문의 디자인 전담 부서 직원은 1,558명, 프리랜서 13,135명, 고등교육서비스영역 디자인 교원 2,30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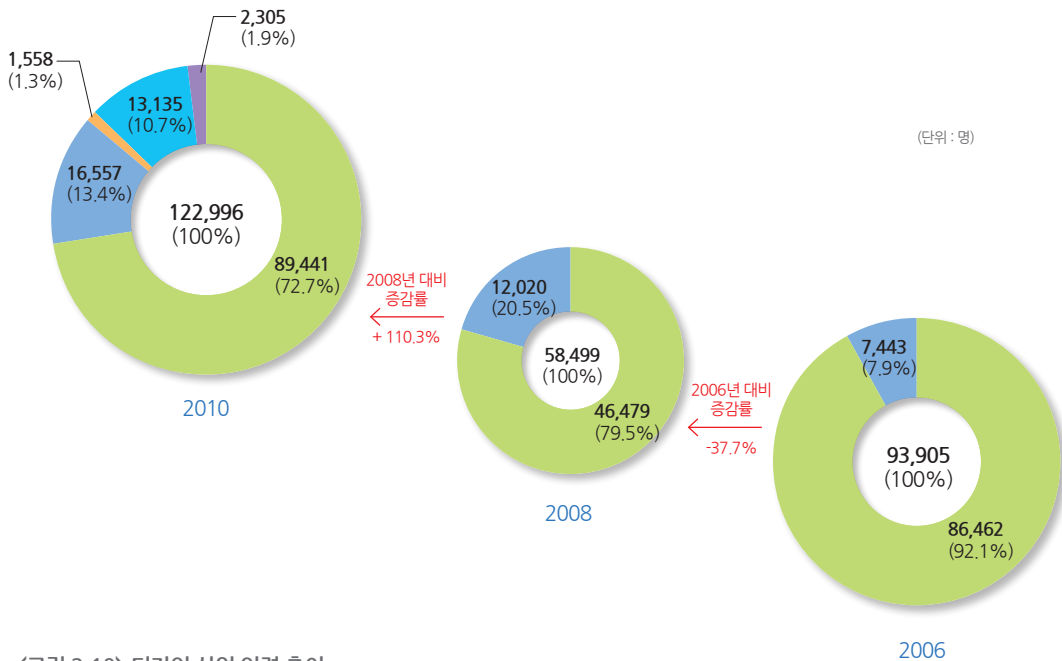
〈그림 2-9〉 '06 - '10년 분야별 디자인 산업 인력 규모 비교

■ 디자인 활용기업 ■ 전문디자인업<sup>7</sup> ■ 공공부문<sup>8</sup>  
■ 프리랜서 ■ 고등교육서비스영역 디자인 교원  
+ 전년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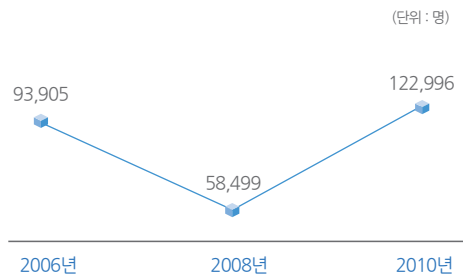
\* 프리랜서, 고등교육서비스 2010년 신규 추정

7) 전문디자인업 인력 : 전문디자인업 종사자로 추정. 업종별/권역별/종사자수별 종사자수 평균 × 모집단 수

8) 공공부문 인력 : 2008년에는 공공부문 인력이 산업 인력 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2010년 추정치에는 지자체와 정부부처의 디자인 담당부서 직원 수 총합으로 추정



〈그림 2-10〉 디자인 산업 인력 추이





05-1. 5개 업종 일반기업의 디자인 인력

+ 디자인 활용기업 중 디자이너 고용 기업의 비율은 65.0%, 이들 기업 평균 디자이너 수는 5.7명임.  
활용업체의 디자이너 수는 평균 3.7명임.

활용기업 중 디자이너 고용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89.1%)이고, 다음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3.6%)임.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84.7%로 가장 높았고, 중기업(73.4%), 소기업(62.4%) 순으로 높았음.

디자이너 고용기업 대상 디자이너 수 평균에서 제조업, 건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디자이너 수는 5명 정도로 비슷하였으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9.5명으로 타 업종 대비 디자이너가 많음. 한편,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2.2명임.

<표 2-4> 평균 디자이너 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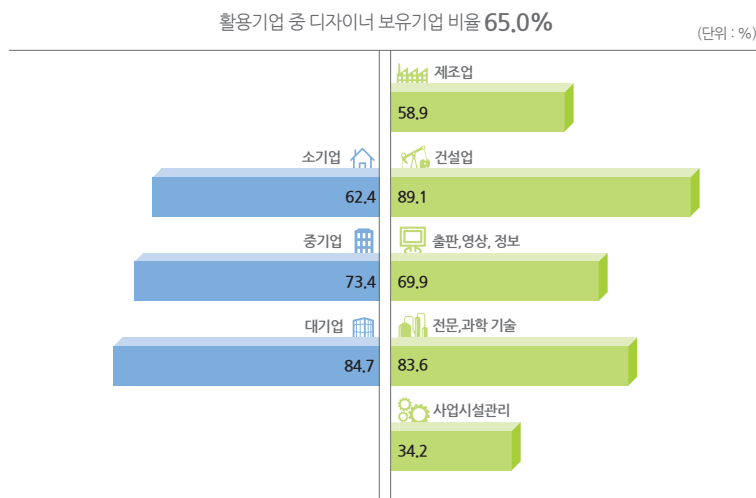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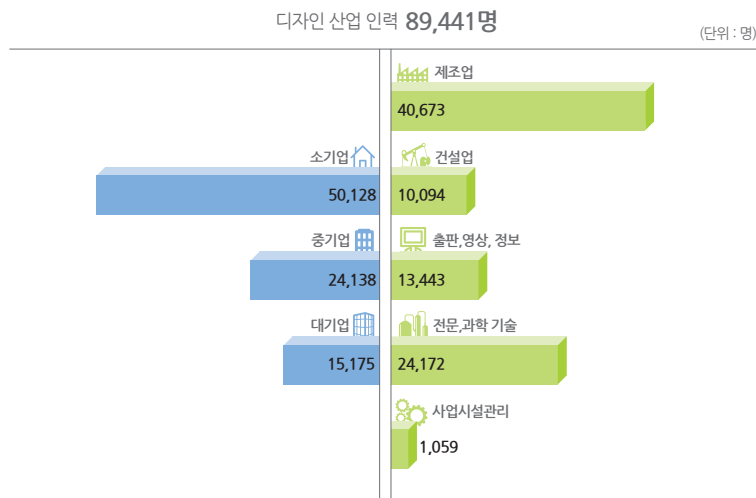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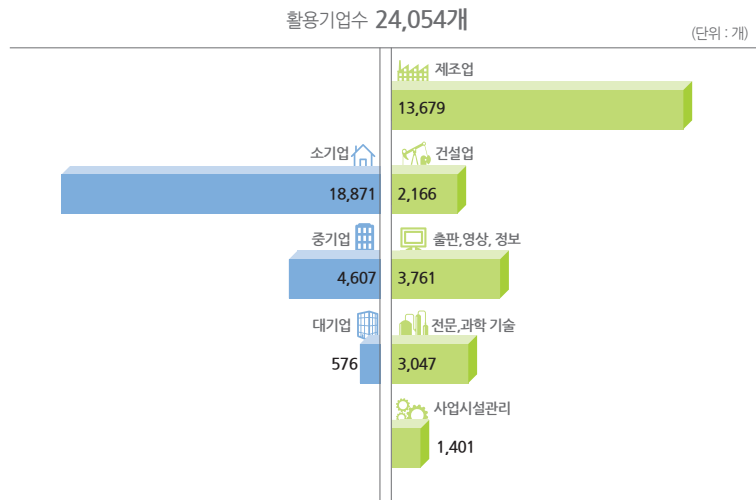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제조업	건설업	출판/영상/정보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 관리	합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합계
디자이너 보유기업 대상	5.1	5.2	5.1	9.5	2.2	5.7	4.3	7.1	31.5	5.7
활용기업 전체 대상	3.0	4.7	3.6	7.9	0.8	3.7	2.7	5.2	26.7	3.7

+ 디자인 활용기업의 디자인인력  
제조업의 디자인인력이 40,67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4,172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3,443명), 건설업(10,094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059명) 순임.



〈그림 2-11〉 '10년 디자인 활용기업 및 디자인 인력 규모

■ 규모별 ■ 업종별





## 05-2. 전문디자인기업의 디자인 인력

✚ 전체 인력(종사자기준)은 16,557명으로 2008년 12,020명 대비 37.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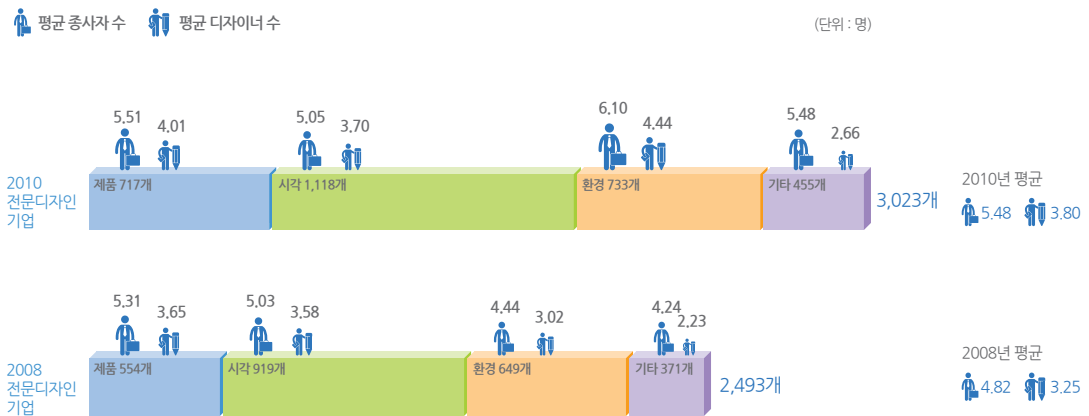
전문디자인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5.48명 (전문디자이너는 전체 11,477명으로 평균 3.80명).

종사자 기준 업종별 분포는 시각디자인업 5,644명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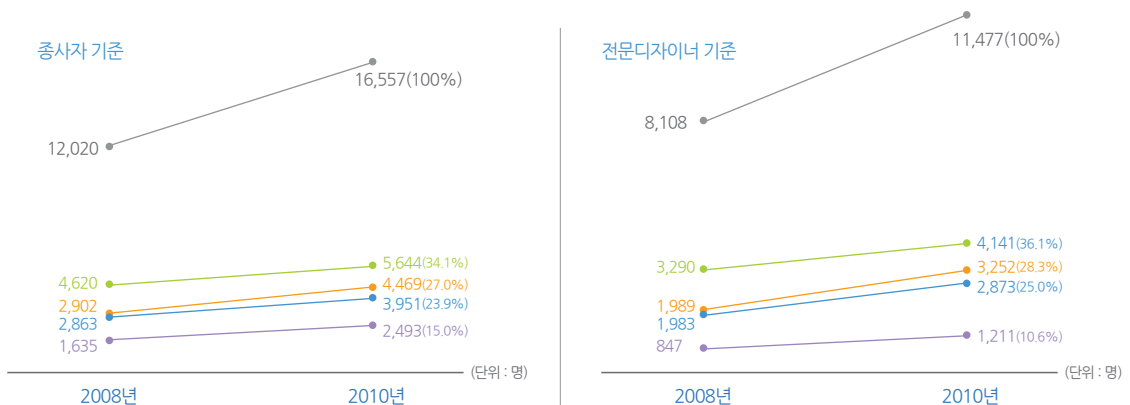
다음은 환경디자인업 4,469명으로 전체의 27.0%임.

(디자이너 기준으로 시각디자인업(4,141명)에 종사하는 디자이너 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환경디자인(3,252명)임).

〈그림 2-12〉 '10년 '08년 전문디자인기업의 디자인 인력 규모 비교(종사자 기준)



인력 (비중)    ● 합계    ● 제품    ● 시각    ● 환경    ● 기타





### 05-3. 공공부문(중앙부처, 지자체)의 디자인 인력

✚ 공공부문 디자인 관련 인력 규모 : 1,558명

중앙부처 디자인 전담 부서 직원 수 총합은 53명, 지자체 디자인 전담 부서 직원 수 총합은 1,505명

〈그림 2-13〉 공공부문 디자인 인력 현황



### 05-4. 프리랜서 디자이너 수

✚ 프리랜서 수 : 13,135명

✚ 2010년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 전문디자인업 종사자수: 16,557명, 일반기업 디자이너 수: 89,441명
- 전문디자인업 중 고용원이 없는 기업수: 601개 기업. (200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 프리랜서 수는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규모를 추정하여 기존 추정치와 중복되는 인력을 제외하여 최종 산출함.

$$\text{프리랜서 수 추정산식} = \frac{\text{전문디자인업 종사자 수 \& 일반기업 디자이너 수 추정치} \times \frac{\text{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A)}{\text{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외(B)}}}{\text{전문디자인업 중 종사자가 0인인 기업 수}}$$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A)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외(B) = 24,206 / 186,789 = 13%

### 05-5. 고등교육서비스 영역 디자인 인력

✚ 고등교육서비스 영역 인력 규모 : 2,305명

〈그림 2-14〉 ‘10년 대학 디자인과 교원 수



\* 고등교육서비스 영역 인력 규모는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대학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수의 합으로 산출







### III

## 세부 조사 결과 요약



디자인활용기업

01  
디자인 활용 현황

1) 디자인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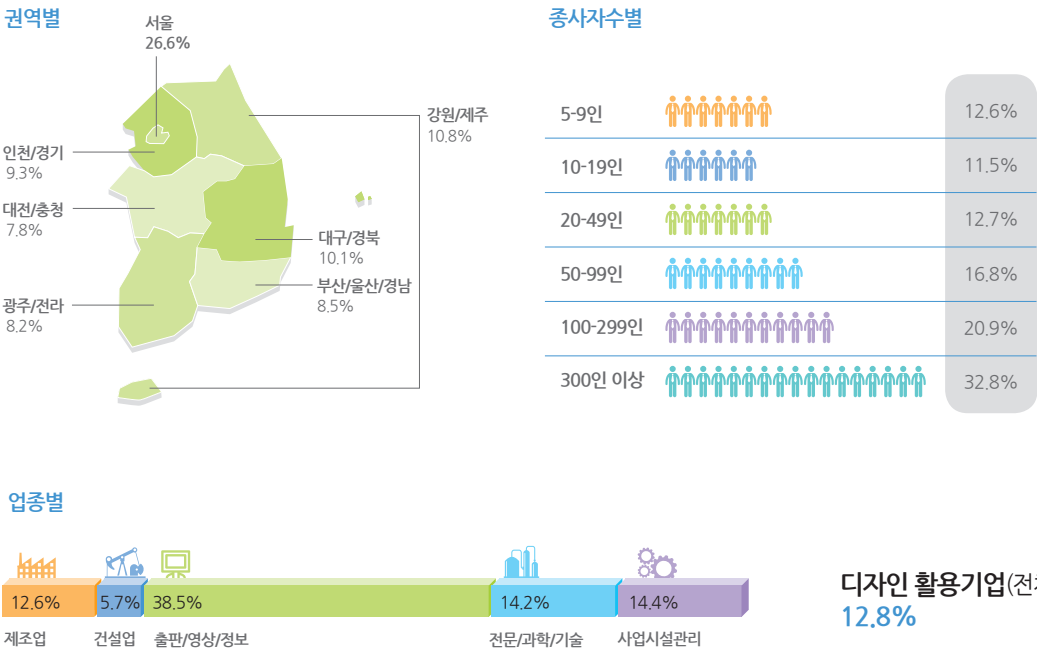
✚ 조사 대상 5개 업종의 일반기업 중 디자인 활용기업은 12.8%임.

권역별로 서울이 26.6%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디자인 활용기업이 많고, 업종별로는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sup>1)</sup>이 38.5%로 업종 중 디자인 활용을 가장 많이 함.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sup>2)</sup> 중 디자인 활용업체 비율은 14.2%,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sup>3)</sup>은 14.4%로 비슷하였고, 제조업은 12.6%. 건설업은 5.7%임.

- 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이후 '출판/영상/정보업'으로 표기
- 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이후 '전문/과학/기술업'으로 표기
- 3)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이후 '사업시설관리업'으로 표기

종사자수 별로는 전반적으로 종사자가 많을수록 디자인 활용 비율도 높은 가운데, 49인 이하는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이 11% ~ 12%대로 비슷함. 300인 이상 대기업의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은 32.8%임.

<그림 3-1> 디자인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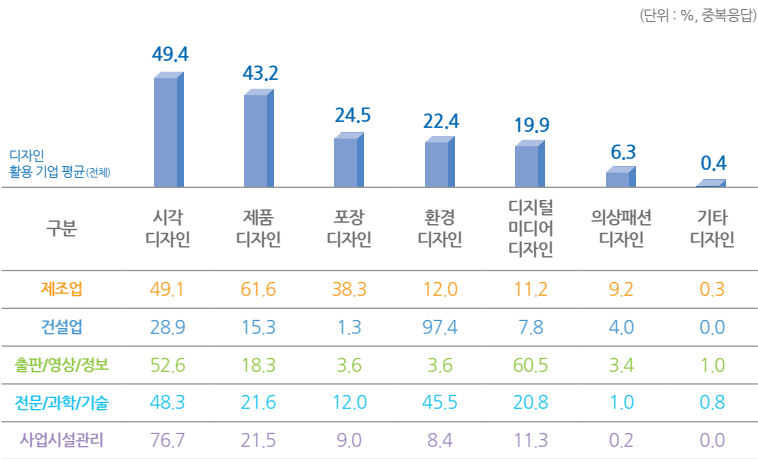


2) 디자인 활용 분야

+ 일반기업의 디자인 활용분야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시각디자인이 49.4%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제품디자인'(43.2%), '포장디자인'(24.5%), '환경디자인'(22.4%) 등의 순임.

업종별로,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시각디자인'분야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사업시설관리(76.7%)에서의 '시각디자인'분야 활용률이 높음. 한편, 건설업은 '환경디자인' 분야의 활용률이 97.4%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업종과 차이를 보임.  
제조업에서는 '제품디자인'(61.6%), '포장디자인'(38.3%)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출판/영상/정보업에서는 '디지털미디어디자인'의 활용률이 60.5%로 높음.

<표 3-1> 디자인 활용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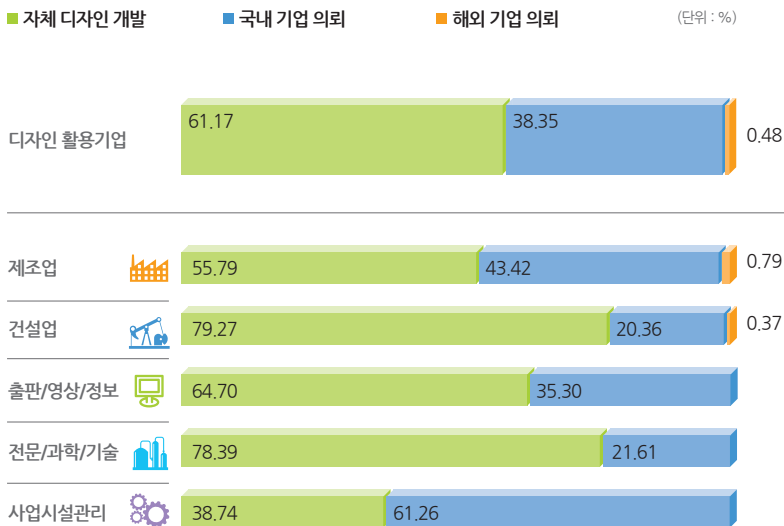
### 3) 사내/외부 인력 활용 비중

#### ✚ 디자인 개발 시 사내인력과 외부인력의 활용 비중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내 인력을 활용한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기업 평균 61.17%, '국내 기업 의뢰' 비중은 평균 38.35%임. '해외 기업 의뢰' 비중은 평균 0.48%임.

업종별로는 사업시설관리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으며, 특히 건설업(79.27%), 전문/과학/기술업(78.39%)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사업시설관리는 '국내 기업 의뢰' 비중이 61.26%로 '자체 디자인 개발'(38.74%) 비중 보다 높음.

〈그림 3-2〉 디자인 개발 시 사내 / 외부인력 활용 비중





## 02

## 디자인 투자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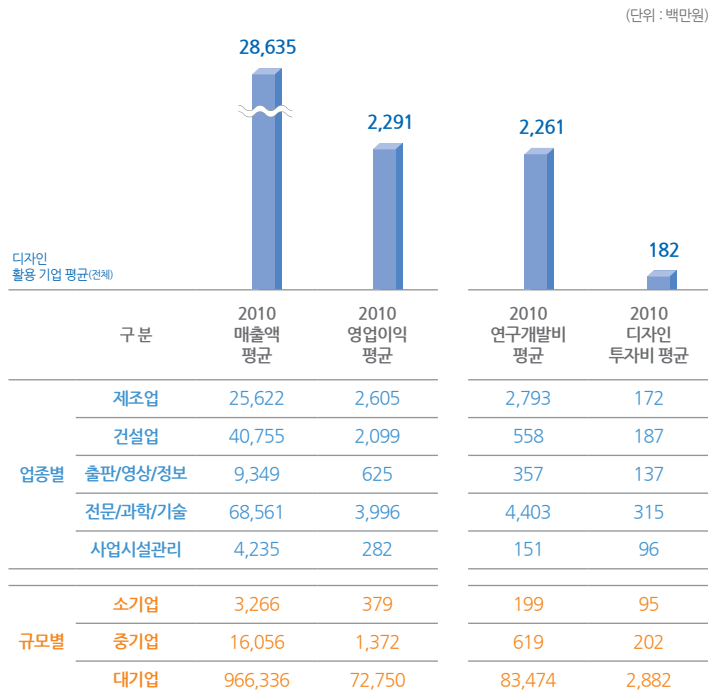
## 1) 2010년 기업 디자인 투자 현황

- ✚ 디자인 활용기업의 2010년 매출액은 평균 286억 3,500만원, 영업이익은 평균 22억 9,100만원, 연구개발비는 평균 22억 6,100만원, 디자인 투자비는 평균 1억 8,200만원임.

업종별로 보면, 전문/과학/기술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디자인 투자비 평균이 가장 높았고, 사업시설관리업이 가장 낮음.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클수록 매출액,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디자인 투자비 평균이 큼.

〈표 3-2〉 2010년 기업 디자인 투자 현황



\* 5개업종 일반기업의 산업 규모는 디자인투자액으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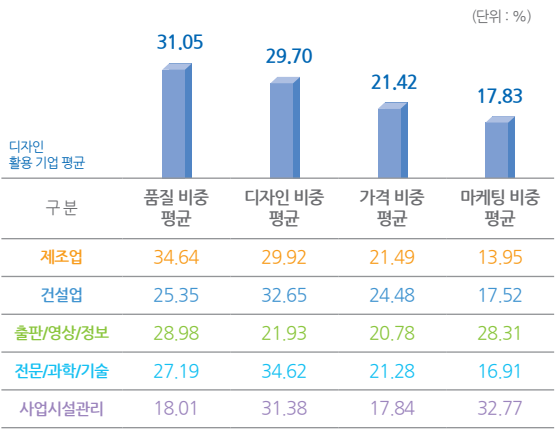


2)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중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품질’(31.05%)과 ‘디자인’(29.70%) 비중이 가장 높음. ‘가격’의 비중은 21.42%, ‘마케팅’의 비중은 17.83%임.

업종별로는 ‘디자인’은 전문/과학/기술업(34.62%)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이며, ‘품질’은 제조업(34.64%)에서, ‘마케팅’은 사업시설관리(32.77%)에서 높은 특징을 보임.

〈표 3-3〉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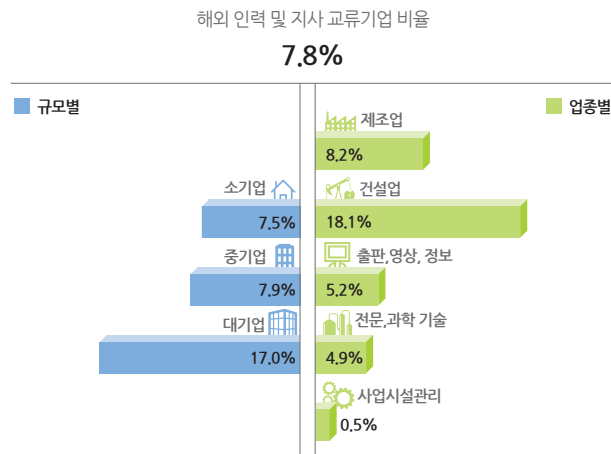


### 03 디자인 역량

#### 1) 해외 인력 및 지사 교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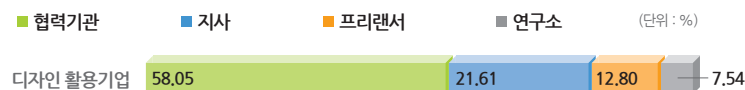
- + 해외 디자인 정보 수집 및 개발을 위해 해외 지사가 있거나, 해외 관련 기관 혹은 해외 인력과 교류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7.8%였음.
- 업종별은 건설업(18.1%)이 상대적으로 해외 교류가 많고, 사업시설관리업(0.5%)이 가장 적음. 규모별로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해외 교류 비율은 7%대로 유사한 반면, 대기업의 해외 교류 비율은 17.0%로 타 규모 대비 10% 정도 높음.

〈그림 3-3〉 해외 인력 및 지사 교류기업 비율



- + 해외 교류 방법으로는 ‘협력기관’을 통한 교류 비중이 평균 58.05%으로 가장 높고, 이어 ‘지사’ (21.61%), ‘프리랜서’(12.80%), ‘연구소’(7.54%) 순이었음.

〈그림 3-4〉 해외 교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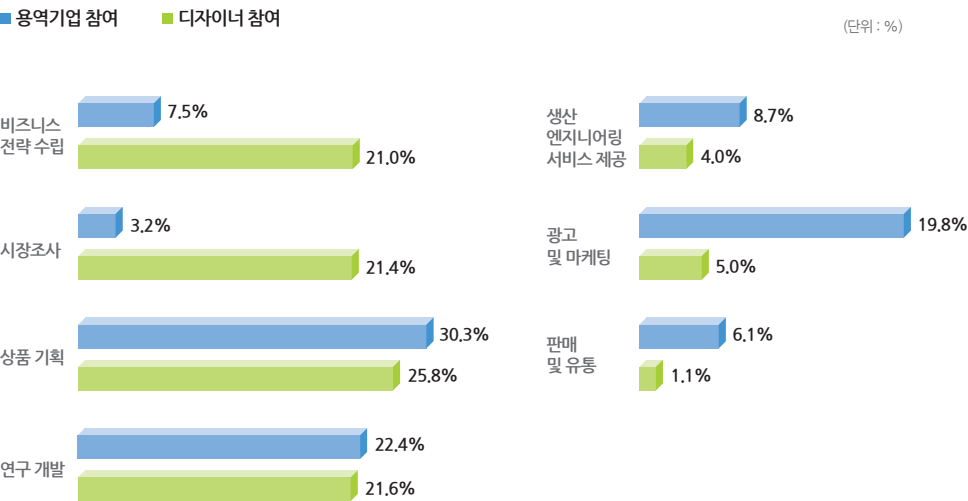


2)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용역기업 참여 단계

+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중 자사 디자이너 참여 단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품 개발 초반인 ‘비즈니스 전략수립’(21.0%), ‘시장조사’(21.4%), ‘상품기획’(25.8%), ‘연구개발’(21.6%) 단계에 집중됨.

반면 용역기업은 ‘상품기획’(30.3%), ‘연구개발’(22.4%), ‘광고 및 마케팅’(19.8%) 의 개입 비중이 높고, ‘비즈니스 전략수립’(7.5%), ‘시장조사’(3.2%) 단계 참여는 낮음.

〈그림 3-5〉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용역기업 참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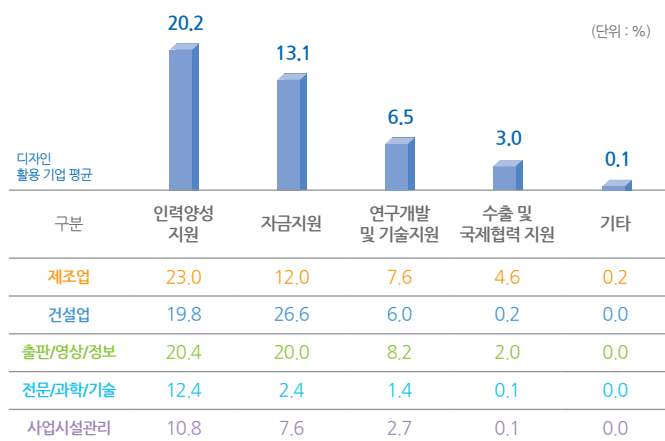




### 3) 디자인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 경험

- + 각 정부 지원 내용별로 디자인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력양성 지원(재교육 등)'을 받은 기업 비율은 20.2%, '자금지원(융자, 출연금 등)'을 받은 기업 비율은 13.1%,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받은 기업 비율은 6.5% 등으로 나타남.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인력양성 지원'(23.0%) 비율이 높은 반면, 건설업과 출판/영상/정보업은 상대적으로 '자금 지원'(각각 26.6%, 20.0%)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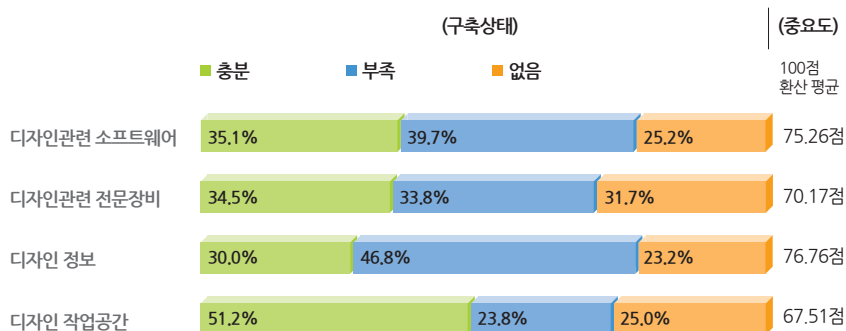
〈표 3-4〉 디자인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 경험 비율



### 4)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중요도

- + 디자인 관련 자원 및 시스템 구축 현황 조사 결과, 디자인 작업공간을 제외한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전문 장비, 디자인 정보는 없거나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 특히 디자인 정보는 중요도가 76.76점(100점 환산 기준)으로 자원 중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46.8%로 매우 높음. 반면, 디자인 작업공간(67.51점)은 중요도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51.2%로 가장 높음.

〈그림 3-6〉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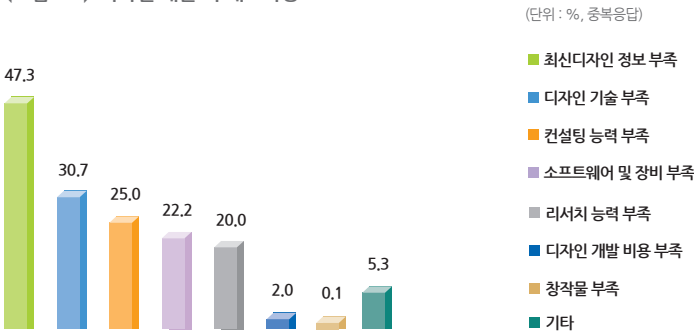




5)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중복응답 기준)으로 '최신 디자인 정보 부족'이 47.3%로 가장 높음.  
다음은 '디자인 기술 부족'(30.7%), '컨설팅 능력 부족'(25.0%) 등의 순으로 높음.

<그림 3-7>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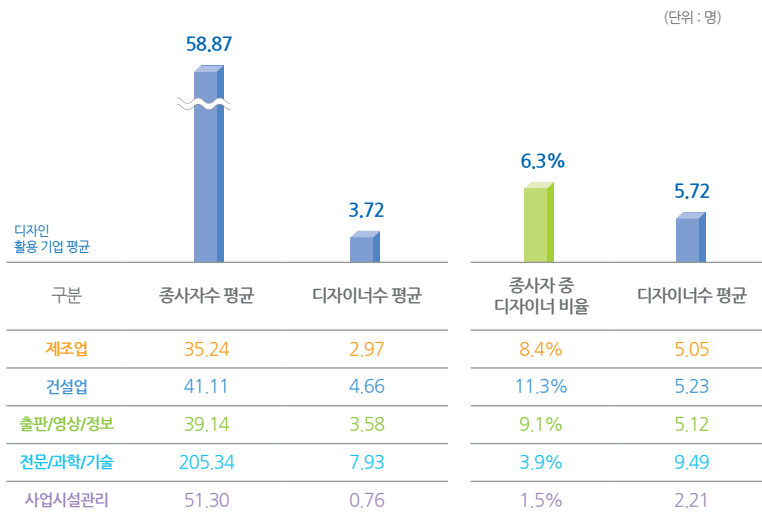


## 04 인력 현황

### 1) 종사자 및 디자이너 현황

- 디자인 활용기업의 종사자 수는 1개 기업당 평균 58.87명, 디자이너 수는 평균 3.72명으로 종사자수 중 디자이너 비율은 6.3%임.  
한편, 디자인 활용기업 중 자체 인력 없이 외주만 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디자이너를 고용한 기업 대상으로 디자이너 수를 구하면 기업 평균 5.72명임.
- 디자인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디자이너 수를 분석해 보면 전문/과학/기술업의 디자이너 수가 평균 7.9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건설업(4.66명)으로 나타남. 사업시설관리업의 디자이너 수는 0.76명으로 가장 적음.
- 종사자 중 디자이너 비율은 건설업(11.3%)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출판/영상/정보업(9.1%)으로 나타남. 전문/과학/기술업(3.9%), 사업시설관리업(1.5%)은 5% 미만.

〈표 3-5〉 종사자 및 디자이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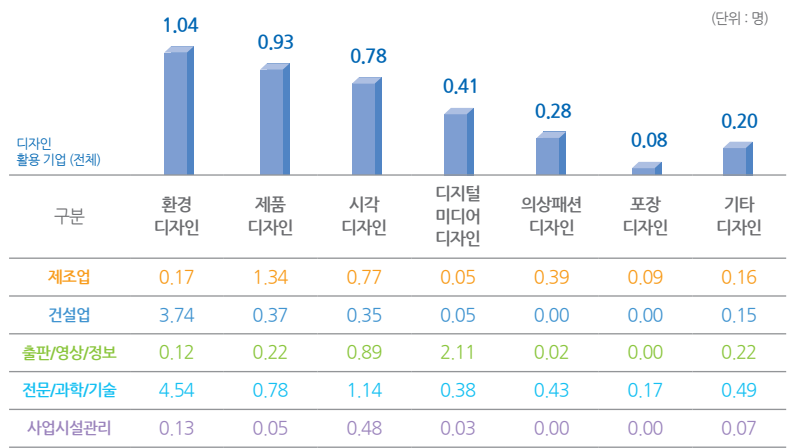




+ 디자인 활용기업의 디자이너 수(평균 3.72)를 디자인 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환경디자인'이 평균 1.04명으로 디자인 영역 중 '환경디자인' 영역에서 가장 많은 디자이너가 활동하고 있음. '제품디자인'(0.93명), '시각디자인'(0.78명), '디지털미디어디자인'(0.41명) 등의 순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제품디자인 영역의 디자이너(1.34명)가 상대적으로 많음.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업은 환경디자인 영역의 디자이너(각각 3.74명, 4.54명), 출판/영상/정보업은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영역의 디자이너(2.11명)가 상대적으로 많음.

<표 3-6> 디자인 활용기업의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 2) 디자이너 평균 근속 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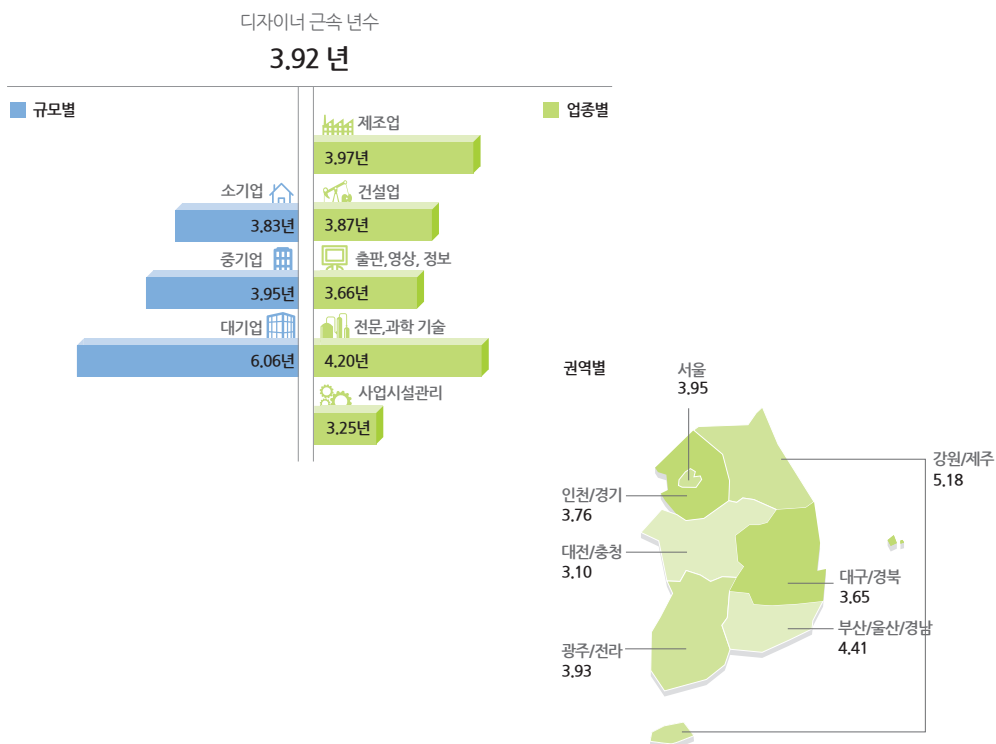
+ 디자인 활용기업의 디자이너 근속 년수는 평균 3.92년임.

권역별로 보면, 강원/제주의 디자이너 근속 년수는 평균 5.18년으로 가장 길고, 대전/충청이 평균 3.10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권역 간에 최장 평균 2년 정도의 근속년수 차이가 있음.

업종별로는 전문/과학/기술업 종사 디자이너의 근속 년수가 평균 4.20년으로 가장 길고, 다음은 제조업(3.97년), 건설업(3.87년), 출판/영상/정보업(3.66년), 사업시설관리업(3.25년) 순임.

규모별로 보면 소기업, 중기업 디자이너 근속 년수는 평균 4년 정도(각각 3.83년, 3.95년)로 비슷하고, 대기업의 근속년수가 평균 6.06년으로 타 규모 대비 평균 2년 정도 김.

〈그림 3-8〉 디자이너 평균 근속 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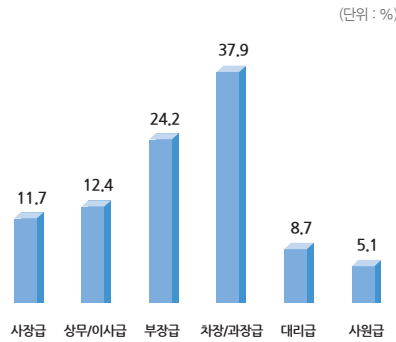




3) 디자인 관련 부서 총괄 책임자의 직위 및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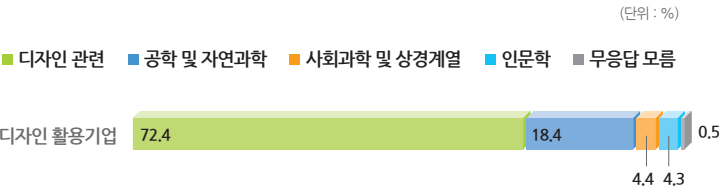
+ 디자인부서가 있는 경우 디자인 관련부서의 총괄 책임자의 현재 직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차/과장급’이 37.9%로 가장 많음. 다음은 ‘부장급’ 24.2%, ‘사장급’은 11.7%, ‘상무/이사급’은 12.4%임.

<그림 3-9> 디자인 관련 부서 총괄 책임자의 직위



+ 전공별로 보면,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의 72.4%가 디자인 관련 전공을 함. ‘공학 및 자연과학’ 전공자는 18.4%, ‘사회과학 및 상경계열’은 4.4%, ‘인문학’은 4.3%임.

<그림 3-10> 디자인 관련 부서 총괄 책임자의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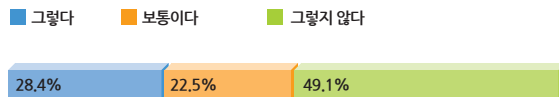


#### 4) 디자인 부서 인력 전공의 다양성 및 필요한 타 전공 인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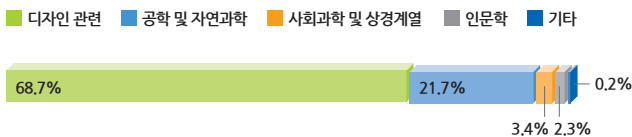
- + 디자인 부서가 있는 경우 디자인 부서는 디자인 전공뿐만 아니라 타 전공까지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로 구성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49.1%로 ‘그렇다’(28.4%), ‘보통이다’(22.5%) 보다 많은 것으로, 디자인 부서 인력 전공이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디자인 부서가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타 전공 인력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디자인 관련’이 68.7%로 대다수였고, 차 순위는 ‘공학 및 자연과학’(21.7%)이었음.  
그 외 ‘사회과학 및 상경계열’(3.4%), ‘인문학’(2.3%)은 5% 미만에 그침.

〈그림 3-11〉 디자인 부서 인력 전공의 다양성 및 필요 타인력 분야

디자인 부서 인력 전공의 다양성



필요 타인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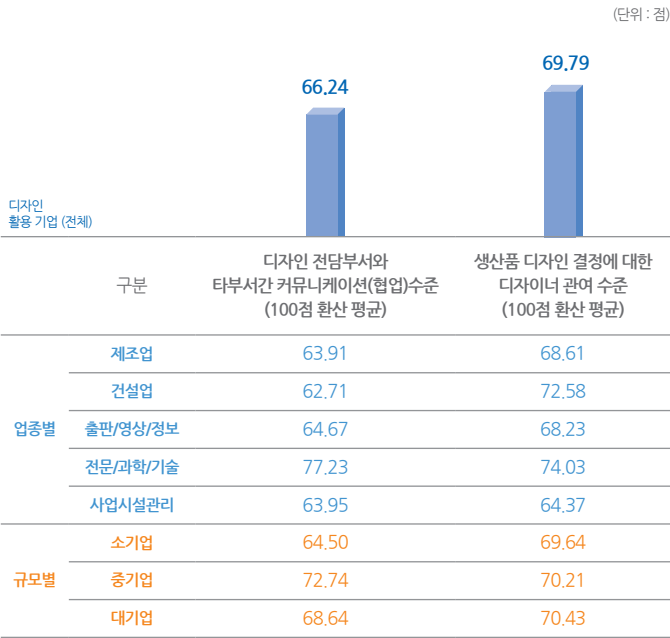




5) 사내 디자이너 위상

- 사내 디자이너 위상을 평가하기 위해 디자인 부서가 있는 경우 디자인 전담부서와 타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협업) 수준 및 생산품 디자인 결정에 디자이너 관여 수준에 대해 평가한 결과 100점 환산 기준 각각 66.24점, 69.79점으로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음.
- 업종별로는 전문/과학/기술업(각각 77.23점, 74.03점)의 평가 점수가 타 업종 대비 높음.

〈표 3-7〉 사내 디자이너 위상





## 05

## 디자인 재교육 관련

## 1) 디자인 재교육 현황

- ✚ 실무 중심 디자인 재교육 경험이 있는 기업 비율은 28.1%, 이론 중심 디자인 재교육 경험이 있는 기업 비율은 23.5%임.

실무 중심의 교육은 '위탁교육'(15.8%), '특강'(12.0%), '해외연수'(6.1%) 순으로 나타남. 이론 중심의 교육 역시 '위탁교육'(12.8%), '특강'(10.6%), '해외연수'(5.3%)순임.

업종별로 디자인 재교육 경험 비율을 비교해 보면 건설업에서 실무(33.3%) 및 이론(36.2%) 재교육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출판/영상/정보업은 이론(18.9%) 재교육 비율이, 사업시설관리업은 실무(21.8%) 재교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실무(54.2%) 및 이론(53.6%) 재교육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타 계층 대비 매우 높았고, 소기업과 중기업의 재교육 수준은 비슷하게 나타남.

〈표 3-8〉 디자인 재교육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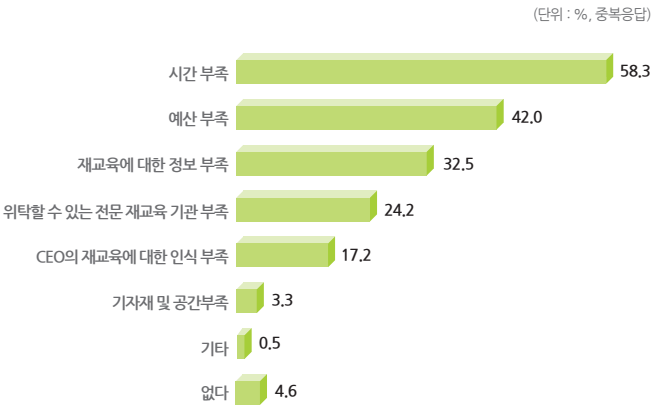
구분		실무중심 교육 경험 비율	이론중심 교육 경험 비율
업종별	제조업	26.5	20.6
	건설업	33.3	36.2
	출판/영상/정보	29.2	18.9
	전문/과학/기술	29.3	27.8
	사업시설관리	21.8	23.5
규모별	소기업	26.8	23.2
	중기업	28.9	20.3
	대기업	54.2	53.6



2) 재교육 시 애로사항

+ 재교육 애로사항(중복응답 기준)으로 '시간 부족'이 58.3%로 가장 높음.  
다음은 '예산 부족'(42.0%), '재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32.5%), '위탁할 수 있는 전문 재교육 기관 부족'(24.2%), 'CEO의 재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17.2%) 등의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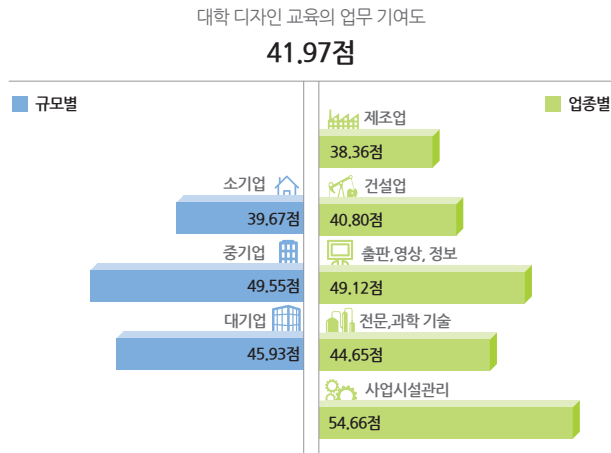
<그림 3-12> 재교육 시 애로사항



3)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 대학에서의 디자인 교육이 실제 디자인 업무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평가한 결과100점 환산 기준 41.97점으로,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제조업(38.36점)의 평가가 가장 낮은 반면 출판/영상/정보업(49.12점), 사업시설관리업(54.66점)의 평가가 타 업종 대비 높음.  
규모별로는 중기업(49.55점)의 기여도 평가가 타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13>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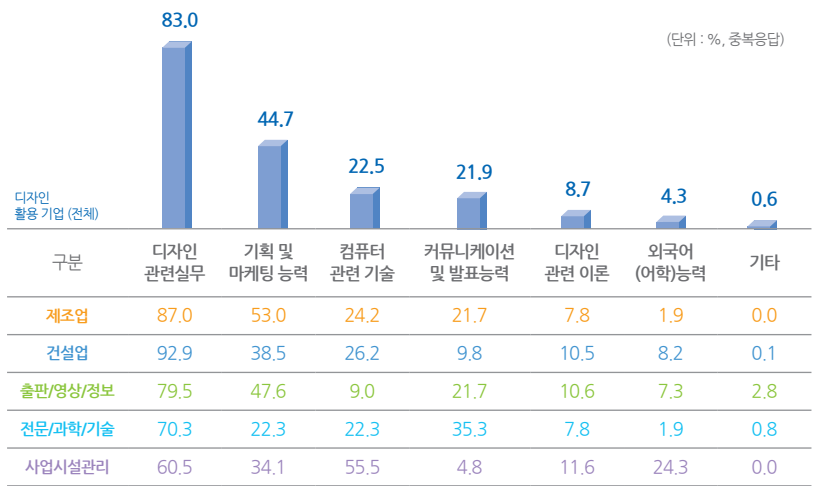


4)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중복응답 기준)으로 대부분이 ‘디자인 관련 실무’(83.0%)로 응답.  
‘기획 및 마케팅 능력’(44.7%), ‘컴퓨터 관련 기술’(22.5%),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21.9%) 등의 순임.

업종별로는 ‘디자인 관련 실무’는 건설업(92.9%)에서 더욱 높았고,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은 제조업(53.0%)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은 사업시설관리업(55.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3-9〉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전문 디자인 기업

01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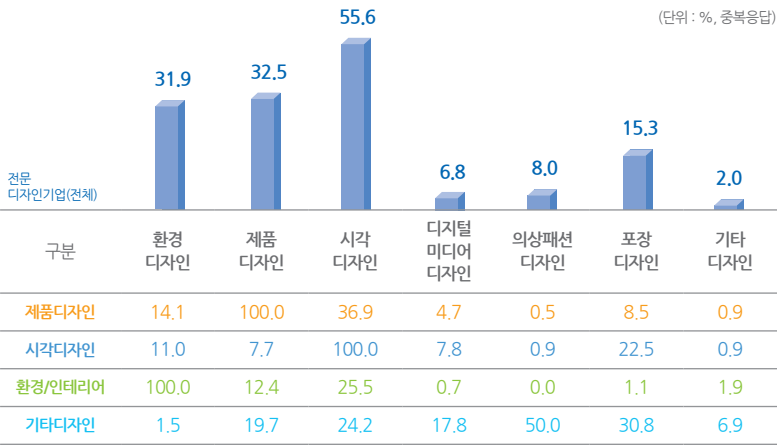
1) 국내기업/ 외국계기업 구분

전문디자인기업 3,023개 중 99.2%는 ‘국내기업’, 0.8%는 ‘외국계 기업’임.

2) 전문디자인기업 디자인 서비스 분야별 분포

전문디자인기업에서 주로 서비스하는 디자인 분야(중복응답 기준)를 보면 ‘시각디자인’이 55.6%로 가장 많고, 다음은 ‘제품디자인’(32.5%)임. 이어, ‘환경디자인’(31.9%), ‘포장디자인’(15.3%) 등의 순으로 높음.

〈표 3-10〉 전문디자인기업 서비스 분야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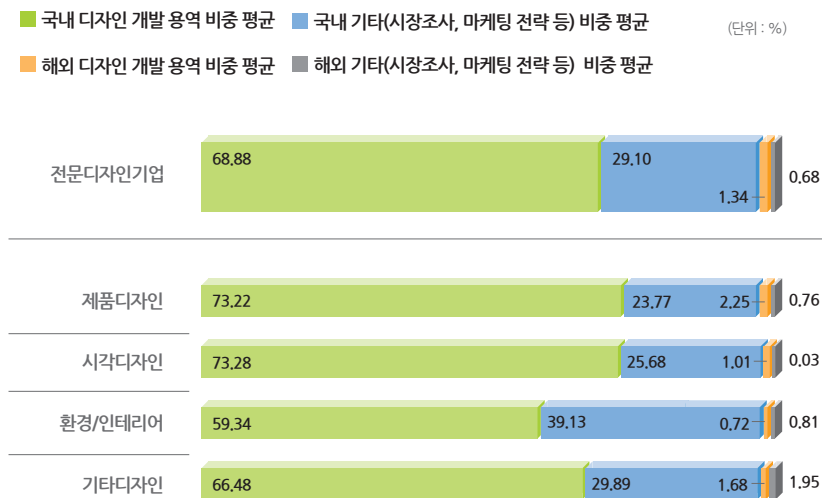


### 3)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비중

- ✚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에 대한 조사 결과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 비중이 평균 68.88%로 가장 높음. ‘국내 기타’ 비중은 평균 29.10%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대다수였음. ‘해외 디자인 개발 용역’ 비중은 평균 1.34%, 해외 기타는 0.68%에 그침.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 비중은 제품디자인업(73.22%), 시각디자인업(73.28%)에서 더욱 높고, ‘국내 기타’ 비중은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39.1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14〉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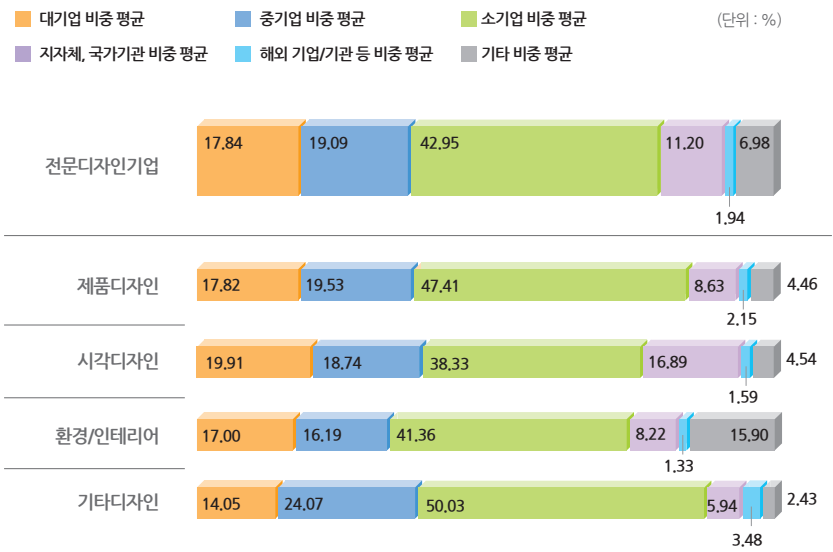


4) 매출액 기준 고객 구성 비중

+ 매출액 기준 고객 구성 비중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기업’ 비중이 평균 42.95%로 가장 높음. 다음은 ‘중기업’(19.09%), ‘대기업’(17.84%), ‘지자체, 국가기관’(11.20%) 등의 순임.

모든 업종에서 ‘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제품디자인업(47.41%), 기타디자인업(50.03%)에서 더욱 높음. ‘중기업’은 기타디자인업(24.07%)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지자체, 국가기관’은 시각디자인업(16.8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15〉 매출액 기준 고객 구성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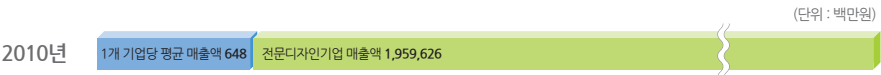




## 02 매출액, 자본금 및 투자 현황

2010년 매출액, 자본금 및 디자인 투자비

+ 전문디자인기업의 2010년 총 매출액은 1조 9,596억 2,600만원,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6억 4,824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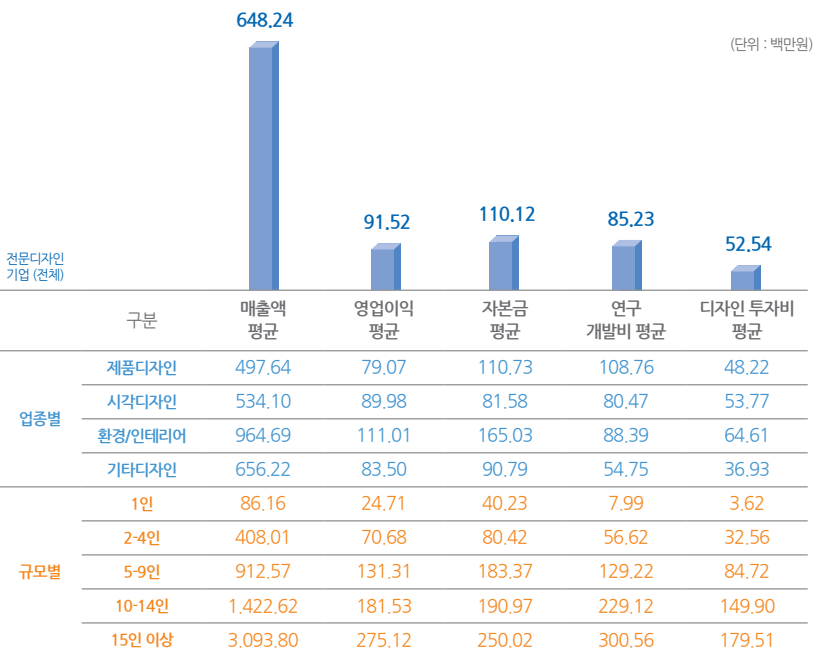


- + 자본금은 기업 평균 1억 1,012만원임.
- + 연구개발비는 평균 8천 523만원이었고, 디자인 투자비는 평균 5천 254만원임.
- +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자본금 평균은 환경/인테리어 디자인업이 가장 높았으나 연구개발비는 제품디자인업이 가장 큼.

한편 디자인 투자비가 가장 큰 업종은 환경/디자인업으로 기업 당 평균 연간 6,461만원을 투자함.

규모별로 분석해 보면 규모가 클수록 매출액, 자본금 및 투자 금액도 많음.

〈표 3-11〉 2010년 재무 및 디자인 투자 현황





## 03

## 디자인 기반 역량

## 1)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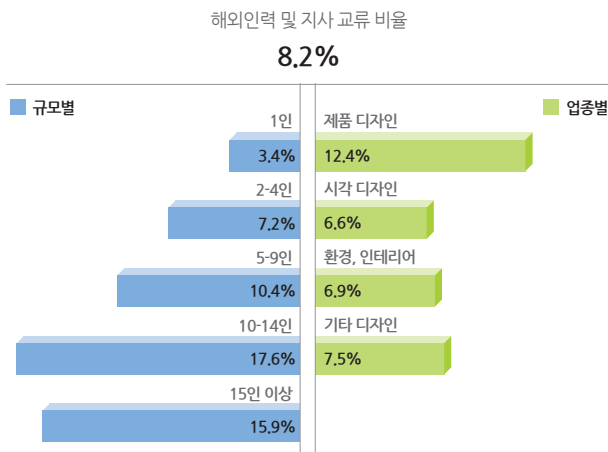
- 해외 디자인 정보 수집 및 개발을 위해 해외 지사가 있거나, 해외 관련 기관 혹은 해외 인력과 교류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8.2%로, 대부분의 전문디자인기업(91.8%)는 해외 인력 및 지사와 교류하고 있지 않음.

업종별로 보면 제품디자인업(12.4%)이 상대적으로 해외 교류가 많고, 시각디자인업(6.6%)이 가장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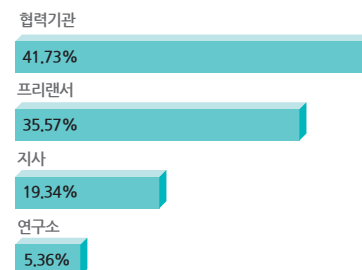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해외 교류 비율도 높은 경향을 보임.

- 해외 교류 방법으로는 '협력기관'(41.73%)을 통한 교류가 가장 많고, 다음은 '프리랜서'(33.57%)로 나타남. 이어, 지사(19.34%), 연구소(5.36%) 순임.

〈그림 3-16〉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비율



〈그림 3-17〉 해외 인력 지사 교류 방법



- 해외 지사 및 기관과 교류하는 지역으로는 중국이 5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주'(35.2%)와 '유럽'(31.7%), '동남아'(9.8%), '일본'(6.5%) 순으로 나타남.



2)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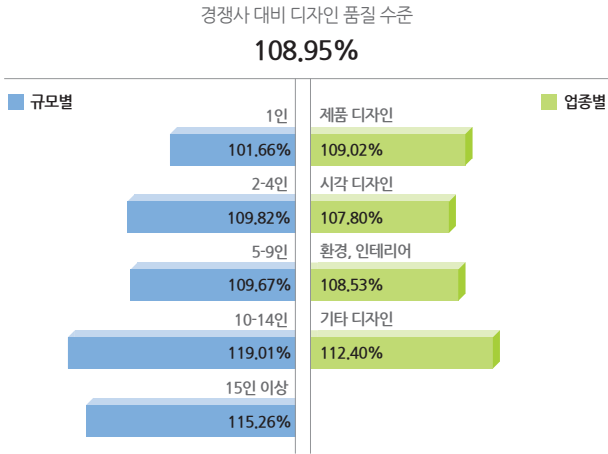
✚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수준<sup>6</sup>은 평균 108.95%로, 자사 디자인 품질 수준이 경쟁사에 비해 더 높다고 평가.

6) 경쟁사와 대등한 수준이면 100%, 경쟁사 보다 뛰어난 수준이면 100%초과, 경쟁사보다 낮은 수준이면 100%미만의 수치로 작성

모든 업종에서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가운데 기타디자인업(112.40%)에서 더욱 높음.

규모별로도 모두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나, 1인기업의 경우 101.66%로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3-18>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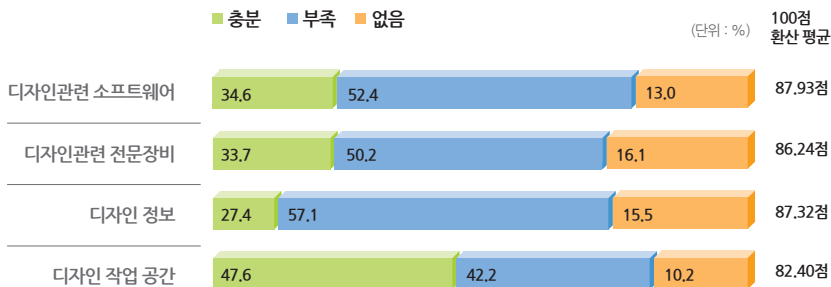




### 3)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중요도

- + 디자인 관련 자원 구축 상태 조사 결과, 디자인 작업 공간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47.6%로 가장 많은 반면 그 외 디자인관련 소프트웨어, 디자인관련 전문장비 및 디자인 정보 자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 + 자원에 대한 중요도는 모두 80점(100점 환산 기준)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87.93점)가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구축 상태가 양호한 디자인 작업 공간(82.40점)이 중요도는 가장 낮음.

〈그림 3-19〉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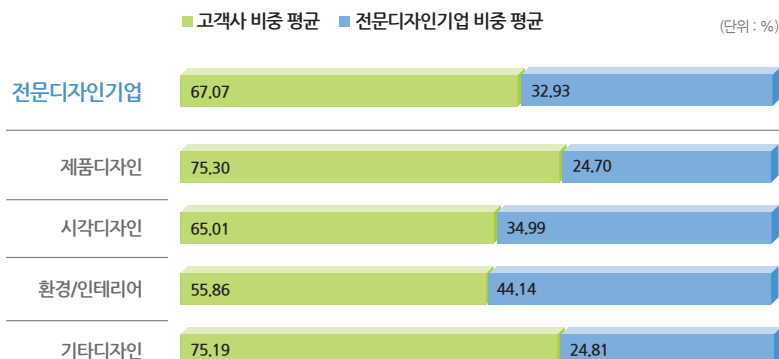


### 4) 디자인권(출원, 등록 포함) 소유 비중

- + 디자인 최종 산출물에 대한 디자인권 소유 비중은 고객사가 평균 67.07%, 전문디자인기업이 32.93%로 디자인권은 고객사가 2배 이상 많이 소유하고 있음.

모든 업종에서 고객사 비중이 높은 가운데 제품디자인업(75.30%), 기타디자인업(75.19%)에서 더욱 높게 나타난 반면, 전문디자인기업 비중은 환경/인테리어업(44.1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20〉 디자인권 소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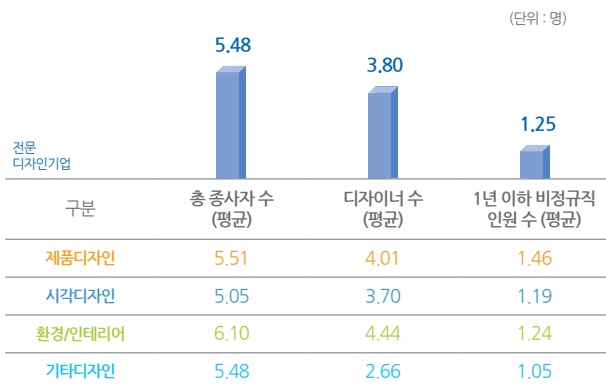
## 04 인력 현황

### 1) 종사자 및 디자이너 현황

- ✚ 전문디자인기업의 종사자 수는 평균 5.48명, 디자이너 수는 평균 3.80명임. 한편, 2010년 한해 동안 1년 이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종사자 수는 기업 평균 1.25명임.

업종별로 보면 환경/인테리어업의 종사자 수는 평균 6.10명, 디자이너 수는 평균 4.44명으로 타 업종 대비 많음. 1년 이하 비정규직 종사자 수는 제품디자인업이 평균 1.46명으로 가장 많음.

〈표 3-12〉 종사자 및 디자이너 현황





+ 활동 디자인 영역별로 디자이너 수를 보면 시각디자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수는 평균 1.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환경디자인 영역 평균 1.16명, 제품디자인 영역 평균 0.78명, 포장디자인 영역 평균 0.18명 등의 순임.

업종별로 보면, 제품디자인업에서는 제품디자인 영역의 디자이너가 평균 2.80명으로 가장 많고 시각디자인업은 시각디자인 영역의 디자이너가 평균 2.64명,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에서는 환경디자인 영역의 디자이너가 평균 4.03명으로 가장 많음.

<표 3-13> 활동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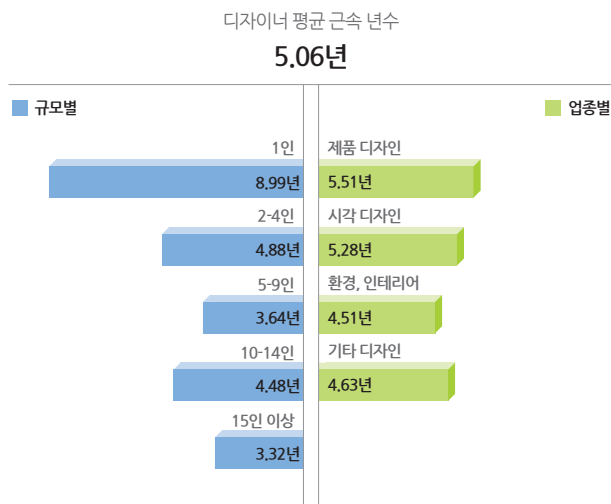
## 2) 디자이너 평균 근속 년수

+ 디자이너 근속 년수는 평균 5.06년으로 나타남.

업종별로는 제품디자인업 디자이너의 근속 년수가 평균 5.51년으로 가장 길고, 다음은 시각디자인업(5.28년), 기타디자인업(4.63년), 환경/인테리어업(4.51년) 순임.

규모별로 보면 1인 기업의 디자이너 근속 년수가 평균 8.99년으로, 타 규모 대비 2배 내외임.

〈그림 3-21〉 디자이너 평균 근속 년수





05  
디자인 재교육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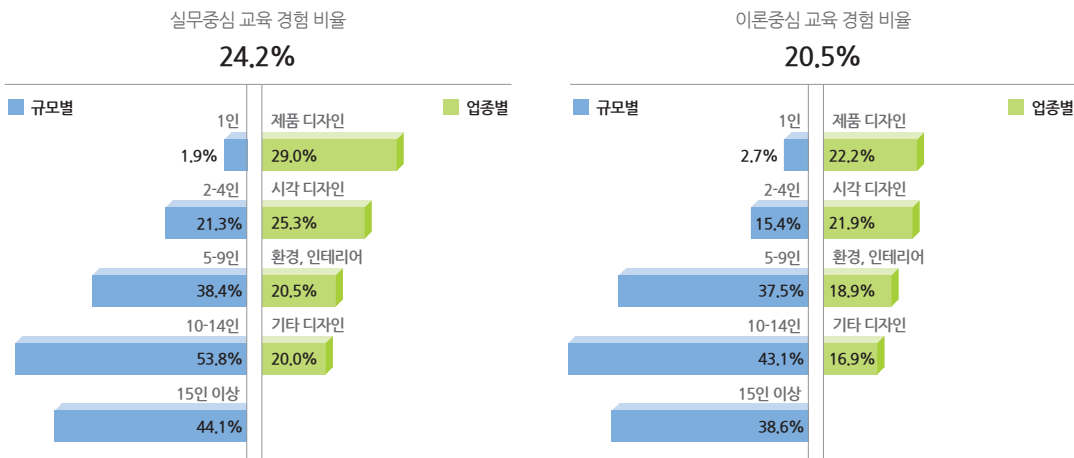
1) 디자인 재교육 현황

+ 실무 중심 디자인 재교육 경험이 있는 기업 비율은 24.2%, 이론 중심 디자인 재교육 경험이 있는 기업 비율은 20.5%로, 실무교육이 이론 교육보다 다소 높음.

업종별로 디자인 재교육 경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제품디자인업에서 실무(29.0%) 및 이론(22.2%) 재교육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환경/인테리어업(각각 20.5%, 18.9%) 및 기타디자인업(20.0%, 16.9%)은 재교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규모별로 분석해 보면, 1인 기업의 경우 디자인 재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음. 10~14인 기업에서 재교육이 가장 활발함.

〈그림 3-22〉 디자인 재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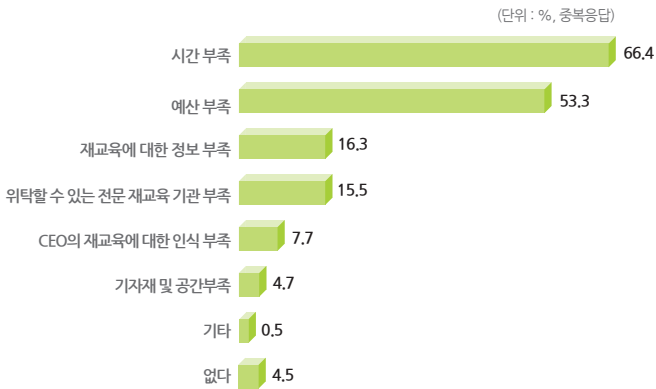




2) 재교육 시 애로사항

- + 재교육 애로사항(중복응답 기준)으로 '시간 부족'(66.4%)이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예산 부족'(53.3%), '재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16.3%), '위탁할 수 있는 전문 재교육 기관 부족'(15.5%), 'CEO의 재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7.7%) 등의 순임.

〈그림 3-23〉 재교육 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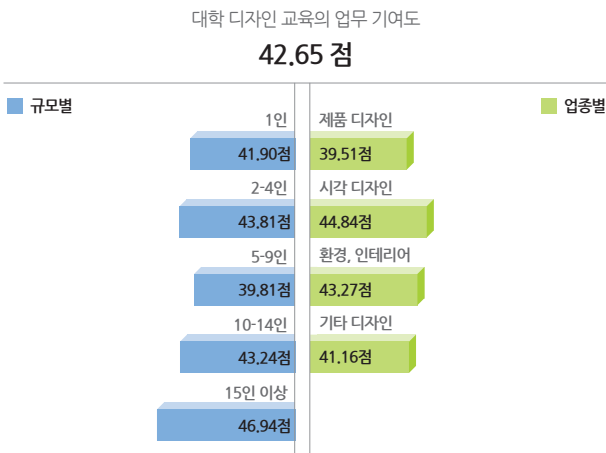
3)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 + 대학에서의 디자인 교육이 실제 디자인 업무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평가한 결과 100점 평균 환산 기준 42.65점으로, 업무 기여도 평가가 높지 않음.

업종별로 보면 제품디자인업의 업무 기여도 평가는 39.51점으로 가장 낮은 반면, 시각디자인업의 업무 기여도 평가는 44.84점으로 타 업종에 비하여 높음.

규모별로는 15인 이상 기업의 기여도 평가가 46.94점으로, 타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24〉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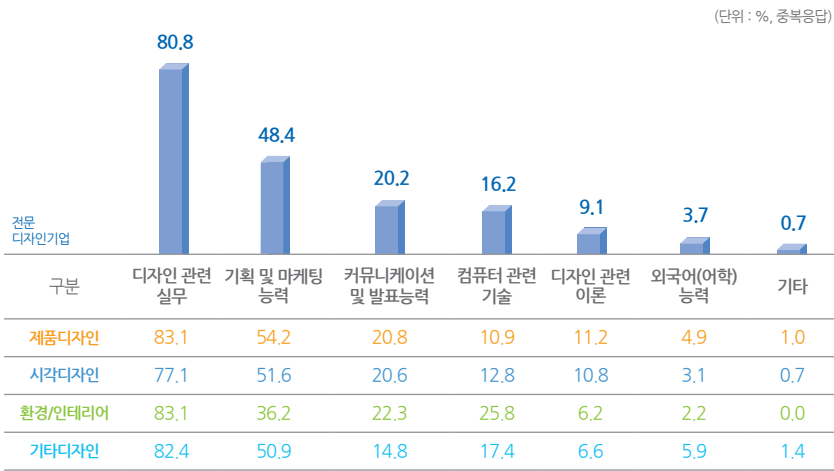


4)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중복응답 기준)으로 ‘디자인 관련 실무’가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은 ‘기획 및 마케팅 능력’(48.4%),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20.2%) 등의 순임.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관련 실무’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은 제품디자인업(54.2%)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은 환경/인테리어업(25.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3-14〉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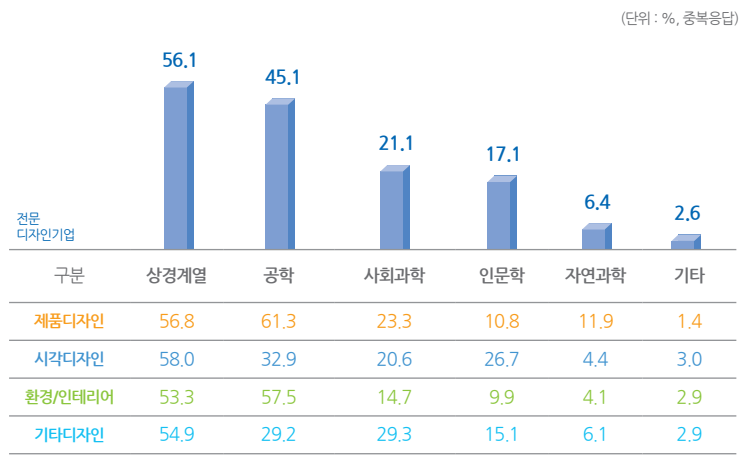


5) 필요인력의 전공 분야

✚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전공분야(중복응답 기준)로는 ‘상경계열’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은 ‘공학’ 45.1%, ‘사회과학’ 21.1%, ‘인문학’ 17.1% 등의 순으로 높음.

업종별로 보면 제품디자인업과 환경/인테리어의 경우 ‘공학’(각각 61.3%, 57.5%) 응답 비율이 ‘상경계열’(각각 56.8%, 53.3%) 보다 높음.  
시각디자인업에서는 ‘인문학’ 응답 비율이 26.7%로 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표 3-15〉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전공분야





06  
애로사항 및 경영전략

-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자금지원 확대’가 60.5%로 가장 높음. ‘인력양성 지원’은 37.4%,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은 34.2% 임.
  - 디자인 산업이 육성 발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저임금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55.8%), ‘사기업 규모’(31.0%),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26.1%), ‘재무 운용능력 부족’ (18.9%) 순임.
  - 타산업 대비 디자인 산업 취약 부분으로 ‘전문 인력 양성’이 52.7%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관련 정책부처 지원’ 45.0%, ‘사업 모델의 전문화’ 36.2%, ‘인접기술 분야와의 융합’ 29.6%순임.
  -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으로 ‘컨설팅 능력 부족’이 42.0%, ‘최신디자인 정보 부족’ 이 39.2%로 많고, 다음으로 ‘디자인 기술 부족’ 31.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부족’ 24.2%, ‘리서치 능력 부족’ 24.1% 순임.
- 위와 같이 전문 디자인기업 다수가 전문 인력 고용, 자금, 컨설팅 능력, 최신디자인 정보 등의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매출 증대 방안으로는 ‘특화된 디자인 전문 영역으로 차별화’가 43.7%, ‘국내 용역 수주 확대’가 42.0%로 응답 비율이 높음. 다음으로 ‘자체 상품 개발 및 판매’ 36.5%, ‘종합 컨설팅으로 영역 확대’ 24.5%, ‘해외시장 진출확대’ 18.8%임.

〈표 3-16〉 애로사항 및 경영전략

(단위 : %)

필요한 정부 지원 분야	자금지원 확대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관련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입찰정보 지원
	60.5	37.4	34.2	19.0	11.1
디자인 산업육성 발전 장애요인	저임금에 따른 전문 인력 부족	사기업 규모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재무 운용능력 부족	산업의급성장에 따른 인력 공급 부족
	55.8	31.0	26.1	18.9	16.7
타산업 대비 디자인 산업 취약부분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정책부처 지원	사업 모델의 전문화	인접기술 분야와의 융합	산학연 협력강화
	52.7	45.0	36.2	29.6	2.4
디자인 개발시 애로사항	컨설팅 능력 부족	최신디자인 정보 부족	디자인 기술 부족	소프트웨어 및 장비부족	리서치 능력 부족
	42.0	39.2	31.3	24.2	24.1
매출증대 방안	특화된 디자인 전문 영역으로 차별화	국내 용역 수주 확대	자체 상품 개발 및 판매	종합 컨설팅으로 영역 확대	해외시장 진출 확대
	43.7	42.0	36.5	24.5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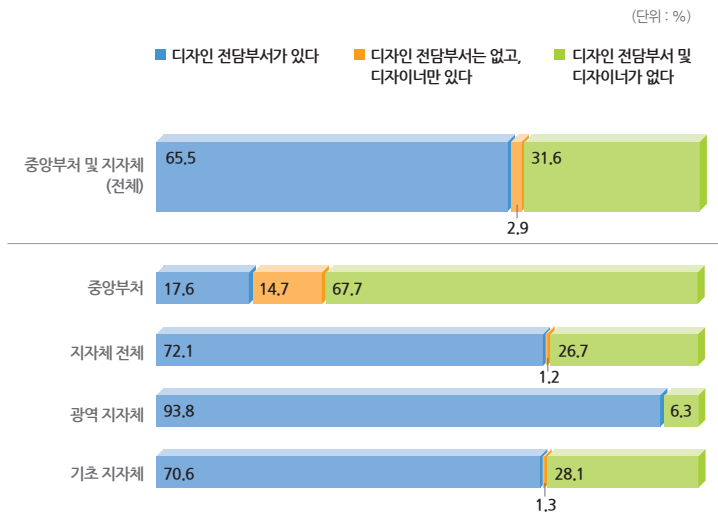
## 01

##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현황

-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중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기관 비율은 65.5%임.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는’ 기관 비율은 2.9%, 그 외 31.6%는 ‘디자인 전담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중앙부처 중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기관은 17.6%에 그친 반면 지자체의 72.1%는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광역지자체 16개 시도 중 93.8%는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25〉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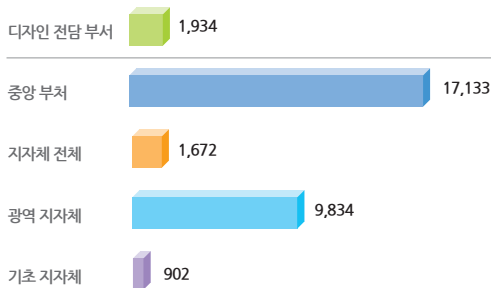
## 디자인 예산 및 인력 현황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은 평균 19억 3,400만원임. 세부적으로 중앙부처의 예산은 평균 171억 3,300만원, 지자체의 예산은 평균 16억 7,200만원임. 지자체 중 16개 시/도의 예산은 평균 98억 3,400만원, 시/군/구의 예산은 평균 9억 200만원임.
- + 디자인 부서의 직원 수는 평균 8.47명, 디자이너 수는 평균 0.82명임. 세부적으로 중앙부처 디자인 부서의 직원 수는 평균 6.67명, 디자이너 수는 평균 2.00명임. 지자체 디자인 전담부서의 평균 직원 수는 8.53명, 디자이너 수는 0.74명임.

〈그림 3-26〉 디자인 부서 예산 및 인력 현황

평균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인력 현황(디자이너 수/ 디자인부서 직원 수)

(단위 : 명)





## 03

##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 및 디자인 용역 방법별 현황

- ✚ 디자인 관련 예산 집행 시 기관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는 비율은 평균 86.96%,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하는 비율은 평균 6.09%임.

공공디자인이 포함된 디자인 발주 방법은 '포함발주' 89.08%, '분리발주' 10.92%로, 대부분의 정부기관은 설계 시공 등에 디자인사업 부분을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27〉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 및 디자인 발주 방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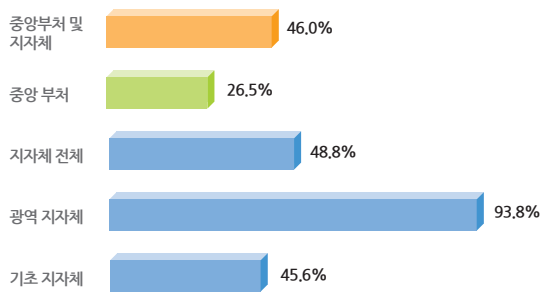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 중양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특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는 비율은 46.0%임. 세부적으로 중양부처 중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는 비율은 26.5%, 지자체는 48.8%임.
- 광역시·자치체 16개 시/도 중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는 비율은 93.8%로 매우 높음.

〈그림 3-28〉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보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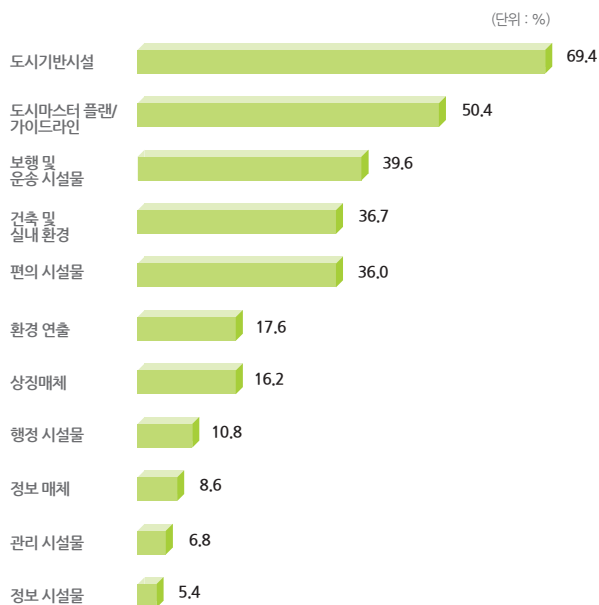


## 05

##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 ✚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이 69.4%로 가장 높고, 다음은 ‘도시마스터 플랜/가이드라인’(50.4%), ‘보행 및 운송 시설물’(39.6%), ‘건축 및 실내 환경’(36.7%) 등의 순임.

〈그림 3-29〉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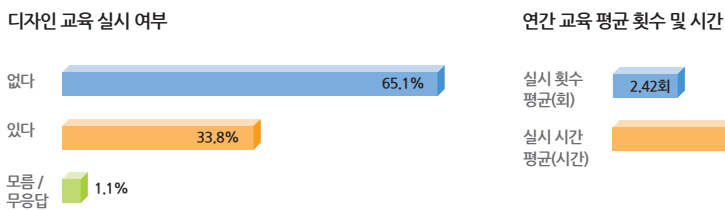
## 06

## 직원 디자인 교육 관련

## 1)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평균 횟수/시간

- + 2010년 한 해 동안 직원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 기관 비율은 33.8%임. 직원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기관의 연간 교육 실시 횟수는 평균 2.42회, 연간 교육 시간은 평균 10시간 18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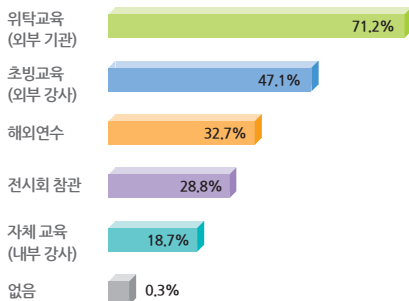
〈그림 3-30〉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연간 평균 교육 횟수 및 시간



## 2)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직원 디자인 교육 방식

- +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해 직원들에게 실시되기를 바라는 디자인 교육 방식(중복응답 기준)으로는 '위탁교육(외부기관)'이 71.2%로 가장 높음. 다음은 '초빙교육' 47.1%, '해외 연수' 32.7%, '전시회 참관' 28.8% 등의 순임.

〈그림 3-31〉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직원 디자인 교육 방식





## 01

## 대학(원)의 디자인과 보유 학교 및 학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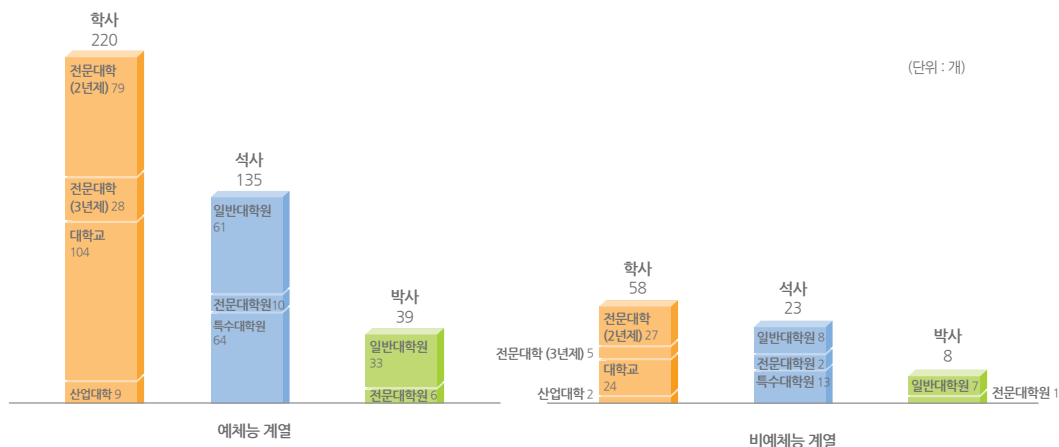
✚ 예체능 계열<sup>1</sup> 중 학사 과정에 디자인학과가 있는 학교는 총 220개, 석사 과정에 디자인 학과가 있는 학교는 총 135개, 박사 과정에 디자인 학과가 있는 학교는 총 39개로 조사됨.

비예체능 계열<sup>2</sup> 중 학사 과정에 디자인학과가 있는 학교는 58개, 석사 과정에 디자인 학과가 있는 학교는 23개, 박사 과정에 디자인 학과가 있는 학교는 8개로 조사됨.

1) KEDI 학과분류체계 기준, 예체능계열(대계열) > 디자인(중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일체.

2) KEDI 학과분류체계 기준, 예체능계열(대계열) > 디자인(중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디자인 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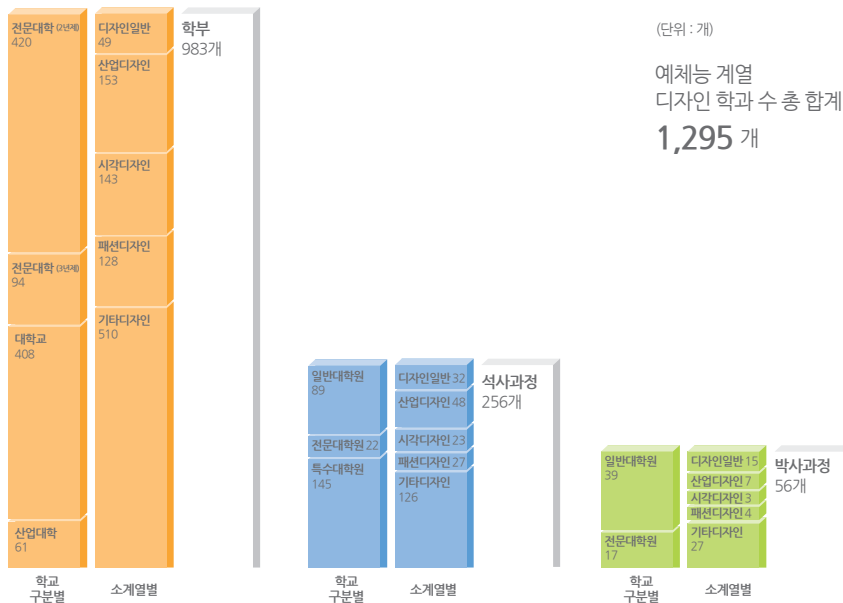
〈그림 3-32〉 2010년 대학(원)의 디자인과 보유 학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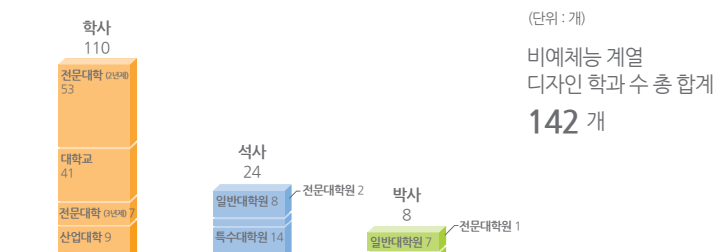
- 예체능 계열 디자인 관련 학과 수는 학부, 석 박사 과정을 포함하여 총 1,295개임. 학부과정의 예체능 계열 디자인 학과 수는 983개, 석사과정은 256개, 박사과정은 56개임.
- 학교 구분별로는 2년제 전문대학의 예체능 계열 디자인 학과 수가 420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대학교(408개)로 나타남. 소계열 구분별로는 기타디자인 학과가 663개로 가장 많고, 이어 산업디자인 학과(208개), 시각디자인 학과(169개), 패션디자인 학과(159개), 디자인일반 학과(96개) 순임.

〈그림 3-33〉 2010년 대학(원)의 예체능 계열 디자인학과 수



- 비에체능 계열 디자인 관련 학과 수는 학부, 석 박사 과정을 포함하여 총 142개임. 학부과정의 학과 수는 110개, 석사과정은 24개, 박사과정은 8개임. 학교구분별로는 2년제 전문대학의 비디자인 계열 디자인 관련 학과 수가 53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대학교(41개)임.

〈그림 3-34〉 2010년 대학(원)의 비예체능 계열 디자인학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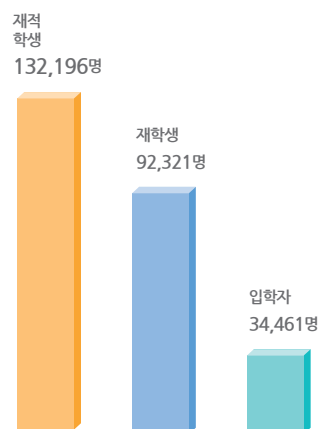




## 02

## 2010년 대학(원) 디자인학과 학생 현황

- 2010년 대학 또는 대학원 디자인학과 총 재적학생은 132,196명이었음. 재학생은 92,321명, 휴학생(재적학생-재학생)은 39,875명으로 조사됨. 2010년 디자인관련학과 입학자는 34,461명임.
- 재적학생을 계열별로 분석해 보면 비예체능 계열은 6,665명, 예체능 계열이 125,531명으로 예체능 계열 전체 디자인학과 재적학생의 95.0%를 차지함.
- 학교 구분별 재적학생은 일반대학이 64,78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전문대학 학생(55,206명), 대학원(6,229명), 산업대학(5,981명) 등의 순으로 높음.



〈표 3-17〉 2010년 대학(원) 디자인학과 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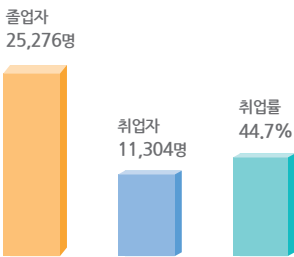
(단위 : 명)

학교 구분	계열	재적학생				재학생				입학자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총계	비예체능계열	6,193	416	56	6,665	4,047	352	50	4,449	1,302	127	23	1,452
	예체능계열	119,774	4,975	782	125,531	83,246	3,980	646	87,872	30,789	1,898	322	33,009
	소계	125,967	5,391	838	132,196	87,293	4,332	696	92,321	32,091	2,025	345	34,461
전문 대학	비예체능계열	1,537	-	-	1,537	808	-	-	808	377	-	-	377
	예체능계열	53,669	-	-	53,669	34,306	-	-	34,306	18,008	-	-	18,008
	소계	55,206	-	-	55,206	35,114	-	-	35,114	18,385	-	-	18,385
일반 대학	비예체능계열	4,129	-	-	4,129	2,875	-	-	2,875	838	-	-	838
	예체능계열	60,651	-	-	60,651	45,174	-	-	45,174	12,138	-	-	12,138
	소계	64,780	-	-	64,780	48,049	-	-	48,049	12,976	-	-	12,976
산업 대학	비예체능계열	527	-	-	527	364	-	-	364	87	-	-	87
	예체능계열	5,454	-	-	5,454	3,766	-	-	3,766	643	-	-	643
	소계	5,981	-	-	5,981	4,130	-	-	4,130	730	-	-	730
대학원	비예체능계열	-	416	56	472	-	352	50	402	-	127	23	150
	예체능계열	-	4,975	782	5,757	-	3,980	646	4,626	-	1,898	322	2,220
	소계	-	5,391	838	6,229	-	4,332	696	5,028	-	2,025	345	2,370



03  
2010학년도 대학(원)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 2011년 대학 또는 대학원 디자인학과 총 졸업자는 25,276명이고, 그 중 11,304명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률은 44.7%임. 학부 졸업자의 취업률은 43.9%, 석사 졸업자의 취업률은 59.3%, 박사 졸업자의 취업률은 65.7%로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음.
- 계열별로 보면, 비예체능계열 디자인학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58.6%, 예체능학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44.1%로 비예체능 계열의 취업률이 더 높음.
- 학교 부분별 디자인학과 취업률은 대학원이 59.8%로 가장 높고, 이어 산업대학(47.5%), 일반대학(44.8%), 전문대학(42.8%) 순으로 높음.



<표 3-18> 2010학년도 대학(원)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단위 : 명)

학교 구분	계열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총계	비예체능계열	931	133	7	1,071	526	99	3	628	56.5%	74.4%	42.9%	58.6%
	예체능계열	22,981	1,129	95	24,205	9,963	649	64	10,676	43.4%	57.5%	67.4%	44.1%
	소계	23,912	1,262	102	25,276	10,489	748	67	11,304	43.9%	59.3%	65.7%	44.7%
전문 대학	비예체능계열	388	-	-	388	194	-	-	194	50.0%	-	-	50.0%
	예체능계열	12,597	-	-	12,597	5,370	-	-	5,370	42.6%	-	-	42.6%
	소계	12,985	-	-	12,985	5,564	-	-	5,564	42.8%	-	-	42.8%
일반 대학	비예체능계열	479	-	-	479	292	-	-	292	61.0%	-	-	61.0%
	예체능계열	9,422	-	-	9,422	4,146	-	-	4,146	44.0%	-	-	44.0%
	소계	9,901	-	-	9,901	4,438	-	-	4,438	44.8%	-	-	44.8%
산업 대학	비예체능계열	64	-	-	64	40	-	-	40	62.5%	-	-	62.5%
	예체능계열	962	-	-	962	447	-	-	447	46.5%	-	-	46.5%
	소계	1,026	-	-	1,026	487	-	-	487	47.5%	-	-	47.5%
대학원	비예체능계열	-	133	7	140	-	99	3	102	-	74.4%	42.9%	72.9%
	예체능계열	-	1,129	95	1,224	-	649	64	713	-	57.5%	67.4%	58.3%
	소계	-	1,262	102	1,364	-	748	67	815	-	59.3%	65.7%	59.8%

\* 졸업자 및 취업자 조사기준일 : 2011년 4월 1일



## IV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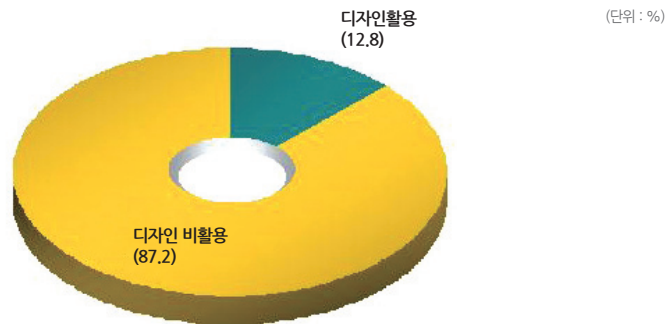
#### 1. 일반기업 / 디자인 활용 기업



01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

- 조사 대상 5개 업종의 사업체 중 디자이너를 종사자로 고용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디자인 개발 의뢰 경험이 있는 디자인 활용기업은 12.8%임.  
나머지 87.2%는 디자이너를 종사자로 고용하고 있지 않고, 최근 2년간 디자인 개발 의뢰 경험도 없음.

〈그림 4-1-1〉 디자인 활용 여부



- 업종별로는 출판/영상/정보업이 38.5%로 업종 중 디자인 활용을 가장 많이 함. 전문/과학/기술업 중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은 14.2%, 사업시설관리업은 14.4%로 비슷하였고, 제조업은 12.6%, 건설업은 5.7%임.

〈표 4-1-1〉 업종별 디자인 활용 여부

(단위 : %)

구분		디자인 활용	디자인 비활용
업종별	일반업체	12.8	87.2
	제조업	12.6	87.4
	건설업	5.7	94.3
	출판/영상/정보	38.5	61.5
	전문/과학/기술	14.2	85.8
	사업시설관리	14.4	85.6



+ 권역별로 보면 서울에 소재한 기업의 디자인 활용 비율이 26.6%로 권역 중 가장 높고, 다음은 강원/제주(10.8%), 대구/경북(10.1%) 등의 순으로 높음.

종사자 수별로는 전반적으로 종사자가 많을수록 디자인 활용 비율도 높은 가운데, 49인 이하는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이 11%~12%대로 비슷함. 300인 이상의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은 32.8%임.

<표 4-1-2> 권역별/규모별 디자인 활용 여부

(단위 : %)

구 분		디자인 활용	디자인 비활용
일반업체		12.8	87.2
권역별	서울	26.6	73.4
	부산/울산/경남	8.5	91.5
	대구/경북	10.1	89.9
	인천/경기	9.3	90.7
	광주/전라	8.2	91.8
	대전/충청	7.8	92.2
	강원/제주	10.8	89.2
종사자수별	5~9인	12.6	87.4
	10~19인	11.5	88.5
	20~49인	12.7	87.3
	50~99인	16.8	83.2
	100~299인	20.9	79.1
	300인이상	32.8	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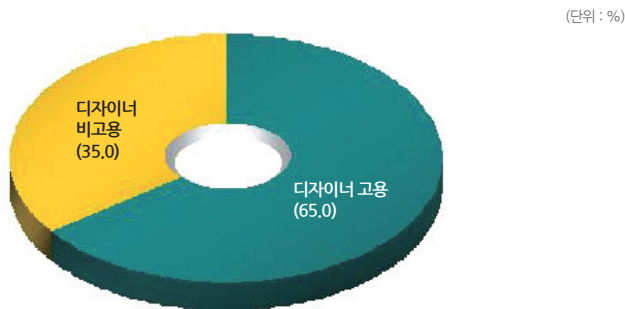


02  
디자인 활용 현황

02-1. 디자이너 고용 여부

- 2010년 12월 기준으로 일반기업의 디자이너 고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65.0%의 업체가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35.0%는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지 않았음.

〈그림 4-1-2〉 디자이너 고용 여부



- 업종별로 보면, 사업시설관리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디자이너 고용 비율이 높으며, 특히, 건설업(89.1%)에서 가장 높음. 한편, 사업시설관리업에서는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65.8%로 다른 업종과 차이를 보임.

〈표 4-1-3〉 업종별 디자이너 고용 여부

(단위 : %)

구 분		디자인 고용	디자인 비고용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65.0	35.0
업종별	제조업	58.9	41.1
	건설업	89.1	10.9
	출판/영상/정보	69.9	30.1
	전문/과학/기술	83.6	16.4
	사업시설관리	34.2	65.8



+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와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디자이너 고용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서울이 71.6%로 가장 높음. 한편, 광주/전라와 강원/제주는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각각 63.6%, 51.9%로 다른 권역과 디자이너 고용여부에 있어 큰 차이가 남.

규모별로는, 모든 규모에서 디자이너 고용 비율이 높으며, 특히 대기업이 84.7%로 가장 높음.

외주 용역 유무에 따라서는, 외주용역이 있는 업체는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61.4%로, 고용 비율 38.6%보다 높음.

〈표 4-1-4〉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 고용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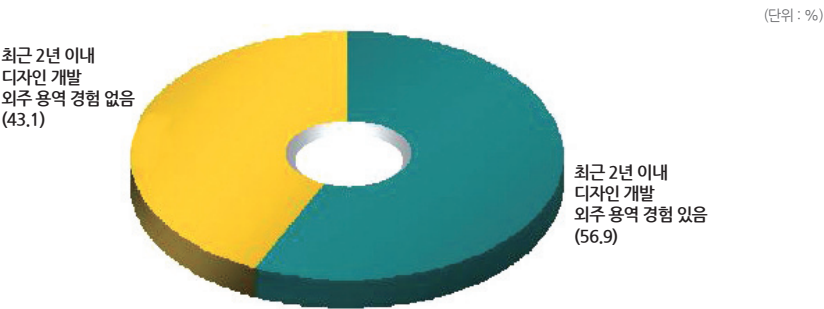
구분		디자인 활용	디자인 비활용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65.0	35.0
권역별	서울	71.6	28.4
	부산/울산/경남	69.2	30.8
	대구/경북	68.7	31.3
	인천/경기	60.2	39.8
	광주/전라	36.4	63.6
	대전/충청	51.4	48.6
	강원/제주	48.1	51.9
규모별	소기업	62.4	37.6
	중기업	73.4	26.6
	대기업	84.7	15.3
외주	외주용역 있음	38.6	61.4
	외주용역 없음	100	0.0



02-2.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외주 용역 여부

디자인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디자인 개발 외주 용역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디자인 외주 용역 경험이 있는’ 기업 비율은 56.9%, ‘디자인 외주 용역 경험이 없는’ 기업 비율은 43.1%임

〈그림 4-1-3〉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외주 용역 여부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개발 외주 용역 경험 비율이 과반으로 높은 가운데 특히 사업시설관리업(79.8%)에서 더욱 높음.  
한편, 건설업의 경우 경험이 없는 업체 비율이 55.7%로 경험이 있는 업체 비율 44.3%보다 높음

〈표 4-1-5〉 업종별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외주 용역 여부

(단위 : %)

구 분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외주용역 경험 있음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외주용역 경험 없음
디자인 활용 기업		56.9	43.1
업종별	제조업	56.6	43.4
	건설업	44.3	55.7
	출판/영상/정보	60.8	39.2
	전문/과학/기술	52.0	48.0
	사업시설관리	79.8	20.2



- ✚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디자인 개발 외주용역 경험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광주/전라에서 70.2%로 가장 높음. 한편, 부산/울산/경남은 '디자인 외주용역 의뢰 경험이 없다'(58.2%)는 응답비율이 높음.

규모별로는,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디자인 외주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특히 대기업(70.7%)이 더욱 높았음. 한편, 디자이너를 고용한 업체는 외주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6.2%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1-6〉 권역별/규모별/고용별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외주 용역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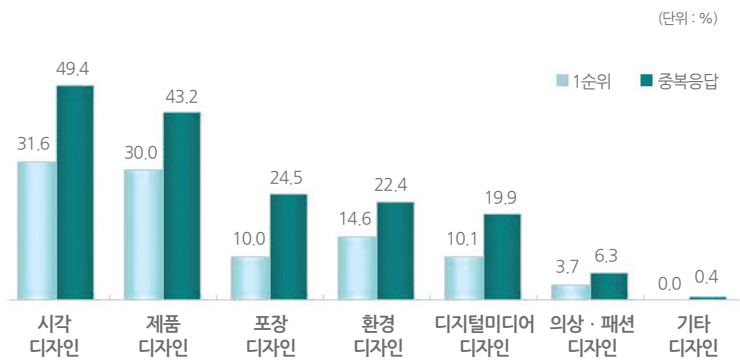
구 분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외주용역 경험 있음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외주용역 경험 없음
디자인 활용 기업		56.9	43.1
권역별	서울	56.1	43.9
	부산/울산/경남	41.8	58.2
	대구/경북	64.7	35.3
	인천/경기	57.7	42.3
	광주/전라	70.2	29.8
	대전/충청	65.4	34.6
	강원/제주	60.2	39.8
규모별	소기업	55.0	45.0
	중기업	63.1	36.9
	대기업	70.7	29.3
고용	디자이너 고용	33.8	66.2
	디자이너 비고용	100.0	0.0



02-3. 디자인 활용 분야

+ 디자인 활용업체의 디자인 활용분야(중복응답 기준)를 조사한 결과, 시각디자인이 49.4%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제품디자인’(43.2%), ‘포장디자인’(24.5%), ‘환경디자인’(22.4%) 등의 순임.

〈그림 4-1-4〉 디자인 활용 분야



+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시각디자인’분야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사업시설관리업(76.7%)에서의 ‘시각디자인’분야 활용률이 가장 높음. 한편 건설업에서는 ‘환경디자인’분야의 활용률이 97.4%로 가장 높아 다른 업종과 차이를 보임. 제조업에서는 ‘제품디자인’(61.6%), 포장디자인(38.3%)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출판/영상/정보업에서는 ‘디지털미디어디자인’의 활용률이 60.5%로 높음.

〈표 4-1-7〉 업종별 디자인 활용 분야

		(단위 : %, 중복응답)						
구 분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환경 디자인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의상·패션 디자인	기타 디자인
디자인 활용기업 평균(전체)		49.4	43.2	24.5	22.4	19.9	6.3	0.4
업종별	제조업	49.1	61.6	38.3	12.0	11.2	9.2	0.3
	건설업	28.9	15.3	1.3	97.4	7.8	4.0	0.0
	출판/영상/정보	52.6	18.3	3.6	3.6	60.5	3.4	1.0
	전문/과학/기술	48.3	21.6	12.0	45.5	20.8	1.0	0.8
	사업시설관리	76.7	21.5	9.0	8.4	11.3	0.2	0.0



+ 권역별로 보면, ‘시각디자인’ 활용률은 강원/제주(59.9%)에서 가장 높으며, ‘제품디자인’은 인천/경기(61.4%), 광주/전라(64.3%)에서, ‘포장디자인’은 대전/충청(55.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규모별로 보면, 소기업은 ‘제품디자인’과 ‘시각디자인’분야의 활용률이 각각 47.9%, 47.0%로 비슷한 반면, 중기업과 대기업은 ‘시각디자인’분야 활용률이 각각 57.8%, 58.9%로 가장 높음.

디자이너 고용 여부에 따라서는, 디자이너를 고용한 기업은 ‘시각디자인’(57.8%)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제품디자인’(50.1%)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외주 용역 유무에 따라서는, 외주용역이 있는 경우 ‘제품디자인’(43.8%) 분야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반면, 외주용역이 없는 경우에는 ‘시각디자인’(60.7%)분야를 주로 활용함.

<표 4-1-8>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용역별 디자인 활용 분야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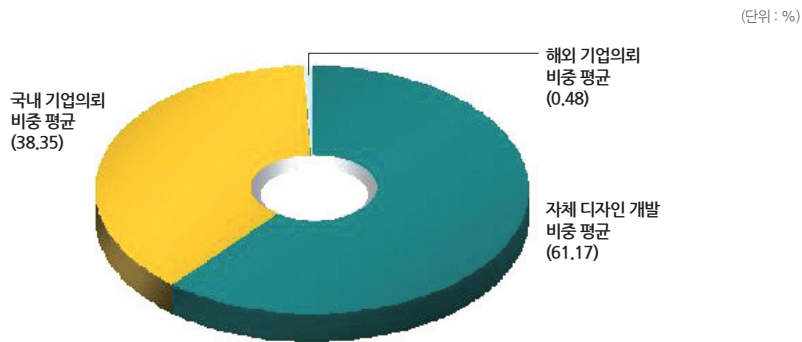
구 분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환경 디자인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의상패션 디자인	기타 디자인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49.4	43.2	24.5	22.4	19.9	6.3	0.4
권역별	서울	50.9	30.8	14.6	32.6	24.1	7.4	1.0
	부산/울산/경남	53.3	46.3	13.4	18.7	22.5	19.7	0.0
	대구/경북	37.9	37.2	21.1	13.8	17.1	7.7	0.0
	인천/경기	53.1	61.4	38.5	11.3	14.6	0.7	0.0
	광주/전라	31.6	64.3	45.4	14.4	9.5	0.8	0.0
	대전/충청	38.7	42.4	55.9	14.9	12.6	0.0	0.0
	강원/제주	59.9	54.2	18.6	23.8	27.6	2.1	0.0
규모별	소기업	47.0	47.9	27.2	23.2	15.5	7.1	0.2
	중기업	57.8	25.6	13.9	18.8	36.6	3.0	1.3
	대기업	58.9	31.1	21.0	25.8	28.8	4.6	0.2
고용	디자이너 고용	57.8	39.5	16.0	31.2	22.7	8.7	0.5
	디자이너 비고용	33.7	50.1	40.3	6.2	14.6	1.7	0.3
외주	외주용역 있음	40.8	43.8	31.8	17.0	19.4	2.6	0.5
	외주용역 없음	60.7	42.4	14.9	29.6	20.5	11.2	0.4



02-4. 디자인 개발 시 사내/외부 인력 활용 비중

디자인 개발 시 사내인력과 외부인력의 활용 비중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내 인력을 활용한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기업 평균 61.17%, ‘국내 업체 의뢰’ 비중은 평균 38.35%임. ‘해외 업체 의뢰’ 비중은 평균 0.48%임.

〈그림 4-1-5〉 디자인 개발 시 사내/외부 인력 활용 비중



업종별로는, 사업시설관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이 절반이상으로 높으며, 특히 건설업(79.27%), 전문/과학/기술업(78.39%)에서 더욱 높음. 사업시설관리업은 ‘국내업체 의뢰’ 비중이 61.26%로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 (38.74%) 보다 높음.

〈표 4-1-9〉 업종별 디자인 개발 시 사내/외부 인력 활용 비중

		(단위 : %)		
구 분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 평균	국내 업체 의뢰 비중 평균	해외 업체 의뢰 비중 평균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61.17	38.35	0.48
업종별	제조업	55.79	43.42	0.79
	건설업	79.27	20.36	0.37
	출판/영상/정보	64.70	35.30	0.00
	전문/과학/기술	78.39	21.61	0.00
	사업시설관리	38.74	61.26	0.00



+ 권역별로는 서울(67.23%), 부산/울산/경남(67.68%), 대구/경북(66.36%) 그리고 인천/경기(53.33%)의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이 높음.  
 광주/전라(57.11%), 대전/충청(50.84%) 그리고 강원/제주(52.99%)는 '국내 업체 의뢰'의 비중이 높아 권역별로 차이가 존재함.

규모별로는, 모든 규모에서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히 중기업(67.07%)에서 가장 높음.

디자이너 고용 여부별로는, 디자이너를 고용한 경우 '자체 디자인 개발'(89.57%) 비중이 높은 반면,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국내업체 외주'(91.52%) 비중이 높음.

외주 용역 유무별로는, 외주 용역 경험이 있는 경우 '국내업체 외주'(66.07%) 비중이 높으며, 외주 용역 경험이 없는 경우 '자체 디자인 개발'(97.39%) 비중이 높음

<표 4-1-10>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용역별 디자인 개발 시 사내/외부 인력 활용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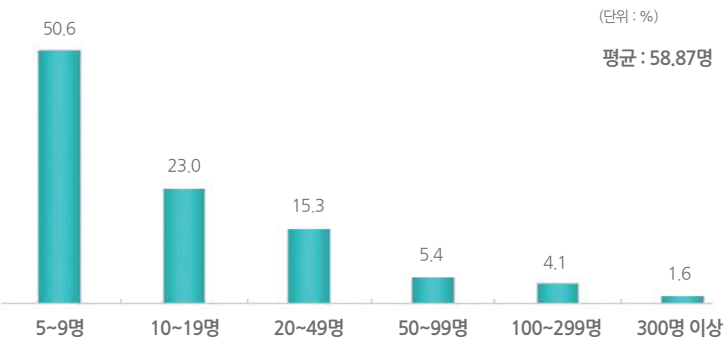
구 분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 평균	국내 업체 의뢰 비중 평균	해외 업체 의뢰 비중 평균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61.17	38.35	0.48
권역별	서울	67.23	32.65	0.12
	부산/울산/경남	67.68	28.92	3.40
	대구/경북	66.36	33.61	0.03
	인천/경기	53.33	46.61	0.06
	광주/전라	42.84	57.10	0.06
	대전/충청	48.24	50.83	0.93
	강원/제주	47.10	52.90	0.00
규모별	소기업	59.65	39.83	0.52
	중기업	67.07	32.61	0.32
	대기업	63.58	35.77	0.65
고용	디자이너 고용	89.57	9.76	0.67
	디자이너 비고용	8.35	91.52	0.13
외주	외주용역 있음	33.74	66.07	0.19
	외주용역 없음	97.39	1.75	0.86



02-5-1. 디자인 활용기업 종사자 수 평균

- + 디자인 활용기업의 종사자 수는 기업 평균 58.87명임.  
디자인 활용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별로 보면, 평균 종사자 수가 '5~9명'인 기업이 50.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19명'인 기업이 23.0%, '20~49명'인 기업이 15.3% 등의 순임.

〈그림 4-1-6〉 디자인 활용기업 종사자 수 (평균)



- + 업종별로 보면, 전문/과학/기술업의 종사자 수가 평균 205.3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사업시설관리업(51.30명), 건설업(41.11명), 출판/영상/정보업(39.14명) 등의 순으로 평균 종사자 수가 많음.

〈표 4-1-11〉 업종별 디자인 활용기업 종사자 수 (평균)

구 분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평균(명)
디자인 활용기업(전체)		50.6	23.0	15.3	5.4	4.1	1.6	58.87
업종별	제조업	53.9	23.5	14.5	4.0	3.3	0.8	35.24
	건설업	46.4	33.9	9.9	4.8	3.4	1.6	41.11
	출판/영상/정보	47.3	18.3	20.2	8.1	4.1	2.0	39.14
	전문/과학/기술	42.7	20.4	17.6	8.8	6.7	3.8	205.34
	사업시설관리	51.3	20.4	13.1	5.9	6.4	2.9	51.30



+ 권역별로는, 서울의 종사자 수가 평균 86.61명으로 타 권역 대비 2배 이상 많으며, 다음은 인천/경기(42.75명), 부산/울산/경남(40.34명)순임.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종사자 수가 평균 1,649.57명으로 가장 많고, 중기업은 평균 53.70명, 소기업은 평균 12.47명임.

디자이너 고용여부별로 보면, 디자이너를 고용한 기업의 종사자 수는 평균 77.81명으로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23.58명)보다 많음.

외주용역 여부별로는, 외주 용역이 있는 기업이 82.64명으로 외주 용역이 없는 기업(27.49명)의 평균 종사자 수 보다 많음.

<표 4-1-12>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용역별 디자인 활용기업 종사자 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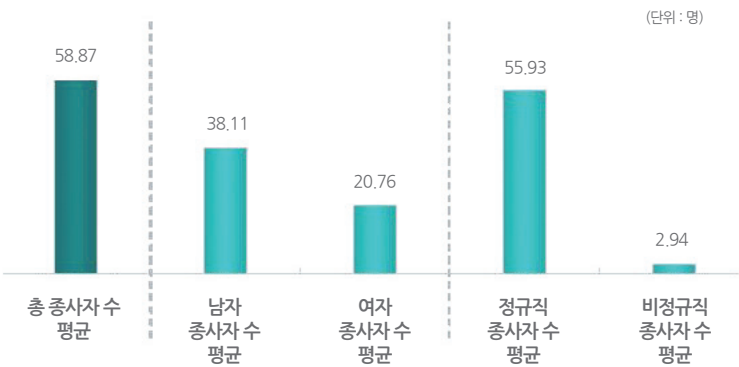
								(단위 : %, 명)
구 분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평균(명)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50.6	23.0	15.3	5.4	4.1	1.6	58.87
권역별	서울	46.8	22.9	17.7	6.0	4.4	2.2	86.61
	부산/울산/경남	50.5	26.9	12.2	3.4	5.8	1.2	40.34
	대구/경북	59.2	18.9	14.2	4.7	2.1	0.9	26.50
	인천/경기	53.3	22.6	14.8	4.8	3.4	1.1	42.75
	광주/전라	53.0	27.2	9.8	5.7	3.5	0.8	24.68
	대전/충청	44.9	25.4	14.5	8.4	5.5	1.3	35.41
	강원/제주	72.4	14.8	5.8	5.7	0.9	0.4	15.39
규모별	소기업	64.5	20.9	11.7	2.9	0.0	0.0	12.47
	중기업	0.0	34.6	32.1	16.5	16.8	0.0	53.70
	대기업	0.0	0.0	0.0	0.0	35.7	64.3	1,649.57
고용	디자이너 고용	49.8	22.4	15.5	5.4	4.8	2.1	77.81
	디자이너 비고용	52.1	24.2	14.9	5.4	2.7	0.7	23.58
외주	외주용역 있음	46.9	23.6	16.7	6.1	4.6	2.1	82.64
	외주용역 없음	55.5	22.4	13.4	4.6	3.3	0.8	27.49



02-5-2. 디자인 활용기업의 성별/채용상태별 종사자 수 평균

- + 디자인 활용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 58.87명)를 성별로 보면  
남자 직원 수는 평균 38.11명, 여자 직원 수는 평균 20.76명으로 남자 직원이 평균 17.35명 더 많음.  
채용 상태별로는, 정규직 직원이 평균 55.93명, 비정규직 직원이 평균 2.94명으로 정규직 직원이 대다수임.

<그림 4-1-7> 디자인 활용기업의 성별/채용상태별 종사자 수 (평균)



- +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남자 종사자 수는 평균 33.94명, 여자 종사자 수는 평균 7.17명으로 타 업종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남자 종사자가 많음.  
한편, 사업시설관리업의 비정규직 종사자 수는 평균 13.86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음.

<표 4-1-13> 업종별 디자인 활용기업의 성별/채용상태별 종사자 수 (평균)

		(단위 : 명)				
구 분		총 종사자 수 평균	남자 종사자 수 평균	여자 종사자 수 평균	정규직 종사자 수 평균	비정규직 종사자 수 평균
디자인 활용기업 평균(전체)		58.87	38.11	20.76	55.93	2.94
업종별	제조업	35.24	23.91	11.33	33.29	1.95
	건설업	41.11	33.94	7.17	34.81	6.30
	출판/영상/정보	39.14	26.37	12.77	37.93	1.21
	전문/과학/기술	205.34	121.95	83.39	203.14	2.20
	사업시설관리	51.30	32.27	19.03	37.44	13.86



+ 권역별로 보면, 서울은 남자 종사자 수가 평균 54.56명, 여자 종사자수가 평균 32.05명으로 상대적으로 여자 종사자 수가 많음. 부산/울산/경남은 남자 종사자 수가 평균 31.07명, 여자 종사자 수가 평균 9.27명으로 상대적으로 여자 종사자 수가 적음. 한편, 부산/울산/경남의 비정규직 종사자 수는 평균 4.06명으로 권역 중 가장 높음.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남자 종사자 수는 평균 50.19명, 여자 종사자 수 는 평균 27.62명이고, 정규직 종사자 수는 평균 75.42명, 비정규직 종사자 수는 평균 2.39명임.

외주용역 경험이 있는 기업의 남자 종사자 수는 평균 54.07명, 여자 종사자 수는 평균 28.57명이고, 정규직 종사자 수는 평균 78.36명, 비정규직 종사자 수는 평균 4.28명임.

<표 4-1-14>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용역별 디자인 활용기업의 성별/채용상태별 종사자 수 (평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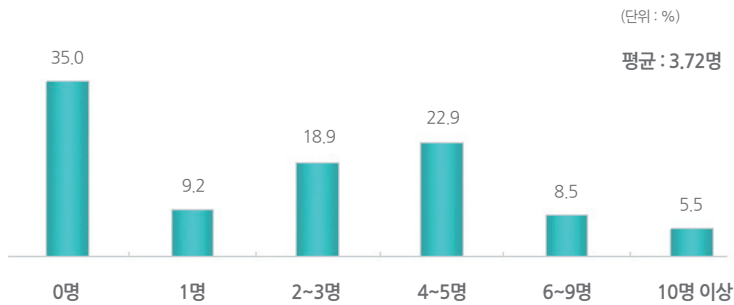
구 분		총 종사자 수 평균	남자 종사자 수 평균	여자 종사자 수 평균	정규직 종사자 수 평균	비정규직 종사자 수 평균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58.87	38.11	20.76	55.93	2.94
권역별	서울	86.61	54.56	32.05	83.11	3.50
	부산/울산/경남	40.34	31.07	9.27	36.28	4.06
	대구/경북	26.50	16.57	9.93	24.32	2.18
	인천/경기	42.75	28.53	14.22	40.67	2.08
	광주/전라	24.68	16.95	7.73	22.91	1.77
	대전/충청	35.41	21.79	13.62	32.64	2.77
	강원/제주	15.39	9.91	5.48	13.57	1.82
규모별	소기업	12.47	7.81	4.66	11.75	0.72
	중기업	53.70	35.78	17.92	48.29	5.41
	대기업	1,649.57	1,068.40	581.17	1,592.59	56.98
고용	디자이너 고용	77.81	50.19	27.62	75.42	2.39
	디자이너 비고용	23.58	15.59	7.99	19.61	3.97
외주	외주용역 있음	82.64	54.07	28.57	78.36	4.28
	외주용역 없음	27.49	17.03	10.46	26.31	1.18



02-5-3. 디자인 활용기업의 디자이너 수 (평균)

- + 디자인 활용기업의 디자이너 수는 평균 3.72명임.  
디자이너가 없는 기업은 35.0%로 가장 많고, 다음은 평균 디자이너 수가 '4~5명'인 기업이 22.9%, '2~3명'인 기업은 18.9%, '1명'인 기업은 9.2% 등의 순임.

<그림 4-1-8> 디자인 활용기업의 디자이너 수 (평균)



- + 업종별로 보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디자이너 수는 평균 7.93명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건설업(4.66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58명), 제조업(2.97명) 등의 순임.

<표 4-1-15> 업종별 디자인 활용기업의 디자이너 수 (평균)

구 분		(단위 : %, 명)						
		0명	1명	2~3명	4~5명	6~9명	10명 이상	평균(명)
디자인 활용기업 평균(전체)		35.0	9.2	18.9	22.9	8.5	5.5	3.72
업종별	제조업	41.1	4.1	13.2	30.6	8.1	2.9	2.97
	건설업	10.9	15.9	27.4	22.0	13.7	10.1	4.66
	출판/영상/정보	30.1	23.7	21.0	12.0	5.1	8.1	3.58
	전문/과학/기술	16.4	10.6	33.8	11.6	14.4	13.2	7.93
	사업시설관리	65.8	7.7	22.6	2.9	1.0	0.0	0.76



✚ 권역별로 보면, 서울의 디자이너 수는 평균 5.0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3.43명), 대구/경북(3.00명) 등의 순임.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디자이너 수가 평균 26.66명으로 가장 많고, 중기업이 평균 5.24명, 소기업이 평균 2.66명임.

외주용역 경험 유무별로 보면, 외주용역 경험이 없는 기업의 디자이너 수는 평균 5.56명으로 경험이 있는 기업(2.33명)보다 많음.

〈표 4-1-16〉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용역별 디자인 활용기업의 디자이너 수 (평균)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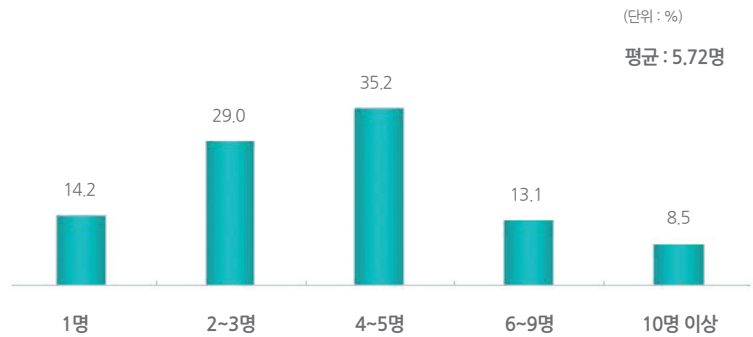
구 분		0명	1명	2~3명	4~5명	6~9명	10명 이상	평균(명)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35.0	9.2	18.9	22.9	8.5	5.5	3.72
권역별	서울	28.4	10.4	23.0	18.5	11.1	8.6	5.01
	부산/울산/경남	30.8	6.8	17.8	33.0	7.2	4.4	3.43
	대구/경북	31.3	8.6	24.7	22.5	12.0	0.9	3.00
	인천/경기	39.8	6.8	13.4	32.5	3.1	4.4	2.75
	광주/전라	63.6	8.2	10.7	12.6	4.6	0.3	1.34
	대전/충청	48.6	15.8	10.3	10.6	13.4	1.3	2.19
	강원/제주	51.9	12.7	18.3	10.5	6.4	0.2	1.44
규모별	소기업	37.6	6.7	19.0	26.9	7.6	2.2	2.66
	중기업	26.6	19.8	18.7	8.0	11.0	15.9	5.24
	대기업	15.3	7.3	17.4	10.7	17.5	31.8	26.66
고용	디자이너 고용	0.0	14.2	29.0	35.2	13.1	8.5	5.72
	디자이너 비고용	100.0	0.0	0.0	0.0	0.0	0.0	0.00
외주	외주용역 있음	61.4	8.3	12.7	10.6	2.4	4.6	2.33
	외주용역 없음	0.0	10.5	27.0	39.2	16.5	6.8	5.56



02-5-3-1. 디자이너 고용기업의 디자이너 수 (평균)

+ 디자인 활용기업 중 디자이너 고용기업의 디자이너 수는 평균 5.72명임. 평균 디자이너 수가 ‘4~5명’인 기업이 35.2%로 가장 많고, 다음은 ‘2~3명’인 기업이 29.0%, ‘1명’인 기업이 14.2% 등의 순임.

<그림 4-1-9> 디자이너 고용기업의 디자이너 수 (평균)



+ 업종별로 보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고용된 디자이너 수가 평균 9.4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건설업(5.23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12명), 제조업(5.05명) 순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디자이너 수는 평균 2.21명임.

<표 4-1-17> 업종별 디자이너 고용기업의 디자이너 수 (평균)

							(단위 : %, 명)
구 분		1명	2~3명	4~5명	6~9명	10명 이상	평균(명)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14.2	29.0	35.2	13.1	8.5	5.72
업종별	제조업	6.9	22.5	52.0	13.7	4.9	5.05
	건설업	17.8	30.8	24.7	15.4	11.3	5.23
	출판/영상/정보	33.8	30.1	17.1	7.3	11.7	5.12
	전문/과학/기술	12.7	40.4	13.9	17.2	15.8	9.49
	사업시설관리	22.6	66.1	8.4	2.9	0.0	2.21



➤ 권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디자이너 수가 평균 6.9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부산/울산/경남(4.95명), 인천/경기(4.57명), 대구/경북(4.36명) 등의 순임.

규모별로 평균 디자이너 수를 비교해보면 대기업은 31.52명, 중기업은 7.14명, 소기업은 4.25명임.

외주용역 여부별로 보면 외주용역이 있는 기업의 디자이너 수는 평균 6.03명으로 외주용역이 없는 기업의 평균 디자이너 수(5.56명) 보다 많음.

〈표 4-1-18〉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용역별 디자이너 고용기업의 디자이너 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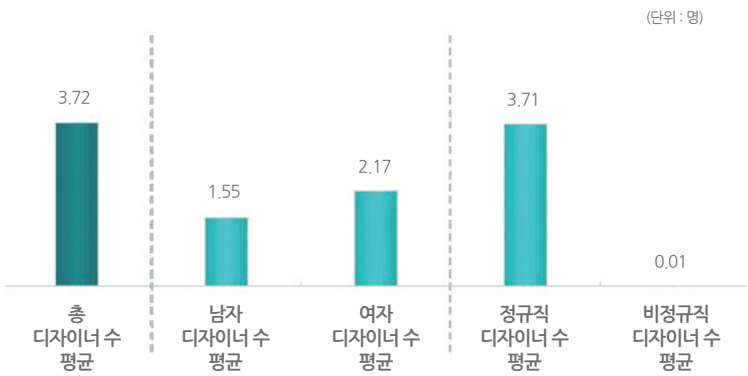
							(단위 : %, 명)
구 분		1명	2~3명	4~5명	6~9명	10명 이상	평균(명)
디자인 활용기업(전체)		14.2	29.0	35.2	13.1	8.5	5.72
권역별	서울	14.6	32.1	25.8	15.6	11.9	6.99
	부산/울산/경남	9.8	25.7	47.6	10.3	6.6	4.95
	대구/경북	12.5	35.9	32.7	17.5	1.4	4.36
	인천/경기	11.4	22.2	54.1	5.2	7.1	4.57
	광주/전라	22.5	29.4	34.6	12.6	0.9	3.67
	대전/충청	30.7	20.1	20.6	26.1	2.5	4.27
	강원/제주	26.3	38.0	21.9	13.4	0.4	3.00
규모별	소기업	10.8	30.4	43.1	12.2	3.5	4.25
	중기업	26.9	25.5	10.9	15.0	21.7	7.14
	대기업	8.6	20.5	12.6	20.7	37.6	31.52
외주	외주용역 있음	21.4	33.0	27.4	6.3	11.9	6.03
	외주용역 없음	10.5	27.0	39.2	16.5	6.8	5.56



02-5-4. 디자인 활용기업의 성별/채용상태별 디자이너 수 (평균)

- + 디자인 활용업체의 디자이너 수를 성별로 보면, 남자 디자이너 수는 평균 1.55명, 여자 디자이너 수는 평균 2.17명으로 여자가 더 많음.
- 채용 상태별로는, 정규직 디자이너가 평균 3.71명, 비정규직 디자이너가 평균 0.01명임.

<그림 4-1-10> 디자인 활용기업의 성별/채용상태별 디자이너 수 (평균)



-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여자 디자이너 수가 평균 2.23명으로 남자 디자이너 수 평균 0.74명 보다 많은 반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는 남자 디자이너 수가 평균 5.16명으로 여자 디자이너 수 평균 2.77명보다 2배 정도 많음.

디자이너 고용 형태별로는 모든 업종에서 정규직 디자이너 수가 대다수임.

<표 4-1-19> 업종별 디자인 활용기업의 성별/채용상태별 디자이너 수 (평균)

(단위 : 명)

구 분		총 디자이너 수 평균	남자 디자이너 수 평균	여자 디자이너 수 평균	정규직 디자이너 수 평균	비정규직 디자이너 수 평균
디자인 활용기업 평균(전체)		3.72	1.55	2.17	3.71	0.01
업종별	제조업	2.97	0.74	2.23	2.97	0.00
	건설업	4.66	2.02	2.64	4.65	0.01
	출판/영상/정보	3.58	1.71	1.87	3.55	0.03
	전문/과학/기술	7.93	5.16	2.77	7.93	0.00
	사업시설관리	0.76	0.43	0.33	0.73	0.03



+ 권역별, 규모별, 성별, 외주용역 경험별로 디자이너 수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권역에서 평균 여자 디자이너 수가 평균 남자 디자이너 수보다 크며, 특히 부산/울산/경남(2.29명), 대구/경북(2.26명)에서 더 큰 차이가 남.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남자 디자이너 수가 많음.

디자이너 고용기업의 남자 디자이너 수는 평균 2.38명, 여자 디자이너 수는 평균 3.34명으로  
 여자 디자이너가 더 많음.

디자인 외주 용역 경험 기업의 남자 디자이너 수는 평균 0.97명, 여자 디자이너 수는 평균 1.36명임.

<표 4-1-20>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용역별 디자인 활용기업의 성별/채용상태별 디자이너 수 (평균)

구 분		(단위 : 명)				
		총 디자이너 수 평균	남자 디자이너 수 평균	여자 디자이너 수 평균	정규직 디자이너 수 평균	비정규직 디자이너 수 평균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3.72	1.55	2.17	3.71	0.01
권역별	서울	5.01	2.32	2.69	5.00	0.01
	부산/울산/경남	3.43	1.14	2.29	3.40	0.03
	대구/경북	3.00	0.74	2.26	3.00	0.00
	인천/경기	2.75	0.96	1.79	2.74	0.01
	광주/전라	1.34	0.59	0.75	1.33	0.01
	대전/충청	2.19	1.10	1.09	2.19	0.00
	강원/제주	1.44	0.77	0.67	1.43	0.01
규모별	소기업	2.66	0.85	1.81	2.66	0.00
	중기업	5.24	2.74	2.50	5.21	0.03
	대기업	26.57	15.10	11.47	26.41	0.16
고용	디자이너 고용	5.72	2.38	3.34	5.70	0.02
	디자이너 비고용	0.00	0.00	0.00	0.00	0.00
외주	외주용역 있음	2.33	0.97	1.36	2.32	0.01
	외주용역 없음	5.56	2.32	3.24	5.55	0.01



02-6.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디자인 영역별로 디자이너 수를 분석해 보면 '환경디자인'이 평균 1.04명으로 디자인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디자이너가 활동하고 있고, 다음으로 '제품디자인'(0.93명), '시각디자인'(0.78명), '디지털미디어디자인'(0.41명) 등의 순임.

<그림 4-1-11> 디자인 활용기업의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제품디자인' 영역의 디자이너가 1.34명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업은 '환경디자인'영역의 디자이너 수가 각각 3.74명, 4.54명으로 가장 많음. 한편, 출판/영상/정보업은 '디지털미디어디자인'영역의 디자이너(2.11명)가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업은 '시각디자인'영역의 디자이너(0.48명)가 가장 많음.

<표 4-1-21> 업종별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구 분		(단위 : 명)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환경 디자인	의상패션 디자인	포장 디자인	기타 디자인
디자인 활용기업(전체)		0.93	0.78	0.41	1.04	0.28	0.08	0.20
업종별	제조업	1.34	0.77	0.05	0.17	0.39	0.09	0.16
	건설업	0.37	0.35	0.05	3.74	0.00	0.00	0.15
	출판/영상/정보	0.22	0.89	2.11	0.12	0.02	0.00	0.22
	전문/과학/기술	0.78	1.14	0.38	4.54	0.43	0.17	0.49
	사업시설관리	0.05	0.48	0.03	0.13	0.00	0.00	0.07



+ 권역별로 보면, 서울과 강원/제주는 '환경디자인' 디자이너 수가 각각 1.73명, 0.49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는 '제품디자인'의 디자이너 수가 각각 1.78명, 1.42명, 1.27명으로 가장 많음.

규모별로 보면, 소기업은 '제품디자인' 디자이너 수가 0.94명으로 가장 많고, 중기업과 대기업은 '환경디자인' 디자이너 수가 각각 1.67명, 11.47명으로 가장 많음.

<표 4-1-22>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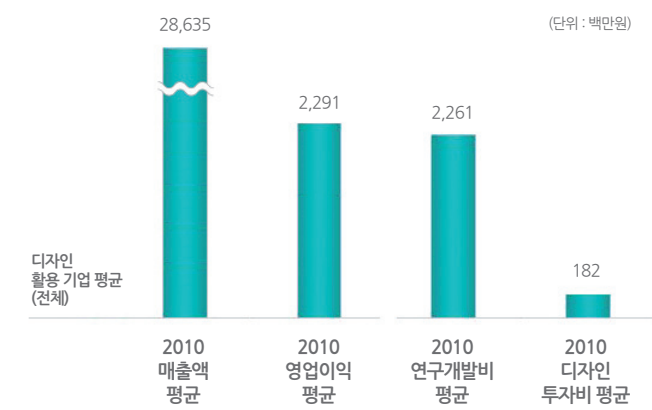
구 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환경 디자인	의상패션 디자인	포장 디자인	기타 디자인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0.93	0.78	0.41	1.04	0.28	0.08	0.20
권역별	서울	0.63	0.92	0.73	1.73	0.57	0.12	0.31
	부산/울산/경남	1.78	0.65	0.18	0.74	0.07	0.01	0.00
	대구/경북	1.42	0.59	0.16	0.65	0.17	0.00	0.01
	인천/경기	1.27	0.78	0.15	0.31	0.01	0.05	0.18
	광주/전라	0.19	0.65	0.23	0.22	0.02	0.03	0.00
	대전/충청	0.44	0.52	0.11	0.72	0.00	0.08	0.32
	강원/제주	0.27	0.33	0.11	0.49	0.00	0.01	0.23
규모별	소기업	0.94	0.66	0.11	0.57	0.16	0.07	0.15
	중기업	0.63	0.82	1.47	1.67	0.21	0.06	0.38
	대기업	2.89	4.55	2.13	11.47	4.66	0.49	0.38
고용	디자이너 고용	1.43	1.20	0.63	1.60	0.43	0.12	0.31
	디자이너 비고용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외주	외주용역 있음	0.60	0.41	0.24	0.84	0.08	0.04	0.12
	외주용역 없음	1.37	1.28	0.64	1.31	0.53	0.12	0.31



02-7-1. 2010년 재무 및 투자 현황

2010년 디자인 활용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86억 3,500만원임. 평균 영업이익은 22억 9,111만원, 평균 연구개발비는 22억 6,136만원이며, 평균 디자인 투자비는 1억 8,164만원으로 가장 적음.

〈그림 4-1-12〉 2010년 기업 재무 및 디자인 투자 현황



업종별로 보면, 전문/과학/기술업의 평균 매출액(685억 6,051만원), 평균 영업이익(39억 9,588만원), 평균 연구개발비(44억 314만원), 평균 디자인투자비(3억 1,520만원)가 가장 높고, 사업시설관리업이 가장 낮음.

〈표 4-1-23〉 업종별 2010년 재무 및 디자인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연구개발비 평균	디자인투자비 평균
디자인 활용기업(전체)		28,635	2,291	2,261	182
업종별	제조업	25,622	2,605	2,793	172
	건설업	40,755	2,099	558	187
	출판/영상/정보	9,349	625	357	137
	전문/과학/기술	68,561	3,996	4,403	315
	사업시설관리	4,235	282	151	96



- ✚ 권역별로 보면, 서울의 매출액 평균(372억 3,865만원)과 디자인 투자비 평균(2억 875만원)이 다른 권역보다 많으며, 인천/경기는 평균 영업이익(36억 6,206만원)이 가장 많음.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디자인투자비가 가장 많음.

디자이너 고용 여부별로는, 디자이너를 고용한 기업의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디자인투자비가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보다 2배 이상 많음.

외주용역 경험 유무별로는, 외주 용역 경험이 있는 기업의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디자인투자비가 외주 용역 경험이 없는 기업보다 2배 이상 많음.

〈표 4-1-24〉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2010년 재무 및 디자인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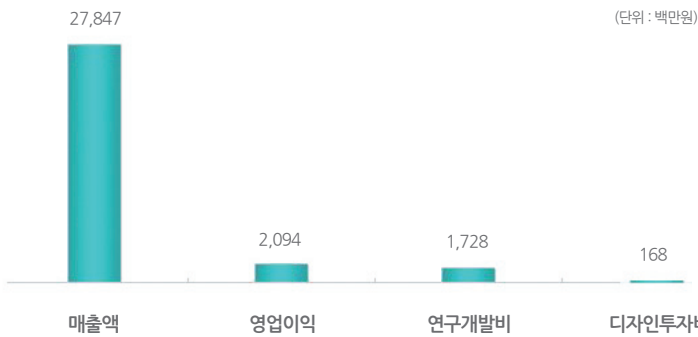
구 분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연구개발비	평균 디자인투자비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28,635	2,291	2,261	182
권역별	서울	37,239	2,131	2,293	209
	부산/울산/경남	12,381	2,689	4,712	176
	대구/경북	10,663	723	940	140
	인천/경기	34,163	3,662	2,369	169
	광주/전라	10,744	895	292	169
	대전/충청	12,329	492	750	133
	강원/제주	13,673	1,311	1,329	102
규모별	소기업	3,266	379	199	95
	중기업	16,056	1,372	619	202
	대기업	966,336	72,750	83,474	2,882
고용	디자이너 고용	40,625	3,180	3,008	219
	디자이너 비고용	6,322	638	872	112
외주	외주용역 있음	43,610	3,410	3,344	213
	외주용역 없음	8,843	812	831	140



02-7-2. 2009년 재무 및 투자 현황

2009년 디자인 활용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78억 4,700만원임. 평균 영업이익은 20억 9,400만원, 평균 연구개발비는 17억 2,800만원이며, 평균 디자인투자비는 1억 6,800만원으로 가장 적음.

〈그림 4-1-13〉 2009년 재무 및 디자인 투자 현황



업종별로 보면, 전문/과학/기술업의 평균 매출액(661억 9,154만원), 평균 영업이익(52억 6,526만원), 연구개발비(41억 9,791만원), 디자인투자비(5억 3,377만원)가 5개 업종 중 가장 많음.

〈표 4-1-25〉 업종별 2009년 재무 및 디자인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매출액	총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디자인투자비
디자인 활용기업(전체)		27,847	2,094	1,728	168
업종별	제조업	24,507	1,957	1,918	117
	건설업	44,675	2,641	458	186
	출판/영상/정보	8,219	407	393	93
	전문/과학/기술	66,192	5,265	4,198	534
	사업시설관리	3,720	211	40	36



- ✚ 권역별로 보면, 서울은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및 디자인투자비가 각각 363억 6,100만원, 25억 900만원, 2억 3,8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은 연구개발비가 31억 6,400만원으로 가장 많음.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디자인투자비가 가장 큼.

디자이너 고용 여부별로 보면, 디자이너를 고용한 기업의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디자인투자비가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보다 3배 이상 많음.

외주용역 경험 유무별로 보면, 외주 용역 경험이 있는 기업의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디자인투자비가 외주 용역 경험이 없는 기업보다 많음.

〈표 4-1-26〉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2009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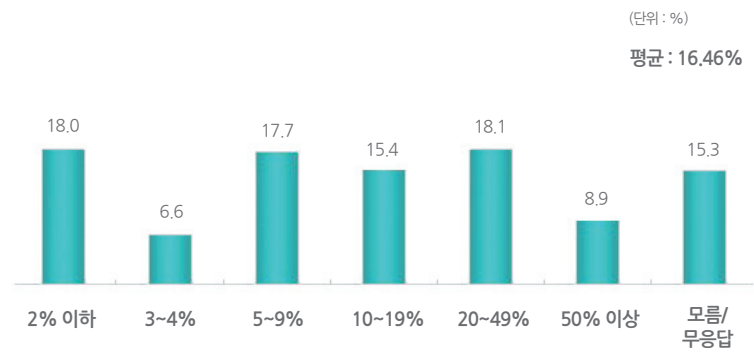
구 분		총 매출액	총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디자인투자비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27,847	2,094	1,728	168
권역별	서울	36,361	2,509	1,771	238
	부산/울산/경남	18,456	2,172	3,164	118
	대구/경북	10,554	1,053	700	113
	인천/경기	30,130	2,384	1,958	119
	광주/전라	9,453	679	191	61
	대전/충청	13,218	360	673	121
	강원/제주	12,807	1,021	984	79
규모별	소기업	2,884	228	182	73
	중기업	15,239	1,169	508	160
	대기업	952,411	71,058	62,525	3,341
고용	디자이너 고용	39,661	2,984	2,321	223
	디자이너 비고용	5,862	437	624	66
외주	외주용역 있음	42,957	3,198	2,531	204
	외주용역 없음	7,875	634	666	120



02-8. 매출액 중 디자인 투자 금액 적정 비중

- 매출액 중 디자인 투자 적정 비중은, 평균 매출액의 16.46%로 조사됨.  
적정 비중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보면, 매출액의 '20~49%'라고 응답한 기업은 18.1%, 매출액의 '2%이하'인 기업은 18.0%, 매출액의 '5~9%'인 기업은 17.7%임.

<그림 4-1-14> 매출액 중 디자인 투자 금액 적정 비중



- 업종별로 보면, 전문/과학/기술업의 매출 대비 디자인 투자금액 적정 수준은 21.46%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건설업(20.18%), 출판/영상/정보업(19.27%) 등의 순임.

<표 4-1-27> 업종별 매출액 중 디자인 투자 금액 적정 비중

(단위 : %)

구 분		2% 이하	3~4%	5~9%	10~19%	20~49%	50% 이상	평균(%)
디자인 활용기업(전체)		18.0	6.6	17.7	15.4	18.1	8.9	16.46
업종별	제조업	22.2	8.9	17.7	14.2	17.7	7.0	14.67
	건설업	13.0	7.6	16.9	18.4	16.7	14.5	20.18
	출판/영상/정보	8.1	2.8	14.1	13.8	17.7	8.8	19.27
	전문/과학/기술	10.5	2.9	23.4	16.5	24.3	16.2	21.46
	사업시설관리	27.5	0.9	16.8	24.9	11.3	3.8	10.69



- ✚ 권역별로 보면, 서울의 매출 대비 디자인 투자금액 적정 수준은 19.1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인천/경기(17.63%), 대구/경북(13.35%), 강원/제주(12.54%) 등의 순임.

규모별로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 적정 비중이 각각 16.60%, 16.52%로 대기업 11.39%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활용기업의 디자이너 고용여부별로는, 디자이너를 고용한 기업의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 비중이 22.19%로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 6.02%보다 높음.

〈표 4-1-28〉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매출액 중 디자인 투자 금액 적정 비중

(단위: %)

구 분		2% 이하	3~4%	5~9%	10~19%	20~49%	50% 이상	평균(%)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18.0	6.6	17.7	15.4	18.1	8.9	16.46
권역별	서울	6.6	6.9	15.1	16.8	27.3	9.0	19.19
	부산/울산/경남	13.5	13.2	26.7	9.0	24.1	2.6	11.92
	대구/경북	36.5	1.3	22.0	14.3	5.1	15.8	13.35
	인천/경기	28.5	3.6	18.7	11.3	8.2	9.9	17.63
	광주/전라	26.2	16.1	8.7	30.3	8.3	6.7	10.46
	대전/충청	34.5	3.1	22.8	18.8	5.9	8.5	12.17
	강원/제주	29.0	9.6	8.8	27.3	9.4	8.7	12.54
규모별	소기업	18.1	7.1	18.4	16.2	18.3	9.6	16.60
	중기업	16.2	4.4	15.0	12.3	17.7	6.7	16.52
	대기업	30.1	8.0	17.1	13.2	12.9	5.9	11.39
고용	디자이너 고용	7.9	3.0	17.5	18.2	24.7	12.8	22.19
	디자이너 비고용	36.9	13.4	18.1	10.2	5.7	1.7	6.02
외주	외주용역 있음	26.7	9.8	20.8	13.8	11.4	4.3	10.73
	외주용역 없음	6.5	2.5	13.7	17.6	26.9	15.1	2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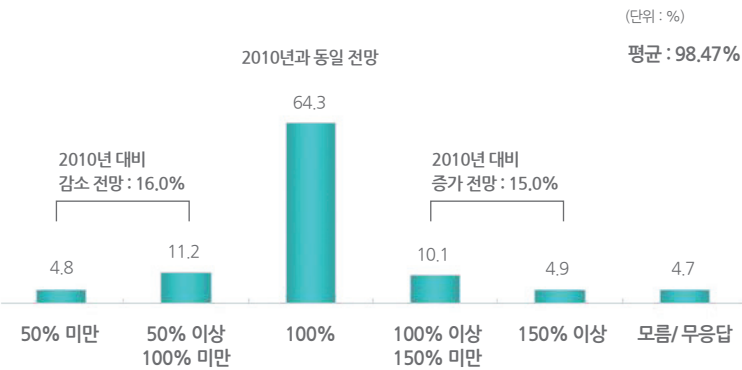


02-9-1. 2011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2010년 대비 2011년 디자인투자금액 수준<sup>1)</sup>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1년 디자인 투자금액은 2010년의 평균 98.47% 수준으로 2010년에 비해 약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 보면 '2010년과 동일할 것이다'는 전망(100%)은 64.3%로 가장 높으며, 2010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16.0%, 2010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15.0%임.

1) 2010년과 같으면 100%, 2010년 보다 증가하면 100%초과, 2010년 보다 감소하면 100% 미만으로 작성  
예를 들어 2010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했으면 200% 등으로 작성

〈그림 4-1-15〉 2011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업종별로 보면, 보면 제조업의 투자금액 전망은 103.22%이며, 전문/과학/기술업은 96.61%, 출판/영상/정보업은 94.97%, 사업시설관리업은 87.74%, 건설업은 83.72%임.

〈표 4-1-29〉 업종별 2011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단위 : %)				
구분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디자인 활용기업(전체)		4.8	11.2	64.3	10.1	4.9
업종별	제조업	1.8	9.0	69.7	10.6	5.3
	건설업	14.7	15.6	49.7	16.2	3.7
	출판/영상/정보	6.5	5.7	60.1	11.0	2.3
	전문/과학/기술	6.3	24.0	55.7	5.3	8.4
	사업시설관리	11.1	12.8	64.0	2.6	2.5
		평균(%)				



- ✚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의 디자인 투자 금액 전망은 101.13%, 인천/경기는 102.52%, 대전/충청은 104.40%이며, 그 외 권역은 2010년 대비 디자인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디자인 투자 전망은 108.87%로 소기업(98.25%) 및 중기업(98.06)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디자이너 고용 기업의 디자인 투자전망은 99.59%로 디자이너 비고용 기업 96.28%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표 4-1-30〉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2011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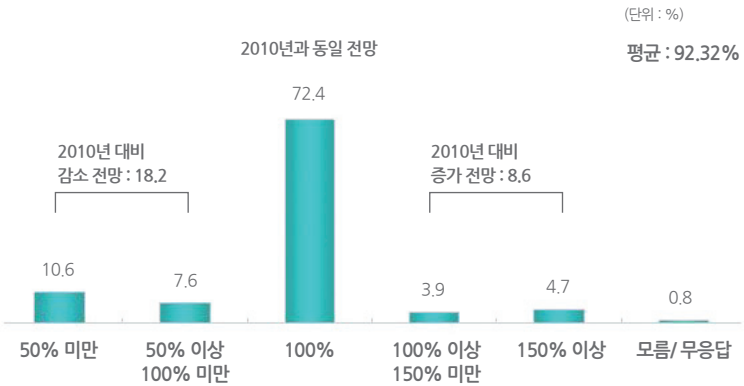
구 분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평균(%)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4.8	11.2	64.3	10.1	4.9	98.47
권역별	서울	6.5	13.5	58.3	8.7	3.7	95.23
	부산/울산/경남	5.4	13.8	71.6	5.3	3.5	96.40
	대구/경북	0.4	6.3	63.1	26.8	0.9	101.13
	인천/경기	4.4	9.5	69.4	7.1	9.5	102.52
	광주/전라	2.1	7.3	80.7	4.8	2.1	98.32
	대전/충청	2.4	5.2	68.7	14.1	8.0	104.40
	강원/제주	1.5	10.4	54.7	31.6	1.4	99.88
규모별	소기업	4.6	11.4	66.5	9.3	4.3	98.25
	중기업	5.9	10.7	55.7	12.6	7.0	98.06
	대기업	2.8	6.5	60.5	15.1	9.4	108.87
고용	디자이너 고용	5.8	11.0	61.1	12.0	6.7	99.59
	디자이너 비고용	3.0	11.4	70.1	6.4	1.7	96.28
외주	외주용역 있음	5.1	11.8	63.3	10.1	3.2	96.61
	외주용역 없음	4.5	10.3	65.6	10.0	7.3	100.81



02-9-2. 2011년 디자이너 고용전망

- 2011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2010년의 92.3% 수준으로 2010년 보다 고용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세부적으로 보면 '2010년과 동일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72.4%로 가장 높으며,  
'2010년 대비 감소할 것이다(100%미만)'라는 전망 비율은 18.2%로, '증가할 것이다' (100%초과)라는 비율(8.6%) 보다 많음.

<그림 4-1-16> 2011년 디자이너 고용전망



- 업종별로 보면, 출판/영상/정보업의 2011년 디자이너 고용전망이 105.48%로 가장 높고 업종 중 유일하게 100%를 상회함.  
다음은 사업시설관리업(97.12%), 전문/과학/기술업(93.60%) 등의 순으로 높으며, 건설업은 78.20%로 업종 중 가장 낮음.

<표 4-1-31> 업종별 디자이너 고용전망

(단위 : %)

구 분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평균(%)
활용업체		10.6	7.6	72.4	3.9	4.7	92.32
업종별	제조업	12.0	6.6	73.3	4.4	3.7	90.92
	건설업	18.1	11.7	68.5	0.3	1.4	78.20
	출판/영상/정보	4.1	6.7	70.4	1.8	12.5	105.48
	전문/과학/기술	8.7	7.5	73.2	7.1	2.8	93.60
	사업시설관리	1.1	13.4	80.0	3.1	2.3	97.12



+ 권역별로 보면, 인천/경기의 고용전망은 100.66%, 강원/제주는 105.28%로 2010년 대비 고용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그 외 권역은 2010년 대비 고용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서울(86.66%) 소재 기업의 디자이너 고용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됨.

규모별로는 소기업의 고용전망은 90.91%이고, 대기업은 97.65%임.

한편, 디자인 외주 용역 경험 있는 기업의 디자이너 고용전망은 101.2%로 외주 용역 경험이 없는 기업의 디자이너 고용전망 87.83%보다 높음.

<표 4-1-32>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 고용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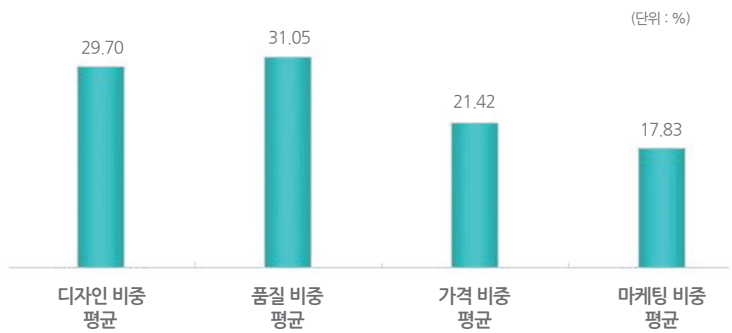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평균(%)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10.6	7.6	72.4	3.9	4.7	92.32
권역별	서울	18.5	8.6	59.9	5.8	5.5	86.66
	부산/울산/경남	3.6	4.9	84.4	2.2	3.9	97.65
	대구/경북	0.8	22.9	73.2	1.2	1.9	89.33
	인천/경기	3.4	0.1	89.6	2.7	4.2	100.66
	광주/전라	2.2	11.5	78.7	0.0	7.6	99.75
	대전/충청	3.6	7.6	88.3	0.2	0.3	94.10
	강원/제주	0.4	12.7	73.9	1.3	11.7	105.28
규모별	소기업	11.1	8.2	73.6	3.1	3.8	90.91
	중기업	9.3	6.1	67.1	6.1	7.8	96.61
	대기업	7.5	1.3	80.6	6.3	3.9	97.65
외주	외주용역 있음	6.7	5.7	76.2	2.7	7.1	101.22
	외주용역 없음	12.5	8.5	70.5	4.5	3.4	87.83



02-10.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중

+ 디자인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품질’이 31.05%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디자인’(29.70%), ‘가격’(21.42%), ‘마케팅’(17.82)순임.

<그림 4-1-17>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중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출판/영상/정보업은 ‘품질’의 비중이 각각 34.64%, 28.98%로 가장 높으며,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업은 ‘디자인’의 비중이 각각 32.65%, 34.62%로 가장 높음. 한편, 사업시설관리업은 ‘마케팅’(32.77%)의 비중이 가장 높음.

<표 4-1-33> 업종별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중

(단위 : %)

구 분		디자인 비중 평균	품질 비중 평균	가격 비중 평균	마케팅 비중 평균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29.70	31.05	21.42	17.83
업종별	제조업	29.92	34.64	21.49	13.95
	건설업	32.65	25.35	24.48	17.52
	출판/영상/정보	21.93	28.98	20.78	28.31
	전문/과학/기술	34.62	27.19	21.28	16.91
	사업시설관리	31.38	18.01	17.84	32.77



- ✚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31.42%), 인천/경기(34.45%), 광주/전라(27.19%) 그리고 강원/제주(30.71%)는 '품질'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서울(30.67%), 대구/경북(33.51%), 대전/충청(31.04%)은 '디자인'의 비중이 가장 높음.

규모별로 보면, 모든 규모에서 '품질'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히, 대기업에서의 '품질' 비중이 31.54%로 더욱 높음.

디자이너 고용 여부별로 보면, 디자이너를 고용한 기업은 '디자인'이 33.96%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품질'의 비중이 34.74%로 가장 높음.

외주 용역 경험 유무별로 보면, 외주 용역 경험이 있는 기업은 '품질'(32.64%)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외주 용역 경험이 없는 기업(34.57%)은 '디자인' 비중이 가장 높음.

〈표 4-1-34〉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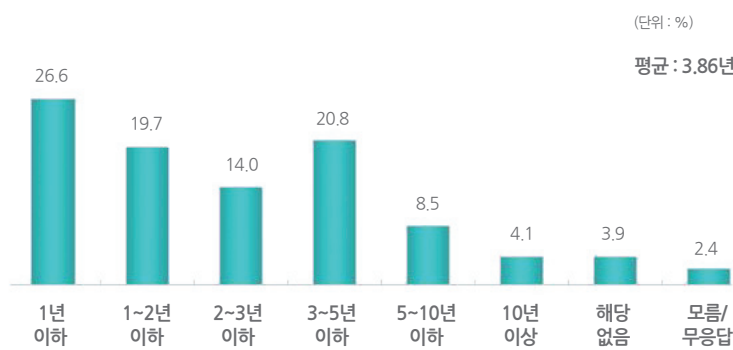
구 분		디자인 비중 평균	품질 비중 평균	가격 비중 평균	마케팅 비중 평균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29.70	31.05	21.42	17.83
권역별	서울	30.67	29.52	20.74	19.07
	부산/울산/경남	28.50	31.42	23.42	16.66
	대구/경북	33.51	31.51	19.67	15.31
	인천/경기	28.14	34.45	21.85	15.56
	광주/전라	24.48	27.19	21.82	26.51
	대전/충청	31.04	30.16	23.87	14.93
	강원/제주	29.09	30.71	20.14	20.06
규모별	소기업	30.03	31.32	21.89	16.76
	중기업	28.67	29.87	19.17	22.29
	대기업	26.84	31.54	23.62	18.00
고용	디자이너 고용	33.96	29.05	21.01	15.98
	디자이너 비고용	21.85	34.74	22.18	21.23
외주	외주용역 있음	26.06	32.64	21.06	20.24
	외주용역 없음	34.57	28.93	21.91	14.59



02-11. 주력제품의 디자인 평균 기대 수명

+ 디자인 활용기업의 주력제품 디자인 기대 수명은 평균 3.86년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력제품의 디자인 평균 기대 수명을 ‘1년 이하’로 응답한 기업은 26.6%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5년 이하’ 20.8%, ‘1~2년 이하’ 19.7%, ‘2~3년 이하’ 14.0% 등의 순임.

<그림 4-1-18> 주력제품의 디자인 평균 기대 수명



+ 업종별로 보면, 전문/과학/기술업의 주력제품 디자인 평균 기대 수명은 6.54년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건설업(4.03년), 제조업(3.54년), 출판/영상/정보업(3.13년)등의 순임.

<표 4-1-35> 업종별 주력제품의 디자인 평균 기대 수명

		(단위 : %, 년)						
구 분		1년 이하	1~2년 이하	2~3년 이하	3~5년 이하	5~10년 이하	10년 이상	해당 없음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26.6	19.7	14.0	20.8	8.5	4.1	3.9
업종별	제조업	24.6	19.4	16.5	25.1	4.9	3.4	4.2
	건설업	15.4	21.8	17.9	27.0	13.8	2.5	0.4
	출판/영상/정보	30.0	28.2	6.3	10.8	9.0	2.3	7.5
	전문/과학/기술	31.5	8.1	10.9	12.9	22.7	11.5	2.4
	사업시설관리	43.2	22.4	11.5	12.8	3.9	2.9	0.5
		평균 (년)	3.86	3.54	4.03	3.13	6.54	2.55



- ✚ 권역별로 보면, 서울의 주력제품 디자인 기대수명은 평균 4.49년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3.99년), 광주/전라(3.77년), 강원/제주(3.44년) 등의 순임.

규모별로는, 소기업의 주력제품 디자인 기대수명이 평균 3.60년, 중기업이 4.65년, 대기업이 5.93년으로, 규모가 클수록 주력제품 디자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김.

디자이너 고용 여부별로 보면, 디자이너를 고용한 기업의 평균 기대수명은 4.01년으로,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의 디자인 평균 기대수명 3.59년보다 김.

외주용역 여부별로는, 디자이너 외주용역 경험이 있는 기업과 경험이 없는 기업의 주력제품 디자인 평균 기대수명이 각각 3.85년, 3.87년으로 비슷한 수준임.

〈표 4-1-36〉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주력제품의 디자인 평균 기대 수명

(단위 : %, 년)

구 분		1년 이하	1~2년 이하	2~3년 이하	3~5년 이하	5~10년 이하	10년 이상	해당 없음	평균 (년)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26.6	19.7	14.0	20.8	8.5	4.1	3.9	3.86
권역별	서울	26.2	19.7	14.7	15.8	9.1	7.4	3.0	4.49
	부산/울산/경남	32.1	22.3	8.2	18.6	12.9	5.0	0.0	3.99
	대구/경북	11.9	31.7	18.3	31.0	5.1	1.4	0.6	3.56
	인천/경기	30.1	16.6	10.2	26.4	6.1	0.3	9.7	2.92
	광주/전라	24.0	11.7	24.4	22.4	16.7	0.4	0.4	3.77
	대전/충청	26.5	20.9	22.1	21.7	4.0	2.0	0.1	3.28
	강원/제주	26.9	16.1	15.0	26.5	8.7	0.8	6.0	3.44
규모별	소기업	25.6	20.0	15.3	22.0	7.1	3.4	4.5	3.60
	중기업	30.0	19.8	9.0	17.1	13.9	6.2	1.4	4.65
	대기업	30.0	13.0	13.9	11.5	14.3	9.8	4.8	5.93
고용	디자이너 고용	27.6	22.9	11.9	17.4	7.4	5.8	5.1	4.01
	디자이너 비고용	24.7	13.9	18.0	27.0	10.6	1.0	1.7	3.59
외주	외주용역 있음	23.1	15.7	17.7	26.8	9.9	2.6	2.3	3.85
	외주용역 없음	31.2	25.1	9.2	12.8	6.7	6.2	6.1	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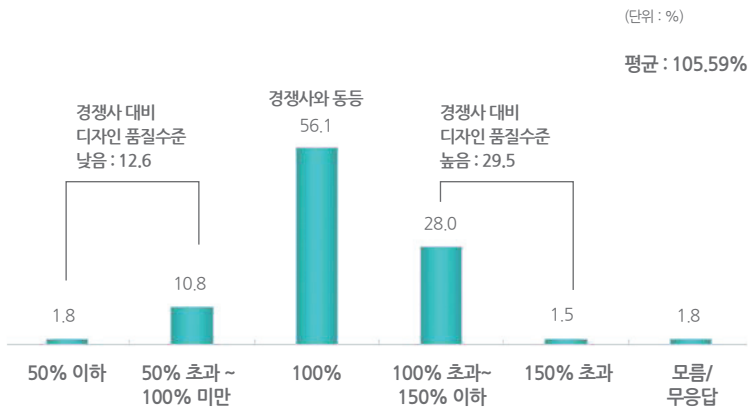


02-12.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수준<sup>2)</sup>은 평균 105.59%로 '자사의 디자인 품질 수준이 경쟁사에 비해 더 높다'고 평가함.  
 범주별로 보면, '경쟁사와 동등(100%)하다'는 응답 비율이 56.1%로 가장 높으며, '경쟁사에 비해 디자인 품질 수준이 높다(100% 초과)는 응답 비율은 29.5%,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이 낮다(100% 미만)는 응답 비율은 12.6%임.

2) 경쟁사와 대등한 수준이면 100%, 경쟁사 보다 뛰어난 수준이면 100%초과, 경쟁사보다 낮은 수준이면 100%미만의 수치로 작성

〈그림 4-1-19〉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 업종별로 보면, 사업시설관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경쟁사 대비 자사의 디자인 품질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제조업의 경쟁사 대비 자사 디자인 품질 수준은 106.78점으로 업종 중 가장 높으며, 사업시설관리업의 디자인 품질 수준은 93.55%로 가장 낮음.

〈표 4-1-37〉 업종별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단위 : %)				
구분		50% 이하	50% 초과 ~ 100% 미만	100%	100% 초과 ~ 150% 이하	150% 초과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1.8	10.8	56.1	28.0	1.5
업종별	제조업	0.7	9.6	55.8	32.1	0.9
	건설업	3.0	8.4	57.8	26.3	3.4
	출판/영상/정보	3.3	11.9	53.3	24.5	2.7
	전문/과학/기술	2.1	13.6	56.3	25.3	2.0
	사업시설관리	5.0	16.6	63.8	6.0	0.0
평균						



- ✚ 권역별로 보면, 모든 권역에서 자사의 디자인의 품질 수준 평가가 평균 100%이상임. 인천/경기에서의 자사 디자인 품질 수준 평가는 107.82%로 가장 높으며, 강원/제주 106.76%, 부산/울산/경남 106.51% 등의 순으로 높음.

규모별로 보면, 중기업의 디자인 품질 수준 평가는 평균 109.44%로 타 규모에 비해 높음.

디자이너 고용기업의 디자인 품질 수준 평가는 평균 108.68%로 디자이너 비고용기업 99.77% 보다 높음.

디자인 외주용역별로는 디자인 외주용역 비경험 기업의 디자인 품질 수준 평균이 109.45%로, 디자인 외주용역 경험기업 102.64%보다 높음.

〈표 4-1-38〉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단위 : %)

구 분		50% 이하	50% 초과 ~ 100% 미만	100%	100% 초과~ 150% 이하	150% 초과	평균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1.8	10.8	56.1	28.0	1.5	105.59
권역별	서울	2.2	11.2	56.7	25.1	2.0	105.01
	부산/울산/경남	1.0	25.6	29.9	41.8	0.8	106.51
	대구/경북	1.3	7.2	64.0	26.3	1.2	102.90
	인천/경기	0.4	1.8	62.7	33.1	0.3	107.82
	광주/전라	2.6	12.3	74.9	5.5	3.7	104.47
	대전/충청	3.8	25.1	45.8	24.2	0.2	102.75
	강원/제주	6.4	8.0	51.7	27.6	6.3	106.76
규모별	소기업	1.7	10.9	57.1	27.9	1.1	104.71
	중기업	1.5	9.8	52.7	28.4	3.3	109.44
	대기업	3.7	14.0	49.7	30.6	0.7	104.60
고용	디자이너 고용	0.6	8.4	54.7	33.0	1.8	108.68
	디자이너 비고용	3.8	15.2	58.7	18.7	0.9	99.77
외주	외주용역 있음	2.9	13.9	54.8	25.0	1.2	102.64
	외주용역 없음	0.3	6.6	57.8	32.1	1.9	10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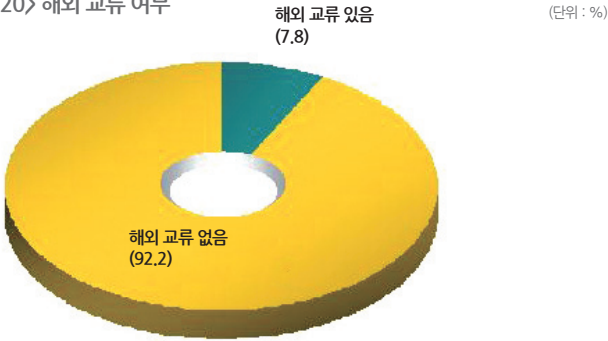


03  
디자인 역량

03-1. 해외 교류 여부

- + 디자인 활용기업 중 해외 디자인 정보 수집 및 개발을 위해 해외 지사가 있거나, 해외 관련 기관 혹은 해외 인력과 교류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7.8%임.  
그 외 대다수는 해외 교류가 없음.

<그림 4-1-20> 해외 교류 여부 (단위 : %)



- +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18.1%)에서 상대적으로 해외 교류가 많고, 사업시설관리업 (0.5%)이 가장 적음.

<표 4-1-39> 업종별 해외 교류 여부

(단위 : %)

구분		해외 교류 있음	해외 교류 없음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7.8	92.2
업종별	제조업	8.2	91.8
	건설업	18.1	81.9
	출판/영상/정보	5.2	94.8
	전문/과학/기술	4.9	95.1
	사업시설관리	0.5	99.5



- +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11.2%), 규모별로는 대기업(17.0%), 디자이너 고용기업(11.3%)에서 상대적으로 해외 교류 비율이 높음.
- 반면, 권역별로는 강원/제주(99.6%), 규모별로는 소기업(92.5%), 디자이너 비고용기업(98.9%), 외주 용역 경험이 있는 기업(92.7%)에서 해외 교류를 하지 않는 비율이 더욱 높음.

〈표 4-1-40〉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해외 교류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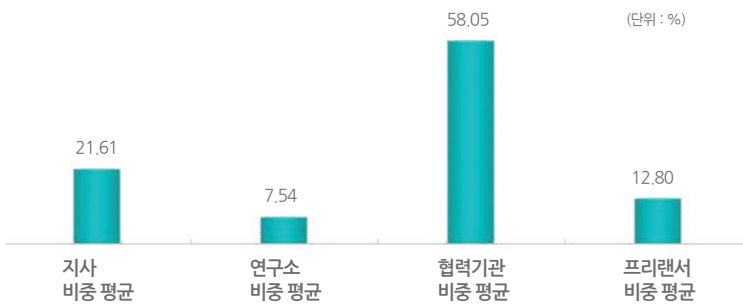
구 분		해외 교류 있음	해외 교류 없음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7.8	92.2
권역별	서울	6.4	93.6
	부산/울산/경남	11.2	88.8
	대구/경북	6.8	93.2
	인천/경기	10.6	89.4
	광주/전라	9.1	90.9
	대전/충청	2.8	97.2
	강원/제주	0.4	99.6
규모별	소기업	7.5	92.5
	중기업	7.9	92.1
	대기업	17.0	83.0
고용	디자이너 고용	11.3	88.7
	디자이너 비고용	1.1	98.9
외주	외주용역 있음	7.3	92.7
	외주용역 없음	8.3	91.7



03-1-1.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방법 비중

+ 해외 교류 방법으로는 ‘협력기관’을 통한 교류 비중이 58.05%로 가장 높고, 이어 ‘지사’(21.61%), ‘프리랜서’(12.80%), ‘연구소’(7.54%) 순임.

<그림 4-1-21>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방법 비중



+ 업종별로 보면, 해외 교류 방법으로 ‘협력기관’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제조업(66.09%), 건설업(48.53%) 그리고 출판/영상/정보업(62.17%)이며, ‘지사’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전문/과학/기술업(63.11%)과 사업시설관리업(100.0%)임.

<표 4-1-41> 업종별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방법 비중

(단위 : %)

구분	지사 비중 평균	연구소 비중 평균	협력기관 비중 평균	프리랜서 비중 평균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21.61	7.54	58.05	12.80
제조업	14.14	7.71	66.09	12.06
건설업	34.95	8.72	48.53	7.80
출판/영상/정보	2.75	0.00	62.17	35.08
전문/과학/기술	63.11	13.22	20.22	3.45
사업시설관리	100.00	0.00	0.00	0.00



- ✚ 권역별로 보면, ‘협력기관’의 비중이 큰 권역은 서울(58.28%), 부산/울산/경남(81.31%) 그리고 인천/경기(70.16%)이며, ‘지사’의 비중이 큰 권역은 대구/경북(84.69%), 대전/충청(45.84%)임. 한편, 광주/전라는 ‘프리랜서’의 비중이 86.22%로 크며, 강원/제주는 ‘연구소’(100%)를 통해 해외 교류함

규모별로는, 소기업(63.03%)과 중기업(49.20%)은 해외교류 시 ‘협력기관’을 통해 교류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대기업(66.84%)은 ‘지사’의 비중이 가장 큼.

디자이너 고용 여부별로 보면, 디자이너를 고용한 기업(61.17%)은 ‘협력기관’의 비중이,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프리랜서’(94.52%) 비중이 큼.

외주 용역 경험 유무와는 관계없이 ‘협력기관’을 통한 해외교류 비중이 가장 크며, 특히 외주용역이 없는 기업(61.80%)에서 더욱 큼.

〈표 4-1-42〉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방법 비중

(단위 : %)

구 분		지사 비중 평균	연구소 비중 평균	협력기관 비중 평균	프리랜서 비중 평균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21.61	7.54	58.05	12.80
권역별	서울	26.26	7.65	58.28	7.81
	부산/울산/경남	7.04	1.45	81.31	10.20
	대구/경북	84.69	13.26	1.29	0.76
	인천/경기	12.01	8.57	70.16	9.26
	광주/전라	2.19	3.65	7.93	86.23
	대전/충청	45.84	20.28	11.25	22.63
	강원/제주	0.00	100.00	0.00	0.00
규모별	소기업	16.21	6.29	63.03	14.47
	중기업	30.88	12.04	49.20	7.88
	대기업	66.84	8.85	17.42	6.89
고용	디자이너 고용	22.47	7.94	61.17	8.42
	디자이너 비고용	5.48	0.00	0.00	94.52
외주	외주용역 있음	28.55	3.89	54.83	12.73
	외주용역 없음	13.52	11.79	61.80	12.89



03-1-2. 교류하는 해외 지역

디자인 활용기업 중 해외 교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교류 지역을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유럽’이 52.7%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다음은 ‘미주’ 31.0%, ‘동남아’ 30.0%, 중국 28.4%, 일본 11.2% 등의 순임.

〈그림 4-1-22〉 교류 해외 지역(중복응답)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53.6%), 건설업(63.3%) 그리고 전문/과학/기술업(48.3%)은 유럽과 가장 많이 교류함. 출판/영상/정보업(39.4%)은 ‘일본’, 사업시설관리업(78.0%)은 ‘중국’과 가장 많이 교류함.

〈표 4-1-43〉 업종별 교류 해외 지역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유럽	미주	동남아	중국	일본	중동	호주	아프리카	베트남	홍콩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52.7	31.0	30.0	28.4	11.2	0.9	0.4	0.1	0.1	0.1
업종별	제조업	53.6	41.1	31.6	33.5	10.1	0.2	0.0	0.0	0.0	0.1
	건설업	63.3	8.4	34.6	11.3	3.5	3.1	2.0	0.0	0.3	0.0
	출판/영상/정보	31.4	10.3	1.6	25.5	39.4	0.0	0.0	0.0	0.0	0.0
	전문/과학/기술	48.3	41.7	43.6	35.8	3.8	1.3	0.0	1.4	0.0	0.0
	사업시설관리	14.3	36.3	14.3	78.0	0.0	0.0	0.0	0.0	0.0	0.0



- ✚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유럽'과 가장 많이 교류하며, 특히, 강원/제주(100.0%)에서 가장 많이 교류함.  
한편, 부산/울산/경남은 '미주'(99.3%)와, 광주/전라는 '중국'(86.2%)과 주로 교류함.

규모별로 보면, 소기업은 '유럽'과의 교류 비율이 57.4%로 가장 높고, 중기업은 '중국'(47.4%)과, 대기업은 '미주'(58.9%)와 주로 교류함.

디자인 고용 여부별로 보면, 디자이너를 고용한 기업은 '유럽'과의 교류 비율이 55.4%로 가장 높은 반면,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중국'과의 교류 비율이 95.6%로 가장 높음.

외주 용역 경험 유무별로는, 외주 용역이 있는 기업은 '유럽'과의 교류 비율이 78.7%로 가장 높은 반면, 외주 용역이 없는 기업은 '동남아'(44.6%)와 주로 교류함.

〈표 4-1-44〉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교류 해외 지역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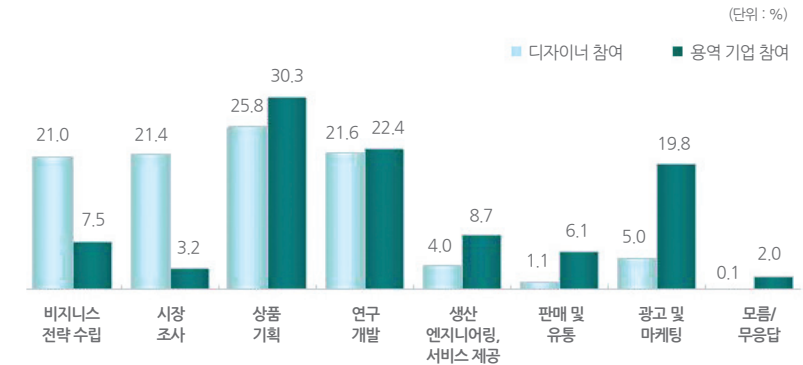
구 분		유럽	미주	동남아	중국	일본	중동	호주	아프리카	베트남	홍콩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52.7	31.0	30.0	28.4	11.2	0.9	0.4	0.1	0.1	0.1
권역별	서울	47.6	30.3	37.1	30.1	29.4	2.4	1.2	0.0	0.2	0.1
	부산/울산/경남	10.1	99.3	95.6	9.5	0.0	0.0	0.0	0.0	0.0	0.0
	대구/경북	99.2	17.0	2.6	19.3	0.0	0.0	0.0	0.0	0.0	0.0
	인천/경기	74.2	7.1	0.5	25.1	0.0	0.0	0.0	0.3	0.0	0.0
	광주/전라	6.5	0.0	7.3	86.2	6.5	0.0	0.0	0.0	0.0	0.0
	대전/충청	75.5	70.6	61.4	72.5	3.0	0.0	0.0	0.0	0.0	0.0
	강원/제주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규모별	소기업	57.4	27.8	30.1	22.1	7.5	0.0	0.0	0.0	0.0	0.1
	중기업	35.4	36.3	28.2	47.4	25.8	2.2	2.2	0.0	0.0	0.0
	대기업	50.3	58.9	35.5	48.5	10.3	8.4	0.0	2.2	1.1	0.0
고용	디자이너 고용	55.4	32.6	31.6	24.8	11.8	0.9	0.5	0.1	0.1	0.1
	디자이너 비고용	2.8	1.6	0.0	95.6	0.0	0.0	0.0	0.0	0.0	0.0
외주	외주용역 있음	78.7	21.0	17.5	26.9	6.1	0.5	0.0	0.2	0.1	0.1
	외주용역 없음	22.4	42.8	44.6	30.1	17.2	1.3	0.9	0.0	0.0	0.0



03-2.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용역기업 참여 단계

- + 디자이너가 있는 기업의 경우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중 자사 디자이너 참여 단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품 개발 초반인 ‘비즈니스 전략수립’(21.0%), ‘시장조사’(21.4%), ‘상품기획’(25.8%), ‘연구개발’(21.6%) 단계에 집중됨.
- 반면 용역기업은 ‘상품기획’(30.3%), ‘연구개발’(22.4%), ‘광고 및 마케팅’(19.8%)의 참여 비중이 높고, ‘비즈니스 전략수립’(7.5%), ‘시장조사’(3.2%) 단계의 참여 비중은 낮음.

<그림 4-1-23>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용역기업 참여 단계



- + 디자이너 참여 단계에 대해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상품기획’에서의 디자이너 참여 비중이 33.1%로 가장 높으며, 전문/과학/기술업에서는 ‘비즈니스 전략수립’(47.4%) 단계에서의 참여 비중이 가장 높음. 건설업과 출판/영상/정보업에서는 ‘연구개발’ 단계의 참여 비중이 각각 35.6%, 33.5%로 가장 높음.

<표 4-1-45> 업종별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 참여 단계

구분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연구 개발	생산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판매 및 유통	광고 및 마케팅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21.0	21.4	25.8	21.6	4.0	1.1	5.0
업종별	제조업	13.8	29.2	33.1	14.7	4.1	1.1	3.9
	건설업	21.6	19.5	16.6	35.6	3.6	2.0	1.1
	출판/영상/정보	16.9	7.9	26.4	33.5	4.9	0.6	9.7
	전문/과학/기술	47.4	14.3	9.9	21.3	2.2	1.1	3.8
	사업시설관리	21.7	7.9	21.8	18.1	7.7	0.2	22.2



+
 +
 용역기업 참여 단계에 대해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사업시설관리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연구개발’ 단계의 참여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히, 건설업(58.4%)이 가장 높음. 제조업은 ‘상품기획’(39.1%), 사업시설관리업은 ‘광고 및 마케팅’(48.1%) 단계에서의 참여 비중이 높음.

<표 4-1-46>
 업종별 개발 프로세스 중 용역기업 참여 단계

(단위 : %)

구분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연구 개발	생산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판매 및 유통	광고 및 마케팅
디자인 활용 기업		7.5	3.2	30.3	22.4	8.7	6.1	19.8
업종별	제조업	5.5	1.0	39.1	17.5	10.9	7.1	18.9
	건설업	7.6	3.3	25.0	58.4	1.6	0.0	0.1
	출판/영상/정보	10.8	3.3	21.0	26.7	7.0	6.6	19.5
	전문/과학/기술	15.3	10.1	15.9	28.2	7.1	1.6	16.3
	사업시설관리	3.2	9.2	12.7	9.1	4.9	9.7	48.1



+ 디자이너가 있는 경우 디자이너 참여 단계를 권역별로 보면,  
 서울(23.3%)은 '연구개발', 부산/울산/경남(26.5%)과 대전/충청(28.8%)은 '비즈니스 전략수립'  
 단계에서의 참여 비중이 가장 높음. 대구/경북(28.3%)은 '시장조사' 단계에서의 참여가 가장  
 높으며, 인천/경기(33.1%), 광주/전라(42.9%) 그리고 강원/제주(46.3%)는 '상품기획' 단계에서의  
 참여 비중이 높음.  
 규모별로 보면, 중기업(33.7%)과 대기업(35.5%)은 '비즈니스 전략 수립' 단계, 소기업(27.1%)은  
 '상품기획' 단계의 참여 비중이 가장 높음.

<표 4-1-47>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 참여 단계

(단위 : %)

구 분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연구 개발	생산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판매 및 유통	광고 및 마케팅
활용업체		21.0	21.4	25.8	21.6	4.0	1.1	5.0
권역별	서울	21.5	22.8	22.9	23.3	2.6	0.9	5.9
	부산/울산/경남	26.5	16.9	19.4	19.6	1.8	2.2	13.4
	대구/경북	7.4	28.3	28.0	11.7	23.5	0.1	1.0
	인천/경기	21.8	18.9	33.1	22.5	1.0	1.7	0.9
	광주/전라	17.8	10.5	42.9	16.0	2.3	0.0	10.5
	대전/충청	28.8	24.6	12.6	27.8	4.3	0.5	1.4
	강원/제주	14.5	17.1	46.3	16.4	1.3	0.4	4.0
규모별	소기업	16.7	25.8	27.1	20.9	3.7	1.1	4.7
	중기업	33.7	7.3	22.7	23.3	5.2	1.2	6.5
	대기업	35.5	11.1	16.8	27.1	2.4	0.8	4.8
외주	외주용역 있음	23.9	8.6	33.8	22.8	6.2	1.3	3.3
	외주용역 없음	19.5	27.9	21.7	21.0	2.8	1.0	6.0



✚ 용역기업의 디자이너 참여 단계를 권역별로 보면,

서울과 광주/전라는 '광고 및 마케팅'(각각 22.2%, 41.4%) 단계, 부산/울산/경남(31.7%)과 강원/제주(27.1%)는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참여 비중이 가장 높음.

대구/경북(45.5%), 인천/경기(43.4%) 그리고 대전/충청(33.6%)은 '상품 기획' 단계에서의 참여 비중이 가장 높음.

규모별로 보면, 중기업(28.8%), 대기업(43.3%)은 '연구개발' 단계, 소기업은 33.0%가 '상품기획' 단계에서의 참여 비중이 높음.

〈표 4-1-48〉 권역별/규모별/고용별 개발 프로세스 중 용역기업 참여 단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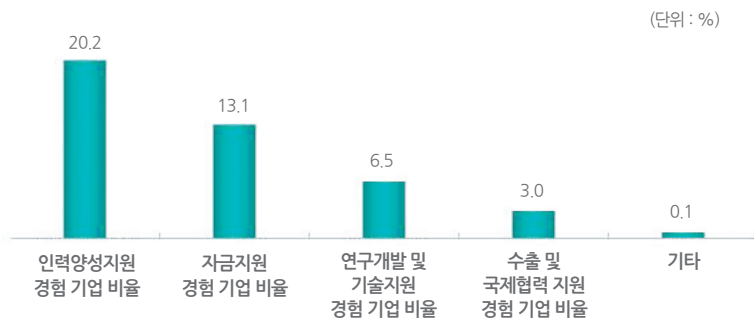
구분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연구 개발	생산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판매 및 유통	광고 및 마케팅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7.5	3.2	30.3	22.4	8.7	6.1	19.8
권역별	서울	13.1	4.1	20.2	21.7	5.8	9.3	22.2
	부산/울산/경남	4.9	1.3	27.8	31.7	19.1	0.4	13.2
	대구/경북	1.9	7.3	45.5	9.8	25.0	0.0	10.5
	인천/경기	1.7	1.0	43.4	27.3	6.9	2.8	16.2
	광주/전라	2.1	6.5	31.1	9.1	2.9	6.7	41.4
	대전/충청	7.7	0.3	33.6	24.6	7.9	6.7	17.9
	강원/제주	4.4	1.8	21.0	27.1	0.0	20.1	25.6
규모별	소기업	5.8	1.8	33.0	19.8	10.1	7.2	21.3
	중기업	13.3	7.7	21.8	28.8	3.4	3.1	15.9
	대기업	9.6	7.7	21.2	43.3	8.7	0.0	8.4



03-3. 디자인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 경험

+ 각 정부 지원 내용별로 디자인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력양성 지원(재교육 등)’을 받은 기업 비율은 20.2%, ‘자금지원(융자, 출연금 등)’을 받은 기업 비율은 13.1%,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받은 기업 비율은 6.5% 등임.

〈그림 4-1-24〉 디자인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 경험 비율



+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인력 양성 지원’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제조업(23.0%)에서 가장 높음. 건설업은 ‘자금지원’ 비율이 26.6%로 가장 높음.

〈표 4-1-49〉 업종별 디자인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 경험 비율

		(단위 : %)				
구 분		인력양성지원 경험 기업 비율	자금지원 경험 기업 비율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경험 기업 비율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경험 기업 비율	기타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20.2	13.1	6.5	3.0	0.1
업종별	제조업	23.0	12.0	7.6	4.6	0.2
	건설업	19.8	26.6	6.0	0.2	0.0
	출판/영상/정보	20.4	20.0	8.2	2.0	0.0
	전문/과학/기술	12.4	2.4	1.4	0.1	0.0
	사업시설관리	10.8	7.6	2.7	0.1	0.0



- ✚ 권역별로는, '인력양성지원'의 비율이 가장 큰 권역은 서울(16.1%), 부산/울산/경남(26.7%), 인천/경기(26.3%)이며 '자금지원' 비율이 가장 큰 권역은 대구/경북(13.2%), 광주/전라(33.3%), 대전/충청(36.3%), 강원/제주(28.4%)임.

규모별로 보면,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인력양성지원'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중기업(24.2%)에서 더욱 높음.

디자이너 고용 여부별로 보면, 디자이너를 고용한 기업(23.2%)는 '인력양성지원'의 비율이 높은 반면,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16.0%)는 '자금지원' 비율이 높음.

외주용역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인력양성지원' 비율이 높으며, 특히, 외주용역 경험이 있는 기업(23.4%)가 더욱 높음.

〈표 4-1-50〉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 경험 비율

(단위 : %)

구 분		인력양성지원 경험 기업 비율	자금지원 경험 기업 비율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경험 기업 비율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경험 기업 비율	기타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20.2	13.1	6.5	3.0	0.1
권역별	서울	16.1	8.5	6.2	2.0	0.0
	부산/울산/경남	26.7	9.1	1.7	8.3	0.8
	대구/경북	12.1	13.2	2.0	0.1	0.0
	인천/경기	26.3	12.9	4.3	2.6	0.0
	광주/전라	17.6	33.3	14.3	2.0	0.0
	대전/충청	27.1	36.3	22.3	8.1	0.0
	강원/제주	23.8	28.4	20.4	0.0	0.0
규모별	소기업	19.4	13.5	5.8	2.9	0.0
	중기업	24.2	12.4	9.6	3.1	0.5
	대기업	17.4	5.4	3.9	1.9	0.0
고용	디자이너 고용	23.2	11.5	4.7	3.4	0.2
	디자이너 비고용	14.8	16.0	9.9	2.1	0.0
외주	외주용역 있음	23.4	16.6	8.6	3.0	0.2
	외주용역 없음	16.1	8.5	3.7	2.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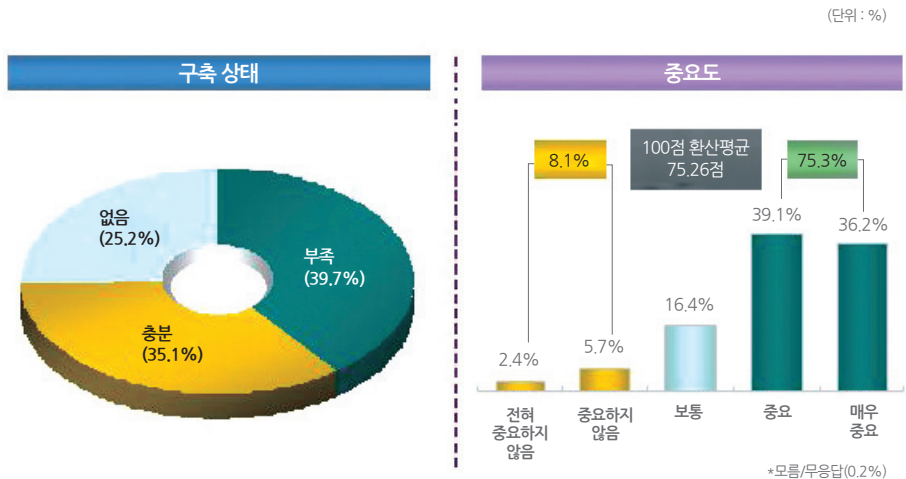


03-4-1.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디자인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 상태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은 39.7%, ‘충분하다’는 응답은 35.1%로 비슷함. 중요도는 100점 환산<sup>3)</sup> 기준 평균 75.26점임. ‘중요하다’는 응답은 75.3%(매우 중요: 36.2% + 중요: 39.1%),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1%(전혀 중요하지 않음: 2.4% + 중요하지 않음: 5.7%)이며, ‘보통이다’는 응답은 16.4%임.

3) 100점 환산 기준: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문항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 ①전혀 중요하지 않음-0점 ②중요하지 않음-25점, ③보통-50점 ④중요-75점 ⑤매우중요-100점

<그림 4-1-25>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업종별로 보면,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구축 상태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은 업종은 제조업(41.9%), 출판/영상/정보업(46.2%)이며, ‘충분하다’는 응답이 높은 업종은 건설업(48.2%), 전문/과학/기술업(66.5%)임.

중요도는 전문/과학/기술업이 평균 85.45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건설업(80.05점), 제조업(74.90점) 등의 순임.

<표 4-1-51> 업종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단위 : %, 점)

구분		구축 상태			중요도			
		부족	충분	없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100점 환산평균(점)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39.7	35.1	25.2	8.1	16.4	75.3	75.26
업종별	제조업	41.9	26.7	31.4	8.0	15.9	75.9	74.90
	건설업	40.0	48.2	11.8	5.0	14.3	80.7	80.05
	출판/영상/정보	46.2	37.2	16.6	11.8	18.9	69.3	70.77
	전문/과학/기술	23.3	66.5	10.2	0.9	13.2	85.9	85.45
	사업시설관리	36.8	23.7	39.5	19.9	25.9	54.1	61.22



+ 권역별로 보면,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구축 상태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은 권역은 부산/울산/경남(42.0%), 인천/경기(47.2%) 그리고 강원/제주(45.9%) 등의 순임. ‘충분하다’는 응답은 서울(42.0%), 대구/경북(46.9%)에서 높음.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의 중요도는 서울이 평균 78.60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대전/충청(76.53점), 인천/경기(73.79점), 대구/경북(73.20점) 등의 순임.

규모별로 보면, 중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50.5%, 56.7%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소기업에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42.4%)로 상대적으로 높음.  
 규모가 클수록 중요도 평균도 높아짐.

<표 4-1-52>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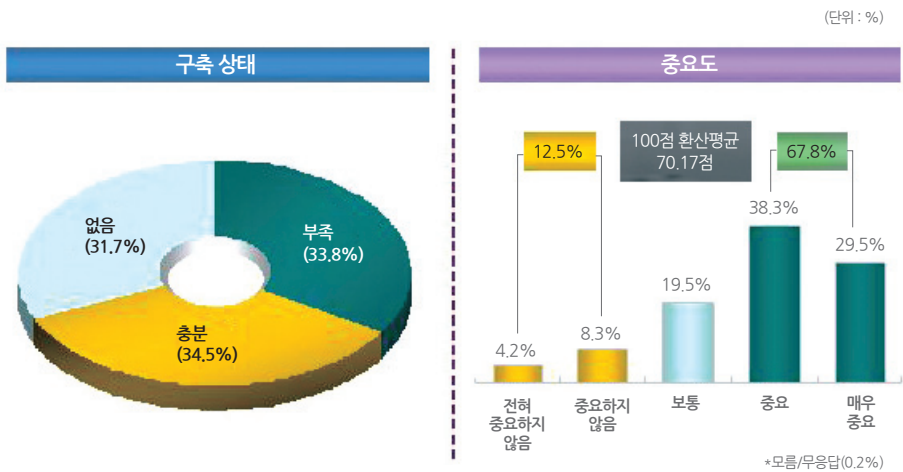
구분		구축 상태			중요도			
		부족	충분	없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100점 환산평균(점)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39.7	35.1	25.2	8.1	16.4	75.3	75.26
권역별	서울	37.6	42.0	20.4	5.2	14.4	80.4	78.60
	부산/울산/경남	42.0	19.8	38.2	10.1	13.2	76.6	73.16
	대구/경북	26.1	46.9	27.0	21.7	7.0	71.3	73.20
	인천/경기	47.2	32.0	20.8	6.4	22.2	71.4	73.79
	광주/전라	38.1	20.5	41.4	15.3	18.8	65.3	64.81
	대전/충청	37.7	24.5	37.8	5.3	19.6	73.4	76.53
	강원/제주	45.9	18.8	35.3	19.5	28.4	52.1	62.71
규모별	소기업	42.4	30.7	26.9	8.4	16.0	75.5	74.95
	중기업	30.0	50.5	19.5	7.4	18.6	73.8	75.96
	대기업	30.9	56.7	12.4	5.2	14.8	79.6	79.77
고용	디자인 외 고용	43.3	50.7	6.0	0.7	12.2	87.0	83.43
	디자인 외 비고용	33.2	6.2	60.6	22.0	24.3	53.5	60.02
외주	외주용역 있음	39.8	22.3	37.9	13.9	18.4	67.5	69.41
	외주용역 없음	39.6	52.1	8.3	0.5	13.9	85.6	82.97



03-4-2.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구축 상태에 대해 ‘충분하다’는 응답은 34.5%, ‘부족하다’는 응답이 33.8%임. 한편, 중요도는 100점 환산 기준 평균 70.17점임.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은 67.8%(매우 중요: 29.5% + 중요: 38.3%),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5%(전혀 중요하지 않음: 4.2% + 중요하지 않음: 8.3%)이며 ‘보통이다’는 응답은 19.5%임.

<그림 4-1-26>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44.1%), 출판/영상/정보업(44.4%) 그리고 전문/과학/기술업(63.0%)은 ‘충분하다’는 응답이 부족하다는 응답보다 많음.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의 중요도는 전문/과학/기술업이 평균 81.75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건설업(77.43점), 출판/영상/정보업(68.82점) 등의 순임.

<표 4-1-53> 업종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단위 : %, 점)

구분		구축 상태			중요도			
		부족	충분	없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100점 환산평균(점)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33.8	34.5	31.7	12.5	19.5	67.8	70.17
업종별	제조업	36.9	25.9	37.2	13.7	21.0	65.0	68.33
	건설업	32.6	44.1	23.3	3.3	24.2	72.5	77.43
	출판/영상/정보	28.6	44.4	27.0	15.2	13.9	70.9	68.82
	전문/과학/기술	26.3	63.0	10.7	2.7	15.1	82.2	81.75
	사업시설관리	36.4	15.6	48.0	29.5	22.0	48.5	55.33



+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6.8%), 인천/경기(40.2%), 강원/제주(43.1%)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서울(39.0%)과 대구/경북(61.0%)은 ‘충분하다’는 응답이 많음.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중요도는 서울이 평균 76.38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대구/경북(71.82점), 대전/충청(70.15점)등의 순임.

규모별로는, 소기업은 ‘부족하다’는 응답이 35.2%이며, 중기업과 대기업은 ‘충분하다’는 응답이 각각 49.7%, 54.4%임. 중요도는 활용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높음.

〈표 4-1-54〉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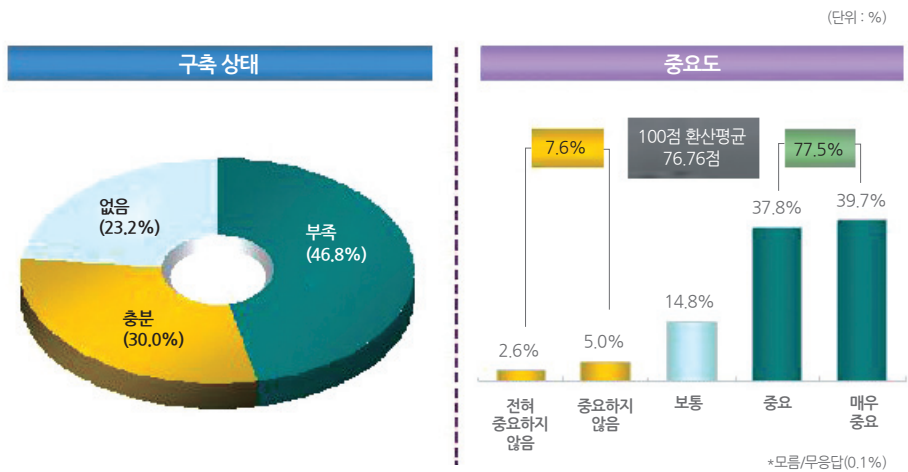
구 분		구축 상태			중요도			
		부족	충분	없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100점 환산평균(점)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33.8	34.5	31.7	12.5	19.5	67.8	70.17
권역별	서울	32.2	39.0	28.8	6.7	16.9	76.4	76.38
	부산/울산/경남	46.8	17.1	36.1	10.2	17.6	72.2	67.35
	대구/경북	6.0	61.0	33.0	21.8	10.2	68.0	71.82
	인천/경기	40.2	31.7	28.1	18.2	28.2	53.6	61.96
	광주/전라	37.0	15.0	48.0	15.8	20.7	62.9	63.71
	대전/충청	26.8	31.1	42.1	18.2	13.4	66.7	70.15
	강원/제주	43.1	16.4	40.5	25.1	28.4	46.5	58.80
규모별	소기업	35.2	30.2	34.6	13.2	19.7	67.0	69.25
	중기업	28.9	49.7	21.4	11.0	18.5	70.4	73.06
	대기업	28.8	54.4	16.8	5.6	19.4	74.7	77.31
고용	디자이너 고용	40.5	49.6	9.9	3.2	19.0	77.7	78.67
	디자이너 비고용	21.5	6.4	72.1	29.9	20.3	49.5	54.33
외주	외주용역 있음	25.6	24.6	49.8	21.7	16.4	61.7	63.97
	외주용역 없음	44.8	47.7	7.5	0.5	23.5	76	78.35



03-4-3.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정보

디자인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은 46.8%, ‘없다’는 응답은 23.2%, ‘충분하다’는 응답은 30.0%임. 중요도는 평균 76.76점(100점 환산 기준)임. ‘중요하다’는 응답은 77.5%(매우 중요: 39.7% + 중요: 37.8%), ‘보통이다’는 응답은 14.8%,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6%(전혀 중요하지 않음: 2.6% + 중요하지 않음: 5.0%)임.

〈그림 4-1-27〉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정보



업종별로 보면, 전문/과학/기술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정보 시스템 구축 상태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건설업(56.8%)에서 더욱 높음. 한편, 전문/과학/기술업에서는 59.5%가 ‘충분하다’고 응답함.

디자인 정보의 중요도는 전문/과학/기술업이 84.94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건설업(81.26점), 제조업(77.01점) 등의 순임.

〈표 4-1-55〉 업종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정보

(단위 : %,점)

구분		구축 상태			중요도			
		부족	충분	없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100점 환산평균(점)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46.8	30.0	23.2	7.6	14.8	77.5	76.76
업종별	제조업	46.5	25.0	28.5	8.2	16.1	75.4	77.01
	건설업	56.8	29.2	14.0	4.5	8.5	87.0	81.26
	출판/영상/정보	52.1	30.7	17.2	9.8	14.2	76.0	70.42
	전문/과학/기술	31.4	59.5	9.1	1.2	13.3	85.5	84.94
	사업시설관리	53.7	13.9	32.4	15.1	15.6	69.3	66.57



+ 권역별로 보면 디자인 정보 구축 상태에 대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특히, 인천/경기(57.9%)에서 더욱 높음. 한편, 대구/경북은 '충분하다'는 응답이 40.6%로 다른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디자인 정보의 중요도는 서울이 평균 80.55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80.52점), 대구/경북(75.39점) 등의 순임.

규모별로는, 소기업은 '부족하다',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49.3%, 24.2%이며, '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은 26.5%임. 중기업과 대기업은 '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41.2%, 55.6%임. 디자인 정보의 중요도는 대기업이 평균 81.45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소기업(77.34점), 중기업(73.80점) 순임.

<표 4-1-56>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정보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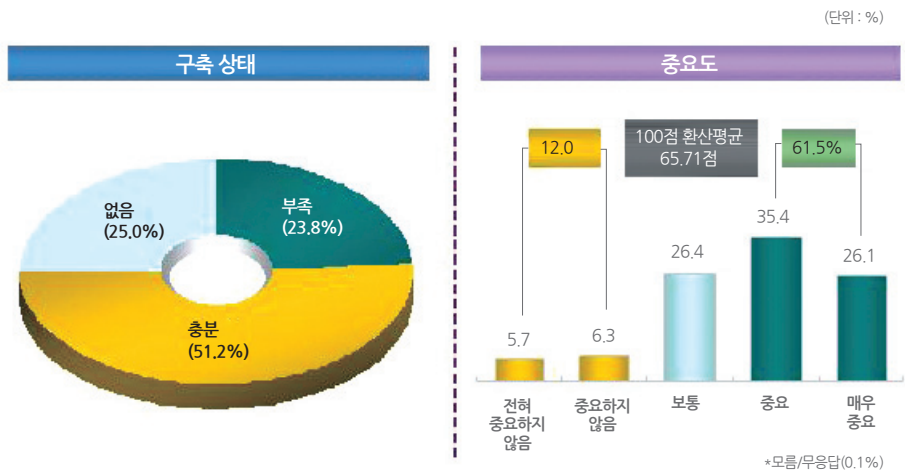
구분		구축 상태			중요도			
		부족	충분	없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100점 환산평균(점)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46.8	30.0	23.2	7.6	14.8	77.5	76.76
권역별	서울	42.8	35.4	21.8	5.0	9.7	85.3	80.55
	부산/울산/경남	50.5	21.8	27.7	8.8	5.5	85.7	80.52
	대구/경북	32.4	40.6	27.0	21.5	9.4	69.1	75.39
	인천/경기	57.9	23.0	19.1	6.2	25.2	68.6	72.81
	광주/전라	33.4	29.9	36.7	6.5	33.2	59.7	66.06
	대전/충청	51.2	24.0	24.8	9.4	11.8	77.1	74.92
	강원/제주	57.2	15.7	27.1	19.4	28.5	52.0	60.19
규모별	소기업	49.3	26.5	24.2	7.6	13.3	79.0	77.34
	중기업	38.2	41.2	20.6	8.2	21.2	70.4	73.80
	대기업	35.3	55.6	9.1	3.8	11.6	84.2	81.45
고용	디자이너 고용	55.2	39.6	5.2	1.0	9.3	89.7	84.96
	디자이너 비고용	31.3	12.1	56.6	20.0	24.9	54.8	61.47
외주	외주용역 있음	38.7	22.9	38.4	13.3	17.9	68.6	70.91
	외주용역 없음	57.6	39.5	2.9	0.2	10.5	89.3	84.47



03-4-4.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작업 공간

+ 디자인 작업 공간 구축 상태에 대해 ‘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은 51.2%, ‘부족하다’는 23.8%, ‘없다’는 25.0%임. 한편, 중요도는 평균 67.51점(100점 환산 기준)임. ‘중요하다’는 응답은 61.5%(매우 중요: 26.1% + 중요: 35.4%),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0%(전혀 중요하지 않음: 5.7% + 중요하지 않음: 6.3%)이며, ‘보통이다’는 응답은 26.4%임.

〈그림 4-1-28〉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작업 공간



+ 업종별로 보면, 사업시설관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작업 공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앞서는 가운데 특히, 전문/과학/기술업(76.2%)에서 더욱 높음.  
 디자인 작업 공간의 중요도는 전문/과학/기술업이 평균 77.96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건설업(74.96점), 제조업(66.72점) 등의 순임.

〈표 4-1-57〉 업종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작업 공간

(단위 : %,점)

구분		구축 상태			중요도			
		부족	충분	없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100점 환산평균(점)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23.8	51.2	25.0	12.0	26.4	61.5	67.51
업종별	제조업	26.2	42.9	30.9	12.8	27.1	60.0	66.72
	건설업	27.1	59.8	13.1	4.7	23.3	72.0	74.96
	출판/영상/정보	20.5	61.5	18.0	15.6	31.1	53.3	61.68
	전문/과학/기술	16.3	76.2	7.5	2.7	22.5	74.8	77.96
	사업시설관리	19.5	37.7	42.8	25.9	20.2	53.9	56.70



+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디자인 작업공간에 대해 ‘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이 ‘부족하다’, ‘없다’는 응답비율보다 높으며, 특히 서울(57.7%)에서 더욱 높음.

디자인 작업 공간의 중요도는 부산/울산/경남이 평균 71.83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서울(70.08점), 대전/충청(66.90점) 등의 순임.

규모별로 보면,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특히 대기업(62.0%)에서 더욱 높음. 디자인 활용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디자인 작업 공간 중요도는 높음.

〈표 4-1-58〉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작업 공간

(단위 : %, 점)

구 분		구축 상태			중요도			
		부족	충분	없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100점 환산평균(점)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23.8	51.2	25.0	12.0	26.4	61.5	67.51
권역별	서울	20.0	57.7	22.3	10.7	22.2	67.1	70.08
	부산/울산/경남	31.9	46.5	21.6	9.8	13.1	77.1	71.83
	대구/경북	28.4	44.7	26.9	21.8	27.2	50.9	63.53
	인천/경기	29.2	48.2	22.6	10.4	36.3	53.3	64.55
	광주/전라	16.1	40.5	43.4	13.1	46.8	39.5	57.84
	대전/충청	19.4	40.7	39.9	18.0	20.5	59.8	66.90
	강원/제주	11.8	46.3	41.9	14.7	29.9	55.4	64.83
규모별	소기업	23.4	49.4	27.2	12.0	27.9	60.0	66.64
	중기업	25.2	57.3	17.5	12.5	21.5	65.9	70.08
	대기업	25.2	62.0	12.8	6.9	16.7	76.0	75.70
고용	디자인 고용	26.8	71.5	1.7	0.9	24.5	74.5	77.43
	디자인 비고용	18.1	13.5	68.4	32.5	30.0	37.3	49.03
외주	외주용역 있음	25.0	32.0	43.0	21.0	30.1	48.8	58.78
	외주용역 없음	22.1	76.7	1.2	0.1	21.5	78.4	7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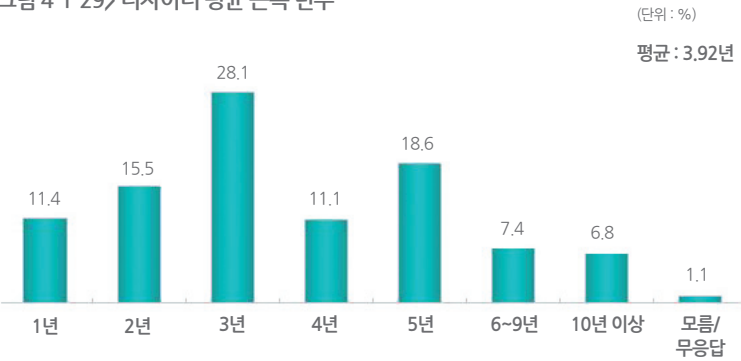


04  
디자인 인력

04-1. 디자이너 평균 근속 년수

+ 디자이너가 있는 디자인 활용기업의 디자이너 평균 근속 년수는 평균 3.92년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3년’ 근속한 디자이너가 28.1%로 가장 많고, 다음은 ‘5년’(18.6%), ‘2년’(15.5%), ‘1년’(11.4%)등의 순임.

<그림 4-1-29> 디자이너 평균 근속 년수



+ 업종별로 보면, 디자이너의 평균 근속 년수는 전문/과학/기술업이 4.20년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제조업(3.97년), 건설업(3.87년) 등의 순임.

<표 4-1-59> 업종별 디자이너 평균 근속 년수

(단위 : %, 년)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9년	10년 이상	평균(년)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11.4	15.5	28.1	11.1	18.6	7.4	6.8	3.92
업종별	제조업	14.2	10.5	31.5	10.2	18.3	7.1	8.2	3.97
	건설업	4.1	22.1	26.9	14.5	17.8	11.2	3.4	3.87
	출판/영상/정보	13.5	19.1	18.1	13.0	21.5	5.3	2.7	3.66
	전문/과학/기술	6.6	18.3	29.5	10.5	18.8	6.1	10.2	4.20
	사업시설관리	7.0	38.7	23.4	4.4	9.0	16.9	0.6	3.25



+ 권역별로는, 디자이너 평균 근속 년수에 대해 강원/제주가 평균 5.18년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4.41년), 서울(3.95년), 광주/전라(3.93년) 등의 순임.

규모별로는 디자이너 근속년수의 평균이 소기업이 3.83년, 중기업은 3.95년 그리고 대기업이 6.06년으로 나타나 규모가 커질수록 디자이너의 평균 근속 년수가 길어짐.

〈표 4-1-60〉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 평균 근속 년수

(단위 : %,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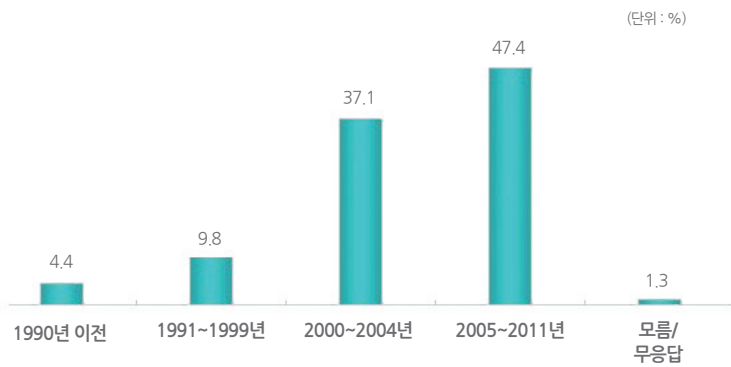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9년	10년 이상	평균(년)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11.4	15.5	28.1	11.1	18.6	7.4	6.8	3.92
권역별	서울	11.9	16.8	29.0	9.5	14.1	8.7	7.9	3.95
	부산/울산/경남	0.9	15.1	34.5	22.7	8.9	3.3	14.5	4.41
	대구/경북	23.2	9.4	13.4	10.5	32.4	9.2	1.1	3.65
	인천/경기	11.6	12.1	31.1	6.2	29.3	6.4	2.9	3.76
	광주/전라	8.5	19.8	12.5	37.8	10.9	4.2	6.3	3.93
	대전/충청	9.3	35.9	33.0	6.4	9.1	4.5	1.7	3.10
	강원/제주	13.0	4.2	5.5	15.2	33.2	14.0	14.9	5.18
규모별	소기업	12.2	15.9	28.9	11.2	18.3	6.6	6.8	3.83
	중기업	9.7	15.3	27.6	10.2	17.8	8.3	5.9	3.95
	대기업	3.5	7.5	10.5	13.0	30.3	20.0	13.7	6.06
외주	외주용역 있음	19.2	13.4	22.6	10.9	12.0	14.5	4.6	3.86
	외주용역 없음	7.4	16.6	30.9	11.2	22.0	3.8	7.9	3.95



04-2. 디자인 부서 생성 시기

+ 디자인 활용업체의 디자인 부서 생성시기는 '2005~2011년'이 47.4%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2000~2004년'(37.1%), '1991~1999년'(9.8%), '1990년 이전'(4.4%) 순임.

〈그림 4-1-30〉 디자인 부서 생성 시기



+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05~11년'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제조업(56.0%)에서 더욱 높음. 건설업(61.4%)은 '00~04년'의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1-61〉 업종별 디자인 부서 생성 시기

		(단위 : %)			
구 분		1990년 이전	1991~1999년	2000~2004년	2005~2011년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4.4	9.8	37.1	47.4
업종별	제조업	4.1	6.9	31.6	56.0
	건설업	1.1	5.3	61.4	32.2
	출판/영상/정보	3.1	12.9	39.9	43.5
	전문/과학/기술	9.4	21.0	31.3	37.5
	사업시설관리	1.8	2.8	40.0	46.2



- + 권역별로 보면,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2005~2011년'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인천/경기(66.5%)에서 더욱 높음.  
한편, 서울(40.3%), 부산/울산/경남(50.3%)은 '2000~2004년'의 비율이 가장 높음.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1990년 이전'의 비율이 27.7%로 가장 높은 반면, 소기업(51.4%)과 중기업(35.2%)은 '2005~2011년'의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1-62>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부서 생성 시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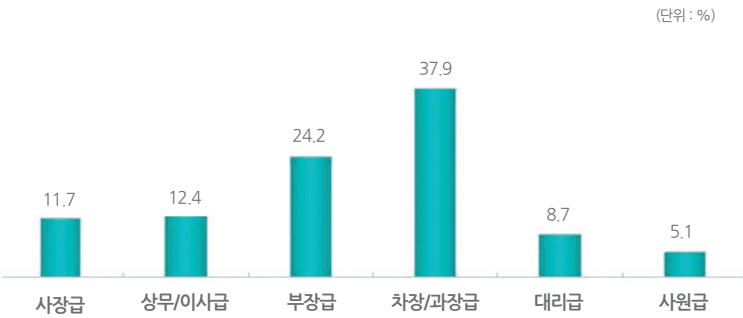
구 분		1990년 이전	1991~1999년	2000~2004년	2005~2011년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4.4	9.8	37.1	47.4
권역별	서울	6.4	13.6	40.3	39.3
	부산/울산/경남	2.6	11.6	50.3	34.1
	대구/경북	2.8	8.5	31.8	55.6
	인천/경기	1.9	1.3	29.6	66.5
	광주/전라	3.9	10.4	31.1	54.6
	대전/충청	4.6	10.9	17.6	51.0
	강원/제주	1.0	4.9	43.3	50.7
규모별	소기업	2.2	6.4	38.9	51.4
	중기업	9.3	20.8	33.4	35.2
	대기업	27.7	25.0	18.5	26.9
외주	외주용역 있음	6.5	9.8	35.7	47.2
	외주용역 없음	3.5	9.8	37.7	47.5



04-3.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 지위

+ 디자인 부서가 있는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관련부서의 총괄 책임자의 현재 직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차/과장급’이 37.9%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부장급’ 24.2%, ‘사장급’ 11.7%, ‘상무/이사급’ 12.4%임.

〈그림 4-1-31〉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 지위



+ 업종별로 보면, 사업시설관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차장/과장급’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건설업(52.2%)에서 더욱 높음. 사업시설관리업(31.9%)은 ‘사장급’의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1-63〉 업종별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 지위

(단위 : %)

구 분		사장급	상무/이사급	부장급	차장/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11.7	12.4	24.2	37.9	8.7	5.1
업종별	제조업	10.8	7.5	29.6	38.0	9.4	4.7
	건설업	5.8	16.7	16.2	52.2	3.4	5.7
	출판/영상/정보	1.2	15.7	28.5	34.6	10.5	9.5
	전문/과학/기술	23.0	22.2	13.3	29.7	8.5	3.3
	사업시설관리	31.9	3.2	18.1	30.1	16.7	0.0



- + 권역별로 보면, 대전/충청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는 ‘차장/과장급’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대구/경북(52.8%)에서 더욱 높음.  
한편, 대전/충청(25.9%)에서는 ‘사장급’, 강원/제주(36.2%)에서는 ‘부장급’의 비율이 높음.

규모별로 보면 소기업(38.3%)과 중기업(38.8%)은 ‘차장/과장급’, 대기업(35.8%)은 ‘상무/이사급’이 주로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임.

<표 4-1-64>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 지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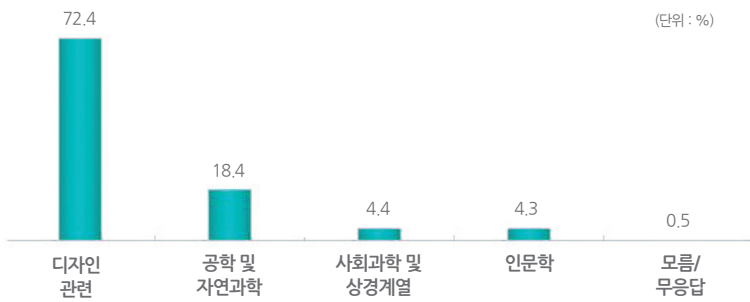
구 분		사장급	상무/이사급	부장급	차장/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11.7	12.4	24.2	37.9	8.7	5.1
권역별	서울	8.5	15.8	23.7	34.1	13.4	4.5
	부산/울산/경남	5.5	8.2	26.9	44.8	3.7	10.9
	대구/경북	1.0	2.8	25.9	52.8	9.4	8.1
	인천/경기	25.0	9.3	25.1	36.5	0.8	3.3
	광주/전라	0.0	13.0	16.2	62.8	7.5	0.5
	대전/충청	25.9	22.2	15.0	22.6	11.9	2.4
	강원/제주	24.4	17.8	36.2	17.7	3.8	0.1
규모별	소기업	12.2	10.2	26.0	38.3	8.4	4.9
	중기업	10.8	16.7	16.4	38.8	10.6	6.7
	대기업	4.3	35.8	29.4	24.6	4.6	1.3
외주	외주용역 있음	7.5	9.9	20.9	44.3	9.8	7.6
	외주용역 없음	13.4	13.4	25.6	35.3	8.3	4.0



04-3-1.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 전공

- + 디자이너가 있는 기업의 디자인 관련 부서 총괄 책임자의 전공은 ‘디자인 관련 전공’ 72.4%, ‘공학 및 자연과학’ 전공 18.4%, ‘사회과학 및 상경계열’ 4.4%, ‘인문학’ 4.3%임.

<그림 4-1-32>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 전공



- +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의 전공은 ‘디자인 관련’ 전공이 가장 높으며, 사업시설관리업(77.1%)에서 더욱 높음. 그 외, 건설업에서는 ‘공학 및 자연과학’(28.8%), 사업시설관리에서는 ‘사회과학 및 상경계열’(12.7%) 전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1-65> 업종별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 전공

		(단위 : %)			
구분		디자인 관련	공학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상경계열	인문학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72.4	18.4	4.4	4.3
업종별	제조업	76.2	14.4	6.3	3.1
	건설업	67.3	28.8	0.4	3.3
	출판/영상/정보	68.8	13.9	5.3	11.9
	전문/과학/기술	67.3	25.9	0.5	4.0
	사업시설관리	77.1	9.5	12.7	0.7



+ 권역별, 규모별로도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의 전공으로 ‘디자인 관련’전공이 가장 높으며, 특히, 권역별로는 대구/경북(86.2%), 규모별로는 중기업(73.1%)에서 더욱 높음.

외주 용역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의 전공은 ‘디자인관련’ 전공이 대부분이며, 특히, 외주용역 경험이 없는 업체(76.3%)에서 더욱 높음.

<표 4-1-66>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 전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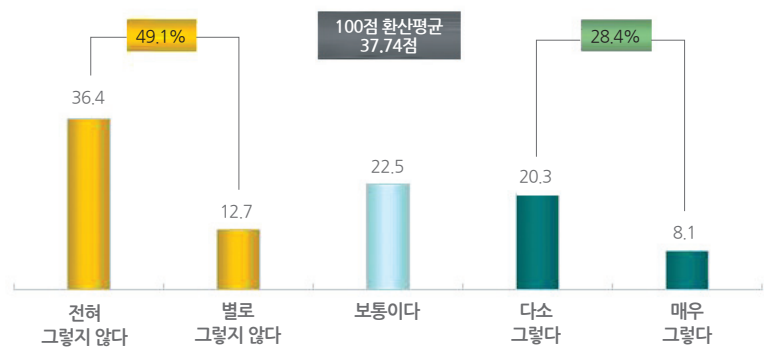
구 분		디자인 관련	공학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상경계열	인문학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72.4	18.4	4.4	4.3
권역별	서울	79.1	15.4	1.0	3.5
	부산/울산/경남	54.7	43.3	0.2	1.7
	대구/경북	86.2	9.9	1.1	2.8
	인천/경기	62.7	16.5	15.7	5.0
	광주/전라	76.0	7.8	9.6	6.6
	대전/충청	60.2	17.4	0.6	21.8
	강원/제주	70.6	27.8	1.1	0.5
규모별	소기업	72.6	18.9	3.9	4.0
	중기업	73.1	15.6	5.9	5.4
	대기업	64.1	22.6	7.1	5.3
외주	외주용역 있음	63.1	29.3	1.3	6.3
	외주용역 없음	76.3	13.9	5.7	3.5



04-4. 디자인 부서 인력 전공의 다양성

디자인 부서가 있는 경우 디자인 부서가 디자인 전공뿐만 아니라 타 전공까지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로 구성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49.1%로 ‘그렇다’(28.4%), ‘보통이다’(22.5%)는 응답 비율보다 높음. 디자인 부서 인력 전공의 다양성 점수는 37.74점(100점 환산 기준)임.

〈그림 4-1-33〉 디자인 부서 인력 전공의 다양성 (단위 : %)



업종별 디자인 부서 인력 전공의 다양성 점수는 사업시설관리업이 평균 47.42점(100점 환산 점수 기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출판/영상/정보(44.02점), 건설업(40.60점), 제조업(37.88점), 전문/과학/기술(29.39점) 순임.

〈표 4-1-67〉 업종별 디자인 부서 인력 전공의 다양성 (단위 : %, 점)

구 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100점환산 평균(점)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49.1	22.5	28.4	37.74
업종별	제조업	48.1	26.5	25.4	37.88
	건설업	54.4	10.8	34.8	40.60
	출판/영상/정보	41.1	14.8	44.1	44.02
	전문/과학/기술	54.8	25.2	20.0	29.39
	사업시설관리	38.1	25.1	36.8	47.42



+ 권역별로 보면, 디자인 부서 인력의 전공 다양성 점수는 강원/제주에서 평균 57.5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전/충청(54.88점), 광주/전라(53.21점), 대구/경북(51.32점)등의 순임.

규모별 디자인 부서 인력 전공의 다양성 점수는 소기업 평균 38.65점, 중기업 35.19점, 대기업 31.47점임. 규모가 커질수록 디자인 부서 인력의 전공의 다양성이 낮음..

<표 4-1-68>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부서 인력 전공의 다양성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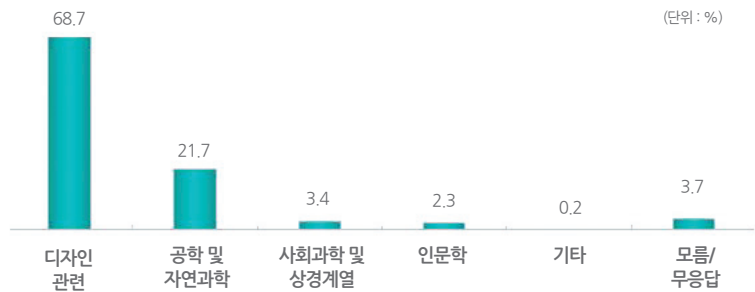
구 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100점환산 평균(점)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49.1	22.5	28.4	37.74
권역별	서울	52.1	21.4	26.5	36.62
	부산/울산/경남	61.9	23.0	15.1	34.84
	대구/경북	22.9	37.7	39.4	51.32
	인천/경기	56.4	20.0	23.6	28.93
	광주/전라	28.8	16.1	55.1	53.21
	대전/충청	27.3	20.7	52.0	54.88
	강원/제주	23.1	7.3	69.6	57.53
규모별	소기업	48.0	24.2	27.8	38.65
	중기업	52.6	16.1	31.3	35.19
	대기업	55.5	20.0	24.5	31.47
외주	외주용역 있음	48.5	11.9	39.6	40.47
	외주용역 없음	49.4	26.9	23.7	36.60



04-4-1. 디자인 부서에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

+ 디자인 부서가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를 조사한 결과,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는 ‘디자인 관련’ 68.7%, ‘공학 및 자연과학’ 21.7%, ‘사회과학 및 상경계열’ 3.4%, ‘인문학’ 2.3%임.

〈그림 4-1-34〉 디자인 부서에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



+ 업종별 보면,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관련’ 전공의 인력을 필요로 하며, 특히, 출판/영상/정보업(90.4%)에서 더욱 높음. 건설업에서는 ‘공학 및 자연과학’(38.9%) 전공을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로 함.

〈표 4-1-69〉 업종별 디자인 부서에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				
구 분		디자인 관련	공학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상경계열	인문학	기타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68.7	21.7	3.4	2.3	0.2
업종별	제조업	71.3	26.1	0.2	1.4	0.0
	건설업	45.4	38.9	10.7	3.7	1.3
	출판/영상/정보	90.4	1.8	2.1	0.7	0.0
	전문/과학/기술	69.2	8.5	6.6	1.8	0.0
	사업시설관리	75.0	0.8	0.0	24.2	0.0



+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디자인 관련’이 가장 높으며, 특히, 광주/전라(92.1%)가 더욱 높음. 한편, 대구/경북(71.9%)은 ‘공학 및 자연과학’을, 강원/제주(77.8%)는 주로 ‘인문학’ 전공을 필요로 함.

규모별로도 모든 규모에서 ‘디자인 관련’ 전공 응답 비율이 높으며, 특히, 대기업(77.9%)에서 더욱 높음.

한편, ‘공학 및 자연과학’ 전공은 소기업(25.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1-70>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부서에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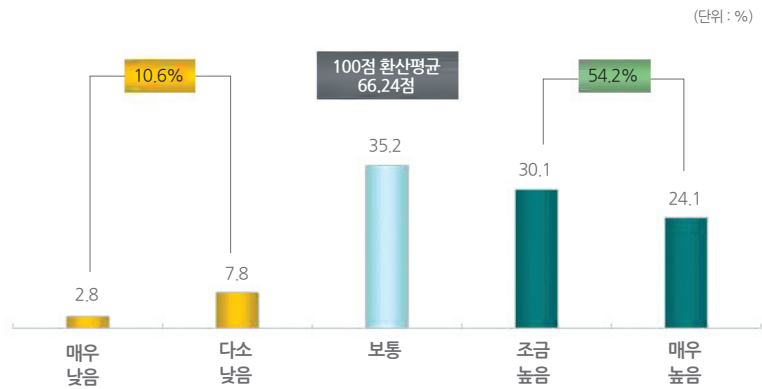
구 분		디자인 관련	공학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상경계열	인문학	기타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68.7	21.7	3.4	2.3	0.2
권역별	서울	77.5	10.4	6.1	2.9	0.4
	부산/울산/경남	74.7	24.0	0.5	0.0	0.0
	대구/경북	19.5	71.9	2.9	0.0	0.0
	인천/경기	55.6	37.5	0.0	0.0	0.0
	광주/전라	92.1	0.0	3.2	0.0	0.0
	대전/충청	80.0	0.8	0.8	9.5	0.0
	강원/제주	22.2	0.0	0.0	77.8	0.0
규모별	소기업	68.1	25.4	2.5	2.6	0.3
	중기업	69.1	10.8	6.3	0.2	0.0
	대기업	77.9	7.7	6.1	6.8	0.0
외주	외주용역 있음	60.8	29.8	5.5	0.8	0.7
	외주용역 없음	71.9	18.3	2.6	2.9	0.0



04-5-1. 디자인전담부서와 타부서간 커뮤니케이션(협업) 수준

+ 디자인 부서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전담부서와 타부서간 커뮤니케이션 수준에 대해 평가한 결과 평균 66.24점(100점 환산 기준)임.  
세부적으로는 ‘높음’(매우 높음: 24.1% + 조금 높음: 30.1%) 응답 비율이 54.2%, ‘보통이다’ 35.2%, ‘낮음’(매우 낮음: 2.8% + 다소 낮음: 7.8%) 10.6%로, 디자인 전담 부서와 타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높음.

<그림 4-1-35> 디자인전담부서와 타부서간 커뮤니케이션(협업) 수준



+ 업종별 보면, 전문/과학/기술업의 평균이 77.22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출판영상/정보업(64.67점), 사업시설관리업(63.95점), 제조업(63.91점), 건설업(62.71점) 순임.

<표 4-1-71> 업종별 디자인전담부서와 타부서간 커뮤니케이션(협업) 수준

(단위 : %, 점)

구분		낮음	보통	높음	100점 환산 평균(점)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10.6	35.2	54.2	66.24
업종별	제조업	13.8	31.2	55.0	63.91
	건설업	8.3	49.0	42.7	62.71
	출판/영상/정보	9.2	39.1	51.7	64.67
	전문/과학/기술	3.3	33.4	63.3	77.23
	사업시설관리	15.4	33.5	51.1	63.95



+ 권역별로는, 대전/충청의 평균이 74.5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원/제주(73.61점), 인천/경기(71.46점), 서울(69.38점) 등의 순임.

규모별로 보면 중기기업의 평균이 72.7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기업(68.64점), 소기업(64.50점) 순임.

<표 4-1-72>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전담부서와 타부서간 커뮤니케이션(협업) 수준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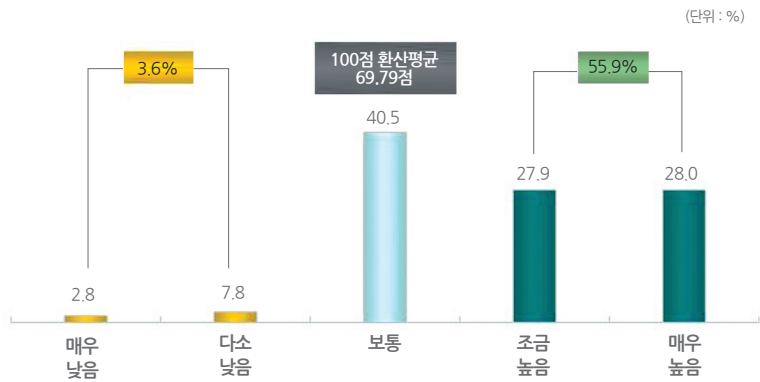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100점 환산 평균(점)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10.6	35.2	54.2	66.24
권역별	서울	3.3	42.8	53.9	69.38
	부산/울산/경남	24.3	29.1	46.6	56.62
	대구/경북	30.5	48.9	20.6	48.30
	인천/경기	12.9	13.0	74.1	71.46
	광주/전라	5.2	56.9	37.9	61.02
	대전/충청	3.7	32.5	63.8	74.54
	강원/제주	0.0	33.0	67.0	73.61
규모별	소기업	12.1	36.1	51.8	64.50
	중기업	5.7	29.8	64.5	72.74
	대기업	3.9	46.8	49.3	68.64
외주	외주용역 있음	18.6	38.4	43.0	60.91
	외주용역 없음	7.3	33.8	58.9	68.45



04-5-2. 생산품 디자인 결정에 대한 디자이너 관여 수준

+ 생산품 디자인 결정에 대한 디자이너 관여 수준에 대해 평가한 결과 평균 69.79점(100점 환산 기준)임. 세부적으로 ‘높음’(매우 높음: 28.0% + 조금 높음: 27.9%) 응답 비율이 55.9%, ‘보통이다’ 40.5%, ‘낮음’(매우 낮음: 1.3% + 다소 낮음: 2.3%) 3.6%로, 디자이너 관여 수준이 높음.

<그림 4-1-36> 생산품 디자인 결정에 대한 디자이너 관여 수준



+ 업종별 보면, 전문/과학/기술업의 평균이 74.03점(100점 환산 기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건설업(72.58점), 제조업(68.61점), 출판/영상/정보(68.23점), 사업시설관리(64.37점)순임.

<표 4-1-73> 업종별 생산품 디자인 결정에 대한 디자이너 관여 수준

(단위 : %, 점)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100점 환산 평균(점)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3.6	40.5	55.9	69.79
업종별	제조업	2.7	43.7	53.6	68.61
	건설업	1.9	42.5	55.6	72.58
	출판/영상/정보	5.7	33.9	60.4	68.23
	전문/과학/기술	5.0	34.9	60.1	74.03
	사업시설관리	6.0	45.2	48.8	64.37



+ 권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의 평균이 76.5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강원/제주(74.09점), 인천/경기(71.32점), 서울(69.34점) 등의 순임.

규모별로는 소기업은 69.64점, 중기업은 70.21점, 대기업은 70.43점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디자이너 관여수준이 높음.

〈표 4-1-74〉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생산품 디자인 결정에 대한 디자이너 관여 수준

(단위 : %, 점)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100점 환산 평균(점)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3.6	40.5	55.9	69.79
권역별	서울	3.3	44.0	52.7	69.34
	부산/울산/경남	4.3	30.9	64.8	69.12
	대구/경북	1.1	57.9	41.0	67.09
	인천/경기	3.7	34.9	61.4	71.32
	광주/전라	5.1	53.1	41.8	63.40
	대전/충청	8.8	19.9	71.3	76.56
	강원/제주	2.0	21.3	76.7	74.09
규모별	소기업	1.8	45.3	52.9	69.64
	중기업	9.2	25.5	65.3	70.21
	대기업	7.0	29.1	63.9	70.43
외주	외주용역 있음	3.4	53.3	43.3	64.14
	외주용역 없음	3.7	33.9	62.4	7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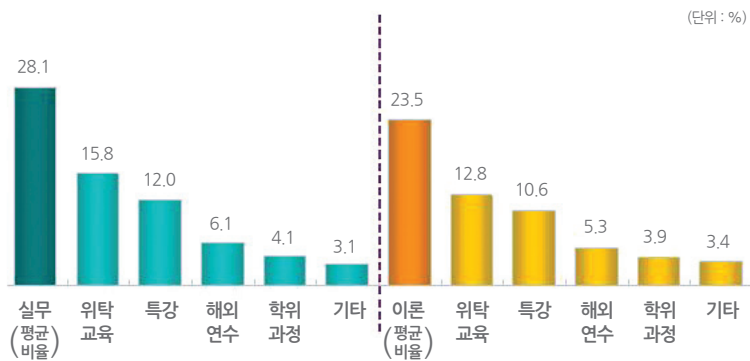


05  
디자인 재교육 관련

05-1.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별 교육 경험률

- + 디자인 부서가 있는 활용기업 중 실무 중심 디자인 재교육 경험이 있는 기업 비율은 28.1%, 이론 중심 디자인 재교육 경험이 있는 기업 비율은 23.5%임.
- 실무 중심의 교육은 '위탁교육'(15.8%) 방법이 가장 많고 다음은 '특강'(12.0%), '해외연수'(6.1%) 순이며, 이론 중심의 교육 역시 '위탁교육'(12.8%) 방법이 가장 많고 다음은 '특강'(10.6%), '해외연수'(5.3%)순임.

<그림 4-1-37>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별 교육 경험률



- + 업종별 보면, 제조업(26.5%), 출판/영상/정보업(29.2%), 전문/과학/기술업(29.3%)은 '실무 교육'의 비율이 '이론 교육' 비율보다 높으며, 건설업(36.2%)과 사업시설관리업(23.5%)은 '이론 교육' 비율이 더 높음.

<표 4-1-75> 업종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별 교육 경험률

(단위 : %)

구 분		실무	위탁 교육	특강	해외 연수	학위 과정	기타	이론	위탁 교육	특강	해외 연수	학위 과정	기타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28.1	15.8	12.0	6.1	4.1	3.1	23.5	12.8	10.6	5.3	3.9	3.4
업종별	제조업	26.5	12.7	10.1	7.4	5.2	2.8	20.6	10.8	10.7	6.8	4.7	2.6
	건설업	33.3	21.4	22.1	12.6	3.7	0.1	36.2	20.1	10.1	8.6	4.0	3.2
	출판/영상/정보	29.2	23.7	9.6	0.9	2.0	0.2	18.9	14.4	8.8	0.7	2.0	0.6
	전문/과학/기술	29.3	14.9	11.5	3.6	2.6	9.8	27.8	13.1	10.1	3.4	2.6	9.7
	사업시설관리	21.8	6.5	19.1	0.6	6.9	0.0	23.5	6.7	22.6	0.4	6.7	0.0



+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과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재교육 방법으로 ‘실무’의 비율이 ‘이론’ 비율 보다 높은 가운데 특히, 대전/충청(39.3%)이 더욱 높음.  
 한편, 대구/경북(22.5%)과 광주/전라(10.9%)는 재교육의 방법으로 ‘이론’의 비율이 ‘실무’ 비율 보다 높음.

규모별로 보면, 모든 규모에서 ‘실무’ 재교육 비율이 ‘이론’ 재교육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54.2%)에서 더욱 높음.

<표 4-1-76>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별 교육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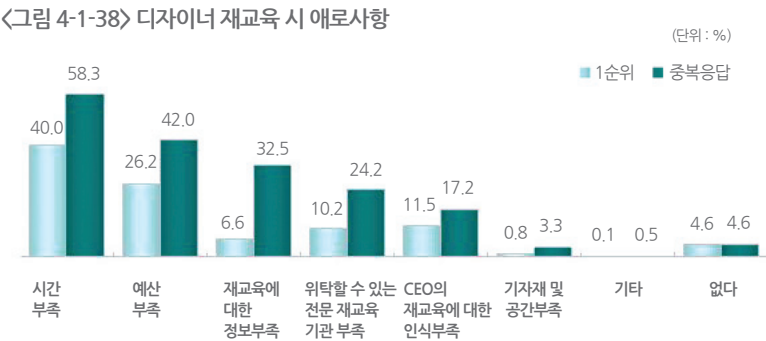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실무	위탁 교육	특강	해외 연수	학위 과정	기타	이론	위탁 교육	특강	해외 연수	학위 과정	기타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28.1	15.8	12.0	6.1	4.1	3.1	23.5	12.8	10.6	5.3	3.9	3.4
권역별	서울	26.3	14.7	14.1	6.3	3.1	1.7	23.6	14.9	12.6	5.4	3.1	2.6
	부산/울산/경남	35.6	13.3	10.1	18.0	3.6	0.1	31.8	12.5	5.9	19.1	3.9	0.0
	대구/경북	13.7	5.3	11.5	0.3	0.7	0.0	22.5	12.9	12.2	0.2	0.8	0.0
	인천/경기	33.4	20.2	4.5	3.9	7.1	9.7	17.5	5.7	3.3	1.3	5.8	9.3
	광주/전라	7.8	7.2	4.9	0.0	0.2	0.2	10.9	9.2	5.8	0.5	0.2	0.2
	대전/충청	39.3	31.6	35.2	2.0	12.8	0.7	38.6	20.4	35.2	2.0	12.8	0.0
	강원/제주	35.8	31.3	21.6	2.0	0.9	0.0	34.8	34.8	19.3	2.0	0.9	0.0
규모별	소기업	26.8	13.0	11.6	6.4	4.2	3.6	23.2	10.9	9.8	5.8	3.8	4.1
	중기업	28.9	22.1	10.2	4.5	3.7	0.6	20.3	15.7	9.6	2.9	3.8	0.3
	대기업	54.2	40.3	33.8	11.7	5.6	6.7	53.6	39.5	34.6	7.7	6.2	7.2
외주	외주용역 있음	33.6	24.1	10.8	5.4	8.6	3.5	22.7	14.8	10.4	4.1	7.9	3.5
	외주용역 없음	25.3	11.5	12.6	6.5	1.8	2.9	23.9	11.8	10.6	5.9	1.9	3.3



05-2.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 + 디자이너가 있는 기업이 꼽은 디자이너 재교육 애로 사항(중복응답 기준)은 ‘시간 부족’이 58.3%로 가장 많음.  
다음은 ‘예산 부족’(42.0%), ‘재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32.5%), ‘위탁할 수 있는 전문 재교육 기관 부족’(24.2%), ‘CEO의 재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17.2%) 등의 순임.



- + 업종별로 보면, 사업시설관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애로사항 중 ‘시간부족’이 가장 높으며, 특히, 출판/영상/정보업(65.2%)에서 더욱 높음.  
‘예산부족’은 건설업(49.7%)에서, ‘재교육에 대한 정보부족’은 제조업(47.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1-77〉 업종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시간 부족	예산 부족	재교육에 대한 정보부족	위탁할 수 있는 전문 재교육 기관 부족	CEO의 재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기자재 및 공간 부족	기타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58.3	42.0	32.5	24.2	17.2	3.3	0.5
업종별	제조업	57.9	38.6	47.5	28.8	15.6	3.4	0.0
	건설업	57.7	49.7	17.4	36.5	31.5	0.0	0.0
	출판/영상/정보	65.2	48.3	21.1	19.8	10.4	5.1	1.6
	전문/과학/기술	56.8	39.3	11.0	5.9	16.0	3.2	1.1
	사업시설관리	36.5	46.3	16.6	20.3	30.9	5.4	0.0



+ 권역별로 보면, 인천/경기,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의 재교육 시 주요 애로사항은 ‘시간부족’이며, 특히, 대구/경북(71.7%)에서 가장 높음.  
 한편, 인천/경기(43.6)와 광주/전라(47.1%)는 ‘재교육에 대한 정보부족’이 가장 높음.

규모별로 보면, 모든 규모에서 ‘시간부족’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소기업(59.1%)이 더욱 높음.

외주 용역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으로 ‘시간부족’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

<표 4-1-78>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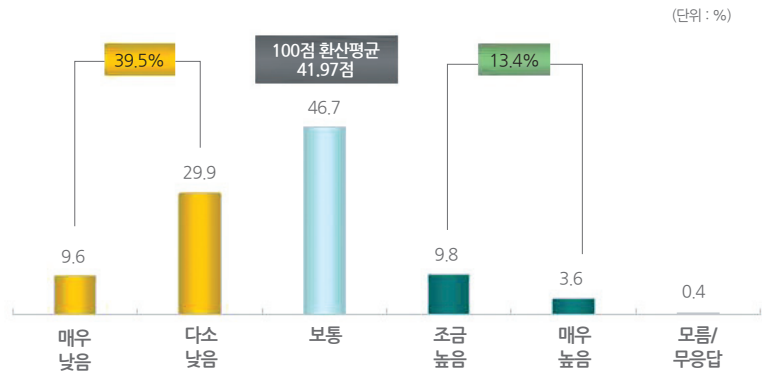
구 분		시간 부족	예산 부족	재교육에 대한 정보부족	위탁할 수 있는 전문 재교육 기관 부족	CEO의 재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기자재 및 공간 부족	기타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58.3	42.0	32.5	24.2	17.2	3.3	0.5
권역별	서울	63.5	45.6	25.1	28.1	11.4	3.4	0.9
	부산/울산/경남	56.8	46.4	32.2	13.6	31.2	2.8	0.1
	대구/경북	71.7	31.4	46.6	9.1	15.3	0.3	0.0
	인천/경기	43.1	36.5	43.6	27.2	24.3	4.5	0.1
	광주/전라	38.8	37.1	47.1	26.9	14.4	3.5	0.0
	대전/충청	66.3	49.4	21.6	6.5	15.2	2.6	0.2
	강원/제주	64.1	22.9	31.5	52.6	18.3	2.8	0.0
규모별	소기업	59.1	43.5	37.9	26.5	16.7	2.7	0.0
	중기업	57.3	39.7	15.5	16.9	18.9	4.9	2.0
	대기업	44.4	20.9	18.2	20.4	18.5	5.2	1.1
외주	외주용역 있음	59.7	46.8	28.2	18.6	15.6	3.6	0.5
	외주용역 없음	57.5	39.5	34.7	27.1	18.0	3.1	0.4



05-3.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 디자이너가 있는 활용기업에서 대학 디자인 교육의 디자인 업무 기여도를 평가한 결과 평균 41.97점(100점 환산 기준)으로,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기여도는 높지 않음.  
세부적으로 업무 기여도가 ‘보통이다’는 응답 비율은 46.7%, ‘낮다’는 39.5%(매우 낮음: 9.6% + 다소 낮음: 29.9%), ‘높다’는 13.4%(매우 높음: 3.6% + 조금 높음: 9.8%)임. 업무 기여도가 낮다는 응답비율이 높다는 응답비율보다 약 3배 많음.

〈그림 4-1-39〉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 업종별 보면, 사업시설관리업에서의 업무 기여도 점수는 평균 54.66점(100점 환산 기준 점수)으로 가장 높음. 다음은 출판/영상/정보업(49.12점), 전문/과학/기술업(44.65점), 건설업(40.80점), 제조업(38.36점)순임.

〈표 4-1-79〉 업종별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단위 : %, 점)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100점 환산 평균(점)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39.5	46.7	13.4	41.97
업종별	제조업	47.1	44.1	8.8	38.36
	건설업	40.6	46.2	13.2	40.80
	출판/영상/정보	24.5	49.0	24.4	49.12
	전문/과학/기술	35.1	50.3	14.6	44.65
	사업시설관리	14.1	61.1	24.7	54.66



+ 권역별로 보면, 강원/제주에서의 업무 기여도 점수는 평균 48.41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구/경북(46.46점), 광주/전라(45.83점), 서울(43.86점) 등의 순임.

규모별로 보면, 중기업이 평균 49.5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기업 45.93점, 소기업 39.67점의 순임.

<표 4-1-80>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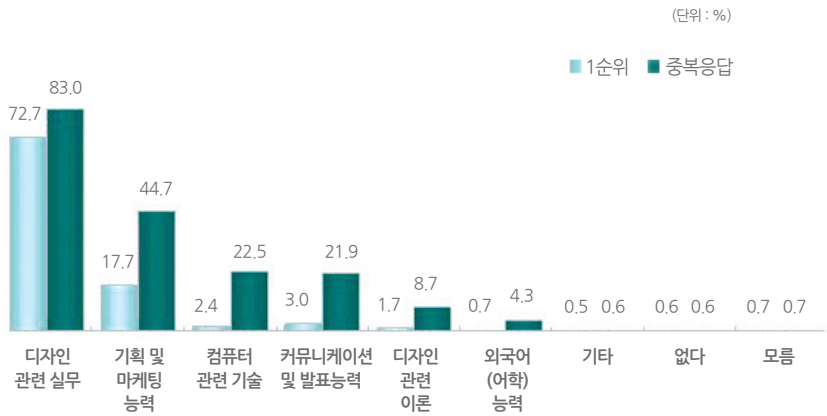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100점 환산 평균(점)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39.5	46.7	13.4	41.97
권역별	서울	35.0	50.8	13.7	43.86
	부산/울산/경남	63.7	28.0	8.3	33.23
	대구/경북	14.5	74.3	10.3	46.46
	인천/경기	49.5	32.2	18.3	40.05
	광주/전라	27.4	60.0	12.7	45.83
	대전/충청	40.9	53.6	5.0	39.34
	강원/제주	18.1	69.8	12.1	48.41
규모별	소기업	43.2	47.5	9.3	39.67
	중기업	28.1	42.9	27.4	49.55
	대기업	29.6	52.0	17.6	45.93
외주	외주용역 있음	37.6	49.2	12.3	41.68
	외주용역 없음	40.5	45.4	14.0	42.11



05-4.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중복응답 기준)으로는 대부분이 ‘디자인 관련 실무’(83.0%)로 응답함. 다음은 ‘기획 및 마케팅 능력’(44.7%), ‘컴퓨터 관련 기술’(22.5%),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21.9%) 등의 순임.

〈그림 4-1-40〉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업종별 보면, 모든 업종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으로 ‘디자인 관련 실무’가 높으며, 특히 건설업(92.9%)에서 더욱 높음. 그 외 제조업에서는 ‘기획 및 마케팅 능력’(53.0%), 사업시설관리업에서는 ‘컴퓨터 관련 기술’(55.5%)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1-81〉 업종별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 관련 실무	기획 및 마케팅능력	컴퓨터 관련 기술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능력	디자인 관련 이론	외국어 (어학) 능력	기타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83.0	44.7	22.5	21.9	8.7	4.3	0.6
업종별	제조업	87.0	53.0	24.2	21.7	7.8	1.9	0.0
	건설업	92.9	38.5	26.2	9.8	10.5	8.2	0.1
	출판/영상/정보	79.5	47.6	9.0	21.7	10.6	7.3	2.8
	전문/과학/기술	70.3	22.3	22.3	35.3	7.8	1.9	0.8
	사업시설관리	60.5	34.1	55.5	4.8	11.6	24.3	0.0



+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디자인 관련 실무’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대구/경북(95.9%)이 더욱 높음. 그 외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기획 및 마케팅 능력’(58.9%), 광주/전라에서는 컴퓨터 관련 기술(47.5%)이 상대적으로 높음.

규모별로는 ‘디자인 관련 실무’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소기업(86.0%)에서 더욱 높음.

외주 용역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으로 ‘디자인 관련 실무’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1-82>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단위 : %, 중복응답)

구 분		디자인 관련 실무	기획 및 마케팅능력	컴퓨터 관련 기술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능력	디자인 관련 이론	외국어 (어학) 능력	기타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83.0	44.7	22.5	21.9	8.7	4.3	0.6
권역별	서울	80.0	42.8	16.5	26.8	9.6	6.3	1.0
	부산/울산/경남	95.5	58.9	23.4	7.6	2.1	0.1	1.1
	대구/경북	95.9	30.9	12.7	23.2	23.4	0.5	0.0
	인천/경기	78.0	52.5	35.8	20.3	3.4	4.5	0.0
	광주/전라	86.6	29.3	47.5	14.2	5.8	3.1	0.0
	대전/충청	82.7	27.5	16.7	16.1	14.0	0.3	0.0
	강원/제주	82.8	37.8	37.5	18.9	16.0	1.4	0.0
규모별	소기업	86.0	46.4	24.8	19.5	9.5	3.4	0.2
	중기업	74.6	39.1	16.5	28.6	5.7	7.2	2.1
	대기업	67.6	44.6	10.6	34.8	9.9	3.7	0.7
외주	외주용역 있음	79.9	42.6	23.6	17.7	11.8	4.7	1.8
	외주용역 없음	84.5	45.9	22.0	24.1	7.1	4.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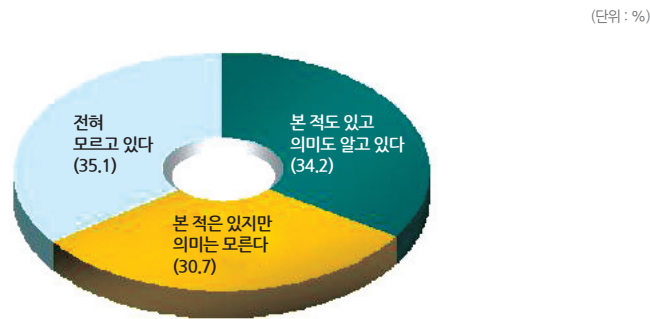


06  
기타

06-1. GD 마크 인지도

+ GD마크의 인지도는,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34.2%)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 비율(35.1%)이 비슷함.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는 응답 비율은 30.7%임.

〈그림 4-1-41〉 GD 마크 인지도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36.5%, 50.7%임. 반면에 출판/영상/정보업(51.0%), 전문/과학/기술업(45.7%), 사업시설관리업(57.8%)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업종별로 GD마크 인지도에 차이가 있음.

〈표 4-1-83〉 업종별 GD 마크 인지도

(단위 : %)

구 분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	전혀 모르고 있다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34.2	30.7	35.1
업종별	제조업	36.5	35.9	27.6
	건설업	50.7	24.2	25.1
	출판/영상/정보	19.3	29.7	51.0
	전문/과학/기술	39.1	15.2	45.7
	사업시설관리	16.0	26.2	57.8



- ✚ 권역별로 보면, 서울(35.7%), 대구/경북(49.5%), 대전/충청(53.4%) 그리고 강원/제주(40.0%)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 부산/울산/경남(42.3%)과 광주/전라(48.9%)는 ‘본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한편, 인천/경기는 44.0%가 ‘본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고 응답함

규모별로 보면, 소기업은 ‘본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33.6%)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으며, 중기업은 ‘전혀 모르고 있다’(45.8%)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음.

한편, 대기업에서의 GD마크를 ‘본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8.2%로 타 계층 대비 인지도가 높음.

디자이너 고용 여부별로 보면, 디자이너를 고용한 기업은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은 반면,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높음.

〈표 4-1-84〉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GD 마크 인지도

(단위 : %)

구 분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	전혀 모르고 있다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34.2	30.7	35.1
권역별	서울	35.3	29.0	35.7
	부산/울산/경남	42.3	35.7	22.0
	대구/경북	36.5	14.0	49.5
	인천/경기	24.9	44.0	31.1
	광주/전라	48.9	18.4	32.7
	대전/충청	36.3	10.3	53.4
	강원/제주	32.3	27.7	40.0
규모별	소기업	33.4	33.6	33.0
	중기업	33.3	20.9	45.8
	대기업	68.2	13.3	18.5
고용	디자이너 고용	38.6	29.8	31.6
	디자이너 비고용	26.0	32.4	41.6
외주	외주용역 있음	29.0	30.4	40.6
	외주용역 없음	41.1	31.1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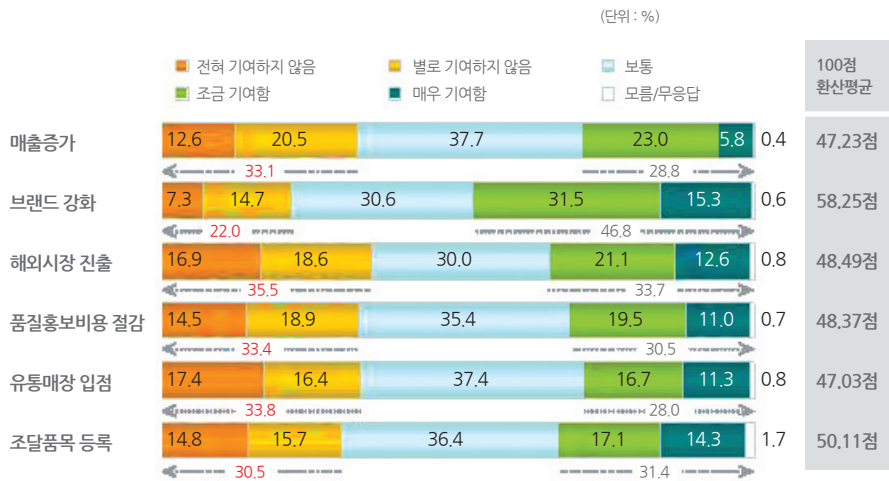


06-2. 디자인 마크 기여도

+ 디자인 마크 획득의 기여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브랜드 강화’에 기여하는 점수는 평균 58.25점(100점 환산 기준)<sup>4)</sup>임. 다음은 ‘조달품목 등록’ 50.11점, ‘해외시장 진출’ 48.49점, ‘품질홍보비용 절감’ 48.37점 등의 순임.

4) 100점 환산 기준: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문항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①전혀 기여하지 않음-0점, ②별로 기여하지 않음-25점, ③보통-50점, ④조금 기여함-75점, ⑤매우 기여함-100점

〈그림 4-1-42〉 디자인 마크 기여도



+ 업종별 보면,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마크의 획득의 ‘브랜드 강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높으며, 특히, 제조업은 평균 62.02점(100점 환산 기준)으로 더욱 높음.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제조업(52.54점)에서, ‘품질홍보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정도는 건설업(58.17점), ‘조달품목 등록’에 기여하는 정도는 제조업(54.78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1-85〉 업종별 디자인 마크 기여도

구분		매출증가	브랜드 강화	해외시장 진출	품질홍보 비용 절감	유통매장 입점	조달품목 등록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47.23	58.25	48.49	48.37	47.03	50.11
업종별	제조업	49.69	62.02	52.54	50.47	50.85	54.78
	건설업	54.18	61.71	49.79	58.17	52.67	54.38
	출판/영상/정보	40.29	53.41	46.16	44.18	42.18	45.52
	전문/과학/기술	43.76	45.20	41.38	40.94	38.74	39.58
	사업시설관리	38.11	57.02	28.12	40.14	31.75	32.05



+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디자인 마크가 ‘브랜드 강화’에 기여하는 정도 가장 높으며, 특히, 대구/경북(69.95점)에서 더욱 높음. 한편, 부산/울산/경남은 ‘해외시장 진출’ 기여도가 63.64점으로 가장 높음.

모든 규모에서 디자인 마크가 ‘브랜드 강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며, 특히 소기업(59.43점)에서 더욱 높음.

디자이너 고용 여부나 외주 용역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디자인 마크가 ‘브랜드 강화’에 가장 크게 기여함.

<표 4-1-86>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마크 기여도 (100점 환산 평균)

구 분		매출증가	브랜드 강화	해외시장 진출	품질홍보 비용 절감	유통매장 입점	조달품목 등록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47.23	58.25	48.49	48.37	47.03	50.11
권역별	서울	46.06	56.83	47.55	46.26	46.52	46.83
	부산/울산/경남	49.11	63.07	63.64	62.69	53.32	59.74
	대구/경북	63.00	69.95	64.38	64.30	58.62	59.82
	인천/경기	41.64	55.12	40.15	38.99	39.63	46.32
	광주/전라	49.53	60.18	45.65	55.22	50.67	56.32
	대전/충청	50.97	56.78	50.64	51.89	51.32	56.43
	강원/제주	52.92	55.93	34.88	47.38	50.29	48.26
규모별	소기업	48.47	59.43	50.50	50.01	48.98	52.63
	중기업	43.14	54.50	41.38	42.77	39.87	40.57
	대기업	38.36	48.43	38.57	38.65	39.52	38.90
고용	디자이너 고용	49.27	60.62	49.86	50.93	50.17	52.40
	디자이너 비고용	43.43	53.81	45.97	43.60	41.18	45.88
외주	외주용역 있음	46.51	56.55	47.65	46.59	45.92	46.98
	외주용역 없음	48.17	60.46	49.61	50.71	48.50	54.15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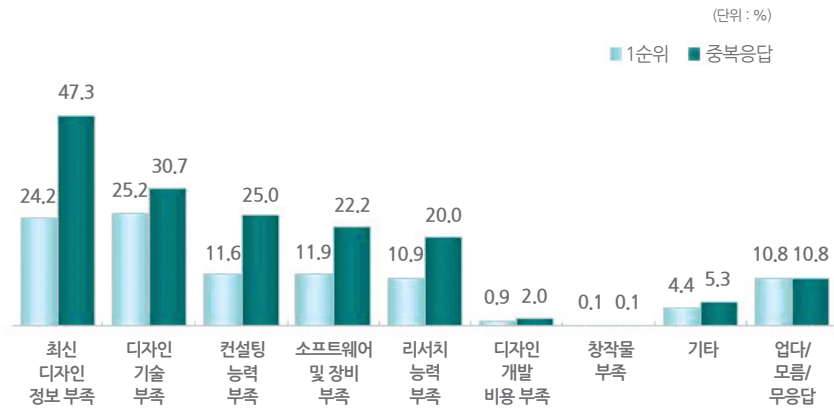


06-3.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디자인 개발 시 꼽은 애로사항으로(중복응답 기준), ‘최신 디자인 정보 부족’을 꼽은 응답이 47.3%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디자인 기술 부족’ 30.7%, ‘컨설팅 능력 부족’ 25.0%, ‘소프트웨어 및 장비부족’ 22.2% 등의 순임.

한편, 1순위 기준으로는 ‘디자인 기술 부족’이 25.2%, ‘최신 디자인 정보 부족’이 24.2%로 비슷하게 높음.

〈그림 4-1-43〉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업종별 보면, 사업시설관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최신 디자인 정보 부족’을 꼽은 응답이 가장 높으며, 특히, 건설업(59.6%)이 더욱 높음. 한편, 사업시설관리업은 ‘디자인 기술 부족’이 29.6%로 가장 높아 다른 업종과 차이가 남.

〈표 4-1-87〉 업종별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구분		최신 디자인 정보 부족	디자인 기술 부족	컨설팅 능력 부족	소프트웨어 및 장비 부족	리서치 능력 부족	디자인 개발 비용 부족	창작물 부족	기타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47.3	30.7	25.0	22.2	20.0	2.0	0.1	5.3
업종별	제조업	52.5	28.8	26.9	25.9	22.2	2.1	0.0	2.2
	건설업	59.6	61.0	14.7	14.4	23.5	0.0	0.0	2.1
	출판/영상/정보	40.9	29.6	26.3	16.1	15.6	1.9	0.3	8.3
	전문/과학/기술	33.6	19.2	21.7	17.8	12.7	2.3	0.0	19.6
	사업시설관리	24.7	29.6	26.7	23.9	19.8	2.6	0.5	0.8



+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으로 ‘최신디자인 정보부족’을 꼽은 응답이 가장 높으며, 특히, 서울(55.9%)이 더욱 높음. 한편, 대구/경북은 ‘컨설팅 능력 부족’(44.7%)이 가장 높음.

규모별로는, 모든 규모에서 ‘최신 디자인 정보 부족’을 꼽은 응답이 가장 높으며, 특히, 소기업(50.9%)에서 더욱 높음.

또한 ‘최신 디자인 정보부족’은 디자이너 고용 여부 및 외주 용역 경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디자인 개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임.

<표 4-1-88>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단위 : %, 중복응답)

구 분		최신 디자인 정보 부족	디자인 기술 부족	컨설팅 능력 부족	소프트웨어 및 장비 부족	리서치 능력 부족	디자인 개발 비용 부족	창작물 부족	기타
디자인 활용 기업(전체)		47.3	30.7	25.0	22.2	20.0	2.0	0.1	5.3
권역별	서울	55.9	24.0	20.6	18.0	18.3	1.6	0.0	7.1
	부산/울산/경남	47.4	54.2	20.2	25.4	16.1	11.6	0.0	2.6
	대구/경북	31.6	23.9	44.7	35.3	12.3	0.0	0.6	0.9
	인천/경기	35.8	32.3	31.6	22.6	25.7	0.0	0.0	5.9
	광주/전라	53.2	36.2	21.0	22.6	20.1	0.0	0.0	4.5
	대전/충청	50.4	41.5	18.2	26.1	23.0	0.5	0.0	2.3
	강원/제주	40.8	23.3	19.1	29.6	27.1	0.0	1.2	0.4
규모별	소기업	50.9	31.7	25.8	23.3	20.1	1.9	0.0	4.2
	중기업	34.8	28.7	22.2	19.5	19.1	2.3	0.3	8.7
	대기업	30.2	12.5	23.5	6.9	22.6	0.3	0.0	12.5
고용	디자이너 고용	50.9	28.9	30.8	23.9	24.8	2.8	0.1	5.1
	디자이너 비고용	40.7	33.9	14.2	19.1	11.0	0.4	0.1	5.6
외주	외주용역 있음	46.5	32.1	17.9	18.9	16.1	1.1	0.1	5.5
	외주용역 없음	48.4	28.7	34.5	26.6	25.0	3.0	0.1	5.0







## IV

### 조사결과

#### 2. 전문디자인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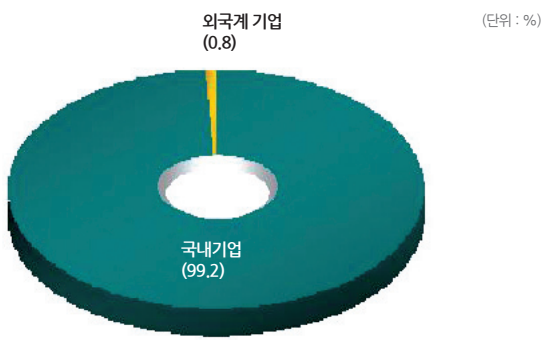


01  
일반현황

01-1. 국내기업/외국계기업 구분

+ 전문디자인기업 3,023개 중 99.2%는 ‘국내기업’, 0.8%만이 ‘외국계 기업’임.

〈그림 4-2-1〉 국내기업/외국계 기업 구분



+ 모든 업종에서 98% 이상이 ‘국내기업’이며, 특히 제품디자인업종은 전부 국내기업(100.0%)임.

〈표 4-2-1〉 업종별 국내기업/외국계기업 구분

(단위 : %)

구 분		국내기업	외국계기업
전문디자인기업(전체)		99.2	0.8
업종별	제품디자인	100.0	0.0
	시각디자인	99.6	0.4
	환경/인테리어	98.3	1.7
	기타디자인	98.6	1.4



+ 권역별, 규모별, 매출 구성별로도 대부분이 국내기업임.

〈표 4-2-2〉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국내기업/외국계기업 구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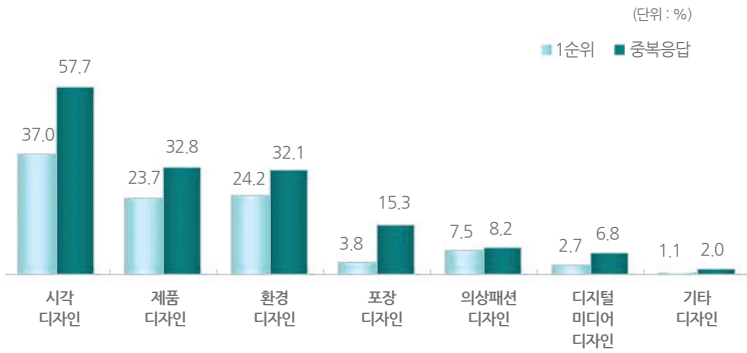
구 분		국내기업	외국계기업
전문디자인기업(전체)		99.2	0.8
권역별	서울	98.5	1.5
	부산/울산/경남	100.0	0.0
	대구/경북	100.0	0.0
	인천/경기	100.0	0.0
	광주/전라	100.0	0.0
	대전/충청	100.0	0.0
	강원/제주	100.0	0.0
규모별	1인	100.0	0.0
	2 - 4인	98.7	1.3
	5 - 9인	99.3	0.7
	10 - 14인	100.0	0.0
	15인 이상	100.0	0.0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99.1	0.9
	기타 매출 50%↑	99.4	0.6
	반반	100.0	0.0



01-2. 전문디자인기업의 주요 서비스 디자인 분야

전문디자인기업에서 주로 서비스하는 디자인 분야(중복응답 기준)는, '시각디자인'이 57.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품디자인' 32.8%, '환경디자인' 32.1%, '포장디자인' 15.3% 등의 순임. 한편, 1순위 기준으로는 '시각디자인'이 37.0%로 가장 많고, '환경디자인'(24.2%)과 '제품디자인'(23.7%)이 비슷함. 그 외 분야는 10% 미만임.

〈그림 4-2-2〉 전문디자인기업의 주요 서비스 디자인 분야



업종별로 보면, 각 업종에 해당하는 디자인 분야가 주요 서비스 분야(제품디자인업 → 제품디자인 분야, 시각디자인업 → 시각디자인 분야, 환경/인테리어업 → 환경디자인 분야)임. 한편, 기타 디자인업은 의상패션디자인이 50.0%로 가장 높고, 다음은 포장디자인(30.8%), 시각디자인 (24.2%) 등의 순임.

〈표 4-2-3〉 업종별 전문디자인기업의 주요 서비스 디자인 분야

		(단위 : %, 중복응답)						
구 분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포장 디자인	의상패션 디자인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기타 디자인
전문디자인업체(전체)		55.6	32.5	31.9	15.3	8.0	6.8	2.0
업종별	제품디자인	36.9	100.0	14.1	8.5	0.5	4.7	0.9
	시각디자인	100.0	7.7	11.0	22.5	0.9	7.8	0.9
	환경/인테리어	25.5	12.4	100.0	1.1	0.0	0.7	1.9
	기타디자인	24.2	19.7	1.5	30.8	50.0	17.8	6.9



- ✚ 권역별로 보면, 인천/경기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시각디자인'을 가장 많이 서비스 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충청(87.6%)에서 더욱 높음. 인천/경기의 경우는 제품디자인분야(50.8%) 서비스 비율이 높음.

규모별로 보면 모든 사업체 규모 단위에서 '시각디자인'을 가장 많이 서비스하고 있으며, 특히 10~14인 이상(62.5%)이 더욱 높음.

매출 구성별로 보면 모든 유형에서 '시각디자인'을 가장 높게 꼽은 가운데, 디자인 매출 50% 이상(60.1%), 디자인매출과 기타매출이 반반(61.1%)인 경우 더욱 높음. 기타 매출이 50%이상인 경우 '환경디자인'(39.8%)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4〉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전문디자인기업의 주요 서비스 디자인 분야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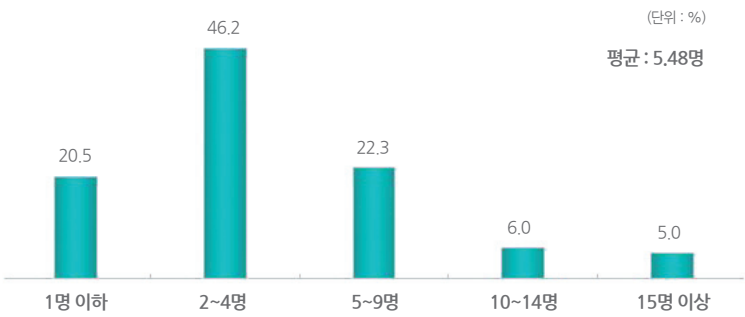
구 분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포장 디자인	의상패션 디자인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기타 디자인
전문디자인기업(전체)		55.6	32.5	31.9	15.3	8.0	6.8	2.0
권역별	서울	51.5	28.4	32.0	13.9	9.4	8.7	2.5
	부산/울산/경남	62.3	31.1	34.9	14.7	3.6	2.9	1.9
	대구/경북	54.3	26.2	40.7	18.2	18.7	0.0	3.9
	인천/경기	45.2	50.8	25.4	15.9	11.4	8.3	1.8
	광주/전라	48.9	31.4	45.8	18.6	0.0	2.8	0.0
	대전/충청	87.6	47.0	14.9	14.5	0.0	8.7	0.0
	강원/제주	84.4	25.3	27.0	25.0	0.0	3.6	0.0
규모별	1인	57.1	27.0	28.4	14.1	7.8	6.1	3.3
	2 - 4인	52.1	32.8	30.8	16.2	9.8	6.6	2.6
	5 - 9인	60.3	34.5	34.3	16.2	6.0	6.4	0.7
	10 - 14인	62.5	38.7	40.6	14.3	3.3	11.0	0.0
	15인 이상	52.5	36.4	34.3	8.2	6.8	8.2	0.0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60.1	35.8	29.1	16.3	7.0	7.1	1.7
	기타 매출 50%↑	43.6	25.6	39.8	13.3	10.1	7.1	2.6
	반반	61.1	22.6	24.1	10.2	10.0	0.0	3.7



01-3-1. 전문디자인기업 종사자 수 (평균)

- 전문디자인기업의 종사자 수는 기업 평균 5.48명임.  
범주별로 보면, '2~4명'이 46.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9명' 22.3%, '1명 이하' 20.5%, '10~14명' 6.0% 등의 순임.

〈그림 4-2-3〉 전문디자인기업 종사자 수 평균



- 업종별로 보면, 1개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환경/인테리어 디자인이 6.1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제품디자인 5.51명, 기타디자인 5.48명, 시각디자인 5.05명 순임.

〈표 4-2-5〉 업종별 전문디자인기업 종사자 수 (평균)

		(단위 : %, 명)				
구 분		1명 이하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전문디자인업체(전체)		20.5	46.2	22.3	6.0	5.0
업종별	제품디자인	17.9	44.4	25.9	7.1	4.7
	시각디자인	22.6	43.6	22.5	6.0	5.3
	환경/인테리어	19.6	46.9	21.7	6.1	5.7
	기타디자인	21.1	54.5	16.7	4.0	3.7
평균(명)		5.48				



+ 권역별 디자인 업체 종사자 수를 보면, 대구/경북에서는 업체당 종사자 수가 평균 6.42명으로 가장 많음. 다음은 서울(6.04명), 광주/전라(5.53명), 부산/울산/경남(5.05명) 등의 순임.

<표 4-2-6>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전문디자인기업 종사자 수 (평균)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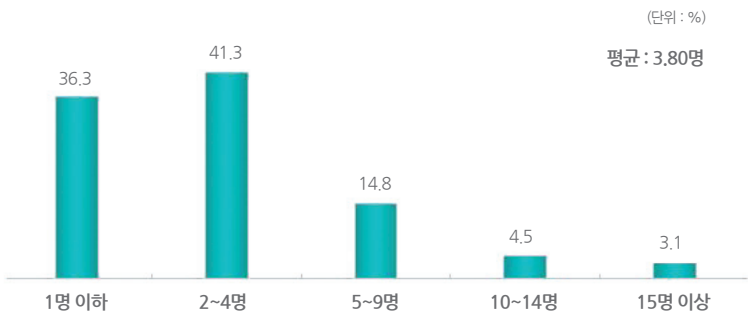
구 분		1명 이하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기업(전체)		20.5	46.2	22.3	6.0	5.0	5.48
권역별	서울	18.3	44.1	24.7	6.6	6.3	6.04
	부산/울산/경남	10.2	57.3	24.6	5.3	2.6	5.05
	대구/경북	32.2	36.1	17.4	9.8	4.5	6.42
	인천/경기	14.1	54.8	19.5	8.1	3.5	4.51
	광주/전라	23.4	54.2	13.2	3.0	6.2	5.53
	대전/충청	42.7	39.9	14.3	0.9	2.2	3.28
	강원/제주	24.0	36.8	39.2	0.0	0.0	3.33
규모별	1인	100.0	0.0	0.0	0.0	0.0	1.00
	2 - 4인	0.0	100.0	0.0	0.0	0.0	3.03
	5 - 9인	0.0	0.0	100.0	0.0	0.0	6.77
	10 - 14인	0.0	0.0	0.0	100.0	0.0	12.63
	15인 이상	0.0	0.0	0.0	0.0	100.0	32.42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19.3	48.8	20.6	6.5	4.8	5.31
	기타 매출 50%↑	25.1	42.7	22.1	3.9	6.2	5.85
	반반	9.3	26.1	53.3	11.3	0.0	5.79



01-3-2. 전문디자인기업 디자이너 수 (평균)

+ 전문디자인기업의 디자이너 수는 평균 3.80명임.  
 범주별로 보면, '2~4명'이 41.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명 이하' 36.3%, '5~9명' 14.8% 순임.

〈그림 4-2-4〉 전문디자인기업 디자이너 수 (평균)



+ 업종별로 보면, 환경/인테리어업의 기업당 평균 디자이너 수는 4.44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  
 로 제품디자인 4.01명, 시각디자인 3.70명, 기타디자인 2.66명의 순임.

〈표 4-2-7〉 업종별 전문디자인기업 디자이너 수 (평균)

		(단위 : %, 명)				
구 분		1명 이하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전문디자인업체(전체)		36.3	41.3	14.8	4.5	3.1
업종별	제품디자인	33.2	38.9	19.9	5.4	2.6
	시각디자인	33.2	46.1	12.6	5.3	2.8
	환경/인테리어	33.6	43.0	15.4	2.9	5.1
	기타디자인	52.9	30.7	11.3	3.7	1.4
평균(명)		3.80				



+ 권역별로 보면, 서울의 업체당 평균 디자이너 수는 4.36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부산/울산/경남(3.80명), 광주/전라(3.79명), 대구/경북(3.25명) 등의 순임.

<표 4-2-8>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전문디자인기업 디자이너 수 (평균)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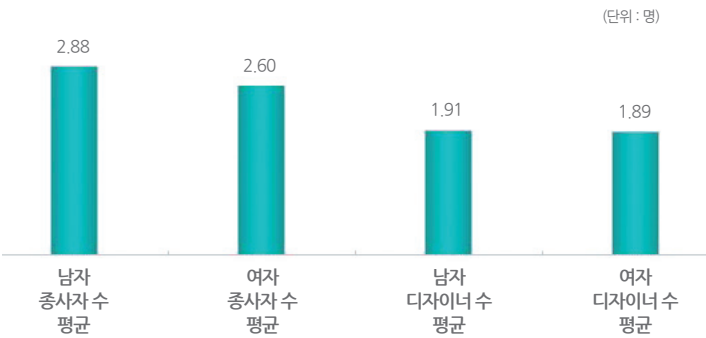
구 분		1명 이하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기업(전체)		36.3	41.3	14.8	4.5	3.1	3.80
권역별	서울	32.9	41.2	15.6	5.4	4.9	4.36
	부산/울산/경남	30.2	49.2	15.5	2.4	2.7	3.80
	대구/경북	49.6	26.9	13.1	10.4	0.0	3.25
	인천/경기	37.9	42.8	17.9	0.9	0.5	2.68
	광주/전라	29.6	53.1	10.3	5.8	1.2	3.79
	대전/충청	56.8	31.3	9.9	0.9	1.1	2.43
	강원/제주	42.9	42.1	15.0	0.0	0.0	2.40
규모별	1인	100.0	0.0	0.0	0.0	0.0	0.64
	2 - 4인	31.6	68.4	0.0	0.0	0.0	2.07
	5 - 9인	5.0	39.7	55.3	0.0	0.0	4.83
	10 - 14인	0.0	11.0	36.1	52.9	0.0	9.37
	15인 이상	0.0	3.5	6.2	26.9	63.4	21.58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35.1	40.6	16.5	4.4	3.4	3.99
	기타 매출 50%↑	40.6	41.9	9.5	4.8	3.2	3.37
	반반	26.4	48.6	20.9	4.0	0.1	3.47



01-3-3.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평균)

- 전문디자인기업의 종사자 수를 성별로 분류해 보면, 남자 종사자수는 평균 2.88명, 여자 종사자수는 평균 2.60명임.  
디자이너 수를 성별로 분류해 보면, 남자 디자이너 수는 평균 1.91명, 여자 디자이너 수는 평균 1.89명임.

〈그림 4-2-5〉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평균)



- 업종별 종사자 성별은, 기타 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남자 종사자 수(평균)가 여자 종사자 수(평균)보다 많으며, 환경/인테리어업에서 남녀 성별 종사자 수 차이가 더욱 큼. 기타 디자인업은 여자 종사자 수가 평균 3.28명으로 남자 종사자(평균 2.20명) 수보다 많음.  
업종별 디자이너 성별은, 제품디자인업,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에서는 남자가 각각 2.27명, 2.37명으로 여자 디자이너보다 많은 반면, 시각디자인업과 기타디자인업에서는 여자 디자이너 수(각각 평균 2.00명, 1.55명)가 남자 디자이너 수(각각 평균 1.70명, 1.11명)보다 많음.

〈표 4-2-9〉 업종별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평균)

		(단위: 명)			
구 분		남자 종사자 수 평균	여자 종사자 수 평균	남자 디자이너 수 평균	여자 디자이너 수 평균
전문디자인업체(전체)		2.88	2.60	1.91	1.89
업종별	제품디자인	3.23	2.28	2.27	1.74
	시각디자인	2.54	2.51	1.70	2.00
	환경/인테리어	3.49	2.61	2.37	2.07
	기타디자인	2.20	3.28	1.11	1.55



+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남자 종사자 수가 여자 종사자 수에 비해 많으며, 특히 서울(3.19명)이 더욱 많음.  
 디자이너 성별은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충청 그리고 강원/제주에서는 평균 남자 디자이너 수가 여자 디자이너 수에 비해 많은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평균 여자 디자이너 수가 더 많음.

규모별로 보면, 14인 이하에서는 남자 종사자 수(평균 6.48명)가 여자 종사자 수(평균 6.15명)보다 더 많은 반면에, 15인 이상에서는 여자 종사자 수(평균 17.16명)가 남자 종사자 수(평균 15.26명) 보다 많음.

<표 4-2-10>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평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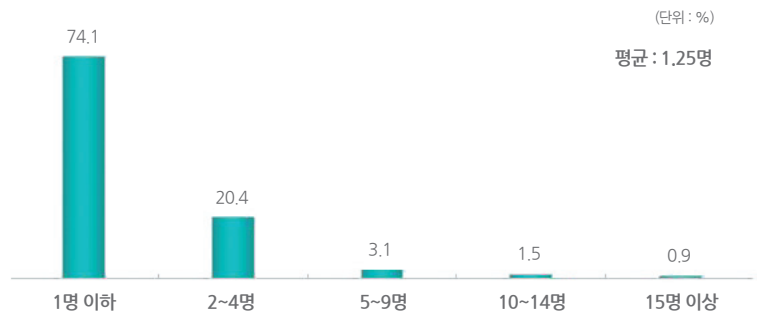
구 분		남자 종사자 수 평균	여자 종사자 수 평균	남자 디자이너 수 평균	여자 디자이너 수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2.88	2.60	1.91	1.89
권역별	서울	3.19	2.85	2.15	2.21
	부산/울산/경남	2.60	2.45	1.72	2.08
	대구/경북	2.41	4.01	1.74	1.51
	인천/경기	2.66	1.85	1.32	1.36
	광주/전라	2.98	2.55	2.13	1.66
	대전/충청	2.07	1.21	1.36	1.07
	강원/제주	2.06	1.27	1.50	0.90
규모별	1인	0.84	0.16	0.53	0.11
	2 - 4인	1.64	1.39	1.03	1.04
	5 - 9인	3.61	3.16	2.32	2.51
	10 - 14인	6.48	6.15	4.56	4.81
	15인 이상	15.26	17.16	10.76	10.82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2.84	2.47	1.99	2.00
	기타 매출 50%↑	2.98	2.87	1.79	1.58
	반반	2.98	2.81	1.39	2.08



01-3-4. 1년 이하 비정규직 근무 인원수 (평균)

+ 전문디자인기업에서 1년 이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인원수는 평균 1.25명임. 범주별로 보면, '1명 이하'가 74.1%로 대다수임. 다음으로 '2~4명' 20.4%, '5~9명' 3.1% 순임.

<그림 4-2-6> 1년 이하 비정규직 근무 인원수 (평균)



+ 업종별 보면, 1년 이하 비정규직 근무인원수의 평균은 제품디자인에서 1.46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환경/인테리어(1.24명), 시각디자인(1.19명), 기타디자인(1.05명) 순임.

<표 4-2-11> 업종별 1년 이하 비정규직 근무 인원수 (평균)

(단위 : %, 명)

구 분		1명 이하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전체)		74.1	20.4	3.1	1.5	0.9	1.25
업종별	제품디자인	76.1	16.3	4.6	1.7	1.3	1.46
	시각디자인	70.1	24.5	3.9	1.5	0.0	1.19
	환경/인테리어	78.1	17.1	2.4	0.7	1.7	1.24
	기타디자인	74.4	22.2	0.3	2.3	0.8	1.05



+ 권역별로 보면, 1년 이하 비정규직 근무 인원수 평균이 인천/경기에서 1.69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구/경북(1.46명), 서울(1.36명) 등의 순임.

〈표 4-2-12〉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1년 이하 비정규직 근무 인원수 (평균)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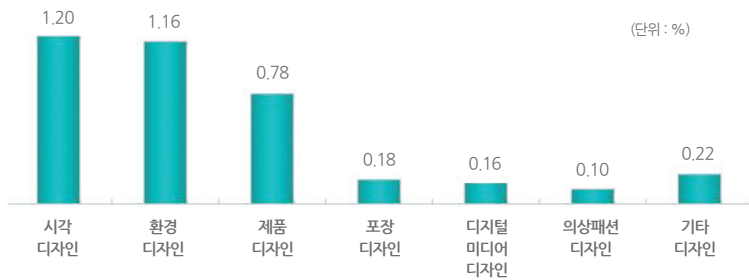
구 분		1명 이하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기업(전체)		74.1	20.4	3.1	1.5	0.9	1.25
권역별	서울	68.5	26.3	2.5	1.7	1.0	1.36
	부산/울산/경남	81.5	12.2	6.3	0.0	0.0	0.91
	대구/경북	75.3	13.1	5.5	6.1	0.0	1.46
	인천/경기	73.8	20.0	2.2	0.8	3.2	1.69
	광주/전라	86.8	9.6	3.6	0.0	0.0	0.57
	대전/충청	84.5	12.1	3.4	0.0	0.0	0.91
	강원/제주	88.1	11.9	0.0	0.0	0.0	0.79
규모별	1인	81.8	15.9	1.5	0.8	0.0	0.82
	2 - 4인	73.1	23.3	1.8	1.2	0.6	1.14
	5 - 9인	73.2	20.7	3.2	1.1	1.8	1.36
	10 - 14인	63.5	20.9	14.2	0.0	1.4	1.98
	15인 이상	67.9	11.0	8.3	10.4	2.4	2.63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73.5	22.0	2.5	1.2	0.8	1.15
	기타 매출 50%↑	74.3	16.9	5.3	2.2	1.3	1.59
	반반	82.2	17.8	0.0	0.0	0.0	0.55



01-4.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 디자인 영역별로 전문디자인기업의 디자이너 수를 보면,  
시각디자인 영역 디자이너 수가 평균 1.20명으로 가장 많으며, 환경디자인 영역 디자이너 수는  
평균 1.16명, 제품디자인 영역 0.78명, 포장디자인 영역 0.18명 등의 순임.

<그림 4-2-7>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 업종별로는, 각 해당 업종에 맞는 영역별 디자이너 수가 가장 많음.

<표 4-2-13> 업종별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단위 : 명)						
구 분		시각 디자인	환경 디자인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의상패션 디자인	기타 디자인
전문디자인업체(전체)		1.20	1.16	0.78	0.18	0.16	0.10	0.22
업종별	제품디자인	0.55	0.36	2.80	0.03	0.02	0.01	0.24
	시각디자인	2.64	0.23	0.17	0.20	0.12	0.01	0.33
	환경/인테리어	0.24	4.03	0.09	0.00	0.04	0.00	0.04
	기타디자인	0.23	0.05	0.23	0.66	0.66	0.60	0.23



+ 권역별로 보면, 서울은 각각 1.40명이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영역에 종사하고 있음. 부산/울산/경남(1.34명), 대구/경북(0.98명), 광주/전라(1.38명)는 ‘환경디자인’에 종사하고 있는 디자이너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대전/충청(1.13명), 강원/제주(1.11명)는 ‘시각디자인’ 분야 디자이너가 상대적으로 많음. 한편, 인천/경기는 ‘제품디자인’(1.07명)영역 디자이너가 상대적으로 많음.

<표 4-2-14>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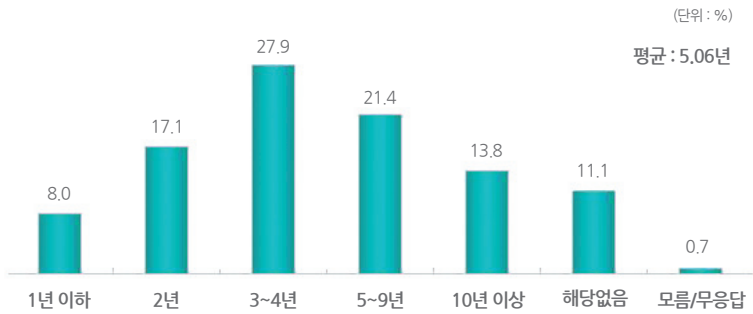
구 분		시각 디자인	환경 디자인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의상패션 디자인	기타 디자인
전문디자인기업(전체)		1.20	1.16	0.78	0.18	0.16	0.10	0.22
권역별	서울	1.40	1.40	0.71	0.17	0.22	0.10	0.36
	부산/울산/경남	1.16	1.34	0.73	0.22	0.19	0.06	0.10
	대구/경북	0.77	0.98	0.79	0.33	0.00	0.28	0.10
	인천/경기	0.78	0.46	1.07	0.09	0.09	0.13	0.06
	광주/전라	0.91	1.38	1.27	0.15	0.00	0.00	0.08
	대전/충청	1.13	0.44	0.55	0.15	0.12	0.00	0.04
	강원/제주	1.11	0.35	0.54	0.29	0.11	0.00	0.00
규모별	1인	0.21	0.12	0.19	0.04	0.01	0.01	0.06
	2 - 4인	0.73	0.56	0.40	0.16	0.05	0.07	0.10
	5 - 9인	1.65	1.26	1.09	0.26	0.24	0.15	0.18
	10 - 14인	2.92	2.94	2.25	0.44	0.54	0.21	0.07
	15인 이상	5.52	8.36	3.74	0.31	0.92	0.32	2.41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1.32	1.09	0.84	0.20	0.19	0.08	0.27
	기타 매출 50%↑	0.91	1.34	0.66	0.14	0.10	0.09	0.13
	반반	1.11	1.02	0.64	0.07	0.00	0.43	0.20



01-5. 디자이너 근속년수

- + 디자이너 근속년수는 평균 5.06년임.  
세부적으로 ‘3~4년’이 27.9%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5~9년’ 21.4%, ‘2년’ 17.1%, ‘10년 이상’ 13.8% 등의 순임.

〈그림 4-2-8〉 디자이너 근속년수



- + 업종별 보면, 제품디자인업의 디자이너 근속년수가 평균 5.51년으로 가장 김. 다음은 시각디자인업 5.28년, 기타디자인업 4.63년,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 4.51년 순임.

〈표 4-2-15〉 업종별 디자이너 근속년수

(단위 : %, 년)

구 분		1년 이하	2년	3~4년	5~9년	10년 이상	해당 없음	평균(년)
전문디자인업체(전체)		8.0	17.1	27.9	21.4	13.8	11.1	5.06
업종별	제품디자인	4.4	15.0	27.0	30.2	15.7	7.7	5.51
	시각디자인	8.4	15.5	27.8	22.2	15.8	9.9	5.28
	환경/인테리어	12.7	20.2	26.4	18.3	10.1	10.0	4.51
	기타디자인	5.4	19.0	31.8	10.6	11.6	21.5	4.63



- + 권역별로 보면, 디자이너 근속년수는 대구/경북이 평균 6.59년으로 타 권역대비 가장 길고, 다음은 부산/울산/경남 5.47년, 인천/경기 5.27년 등의 순임.  
규모별로는, 1인 기업의 평균이 8.99년으로 가장 길며, 다음은 2-4인 4.88년, 10-14인 4.48년 등의 순임.

〈표 4-2-16〉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 근속년수

(단위 : %,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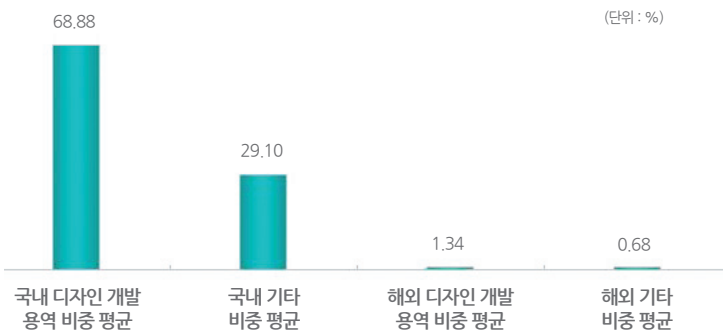
구 분		1년 이하	2년	3~4년	5~9년	10년 이상	해당 없음	평균(년)
전문디자인기업(전체)		8.0	17.1	27.9	21.4	13.8	11.1	5.06
권역별	서울	9.0	17.5	26.0	18.9	13.2	14.7	4.81
	부산/울산/경남	7.4	18.1	30.8	24.8	18.9	0.0	5.47
	대구/경북	5.9	17.7	24.9	16.0	23.9	11.6	6.59
	인천/경기	7.3	21.8	26.5	18.8	16.1	9.3	5.27
	광주/전라	4.8	13.1	37.1	27.1	8.1	6.2	5.01
	대전/충청	9.2	8.2	25.6	44.6	9.2	3.2	5.18
	강원/제주	7.0	21.3	47.7	0.0	0.0	24.0	2.65
규모별	1인	1.9	2.9	8.7	22.8	26.5	35.7	8.99
	2 - 4인	11.1	18.7	25.2	22.2	15.2	7.3	4.88
	5 - 9인	8.5	22.8	43.2	18.8	4.3	1.8	3.64
	10 - 14인	7.7	27.6	33.2	23.8	5.7	0.0	4.48
	15인 이상	3.3	22.1	56.5	17.7	0.0	0.0	3.32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7.6	18.6	26.2	24.5	14.9	7.8	5.08
	기타 매출 50%↑	8.5	12.9	32.3	13.2	11.8	19.6	5.02
	반반	13.1	19.0	26.4	24.4	7.8	9.3	4.96



01-6-1.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에 대한 조사 결과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 비중은 평균 68.88%로 가장 높으며, ‘국내 기타’ 비중은 평균 29.10%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대다수임. ‘해외 디자인 개발 용역’ 비중은 평균 1.34%, 해외 기타는 0.68%임.

<그림 4-2-9>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에서 국내의 ‘디자인 개발용역’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히 시각디자인(73.28%)에서 더욱 높음. ‘국내 기타’의 비중은 환경/인테리어(39.13%)에서, ‘해외디자인 개발 용역’의 비중은 제품디자인(2.2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17> 업종별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구 분		(단위 : %)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 비중 평균	국내 기타 비중 평균	해외 디자인 개발 용역 비중 평균	해외 기타 비중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68.88	29.10	1.34	0.68
업종별	제품디자인	73.22	23.77	2.25	0.76
	시각디자인	73.28	25.68	1.01	0.03
	환경/인테리어	59.34	39.13	0.72	0.81
	기타디자인	66.48	29.89	1.68	1.95



+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대전/충청(87.19%)에서 더욱 높음.

한편, 광주/전라는 ‘국내 기타’의 비중이 64.80%로 상대적으로 높음.

규모별로 보면, 모든 규모별 전문디자인기업에서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히, 2-4인(71.80%)규모에서 더욱 높음.

<표 4-2-18>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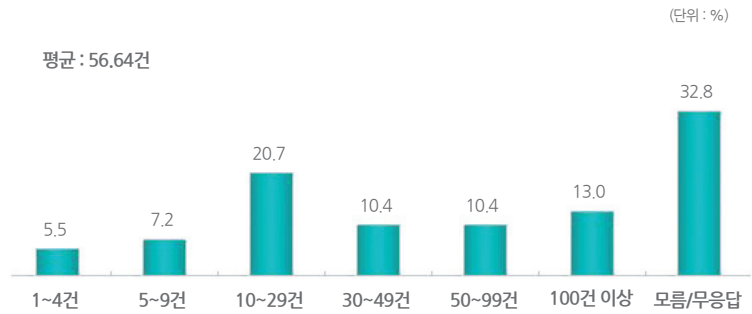
구 분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 비중 평균	국내 기타 비중 평균	해외 디자인 개발 용역 비중 평균	해외 기타 비중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68.88	29.10	1.34	0.68
권역별	서울	70.99	26.22	2.10	0.69
	부산/울산/경남	77.57	21.66	0.77	0.00
	대구/경북	68.02	27.50	0.63	3.85
	인천/경기	62.60	36.48	0.73	0.19
	광주/전라	35.12	64.80	0.04	0.04
	대전/충청	87.19	12.67	0.13	0.01
	강원/제주	70.69	29.31	0.00	0.00
규모별	1인	64.90	34.68	0.42	0.00
	2 - 4인	71.80	26.14	1.46	0.60
	5 - 9인	66.96	29.81	1.72	1.51
	10 - 14인	71.36	25.29	2.30	1.05
	15인 이상	63.78	35.13	1.06	0.03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93.67	4.38	1.90	0.05
	기타 매출 50%↑	10.19	87.38	0.10	2.33
	반반	50.00	50.00	0.00	0.00



01-6-2. 매출 건수 (평균)

- 전문디자인기업의 2010년 매출 건수는 평균 56.64건임.  
범주별로 분석해 보면, '10~29건'이 20.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건 이상' 13.0%, '50~99건'과 '30~49건'이 각각 10.4%임.

〈그림 4-2-10〉 매출 건수 (평균)



- 업종별 보면, 업종별로 보면, 매출 구성 건수 평균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기타디자인(95.45건)임.  
다음은 시각디자인(71.15건), 제품디자인(47.83건), 환경/인테리어(21.40건) 순임.

〈표 4-2-19〉 업종별 매출 건수 (평균)

(단위 : %, 건)

구 분		1~4건	5~9건	10~29건	30~49건	50~99건	100건 이상	평균(건)
전문디자인업체(전체)		5.5	7.2	20.7	10.4	10.4	13.0	56.64
업종별	제품디자인	6.1	4.8	27.7	13.9	9.6	10.5	47.83
	시각디자인	4.3	5.4	13.5	10.2	12.7	16.8	71.15
	환경/인테리어	7.2	13.9	29.9	10.7	4.8	1.6	21.40
	기타디자인	4.8	4.2	12.5	4.7	15.5	26.1	95.45



+ 권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이 평균 매출 구성 건수가 97.8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구/경북(83.24건), 광주/전라(61.94건) 등의 순임.

규모별 매출 구성 건수는 15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평균 99.40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1인 규모(67.73건), 2-4인 규모(54.33건) 등의 순임.

<표 4-2-20>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매출 건수 (평균)

(단위 : %, 건)

구 분		1~4건	5~9건	10~29건	30~49건	50~99건	100건 이상	평균(건)
전문디자인기업(전체)		5.5	7.2	20.7	10.4	10.4	13.0	56.64
권역별	서울	4.3	7.9	22.5	9.6	8.3	10.4	51.03
	부산/울산/경남	0.0	5.0	26.5	13.1	5.2	18.7	53.54
	대구/경북	0.0	7.8	15.2	7.1	25.5	18.5	83.24
	인천/경기	18.2	7.3	21.1	5.4	10.6	10.8	42.28
	광주/전라	3.6	10.7	18.3	25.4	20.3	16.9	61.94
	대전/충청	5.5	2.8	7.5	4.6	7.6	16.7	97.87
	강원/제주	20.3	0.0	22.5	15.0	8.5	15.7	54.01
규모별	1인	7.3	8.6	14.2	3.9	9.4	18.5	67.73
	2 - 4인	7.0	6.5	20.4	10.2	11.9	12.2	54.33
	5 - 9인	2.4	8.1	25.8	14.8	8.1	8.2	45.83
	10 - 14인	2.7	6.6	34.2	13.0	4.6	10.8	42.60
	15인 이상	1.4	3.7	10.7	15.4	19.0	22.6	99.40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4.3	7.5	22.3	8.5	9.6	15.0	59.30
	기타 매출 50%↑	8.6	6.5	16.3	13.8	14.0	9.6	52.83
	반반	3.8	6.0	23.6	18.4	0.0	2.0	3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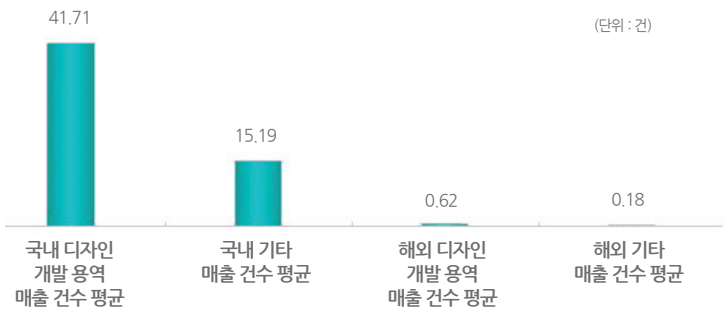


01-6-3. 용역 형태별 매출 건수 (평균)<sup>5)</sup>

매출을 구성하는 용역의 종류와 건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국내 디자인 개발용역’ 매출 건수가 평균 41.71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국내 기타’로 평균 15.19건임. 그 외 ‘해외 디자인 개발용역’ 0.62건, ‘해외 기타’ 0.18건임.

5) 각 용역 형태별 매출 건수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고 전체 매출 건수만 응답한 업체가 있어 6-2. 전체 매출 건수와 각 용역 형태별 매출 건수 합이 일치하지 않음.

〈그림 4-2-11〉 용역 형태별 매출 건수 (평균)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에서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 건이 가장 많으며, 특히 기타 디자인 (76.21건)에서 더욱 많음. ‘국내 기타 용역’ 부분은 시각디자인(19.67건)업종의 평균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표 4-2-21〉 업종별 용역 형태별 매출 건수 (평균)

구 분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 매출 건수 평균	국내 기타 매출 건수 평균	해외 디자인 개발 용역 매출 건수 평균	해외 기타 매출 건수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41.71	15.19	0.62	0.18
업종별	제품디자인	35.94	11.16	1.35	0.10
	시각디자인	51.31	19.67	0.19	0.02
	환경/인테리어	12.42	11.64	0.36	0.47
	기타디자인	76.21	17.80	0.84	0.22



+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관련 매출 건이 가장 많으며, 특히, 대전/충청(85.67건)에서 더욱 많음. 광주/전라의 매출은 주로 ‘국내의 기타 용역’(41.43건)이 상대적으로 많음.

규모별로 보면, 모든 규모에서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 관련 건이 가장 많으며, 특히 15인 이상 규모(72.57건)에서 더욱 많음.

〈표 4-2-22〉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용역 형태별 매출 건수 (평균)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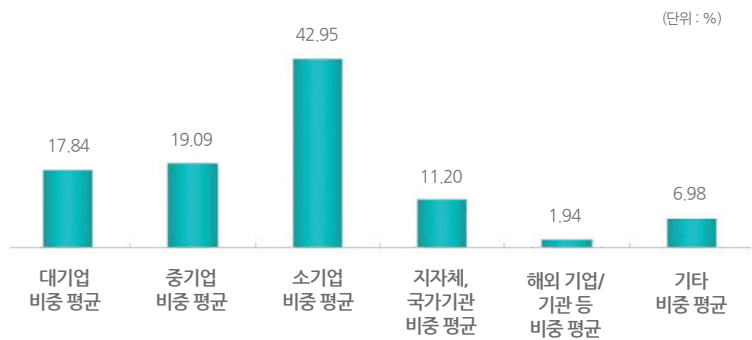
구 분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 매출 건수 평균	국내 기타 매출 건수 평균	해외 디자인 개발 용역 매출 건수 평균	해외 기타 매출 건수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41.71	15.19	0.62	0.18
권역별	서울	38.63	13.25	1.00	0.13
	부산/울산/경남	42.63	10.54	0.37	0.00
	대구/경북	73.96	6.22	0.80	0.40
	인천/경기	29.56	13.62	0.13	0.05
	광주/전라	20.49	41.43	0.01	0.01
	대전/충청	85.67	8.25	0.00	0.14
	강원/제주	46.90	9.85	0.00	1.97
규모별	1인	47.04	20.88	0.01	0.37
	2 - 4인	40.69	12.36	0.83	0.08
	5 - 9인	34.36	10.96	0.71	0.28
	10 - 14인	33.14	8.55	0.41	0.13
	15인 이상	72.57	43.04	0.87	0.02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54.61	4.79	0.82	0.02
	기타 매출 50%↑	13.21	39.50	0.23	0.57
	반반	16.18	15.29	0.00	0.17



01-7. 매출액 기준 고객 구성 비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고객 구성 비중을 보면, ‘소기업’ 비중이 평균 42.95%로 가장 높음. 다음은 ‘중기업’(19.09%), ‘대기업’(17.84%), ‘지자체, 국가기관’(11.20%) 등의 순임.

〈그림 4-2-12〉 매출액 기준 고객 구성 비중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에서 ‘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히 기타디자인업종(50.03%)에서 더욱 높음. 그 외 중기업 비중은 기타 디자인업(24.07%)에서, 대기업 비중은 시각디자인업(19.9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23〉 업종별 매출액 기준 고객 구성 비중

		(단위 : %)					
구 분		대기업 비중 평균	중기업 비중 평균	소기업 비중 평균	지자체, 국가기관 비중 평균	해외 기업/ 기관 등 비중 평균	기타 비중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17.84	19.09	42.95	11.20	1.94	6.98
업종별	제품디자인	17.82	19.53	47.41	8.63	2.15	4.46
	시각디자인	19.91	18.74	38.33	16.89	1.59	4.54
	환경/인테리어	17.00	16.19	41.36	8.22	1.33	15.9
	기타디자인	14.05	24.07	50.03	5.94	3.48	2.43



+ 권역별로 보면,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히, 광주/전라(65.62%)에서 더욱 높음. 한편, 강원/제주(45.40%)는 ‘지자체 및 국가기관’의 비중이 가장 큼.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클수록 ‘대기업’ 고객의 비중이 크고, 규모가 작을수록 ‘소기업’ 고객의 비중이 큼.

<표 4-2-24>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매출액 기준 고객 구성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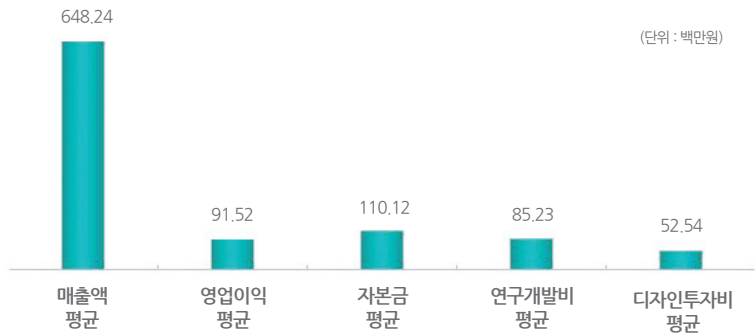
구 분		대기업 비중 평균	중기업 비중 평균	소기업 비중 평균	지자체, 국가기관 비중 평균	해외 기업/ 기관 등 비중 평균	기타 비중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17.84	19.09	42.95	11.20	1.94	6.98
권역별	서울	25.29	22.51	34.92	8.64	2.64	6.00
	부산/울산/경남	15.82	13.14	53.56	13.30	1.45	2.73
	대구/경북	4.90	11.26	52.66	14.28	3.57	13.33
	인천/경기	14.26	22.31	43.73	6.83	0.98	11.89
	광주/전라	1.09	14.27	65.62	9.99	0.04	8.99
	대전/충청	9.83	12.86	54.97	18.44	0.13	3.77
	강원/제주	1.69	14.65	30.26	45.40	0.00	8.00
규모별	1인	7.33	10.92	57.89	7.94	1.54	14.38
	2 - 4인	16.95	19.19	47.85	7.35	1.89	6.77
	5 - 9인	22.69	24.72	29.45	17.81	2.57	2.76
	10 - 14인	25.40	23.16	23.56	23.13	1.60	3.15
	15인 이상	39.17	21.97	19.16	16.38	1.58	1.74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18.16	21.01	42.81	12.14	1.49	4.39
	기타 매출 50%↑	17.62	13.60	43.83	8.48	2.58	13.89
	반반	13.83	24.02	39.21	13.88	5.27	3.79



01-8-1. 2010년 재무 및 투자 현황

- + 전문디자인기업의 2010년 매출액은 평균 6억 4,824만원임.  
영업이익은 평균 9천 152만원, 자본금은 평균 1억 1,012만원임. 연구개발비는 평균 8천 523만원이고, 디자인투자비는 평균 5천 254만원임.

<그림 4-2-13> 2010년 재무 및 투자 현황



- + 업종별로 보면, 매출액은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이 평균 9억 6,469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디자인업 6억 5,622만원, 시각디자인업 5억 3,410만원, 제품디자인업 4억 9,764만원 순임.

‘영업이익’도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이 평균 1억 1,101만원으로 업종 중 가장 높으며, 그 다음 시각디자인업은 8,998만원임. ‘자본금’은 환경/인테리어 디자인업이 1억 6,503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제품디자인업으로 1억 1,073만원임.  
‘디자인 투자비’도 환경/인테리어 디자인업이 평균 6,461만원으로 업종 중 가장 높으며, 다음은 시각디자인업 5,377만원임.

<표 4-2-25> 업종별 2010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자본금 평균	연구개발비 평균	디자인투자비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648.24	91.52	110.12	85.23	52.54
업종별	제품디자인	497.64	79.07	110.73	108.76	48.22
	시각디자인	534.10	89.98	81.58	80.47	53.77
	환경/인테리어	964.69	111.01	165.03	88.39	64.61
	기타디자인	656.22	83.50	90.79	54.75	36.93



+ 권역별로 보면,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자본금’, ‘연구개발비’, ‘디자인 투자비’ 모두 서울이 가장 높음.

규모별로는, 규모에 재무 및 투자 액수가 비례함.

<표 4-2-26>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0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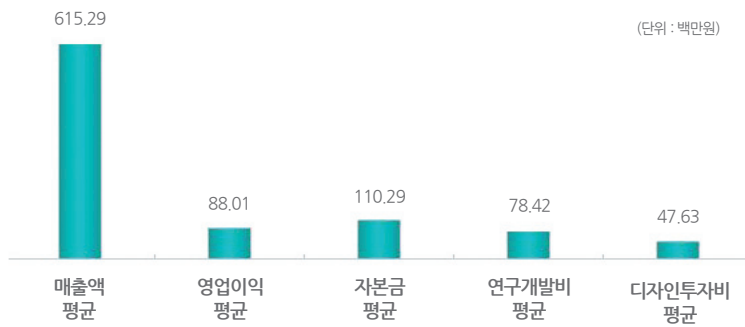
구 분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자본금 평균	연구개발비 평균	디자인투자비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648.24	91.52	110.12	85.23	52.54
권역별	서울	786.69	104.83	121.68	102.50	66.39
	부산/울산/경남	412.21	86.68	96.79	44.06	30.06
	대구/경북	511.48	62.43	94.80	65.58	43.51
	인천/경기	660.36	93.02	119.64	81.30	46.78
	광주/전라	606.64	89.89	92.95	97.35	44.24
	대전/충청	278.93	49.36	75.87	45.47	17.87
	강원/제주	275.86	45.01	82.64	41.07	32.06
규모별	1인	86.16	24.71	40.23	7.99	3.62
	2 - 4인	408.01	70.68	80.42	56.62	32.56
	5 - 9인	912.57	131.31	183.37	129.22	84.72
	10 - 14인	1,422.62	181.53	190.97	229.12	149.90
	15인 이상	3,093.80	275.12	250.02	300.56	179.51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569.57	82.57	101.21	84.19	50.93
	기타 매출 50%↑	799.14	109.04	126.88	85.64	53.35
	반반	974.41	126.00	149.36	100.98	75.76



01-8-2. 2009년 재무 및 투자 현황

+ 전문디자인기업의 2009년 매출액은 평균 6억 1,529만원, 영업이익은 평균 8천 801만원, 자본금은 평균 1억 1,029만원, 연구개발비는 평균 7,842만원, 디자인투자비는 평균 4,763만원임.

〈그림 4-2-14〉 2009년 재무 및 투자 현황



+ 업종별로 보면, 매출액(평균)은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이 9억 8,115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타디자인업 5억 4,262만원임. 영업이익(평균)도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이 1억 1,930만원으로 업종 중 가장 높으며, 시각디자인업이 8,610만원으로 그 뒤를 이음. 자본금(평균)은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이 1억 7,407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제품디자인업 1억 1,106만원임. 디자인투자비(평균)도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이 6,209만원으로 업종 중 가장 높으며, 다음은 시각디자인업 4,981만원임.

〈표 4-2-27〉 업종별 2009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자본금 평균	연구개발비 평균	디자인투자비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615.29	88.01	110.29	78.42	47.63
업종별	제품디자인	418.92	63.42	111.06	85.58	38.50
	시각디자인	530.94	86.10	75.73	80.05	49.81
	환경/인테리어	981.15	119.30	174.07	81.55	62.09
	기타디자인	542.62	81.06	91.24	58.09	33.36



- ✚ 권역별로 보면,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자본금', '연구개발비', '디자인투자비'은 모두 서울이 가장 높음.

규모별로는 15인 이상 업체의 평균 매출액(28억 5,820만원), 평균 영업이익(2억 6,055만원) 그리고 평균 자본금(2억 2,055만원)이 다른 규모에 비해 가장 높음. 10-14인 업체에서는 평균 연구개발비(2억 2,652만원)와 디자인투자비(1억 6,069만원)가 높음.

〈표 4-2-28〉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09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자본금 평균	연구개발비 평균	디자인투자비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615.29	88.01	110.29	78.42	47.63
권역별	서울	748.57	100.43	121.10	97.25	61.93
	부산/울산/경남	459.74	94.20	100.36	48.94	30.00
	대구/경북	476.08	60.53	90.89	56.96	40.42
	인천/경기	555.80	90.35	133.51	69.72	39.64
	광주/전라	590.88	66.14	92.15	59.08	25.97
	대전/충청	260.15	56.65	66.94	50.86	16.41
	강원/제주	252.97	40.40	71.06	42.86	33.94
규모별	1인	91.24	25.82	35.43	8.53	4.40
	2 - 4인	381.49	70.73	88.00	62.77	34.91
	5 - 9인	899.22	121.83	178.19	115.58	74.91
	10 - 14인	1,304.65	166.17	195.47	226.52	160.69
	15인 이상	2,858.20	260.55	220.55	168.13	86.38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519.96	81.33	100.74	78.64	46.17
	기타 매출 50%↑	825.58	99.88	129.45	75.14	47.83
	반반	813.78	122.61	143.90	97.96	7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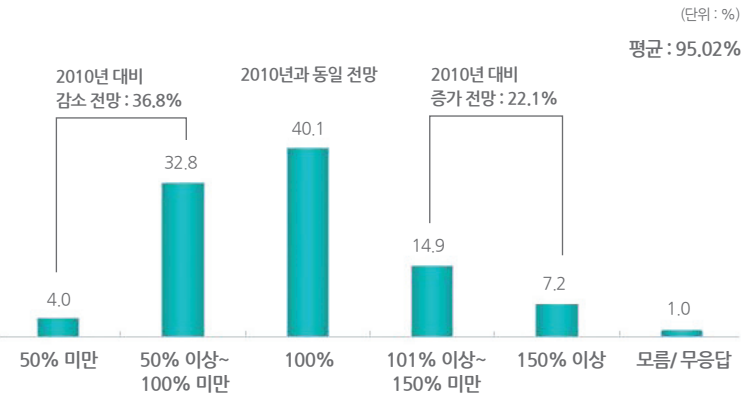


01-9-1. 2011년 매출액 전망

2010년 대비 2011년 매출액 수준<sup>6</sup>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1년 매출액은 2010년의 평균 95.02% 수준으로 2010년에 비해 약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 보면 '2010년과 동일할 것이다(100%)'는 전망이 40.1%로 가장 높고, '2010년 대비 감소(100% 미만)' 전망은 36.8%, '2010년 대비 증가(100% 초과)' 전망은 22.1%임.

6) 2010년과 같은면 100%, 2010년 보다 증가하면 100%초과, 2010년 보다 감소하면 100% 미만으로 작성. 예를 들어 2010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했으면 200% 등으로 작성.

<그림 4-2-15> 2011년 매출액 전망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에서 '2010년과 동일할 것이다(100%)'는 전망이 가장 높으며, 특히 환경/인테리어 업종(42.7%)에서 더욱 높음. 한편, '2010년 대비 50%이상~100%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다'는 전망은 환경/인테리어(35.5%)에서, '2010년 대비 101%이상~150%미만으로 증가할 것이다'는 전망은 제품디자인(18.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29> 업종별 2011년 매출액 전망

(단위 : %)							
구 분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	101%이상~ 150%미만	150%이상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4.0	32.8	40.1	14.9	7.2	95.02
업종별	제품디자인	3.1	29.6	36.8	18.3	12.1	99.89
	시각디자인	2.9	34.0	40.6	15.9	4.8	94.65
	환경/인테리어	3.4	35.5	42.7	10.1	6.8	94.54
	기타디자인	8.9	30.5	40.2	14.7	5.7	88.96



+ 권역별 매출액 전망은 광주/전라에서 101.29%로 가장 높아 다른 권역에 비해 2011년 매출을 긍정적으로 전망함. 그 외 지역은 평균이 100% 미만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였으며, 대구/경북 99.33%, 대전/충청 98.65% 등의 순임.

규모별로는, 10-14인 규모의 디자인업체의 예상 매출 평균이 103.28%로 타 규모 대비 가장 긍정적임. 다음은 5-9인 규모에서 101.73%와 15인 이상에서 101.06%의 순임.

<표 4-2-30>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1년 매출액 전망

(단위 : %)

구 분		50%미만	50%이상~100%미만	100%	101%이상~150%미만	150%이상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4.0	32.8	40.1	14.9	7.2	95.02
권역별	서울	5.0	34.9	39.3	13.4	5.9	92.28
	부산/울산/경남	3.2	29.8	42.2	16.3	8.5	96.40
	대구/경북	3.9	23.9	50.0	16.3	5.9	99.33
	인천/경기	2.6	37.7	40.0	7.9	11.8	96.97
	광주/전라	3.6	29.6	17.8	39.5	8.2	101.29
	대전/충청	0.0	28.5	56.1	6.6	8.8	98.65
	강원/제주	4.8	27.6	41.4	14.3	4.8	94.95
규모별	1인	5.4	41.4	38.8	10.9	3.5	85.98
	2 - 4인	3.8	36.2	40.7	13.4	5.6	94.20
	5 - 9인	2.9	22.5	42.1	19.0	10.2	101.73
	10 - 14인	4.5	21.6	38.3	22.4	13.2	103.28
	15인 이상	4.2	25.5	33.6	18.3	15.8	101.06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3.7	30.0	42.4	14.7	7.9	96.82
	기타 매출 50%↑	4.5	40.1	33.2	15.3	6.3	91.33
	반반	4.9	29.8	49.8	15.5	0.0	8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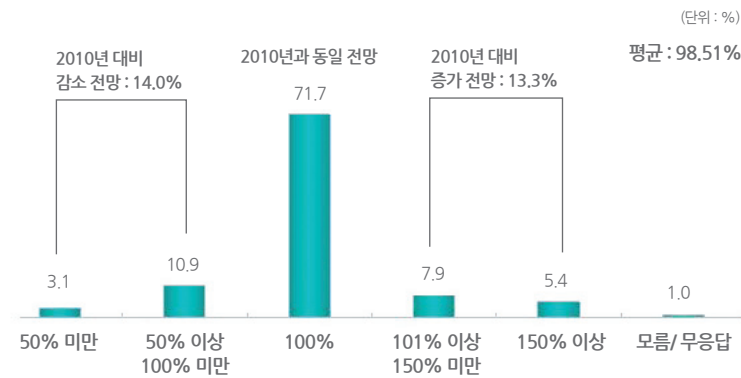


01-9-2. 2011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2010년 대비 2011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sup>7)</sup>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1년 디자이너 고용은 2010년의 평균 98.51% 수준으로 2010년에 비해 약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2010년과 동일 할 것이다'는 전망은 71.7%로 가장 높으며, '2010년 대비 감소할 것이다(100%미만)'는 비율(14.0%)과, '증가할 것이다(100%초과)는 비율(13.3%)이 비슷함.

7) 2010년과 같은면 100%, 2010년 보다 증가하면 100%초과, 2010년 보다 감소하면 100% 미만으로 작성. 예를 들어 2010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했으면 200% 등으로 작성

〈그림 4-2-16〉 2011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업종별로 보면, 2010년 대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제품디자인업에서 평균 100.13%로 타 업종대비 긍정적임.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99.31%), 시각디자인업(98.06%), 기타디자인업(95.75%)은 2010년 대비 디자이너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표 4-2-31〉 업종별 2011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
구 분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	101%이상~ 150%미만	150%이상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3.1	10.9	71.7	7.9	5.4	98.51
업종별	제품디자인	1.8	12.8	69.2	9.7	6.5	100.13
	시각디자인	3.5	7.4	74.4	8.8	3.8	98.06
	환경/인테리어	3.5	12.4	71.7	3.2	7.8	99.31
	기타디자인	3.6	13.7	68.7	10.1	3.8	95.75



+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2010년 대비 고용 전망 평균이 102.86%로 타권역 대비 가장 긍정적이며, 다음으로 인천/경기(101.54%), 강원/제주(101.17%) 등의 순임.

규모별로는 15인 이상의 규모의 평균 디자이너 고용 전망이 평균 108.06%로 나타나 가장 긍정적이며, 다음으로 1인 규모(102.24%), 10-14인 규모(97.51%) 등의 순임.

<표 4-2-32>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1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

구 분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	101%이상~ 150%미만	150%이상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3.1	10.9	71.7	7.9	5.4	98.51
권역별	서울	4.1	9.6	71.3	8.1	5.4	97.91
	부산/울산/경남	6.3	15.7	67.0	5.9	5.1	93.74
	대구/경북	0.9	13.8	69.2	11.2	4.9	99.48
	인천/경기	2.0	10.2	70.3	12.0	5.5	101.54
	광주/전라	0.0	8.3	79.5	6.1	5.0	102.86
	대전/충청	0.0	16.7	74.2	2.1	7.0	98.23
	강원/제주	0.0	4.8	76.0	7.3	4.8	101.17
규모별	1인	0.0	1.0	93.5	2.7	2.8	102.24
	2 - 4인	3.7	12.8	73.2	3.9	5.7	96.72
	5 - 9인	3.9	15.8	55.6	16.6	5.3	96.91
	10 - 14인	6.9	10.4	57.5	19.9	5.3	97.51
	15인 이상	2.8	12.5	55.1	12.2	14.6	108.06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4.1	11.2	71.6	6.7	5.2	96.87
	기타 매출 50%↑	0.5	11.0	71.2	9.8	6.6	102.81
	반반	4.9	3.8	75.6	15.6	0.0	9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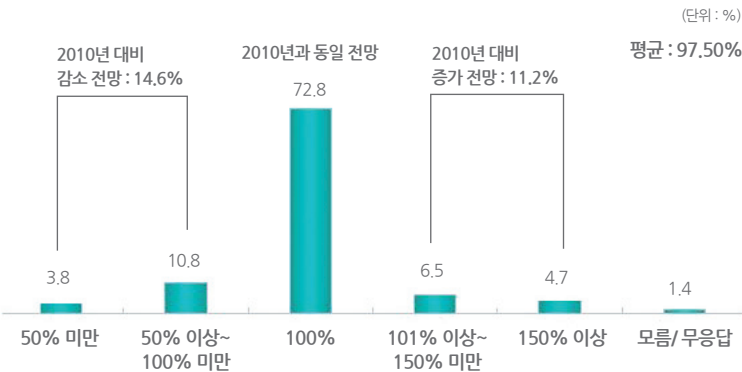


01-9-3. 2011년 디자인 투자 전망

2010년 대비 2011년 디자인투자금액 수준<sup>8)</sup>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1년 디자인 투자금액은 2010년의 평균 97.50% 수준으로 2010년에 비해 약간 감소될 것으로 전망함. 범주별로 보면 '2010년과 동일 할 것이다'는 전망(100%)이 72.8%로 가장 높으며, 2010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14.6%, 2010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11.2%임.

8) 2010년과 같으면 100%, 2010년 보다 증가하면 100%초과, 2010년 보다 감소하면 100% 미만으로 작성 예를 들어 2010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했으면 200% 등으로 작성

〈그림 4-2-17〉 2011년 디자인 투자 전망



업종별로 보면, 제품디자인업의 디자인 투자 평균이 2010년 대비 100.71%로 조사되어 타 업종 대비 가장 높음. 다음으로 기타디자인업 96.90%, 시각디자인업 96.68%,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 95.92%의 순임.

〈표 4-2-33〉 업종별 2011년 디자인 투자 전망

		(단위 : %)				
구 분		50%미만	50%이상~100%미만	100%	101%이상~150%미만	150%이상
전문디자인기업(전체)		3.8	10.8	72.8	6.5	4.7
업종별	제품디자인	2.7	9.2	72.4	9.2	6.5
	시각디자인	5.1	9.0	72.3	7.1	3.8
	환경/인테리어	2.5	12.7	76.0	4.4	3.2
	기타디자인	4.9	14.8	69.8	4.1	6.4
평균(%)						



- ✚ 권역별로는, 대전/충청의 디자인 투자 전망이 2010년 대비 평균 100.74%로 타 권역 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그 외 지역은 평균이 100% 미만으로 디자인 투자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며, 인천/경기(99.30%), 부산/울산/경남(98.16%), 대구/경북(96.97%)등의 순임.

규모별로는 10-14인 규모에서 디자인 투자 전망이 2010년 대비 평균 101.06%로 나타나 가장 높고, 다음은 15인 이상(100.95%), 1인 규모(99.48%) 등의 순임.

〈표 4-2-34〉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1년 디자인 투자 전망

(단위 : %)

구 분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	101%이상~ 150%미만	150%이상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3.8	10.8	72.8	6.5	4.7	97.50
권역별	서울	3.9	11.8	71.9	6.2	4.5	96.89
	부산/울산/경남	8.2	4.3	74.5	6.8	6.2	98.16
	대구/경북	3.9	11.2	74.8	3.9	6.2	96.97
	인천/경기	2.0	11.8	73.4	6.7	4.7	99.30
	광주/전라	4.5	8.3	72.1	13.0	0.8	95.79
	대전/충청	1.3	11.3	76.2	4.6	6.6	100.74
	강원/제주	0.0	15.5	69.0	3.6	4.8	96.92
규모별	1인	1.7	3.5	89.7	1.7	3.3	99.48
	2 - 4인	3.8	13.5	73.8	5.1	2.8	95.54
	5 - 9인	4.8	13.2	60.7	10.6	7.5	98.01
	10 - 14인	7.5	7.7	66.0	7.4	11.4	101.06
	15인 이상	4.2	8.7	57.1	20.2	7.1	100.95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4.1	10.5	73.4	5.5	4.9	97.64
	기타 매출 50%↑	2.4	12.6	70.6	9.3	4.4	97.92
	반반	9.9	3.8	78.9	4.7	2.7	91.99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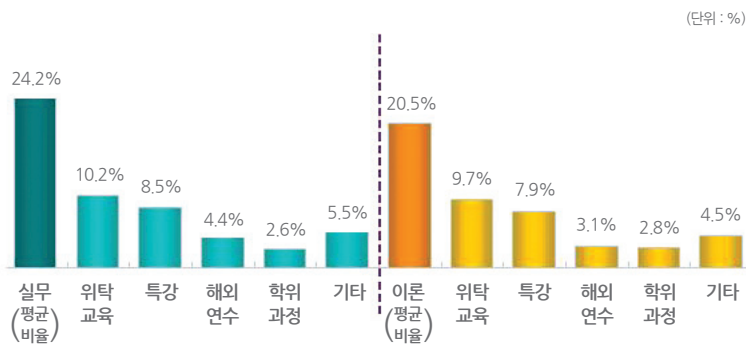
인적자원 관리

02-1.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별 교육 경험률

✚ 디자이너 재교육 실시 여부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실무 중심의 교육 경험이 있는 기업 비율은 24.2%, 이론 중심의 교육 경험이 있는 기업 비율은 20.5%로 실무 교육 경험 비율이 이론 교육 경험 비율보다 다소 높음.

실무 중심의 교육은 ‘위탁교육’(10.2%)과 ‘특강’(8.5%)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이론 중심의 교육 역시 ‘위탁교육’(9.7%)과 ‘특강’(7.9%) 등의 방법을 많이 사용함.

<그림 4-2-18>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별 교육 경험률



✚ 업종별 보면, 모든 업종에서 디자이너 재교육 시 실무중심의 교육이 이론중심 교육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며, 특히, 제품디자인(29.0%)에서 더욱 높음.

<표 4-2-35> 업종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별 교육 경험률

(단위 : %)

구 분		실무	위탁 교육	특강	해외 연수	학위 과정	기타	이론	위탁 교육	특강	해외 연수	학위 과정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24.2	10.2	8.5	4.4	2.6	5.5	20.5	9.7	7.9	3.1	2.8	4.5
업종별	제품디자인	29.0	10.9	8.5	7.3	4.5	9.7	22.2	10.8	9.4	3.8	3.3	5.5
	시각디자인	25.3	13.2	8.0	3.5	2.1	4.9	21.9	11.8	7.6	2.8	2.3	5.3
	환경/인테리어	20.5	6.6	8.6	4.7	2.2	2.7	18.9	7.3	5.8	4.1	3.0	2.9
	기타디자인	20.0	7.4	9.7	1.5	1.6	5.1	16.9	6.9	9.7	1.1	3.1	3.7



- ✚ 권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론 중심 교육을 앞서며, 특히 부산/울산/경남(33.1%)이 더욱 높음. 대전/충청은 이론 중심 교육이 20.1%로 실무 중심 교육이 17.0%보다 더 높음.

규모별로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을 보면, 1인 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론 중심 교육보다 많이 이루어지며, 특히, 10-14인 규모의 기업(53.8%)에서 더욱 높음.

한편, 1인 기업은 실무 중심 교육이 1.9%, 이론 중심 교육이 2.7%로 재교육은 이론 중심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짐.

〈표 4-2-36〉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별 교육 경험률

(단위 : %)

구 분		실무	위탁 교육	특강	해외 연수	학위 과정	기타	이론	위탁 교육	특강	해외 연수	학위 과정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24.2	10.2	8.5	4.4	2.6	5.5	20.5	9.7	7.9	3.1	2.8	4.5
권역별	서울	23.6	10.1	9.1	4.6	2.0	5.0	22.2	10.6	8.4	3.9	2.1	4.7
	부산/울산/경남	33.1	9.7	7.7	4.4	6.2	8.5	23.0	4.9	9.9	2.1	7.2	6.1
	대구/경북	29.3	14.0	14.2	7.7	2.1	9.4	21.3	11.9	10.8	3.4	0.0	4.3
	인천/경기	26.4	15.5	5.4	5.6	2.8	4.3	21.3	14.9	4.4	2.7	2.8	6.2
	광주/전라	16.9	4.4	12.5	0.0	0.8	0.0	8.5	4.9	2.9	0.0	4.4	0.0
	대전/충청	17.0	7.3	3.7	3.0	2.4	5.5	20.1	7.4	10.5	3.0	2.4	5.5
	강원/제주	24.2	8.5	0.0	3.6	8.5	15.7	8.5	3.6	4.8	0.0	4.8	0.0
규모별	1인	1.9	1.0	0.0	0.0	0.0	0.9	2.7	1.0	0.0	0.0	0.0	1.7
	2-4인	21.3	8.3	6.7	1.6	0.9	6.8	15.4	6.0	4.9	0.8	2.4	5.4
	5-9인	38.4	16.7	14.0	7.7	6.3	5.8	37.5	18.9	16.3	6.6	5.2	4.5
	10-14인	53.8	27.4	22.0	16.9	7.5	7.3	43.1	22.7	19.1	11.9	4.9	5.9
	15인 이상	44.1	16.6	20.3	17.7	7.8	9.3	38.6	24.0	18.1	11.1	6.0	6.9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26.8	11.0	10.1	5.2	2.9	6.2	21.9	10.1	9.7	3.3	2.9	4.5
	기타 매출 50%↑	19.2	8.0	5.5	2.6	2.4	4.3	17.2	8.2	4.7	3.1	3.1	4.5
	반반	14.0	11.3	2.6	2.6	0.0	2.7	19.0	13.6	0.0	0.0	0.0	5.4



02-1-1. 직원역량 향상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

+ 일반적 재교육 방법 외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식 응답(Open Question) 형식으로 조사한 결과 ‘휴가’와 ‘영화관람’이 각각 15.5%, 12.7%로 주를 이루었으며, 다음으로 ‘전시회’(7.5%), ‘워크샵’(6.4%), ‘회식’(5.5%) 등의 순임.

〈표 4-2-37〉 직원역량 향상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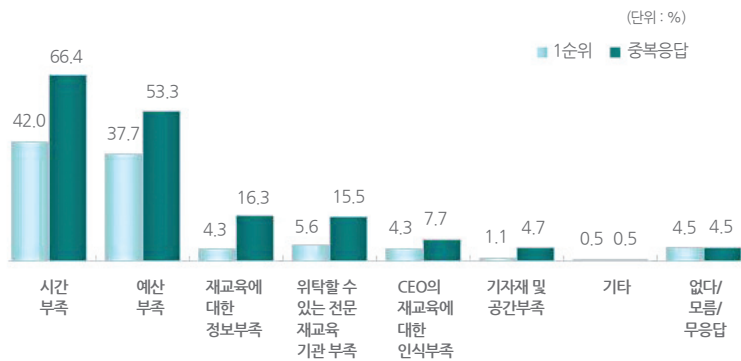
구 분	전체	구 분	전체
휴가	15.5	대학원 교육 지원	0.2
영화관람	12.7	조기 퇴근	0.2
전시회	7.5	취미 활동비 지원	0.1
워크샵	6.4	단체 미술 관람	0.1
회식	5.5	가정의날 행기기	0.1
박람회	2.3	전문서적 비치	0.1
해외연수	2.2	단체 요가	0.1
세미나 참여	1.7	자체 도서관 형식의 연구실 운영	0.1
단체 문화 생활	1.3	등산	0.1
단체 야유회	1.1	전문잡지 구독	0.1
해외여행	1.1	5일제 시행	0.1
도서구입 재량권	1.0	매일 30분씩 공부시간	0.1
안신년	0.9	토론 및 프리젠테이션 대회	0.1
실무교육	0.7	산학협력(대학 과의)지원	0.1
인터넷 교육	0.6	외국 디자인책 구입및 회람	0.1
인센티브 지급	0.6	단체 스포츠	0.1
시장조사	0.5	자율독서 프로그램	0.1
전공책 제공	0.4	오락	0.1
재택근무	0.4	자율출근제	0.1
토론및 심층 교육	0.4	일주일에 한번 오후 출근	0.1
전통자료 수집 박물관 관람	0.3	래프팅	0.1
견학	0.3	다큐감상	0.1
온 오프라인 교육	0.3	매월문화 비지원	0.1
교육비지원	0.2	단체 특강참석	0.1
외부강좌	0.2	여가활동 비지원	0.1
디자인 정보 교류	0.2	국내 학술회의 참가	0.1
팀워 위주의 대화	0.2	동호회	0.1
사내 스터디 그룹운영	0.2	문화관련 체험	0.1
기술개인 교습	0.2	영어회화 교육	0.1
		없다	53.2



02-2.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 재교육 애로 사항(중복응답 기준)으로 ‘시간 부족’(66.4%)이 가장 높음.  
다음은 ‘예산 부족’(53.3%), ‘재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16.3%), ‘위탁할 수 있는 전문 재교육 기관 부족’(15.5%), ‘CEO의 재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7.7%) 등의 순임.

〈그림 4-2-19〉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에서 ‘시간부족’이 가장 높으며, 특히, 시각디자인업(71.1%)에서 더욱 높음. ‘예산부족’을 꼽은 응답은 제품디자인업(62.9%)에서, ‘재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을 꼽은 응답은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21.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38〉 업종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 중복응답)						
구 분(중복응답)		시간 부족	예산 부족	재교육에 대한 정보부족	위탁할 수 있는 전문 재교육 기관 부족	CEO의 재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기자재 및 공간 부족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66.4	53.3	16.3	15.5	7.7	4.7	0.5
업종별	제품디자인	69.9	62.9	16.2	14.3	6.6	4.0	0.6
	시각디자인	71.1	44.0	15.4	17.5	3.7	4.2	0.7
	환경/인테리어	60.5	56.0	21.0	12.7	15.8	6.2	0.3
	기타디자인	58.4	56.6	11.3	17.1	6.2	5.0	0.0



+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의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은 ‘시간부족’이 가장 높으며, 특히, 대전/충청(74.3%)에서 더욱 높음. 한편, 광주/전라에서는 ‘예산부족’(75.6%)이 가장 높아 다른 권역과 차이를 보임.

규모별로 보면, 모든 규모에서 ‘시간부족’을 꼽은 응답이 가장 높으며 특히, 15인 이상 기업(84.2%)에서 더욱 높음. 한편, ‘예산부족’을 꼽은 응답은 2-4인 규모의 기업(58.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39>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 중복응답)

구 분		시간 부족	예산 부족	재교육에 대한 정보부족	위탁할 수 있는 전문 재교육 기관 부족	CEO의 재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기자재 및 공간 부족	기타
디자인활용기업(전체)		66.4	53.3	16.3	15.5	7.7	4.7	0.5
권역별	서울	66.2	50.7	15.8	13.2	8.4	5.9	0.3
	부산/울산/경남	67.2	48.7	17.0	15.1	9.0	5.4	0.0
	대구/경북	68.3	42.8	25.2	25.5	6.4	5.0	2.5
	인천/경기	57.6	56.8	17.4	17.1	7.9	3.4	1.3
	광주/전라	68.6	75.6	9.6	21.8	8.8	1.3	0.0
	대전/충청	74.3	65.7	12.5	10.9	3.7	2.4	0.0
	강원/제주	66.6	34.2	26.2	22.7	0.0	0.0	0.0
규모별	1인	65.7	52.6	11.9	7.9	7.0	2.5	0.0
	2 - 4인	64.2	58.3	14.7	12.9	8.1	4.0	0.4
	5 - 9인	67.6	44.4	22.2	24.4	6.5	7.7	0.7
	10 - 14인	65.8	52.9	24.3	24.4	15.8	5.7	0.0
	15인 이상	84.2	49.3	13.6	20.3	2.8	6.6	2.8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67.7	52.2	17.2	17.7	7.4	5.3	0.6
	기타 매출 50%↑	62.0	56.8	14.2	10.0	9.0	2.7	0.2
	반반	72.9	47.7	16.7	14.6	2.7	9.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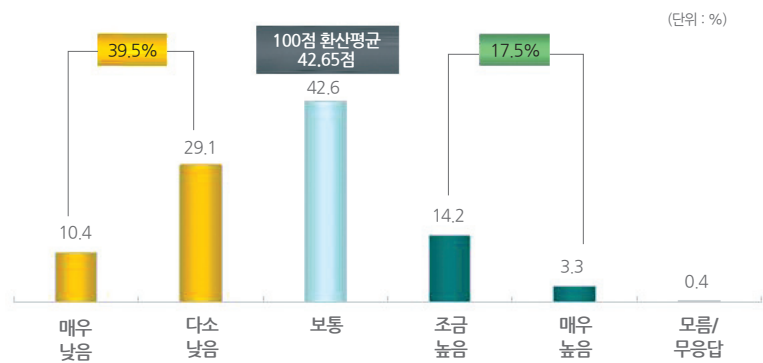


02-3.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 대학에서의 디자인 교육이 업무에 기여하는 정도는 평균 42.65점(100점 환산 기준)<sup>9)</sup>으로 중간에도 미치지 못함.  
응답별로 보면 ‘보통이다’는 응답 비율이 42.6%로 높고, ‘낮다’는 응답이 39.5%(매우 낮음: 10.4% + 다소 낮음: 29.1%)로 ‘높다’는 응답 (17.5%= 매우 높음: 3.3% + 조금 높음: 14.2%)에 비해 2배 정도 높음.

9) 100점 환산 기준: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문항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 ①매우 낮음-0점, ②다소 낮음-25점, ③보통-50점, ④조금 높음-75점, ⑤매우 높음-100점

〈그림 4-2-19〉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 업종별로 보면,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를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시각디자인업의 평균이 44.84점으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43.27점), 기타디자인업(41.16점), 제품디자인업(39.51점)의 순임.

〈표 4-2-40〉 업종별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단위 : %, 점)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100점 환산 평균(점)
전문디자인기업(전체)		39.5	42.6	17.5	42.65
업종별	제품디자인	45.6	41.9	11.9	39.51
	시각디자인	31.5	49.7	18.8	44.84
	환경/인테리어	41.0	39.3	19.7	43.27
	기타디자인	47.8	31.4	19.4	41.16



+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의 평균이 54.81점으로 가장 높아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다음으로 대구/경북(48.17점), 인천/경기(44.38점) 등의 순임.

규모별로 보면, 15인 이상 기업에서의 업무 기여도가 평균 46.94점으로 가장 높아 다른 규모에 대비해 업무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다음으로 2-4인(43.81점), 10-14인(43.24점) 등의 순임.

<표 4-2-41>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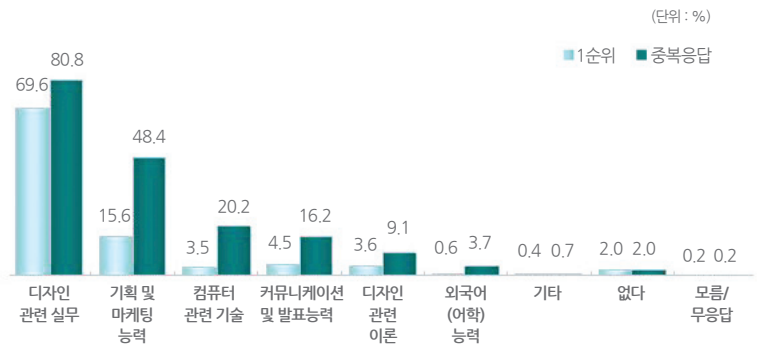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100점 환산 평균(점)
전문디자인기업(전체)		39.5	42.6	17.5	42.65
권역별	서울	40.3	45.1	14.4	41.29
	부산/울산/경남	50.4	36.9	12.6	39.73
	대구/경북	31.4	37.7	30.9	48.17
	인천/경기	32.2	46.5	19.3	44.38
	광주/전라	20.8	47.9	31.3	54.81
	대전/충청	57.3	31.4	11.3	35.59
	강원/제주	43.4	28.3	28.3	42.35
규모별	1인	42.2	41.3	16.5	41.90
	2 - 4인	38.1	42.2	19.3	43.81
	5 - 9인	43.8	41.1	14.4	39.81
	10 - 14인	34.0	53.0	13.0	43.24
	15인 이상	30.9	46.1	23.0	46.94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40.8	42.3	16.7	42.39
	기타 매출 50%↑	38.3	42.2	18.8	42.77
	반반	27.4	50.4	22.2	46.44



02-4.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 +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중복응답 기준)으로 ‘디자인 관련 실무’가 80.8%로 가장 높음. 다음은 ‘기획 및 마케팅 능력’(48.4%),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20.2%) 등의 순임.  
1순위 기준으로도 ‘디자인 관련 실무’ 응답 비율이 69.6%로 타 교육 대비 매우 높음.

<그림 4-2-21>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 + 업종별 보면,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관련 실무’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제품디자인업과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에서 83.1%로 더욱 높음. 그 외 제품디자인업에서는 ‘기획 및 마케팅 능력’(54.2%),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능력’(22.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42> 업종별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단위 : %, 중복응답)

구 분 (중복응답)		디자인 관련 실무	기획 및 마케팅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능력	컴퓨터 관련 기술	디자인 관련 이론	외국어 (어학) 능력	기타
업종별	전문디자인기업(전체)	80.8	48.4	20.2	16.2	9.1	3.7	0.7
	제품디자인	83.1	54.2	20.8	10.9	11.2	4.9	1.0
	시각디자인	77.1	51.6	20.6	12.8	10.8	3.1	0.7
	환경/인테리어	83.1	36.2	22.3	25.8	6.2	2.2	0.0
	기타디자인	82.4	50.9	14.8	17.4	6.6	5.9	1.4



+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디자인 관련 실무'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부산/울산/경남(93.1%)이 더욱 높음. 그 외 강원/제주에서는 '기획 및 마케팅 능력'(80.8%), 대전/충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능력'(32.5%)이 상대적으로 높음.

규모별로 보면, 모든 규모에서 '디자인 관련 실무'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2-4인 규모의 기업(84.5%)에서 더욱 높음.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은 15인 이상 기업(67.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매출 구성별로는 '디자인 관련 실무'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디자인 매출과 기타매출이 반반씩 구성된 기업(89.7%)에서 더욱 높음.

<표 4-2-43>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장되어야 할 교육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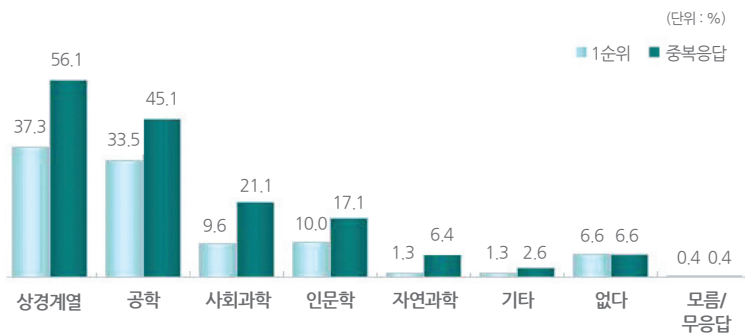
구 분		디자인 관련 실무	기획 및 마케팅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능력	컴퓨터 관련 기술	디자인 관련 이론	외국어 (어학) 능력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80.8	48.4	20.2	16.2	9.1	3.7	0.7
권역별	서울	78.3	40.5	23.0	17.5	8.0	5.2	1.1
	부산/울산/경남	93.1	29.9	12.4	23.5	15.6	3.8	0.0
	대구/경북	78.0	72.7	14.5	24.7	4.7	0.0	0.0
	인천/경기	79.7	60.0	17.5	9.3	5.4	4.0	1.0
	광주/전라	78.6	66.1	11.7	8.6	27.8	0.0	0.0
	대전/충청	84.1	57.7	32.5	11.6	2.4	1.7	0.0
	강원/제주	92.7	80.8	7.3	4.8	0.0	0.0	0.0
규모별	1인	77.5	55.8	11.6	11.7	13.8	1.9	0.0
	2 - 4인	84.5	44.7	16.6	17.5	9.5	5.1	0.8
	5 - 9인	79.2	46.0	29.2	18.4	5.6	2.5	1.1
	10 - 14인	79.4	44.3	37.6	13.0	6.2	4.0	0.0
	15인 이상	68.9	67.7	27.2	16.5	5.5	4.3	1.8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82.5	47.7	23.2	17.8	8.8	4.2	0.6
	기타 매출 50%↑	75.3	49.5	13.0	13.0	11.2	2.2	1.2
	반반	89.7	53.9	16.9	11.6	0.0	6.0	0.0



## 02-5.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 ✚ 디자인 전공 이외에 가장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중복응답 기준)는 ‘상경계열’이 56.1%가장 높으며, 다음은 ‘공학’ 45.1%, ‘사회과학’ 21.1%, ‘인문학’ 17.1% 등의 순임.

〈그림 4-2-22〉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 ✚ 업종별 보면, 시각디자인업과 기타디자인업에서는 가장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로 ‘상경계열’이 각각 58.0%, 54.9%로 가장 높음. 제품디자인업에서는 ‘공학’(61.3%), 기타디자인업에서는 ‘사회과학’(29.3%)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

〈표 4-2-44〉 업종별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 중복응답)

구 분	상경계열	공학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56.1	45.1	21.1	17.1	6.4	2.6
업종별						
제품디자인	56.8	61.3	23.3	10.8	11.9	1.4
시각디자인	58.0	32.9	20.6	26.7	4.4	3.0
환경/인테리어	53.3	57.5	14.7	9.9	4.1	2.9
기타디자인	54.9	29.2	29.3	15.1	6.1	2.9



+ 권역별로 보면, 서울(53.0%), 부산/울산/경남(56.4%), 대구/경북(68.2%), 광주/전라(80.1%)에서 '상경계열'의 응답 비율이 높으며, 특히 광주/전라에서 더욱 높음. 한편, 인천/경기(51.9%), 대전/충청(56.6%), 강원/제주(55.4%)에서는 '공학'의 응답 비율이 높음.

규모별로 보면,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상경계열'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15인 이상 기업(68.6%)에서 더욱 높음. 그 다음 '공학'의 응답 비율이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높음.

<표 4-2-45>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 중복응답)

구 분		상경계열	공학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56.1	45.1	21.1	17.1	6.4	2.6
권역별	서울	53.0	38.7	20.8	19.3	2.7	2.3
	부산/울산/경남	56.4	40.7	19.5	14.0	6.1	3.3
	대구/경북	68.2	44.3	29.6	10.3	3.9	9.1
	인천/경기	48.2	51.9	20.9	19.8	8.2	0.0
	광주/전라	80.1	69.8	18.7	17.1	2.4	3.6
	대전/충청	55.5	56.6	17.3	13.4	30.9	0.0
	강원/제주	46.0	55.4	30.2	3.6	20.3	3.6
규모별	1인	51.8	50.4	14.9	10.4	14.7	2.5
	2 - 4인	53.8	42.1	25.8	15.1	5.3	2.3
	5 - 9인	58.8	44.9	16.7	24.0	3.2	3.9
	10 - 14인	68.4	50.8	23.6	23.4	1.4	1.8
	15인 이상	68.6	44.7	20.4	24.5	2.3	1.4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52.7	45.6	24.9	17.7	8.0	2.2
	기타 매출 50%↑	61.3	45.9	13.8	16.6	3.2	4.0
	반반	79.5	29.7	7.5	10.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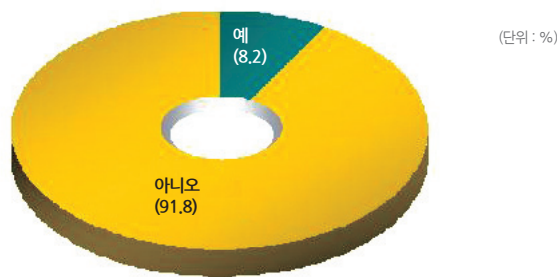


03  
디자인 기반 역량

03-1.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여부

+ 해외 디자인 정보 수집 및 개발을 위해 해외 지사가 있거나, 해외 관련 기관 혹은 해외 인력과 교류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8.2%로, 대부분의 전문디자인기업(91.8%)은 해외 인력 및 지사와 교류하고 있지 않음.

<그림 4-2-23>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여부



+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에서 ‘해외 인력 및 지사와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특히 시각디자인이 93.4%로 더욱 높음. 한편, 해외교류를 한다는 응답은 제품디자인 업에서 12.4%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46> 업종별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여부

(단위 : %)

구 분		예	아니오
전문디자인기업(전체)		8.2	91.8
업종별	제품디자인	12.4	87.6
	시각디자인	6.6	93.4
	환경/인테리어	6.9	93.1
	기타디자인	7.5	92.5



+ 권역별, 규모별 그리고 매출구성별로도 ‘해외인력 및 지사와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특히, 권역별로는 대전/충청(98.7%), 규모별로는 1인 기업(96.6%)에서, 매출구성 중에서는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기업(97.3%)에서 더욱 높음.

‘해외 인력 및 기관과 교류를 한다’는 응답은, 권역별로는 서울(12.1%), 규모별로는 10인-14인 기업(17.6%)에서, 매출구성별로는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기업(10.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47>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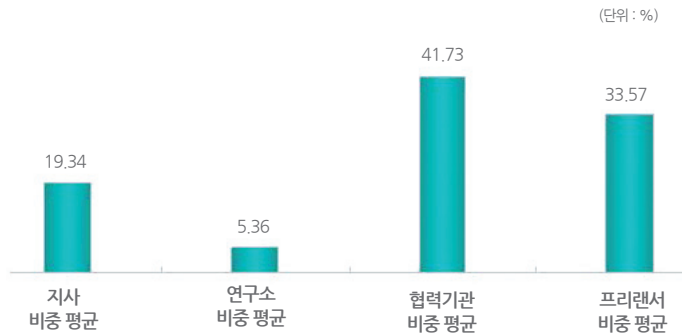
구 분		예	아니오
전문디자인기업(전체)		8.2	91.8
권역별	서울	12.1	87.9
	부산/울산/경남	2.9	97.1
	대구/경북	5.0	95.0
	인천/경기	5.5	94.5
	광주/전라	3.6	96.4
	대전/충청	1.3	98.7
	강원/제주	3.6	96.4
규모별	1인	3.4	96.6
	2 - 4인	7.2	92.8
	5 - 9인	10.4	89.6
	10 - 14인	17.6	82.4
	15인 이상	15.9	84.1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10.6	89.4
	기타 매출 50%↑	2.7	97.3
	반반	4.0	96.0



03-1-1.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방법 비중

+ 해외 인력 및 지사, 기관과 교류하는 방법으로는 ‘협력기관’이 41.7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프리랜서’ 33.57%, ‘지사’ 19.34%, 연구소 5.36% 순으로 높음.

〈그림 4-2-24〉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방법 비중



+ 업종별로 보면, 기타디자인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협력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히 시각디자인업(50.38%)에서 더욱 높음. 한편, 기타디자인업은 ‘지사’의 비중이 34.09%로 교류 방법 중 가장 높아 업종과 차이가 남.

〈표 4-2-48〉 업종별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방법 비중

(단위 : %)

구 분		지사 비중 평균	연구소 비중 평균	협력기관 비중 평균	프리랜서 비중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19.34	5.36	41.73	33.57
업종별	제품디자인	32.13	4.51	34.70	28.66
	시각디자인	7.24	4.25	50.38	38.13
	환경/인테리어	6.33	8.16	47.04	38.47
	기타디자인	34.09	5.74	31.89	28.28



+ 권역별로 보면, 서울(43.65%), 대구/경북(61.76%) 그리고 광주/전라(60.00%)는 해외교류 방법으로 '협력기관'의 응답 비중이 가장 크며, 부산/울산/경남(52.70%), 인천/경기(51.21%), 대전/충청(100%), 강원/제주(100%)는 '프리랜서'의 비중이 가장 큼.

규모별로는, 5-9인 규모 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협력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히 1인 기업(56.46%)에서 더욱 높음. 한편, 5-9인 기업은 '프리랜서'의 비중이 45.44%로 가장 높음.

<표 4-2-49>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방법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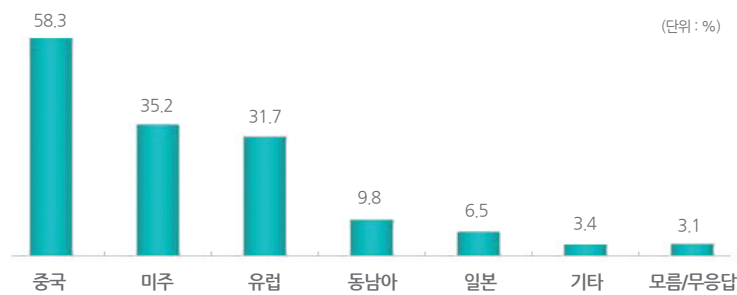
구 분		지사 비중 평균	연구소 비중 평균	협력기관 비중 평균	프리랜서 비중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19.34	5.36	41.73	33.57
권역별	서울	20.43	3.91	43.65	32.01
	부산/울산/경남	13.18	0.00	34.12	52.70
	대구/경북	38.24	0.00	61.76	0.00
	인천/경기	12.69	27.01	9.09	51.21
	광주/전라	0.00	20.00	60.00	20.00
	대전/충청	0.00	0.00	0.00	100.00
	강원/제주	0.00	0.00	0.00	100.00
규모별	1인	0.00	0.00	56.46	43.54
	2 - 4인	20.32	5.99	44.61	29.08
	5 - 9인	24.48	6.38	23.70	45.44
	10 - 14인	25.89	7.20	54.96	11.95
	15인 이상	10.31	2.31	46.23	41.15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20.69	3.75	39.89	35.67
	기타 매출 50%↑	0.00	21.84	57.72	20.44
	반반	50.00	0.00	50.00	0.00



03-1-2. 교류 해외 지역

➤ 해외 지사 및 기관과 교류하는 지역으로는 중국이 58.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미주’(35.2%)와 ‘유럽’(31.7%), ‘동남아’(9.8%), ‘일본’(6.5%) 순임.

〈그림 4-2-25〉 교류 해외 지역



➤ 업종별로 보면, 제품디자인업은 ‘중국’이 77.2%로 가장 많으며, 시각디자인업은 ‘유럽’이 42.5%로 가장 많음.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은 ‘유럽’이 48.7%로 가장 높으며, 기타디자인업은 ‘중국’(79.4%)이 주요 교류 지역임.

〈표 4-2-50〉 업종별 교류 해외 지역

		(단위 : %, 중복응답)					
구 분		중국	미주	유럽	동남아	일본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58.3	35.2	31.7	9.8	6.5	3.4
업종별	제품디자인	77.2	45.0	17.3	20.0	0.0	0.0
	시각디자인	41.4	36.8	42.5	8.8	6.9	6.5
	환경/인테리어	35.6	9.6	48.7	0.0	21.9	0.0
	기타디자인	79.4	44.1	21.2	0.0	0.0	10.6



+ 권역별로 보면, 서울(63.7%), 대구/경북(100%)과 대전/충청(100%)의 주요 해외 교류지역은 '중국'이며, 부산/울산/경남(65.9%)과 인천/경기(53.6%)는 '미주'가 주요 교류 해외 지역임. 광주/전라(100%)와 강원/제주(100%)는 '유럽'이 주요 교류 해외 지역임.

규모별로는,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중국'과 가장 많이 교류하며, 특히 10-14인 규모의 기업(65.8%)에서 더욱 높음.

<표 4-2-51>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교류 해외 지역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중국	미주	유럽	동남아	일본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58.3	35.2	31.7	9.8	6.5	3.4
권역별	서울	63.7	34.5	29.9	9.1	6.7	4.3
	부산/울산/경남	0.0	65.9	0.0	0.0	34.1	0.0
	대구/경북	100.0	41.2	41.2	58.8	0.0	0.0
	인천/경기	33.1	53.6	21.8	0.0	0.0	0.0
	광주/전라	0.0	0.0	100.0	0.0	0.0	0.0
	대전/충청	100.0	0.0	0.0	0.0	0.0	0.0
	강원/제주	0.0	0.0	100.0	0.0	0.0	0.0
규모별	1인	48.8	22.4	0.0	0.0	28.8	22.4
	2 - 4인	56.5	35.4	45.9	0.0	0.0	0.0
	5 - 9인	60.4	27.8	19.5	18.9	11.2	0.0
	10 - 14인	65.8	63.6	36.8	28.3	0.0	11.3
	15인 이상	58.6	29.8	29.8	8.9	8.9	0.0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59.9	36.1	30.3	7.0	6.0	3.8
	기타 매출 50%↑	33.9	33.9	52.8	39.5	13.3	0.0
	반반	100.0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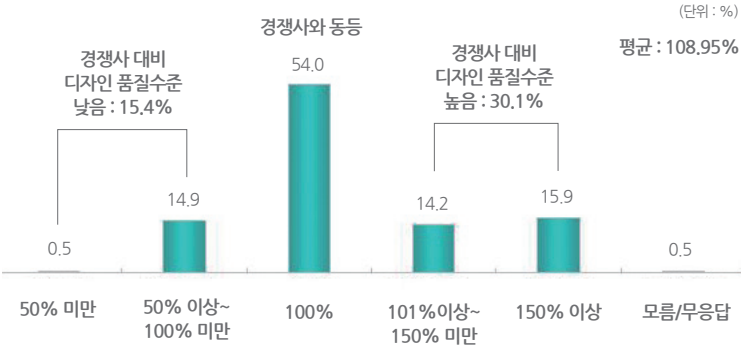
03-2.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수준<sup>10</sup>은 평균 108.95%로 자사의 디자인 품질 수준이 경쟁사에 비해 더 높다고 평가함.

범주별로 분석해 보면, ‘경쟁사와 동등(100%)하다’는 응답 비율이 54.0%로 가장 높으며, ‘경쟁사에 비해 디자인 품질 수준이 높다(100% 초과)’는 30.1%,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이 낮다(100% 미만)’는 15.4%임.

10) 경쟁사와 대등한 수준이면 100%, 경쟁사 보다 뛰어난 수준이면 100%초과, 경쟁사보다 낮은 수준이면 100%미만의 수치로 작성

〈그림 4-2-26〉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 업종별로 보면, 기타디자인업의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수준은 평균 112.40%로 경쟁사 대비 자사의 디자인 품질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4개 업종 중 가장 높음. 다음은, 제품디자인업(109.02%),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108.53%) 등의 순임.

〈표 4-2-52〉 업종별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단위 :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이상~150% 미만	150% 이상
전문디자인기업(전체)		0.5	14.9	54.0	14.2	15.9
업종별	제품디자인	0.9	10.2	59.0	14.0	15.1
	시각디자인	0.4	16.5	52.8	14.5	15.3
	환경/인테리어	0.7	18.2	53.3	9.8	18.0
	기타디자인	0.0	12.7	50.0	20.9	15.0
		평균(%)				



+ 권역별로 보면, 강원/제주의 평균이 126.65%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부산/울산/경남(114.21%), 인천/경기(113.43%), 대구/경북(110.42%) 등의 순임.

규모별로 보면 10-14인 규모의 기업이 평균 119.01%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15인 이상 기업(115.26%), 2-4인 기업(109.82%) 등의 순임.

<표 4-2-53>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단위 : %)

구 분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101%이상~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0.5	14.9	54.0	14.2	15.9	108.95
권역별	서울	1.0	15.1	56.2	13.3	13.8	107.54
	부산/울산/경남	0.0	5.2	54.6	23.2	17.0	114.21
	대구/경북	0.0	26.9	35.2	8.7	26.2	110.42
	인천/경기	0.0	13.6	43.8	24.3	18.3	113.43
	광주/전라	0.0	19.6	60.6	12.5	7.2	101.34
	대전/충청	0.0	12.9	65.8	5.8	15.4	106.07
	강원/제주	0.0	8.5	46.4	3.6	41.5	126.65
규모별	1인	0.0	21.5	59.1	9.5	8.3	101.66
	2 - 4인	0.8	12.9	55.7	12.7	17.4	109.82
	5 - 9인	0.7	14.4	52.4	15.4	17.1	109.67
	10 - 14인	0.0	14.9	33.2	27.2	24.7	119.01
	15인 이상	0.0	8.2	48.9	26.6	16.3	115.26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0.3	12.2	55.6	15.6	16.0	109.60
	기타 매출 50%↑	0.6	21.5	50.7	10.5	15.2	107.84
	반반	3.7	15.1	49.0	14.8	17.3	1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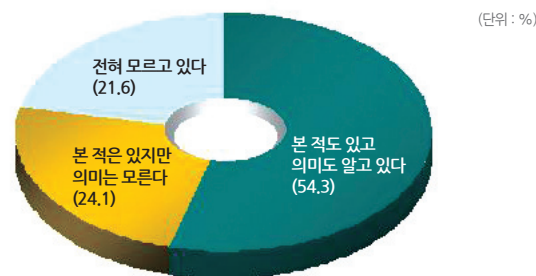


04  
디자인 인증

04-1. GD 마크 인지도

+ GD마크 인지도에 대한 조사결과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3%로 과반임.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는 응답은 24.1%, ‘전혀 모르고 있다’는 21.6%로 비슷한 수준임.

<그림 4-2-27> GD 마크 인지도



+ 업종별로 보면, 모든 모든 업종에서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 특히 시각디자인(62.0%)에서 더욱 높음.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는 응답은 제품디자인(27.7%)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 역시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30.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54> 업종별 GD 마크 인지도

(단위 : %)

구 분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	전혀 모르고 있다
전문디자인업(전체)		54.3	24.1	21.6
업종별	제품디자인	55.8	27.7	16.5
	시각디자인	62.0	19.8	18.2
	환경/인테리어	43.1	26.4	30.5
	기타디자인	51.2	25.2	23.6



+ 권역별, 규모별 그리고 매출 구성별로 보면, 모든 유형에서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 권역별로는 인천/경기(60.2%), 규모별로는 5-9인(68.4%),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기업(56.5%)에서 더욱 높음.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는 응답은 권역별로는 대전/충청(37.7%)에서, 규모별로는 1인 기업(29.9%)에서, 매출구성에서는 반반(28.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55>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GD 마크 인지도

(단위 : %)

구 분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	전혀 모르고 있다
전문디자인기업(전체)		54.3	24.1	21.6
권역별	서울	57.2	21.8	21.0
	부산/울산/경남	56.5	17.2	26.3
	대구/경북	48.1	18.8	33.1
	인천/경기	60.2	28.3	11.5
	광주/전라	40.8	35.4	23.8
	대전/충청	45.9	37.7	16.4
	강원/제주	47.0	20.4	32.6
규모별	1인	41.8	29.9	28.3
	2 - 4인	51.6	26.6	21.8
	5 - 9인	68.4	15.0	16.6
	10 - 14인	65.3	16.4	18.3
	15인 이상	55.1	26.4	18.5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56.5	23.4	20.1
	기타 매출 50%↑	49.7	25.3	25.0
	반반	48.0	28.4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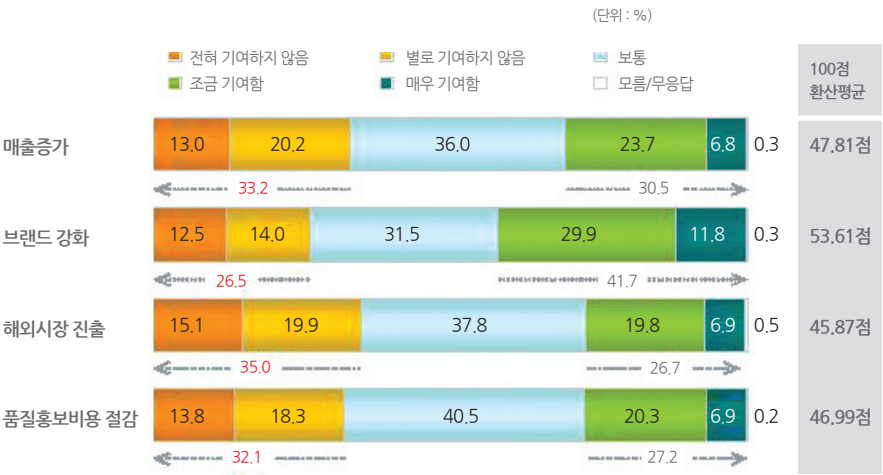


04-2. 디자인 마크 기여도

➤ 디자인 마크 획득의 기여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브랜드 강화’ 기여도가 평균 53.61점(100점 환산 기준)<sup>11)</sup>으로 가장 높음. 다음은 ‘매출증가’(47.81점), ‘품질홍보비용 절감’(46.99점), ‘해외시장 진출’(45.87점), 등의 순임.

11) 100점 환산 기준: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문항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 ①전혀 기여하지 않음-0점, ②별로 기여하지 않음-25점, ③보통-50점, ④조금 기여함-75점, ⑤매우 기여함-100점

<그림 4-2-28> 디자인 마크 기여도



➤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에서 ‘브랜드 강화’ 기여도의 평균이 가장 높으며, 특히 제품디자인(59.23점)에서 더욱 높음. ‘매출 증가’ 기여도는 기타디자인(50.97점)에서, ‘해외시장 진출’ 기여도는 제품디자인(49.71점)에서, ‘품질홍보비용 절감’ 기여도는 제품디자인(52.39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56> 업종별 디자인 마크 기여도 (100점 환산 평균)

(단위 : %, 점)

구 분		매출증가	브랜드 강화	해외시장 진출	품질홍보비용 절감
전문디자인기업(전체)		47.81	53.61	45.87	46.99
업종별	제품디자인	50.70	59.23	49.71	52.39
	시각디자인	47.53	51.60	45.36	47.40
	환경/인테리어	43.47	49.78	42.76	42.48
	기타디자인	50.97	55.92	46.12	44.84



+ 권역별로 보면, 모든 권역에서 '브랜드 강화' 기여도가 가장 높으며, 특히 강원/제주(73.74점)에서 더욱 높음. 그 외에 '매출 증가'의 기여도는 광주/전라(59.12점)에서, '해외시장 진출' 기여도는 강원/제주(60.13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규모별로는 '브랜드 강화' 기여도가 가장 높으며, 그 가운데 5-9인 기업(60.28점)이 더욱 높음. '매출 증가' 기여도는 10-14인 규모 기업(54.45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57>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마크 기여도 (100점 환산 평균)

(단위 : 점)

구 분		매출증가	브랜드 강화	해외시장 진출	품질홍보비용 절감
전문디자인기업(전체)		47.81	53.61	45.87	46.99
권역별	서울	44.31	50.31	42.78	43.22
	부산/울산/경남	47.78	54.96	47.11	47.29
	대구/경북	49.03	52.69	49.48	53.14
	인천/경기	54.89	59.43	50.27	50.60
	광주/전라	59.12	60.22	48.72	54.28
	대전/충청	47.65	53.51	48.09	49.63
	강원/제주	52.15	73.74	60.13	59.94
규모별	1인	44.51	45.81	42.15	45.17
	2 - 4인	46.67	52.58	44.96	45.51
	5 - 9인	50.71	60.28	49.72	49.98
	10 - 14인	54.45	59.28	53.20	54.42
	15인 이상	51.02	58.58	43.83	45.92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47.76	54.68	46.11	46.49
	기타 매출 50%↑	48.38	51.57	44.73	47.48
	반반	44.56	48.95	49.94	5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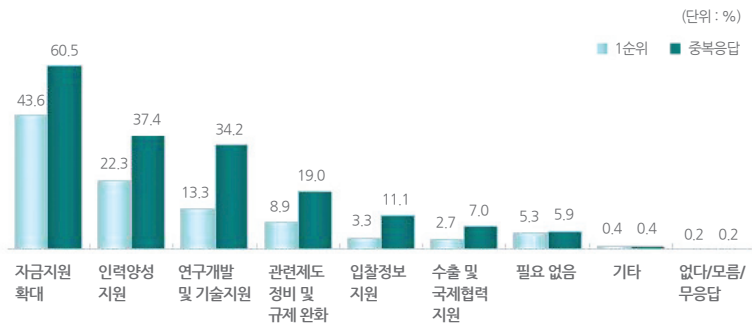


05  
애로사항 및 경영전략

05-1. 필요 정부 지원 분야

+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중복응답 기준)는 '자금지원 확대'가 60.5%로 과반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인력 양성 지원'(37.4%),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34.2%), '관련 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19.0%), '입찰 정보 지원'(11.1%) 등의 순임.

<그림 4-2-29> 필요 정부 지원 분야



+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에서 '자금지원 확대'가 가장 많으며, 특히 기타디자인업(62.5%)에서 더욱 높음. 그 외에 '인력 양성 지원'은 시각디자인(43.3%)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은 제품디자인(51.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58> 업종별 필요 정부 지원 분야

		(단위 : %, 중복응답)							
구 분		자금지원 확대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관련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입찰정보 지원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필요 없음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60.5	37.4	34.2	19.0	11.1	7.0	5.9	0.4
업종별	제품디자인	60.6	25.1	51.7	18.0	8.8	14.4	1.7	0.0
	시각디자인	61.5	43.3	26.8	17.5	13.7	2.6	6.2	0.5
	환경/인테리어	57.6	40.7	32.8	21.5	11.8	2.5	9.6	0.0
	기타디자인	62.5	36.7	27.0	20.6	7.3	13.0	5.7	1.5



+ 권역별, 규모별 그리고 매출구성별로도 ‘자금지원 확대’가 가장 많으며, 권역별로는 인천/경기(70.6%)에서, 규모별로는 10-14인 기업(66.8%), 매출구성에서는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기업(63.1%)에서 더욱 높음.  
 ‘인력 양성 지원’은 대구/경북(51.7%), 15인 이상 기업(46.4%), 디자인 매출이 반반인 기업(4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59>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필요 정부 지원 분야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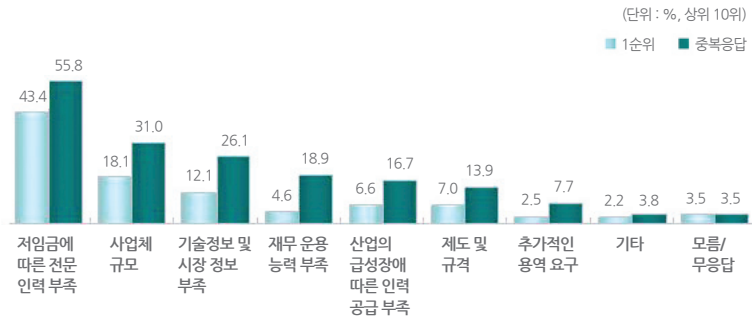
구 분		자금지원 확대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관련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입찰정보 지원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필요 없음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60.5	37.4	34.2	19.0	11.1	7.0	5.9	0.4
권역별	서울	62.6	37.8	27.6	18.5	6.8	7.4	7.3	0.0
	부산/울산/경남	56.2	39.9	31.7	11.3	12.0	1.3	13.3	0.0
	대구/경북	44.1	51.7	42.4	15.3	10.0	17.4	2.5	5.5
	인천/경기	70.6	32.3	34.4	21.5	13.0	12.2	1.6	0.0
	광주/전라	45.8	41.9	60.4	14.1	30.5	0.0	3.6	0.0
	대전/충청	74.3	28.6	50.4	23.8	14.4	2.4	0.0	0.0
	강원/제주	44.6	12.1	26.1	58.4	22.7	3.6	0.0	0.0
규모별	1인	58.0	21.4	32.7	23.0	9.8	3.0	12.9	0.0
	2 - 4인	61.5	41.4	29.5	18.0	11.7	8.7	5.6	0.9
	5 - 9인	61.2	40.0	40.7	16.3	11.8	6.9	1.9	0.0
	10 - 14인	66.8	44.2	38.2	19.1	11.9	5.4	3.3	0.0
	15인 이상	50.6	46.4	49.6	24.7	7.0	8.8	0.5	0.0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63.1	37.0	34.7	19.3	9.7	8.2	5.8	0.3
	기타 매출 50%↑	54.4	37.9	33.5	19.6	12.4	4.9	6.1	0.8
	반반	58.0	40.0	30.5	10.9	26.9	0.0	4.9	0.0



05-2.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

+ 디자인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장애요인(중복응답 기준)에 대한 응답은, ‘저임금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이 55.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사업체 규모’(31.0%),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26.1%), ‘재무 운용능력 부족’(18.9%) 순임.

<그림 4-2-30>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



+ 업종별로 장애 요인을 보면, 모든 업종에서 ‘저임금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이 가장 많으며, 특히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67.2%)에서 더욱 높음. ‘사업체 규모’는 기타디자인업(38.9%)에서,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은 기타디자인업(34.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60> 업종별 필요 정부 지원 분야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

구 분		저임금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사업체 규모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재무 운용 능력 부족	산업의 급성장애 따른 인력 공급 부족	제도 및 규격	추가적인 용역 요구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55.8	31.0	26.1	18.9	16.7	13.9	7.7	3.8
업종별	제품디자인	46.8	37.4	24.3	18.0	21.4	15.5	12.9	4.0
	시각디자인	57.8	27.9	20.3	20.4	16.4	12.2	8.2	3.4
	환경/인테리어	67.2	24.5	31.4	18.6	13.3	16.7	4.3	2.1
	기타디자인	46.8	38.9	34.9	17.1	15.6	10.7	3.6	7.4



+ 권역별로 보면, 모든 권역에서 ‘저임금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응답이 가장 높으며, 특히 대구/경북(66.4%)에서 더욱 높음.

규모별로는 1인 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디자인기업에서 ‘저임금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2-4인 기업(62.2%)에서 더욱 높음. 한편, 1인 기업은 ‘사업체 규모’가 48.5%로 가장 높음.

매출 구성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저임금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기업(58.8%)에서 더욱 높음.

<표 4-2-61>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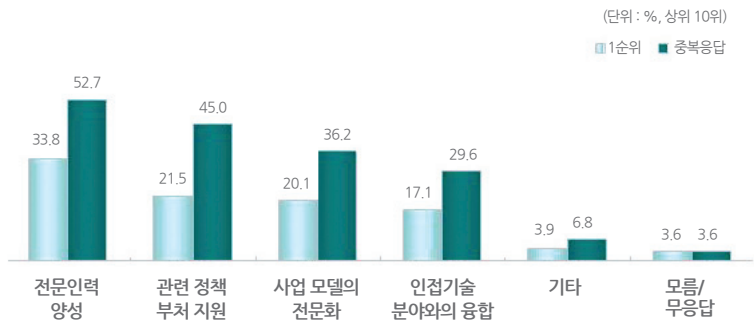
구 분		저임금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사업체 규모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재무 운용 능력 부족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인력 공급 부족	제도 및 규격	추가적인 용역 요구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55.8	31.0	26.1	18.9	16.7	13.9	7.7	3.8
권역별	서울	52.8	28.8	25.0	19.7	12.3	13.2	7.1	6.2
	부산/울산/경남	59.7	25.1	23.3	15.5	20.5	4.8	9.8	1.9
	대구/경북	66.4	28.3	41.2	22.1	19.3	15.1	1.3	0.0
	인천/경기	58.7	46.3	17.5	21.8	8.2	20.5	7.3	2.7
	광주/전라	60.5	26.1	44.8	12.4	28.2	18.6	9.3	0.0
	대전/충청	54.0	44.3	17.2	12.2	42.2	7.9	10.3	0.0
	강원/제주	51.7	18.0	22.5	33.6	10.7	34.4	18.4	0.0
규모별	1인	38.9	48.5	28.1	16.3	17.5	11.0	2.7	5.4
	2 - 4인	62.2	29.0	24.8	22.6	14.3	11.3	7.1	2.0
	5 - 9인	59.2	23.2	26.4	16.9	18.9	18.3	9.7	5.8
	10 - 14인	60.9	24.0	23.0	11.6	20.0	16.5	16.5	4.6
	15인 이상	44.7	20.4	33.7	13.6	22.3	26.6	13.9	4.6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58.5	30.1	23.1	19.2	18.7	13.5	7.5	4.5
	기타 매출 50%↑	48.9	34.1	33.3	17.3	13.1	14.3	8.4	2.6
	반반	56.8	24.9	29.1	24.8	6.3	17.1	6.9	0.0



05-3. 타 산업 대비 디자인 산업 취약 부분

+ 타 산업 대비 디자인 산업의 취약한 부분(중복응답 기준)으로 ‘전문인력 양성’이 52.7%로 가장 높으며, ‘관련 정책부처 지원’ 45.0%, ‘사업 모델의 전문화’ 36.2%, ‘인접기술 분야와의 융합’ 29.6% 등의 순임.

〈그림 4-2-31〉 타산업 대비 디자인 산업 취약 부분



+ 업종별로 보면, 기타디자인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전문 인력 양성’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55.8%)에서 더욱 높음. 한편, 기타디자인업에서는 ‘관련 정책부처 지원’이 48.1%로 ‘전문인력양성’(48.0%)과 비슷한 비율임. ‘관련 정책부처 지원’은 제품디자인업(48.3%)에서, ‘사업모델의 전문화’는 제품디자인업(40.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62〉 업종별 타산업 대비 디자인 산업 취약 부분

(단위 : %, 중복응답)

구 분		전문인력 양성	관련 정책 부처 지원	사업 모델의 전문화	인접기술 분야와의 융합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52.7	45.0	36.2	29.6	6.8
업종별	제품디자인	54.9	48.3	40.1	24.9	7.5
	시각디자인	51.2	43.1	35.3	30.0	5.5
	환경/인테리어	55.8	42.6	33.7	31.1	6.5
	기타디자인	48.0	48.1	36.5	33.7	9.1



+ 권역별로 보면, 인천/경기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전문 인력 양성' 응답이 가장 많으며 특히 광주/전라(77.3%)에서 더욱 높음. 한편, 인천/경기에서는 '관련 정책부처 지원'이 44.8%로 타 권역과 차이를 보임.

규모별로 보면, 5-9인 규모의 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전문 인력 양성' 응답이 가장 많으며, 특히 15인 이상 기업(61.0%)에서 더욱 높음. 한편, 5-9인 규모 기업은 '관련 정책부처 지원'이 49.4%로 가장 많음.

매출구성별로 보면, 매출 구성에 관계없이 '전문 인력 양성'이 디자인 산업의 취약부분으로 가장 높으며, 특히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기업(60.1%)에서 더욱 높음.

<표 4-2-63>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타산업 대비 디자인 산업 취약부분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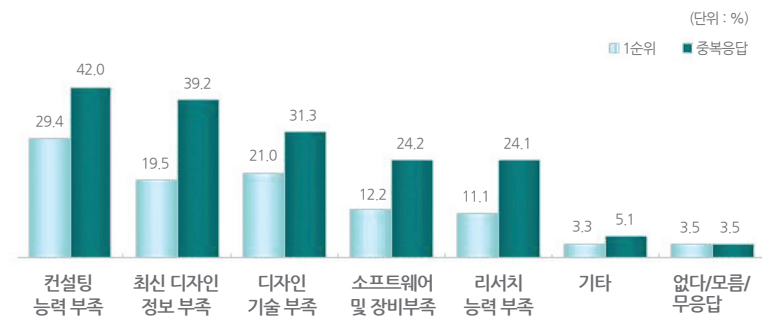
구 분		전문인력 양성	관련 정책 부처 지원	사업 모델의 전문화	인접기술 분야와의 융합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52.7	45.0	36.2	29.6	6.8
권역별	서울	48.5	44.9	33.7	26.0	6.5
	부산/울산/경남	54.9	41.9	28.7	30.9	11.2
	대구/경북	58.1	39.9	42.4	36.9	10.7
	인천/경기	40.8	44.8	38.8	41.5	11.4
	광주/전라	77.3	38.9	50.3	31.4	0.8
	대전/충청	66.0	64.1	33.7	27.1	0.0
	강원/제주	51.7	34.2	51.7	31.2	3.6
규모별	1인	53.9	42.0	34.2	34.8	6.0
	2 - 4인	56.4	42.1	35.7	29.1	6.1
	5 - 9인	42.1	49.4	40.2	27.6	8.9
	10 - 14인	53.2	52.0	35.8	27.1	5.6
	15인 이상	61.0	55.3	32.6	24.9	7.8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49.9	49.0	37.3	29.7	6.9
	기타 매출 50%↑	60.1	36.7	33.5	29.8	6.3
	반반	51.2	31.6	36.9	26.6	6.7



05-4.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 전문디자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중복응답 기준)으로 ‘컨설팅 능력 부족’ (42.0%), ‘최신 디자인 정보부족’(39.2%)의 응답이 많음. 다음으로, ‘디자인 기술 부족’(31.3%), ‘소프트웨어 및 장비부족’(24.2%), ‘리서치 능력 부족’(24.1%) 등의 순임.

〈그림 4-2-32〉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 업종별로 보면, 제품디자인업(40.3%)과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49.3%)은 ‘최신 디자인 정보 부족’, 시각디자인업(48.8%)과 기타디자인업(41.7%)은 ‘컨설팅 능력 부족’이 주요 애로사항임.

〈표 4-2-64〉 업종별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단위 : %, 중복응답)

구 분		컨설팅 능력 부족	최신 디자인 정보 부족	디자인 기술 부족	소프트웨어 및 장비부족	리서치 능력 부족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42.0	39.2	31.3	24.2	24.1	5.1
업종별	제품디자인	39.3	40.3	33.2	29.4	25.1	6.9
	시각디자인	48.8	31.6	28.8	22.2	23.2	4.4
	환경/인테리어	34.4	49.3	34.2	22.0	23.0	3.3
	기타디자인	41.7	40.0	29.5	24.6	26.6	6.8



+ 권역별로는, 서울(44.9%), 인천/경기(40.9%), 강원/제주(50.8%)에서는 '컨설팅 능력 부족'을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에, 부산/울산/경남(50.6%), 대구/경북(59.2%), 광주/전라(41.0%), 대전/충청(35.0%)에서는 '최신 디자인 정보 부족'이 가장 많음.

규모별로 보면, 모든 규모에서 '컨설팅 능력 부족' 응답이 가장 많으며, 10-14인 규모 기업(60.0%)에서 더욱 높음.

매출구성별로도 모든 기업에서 '컨설팅 능력 부족' 응답이 가장 많으며, 특히,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기업(45.5%)에서 더욱 높음.

<표 4-2-65>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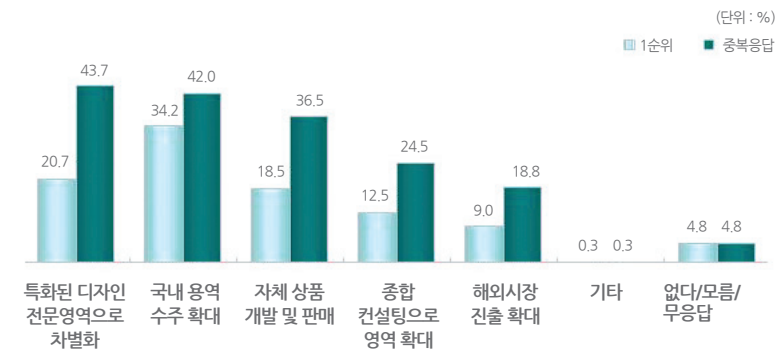
구 분		컨설팅 능력 부족	최신 디자인 정보 부족	디자인 기술 부족	소프트웨어 및 장비부족	리서치 능력 부족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42.0	39.2	31.3	24.2	24.1	5.1
권역별	서울	44.9	36.2	29.1	20.1	22.3	5.8
	부산/울산/경남	32.9	50.6	27.8	25.1	19.1	6.2
	대구/경북	46.7	59.2	30.4	22.5	23.5	2.5
	인천/경기	40.9	35.9	27.4	22.6	35.3	5.8
	광주/전라	40.1	41.0	57.5	16.6	35.7	0.8
	대전/충청	29.6	35.0	37.0	53.4	18.8	0.0
	강원/제주	50.8	22.8	10.7	53.0	15.7	19.3
규모별	1인	40.8	38.1	31.8	28.9	18.4	3.4
	2 - 4인	40.4	40.0	31.3	21.5	24.8	5.9
	5 - 9인	42.1	41.5	31.5	23.6	27.6	5.1
	10 - 14인	60.0	38.0	25.5	17.5	22.8	5.7
	15인 이상	39.3	28.5	34.6	41.8	27.3	3.3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40.7	37.2	27.9	28.0	25.0	6.4
	기타 매출 50%↑	45.5	44.3	38.4	16.4	22.6	1.1
	반반	39.4	39.3	40.8	12.4	19.2	10.0



05-5. 매출 증대 방안

➤ 매출 증대 방안(중복응답 기준)으로는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으로 차별화’(43.7%)와 ‘국내용역 수주확대’(42.0%)가 가장 많음. 다음은 ‘자체 상품 개발 및 판매’(36.5%), ‘종합 컨설팅으로 영역 확대’(24.5%), ‘해외시장 진출확대’(18.8)등의 순임한편, 1순위 기준으로는 ‘국내 용역 수주 확대’ 응답 비율이 34.2%로 가장 높고, 다음은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으로 차별화’(20.7%), ‘자체 상품 개발 및 판매’(18.5%) 등의 순임.

〈그림 4-2-33〉 매출 증대 방안



➤ 업종별로 보면, 제품디자인업은 ‘자체 상품 개발 및 판매’가 55.2%로 가장 높고, 시각디자인업은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으로 차별화’가 46.7%로 가장 높음.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과 기타디자인업은 매출 증대 방안 중 ‘국내용역 수주확대’가 각각 48.2%, 52.1%로 가장 높음.

〈표 4-2-66〉 업종별 매출 증대 방안

구 분(중복응답)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으로 차별화	국내 용역 수주 확대	자체 상품 개발 및 판매	종합 컨설팅으로 영역 확대	해외시장 진출 확대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43.7	42.0	36.5	24.5	18.8	0.3
업종별	제품디자인	38.9	31.1	55.2	24.9	32.0	0.0
	시각디자인	46.7	40.7	31.6	25.0	13.0	0.0
	환경/인테리어	47.4	48.2	25.4	22.8	16.7	1.2
	기타디자인	37.7	52.1	37.2	25.2	15.5	0.2



+ 권역별로 보면, 매출 증대 방안으로 '국내 용역 수주 확대'를 가장 많이 응답한 권역은 서울(42.4%), 인천/경기(49.1%), 광주/전라(54.9%)이고,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으로 차별화'를 가장 많이 응답한 권역은 부산/울산/경남(45.8%), 대구/경북(62.6%), 강원/제주(53.1%)임. '자체상품 개발 및 판매'를 가장 많이 응답한 권역은 대전/충청(56.2%)임.

규모별로 보면, 1인 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특화된 디자인 전문 영역으로 차별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15인 이상 기업(45.8%)에서 더욱 높음.  
 한편, 1인 기업은 '국내 용역 수주 확대'가 45.9%로 가장 높음.

매출 구성별로 보면,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기업은 '특화된 디자인 전문 영역으로 차별화' (45.0%),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기업(52.8%)과 반반인 기업(58.5%)에서는 '국내 용역 수주 확대'가 가장 높음.

<표 4-2-67>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매출 증대 방안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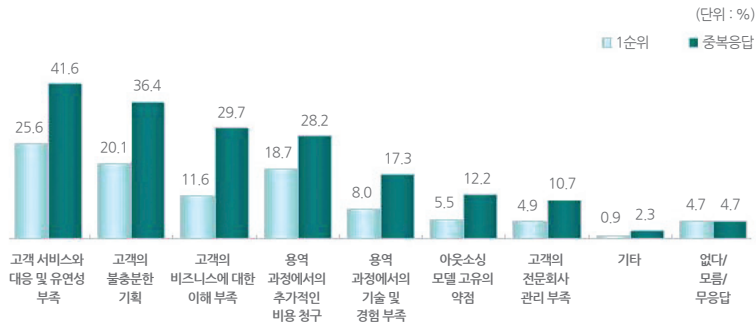
구 분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으로 차별화	국내 용역 수주 확대	자체 상품 개발 및 판매	종합 컨설팅으로 영역 확대	해외시장 진출 확대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43.7	42.0	36.5	24.5	18.8	0.3
권역별	서울	41.3	42.4	30.5	20.9	21.3	0.0
	부산/울산/경남	45.8	42.2	41.4	30.2	8.3	0.0
	대구/경북	62.6	35.0	35.7	23.4	17.9	3.8
	인천/경기	34.6	49.1	44.1	23.7	14.6	0.2
	광주/전라	54.3	54.9	42.7	24.4	9.4	0.0
	대전/충청	37.5	23.2	56.2	36.6	34.8	0.0
	강원/제주	53.1	40.5	35.3	45.7	8.5	0.0
규모별	1인	43.1	45.9	36.5	18.6	17.4	0.0
	2 - 4인	43.8	40.3	37.6	24.1	16.2	0.6
	5 - 9인	45.1	43.9	35.4	26.8	19.7	0.0
	10 - 14인	37.3	32.9	35.7	37.3	29.7	0.0
	15인 이상	45.8	43.2	32.9	26.1	31.4	0.5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45.0	36.7	38.9	23.8	20.2	0.5
	기타 매출 50%↑	41.5	52.8	33.0	24.7	16.7	0.0
	반반	35.9	58.5	18.6	35.5	8.6	0.0



05-6. 디자인용역제공이 고객(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

- + 고객이 소비자인 경우, 디자인용역 제공이 고객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중복응답 기준)로는 ‘고객 서비스와 대응 및 유연성 부족’이 41.6%로 가장 높고, 다음은 ‘고객의 불충분한 기획’(36.4%),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부족’(29.7%), ‘용역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비용 청구’(28.2%) 순임.
- 한편, 1순위 기준으로는 ‘고객 서비스와 대응 및 유연성 부족’이 25.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고객의 불충분한 기획’(20.1%), ‘용역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비용 청구’(18.7%) 순임.

<그림 4-2-34> 디자인용역제공이 고객(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



- + 업종별로 보면, 제품디자인업과 기타디자인업에서는 ‘고객의 불충분한 기획’이 각각 38.0%, 44.2%로 가장 높음. 한편, 시각디자인업과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에서는 ‘고객서비스와 대응 및 유연성 부족’이 각각 45.9%, 43.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업종별로 차이가 있음.

<표 4-2-68> 업종별 디자인용역제공이 고객(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

		(단위 : %, 중복응답)							
구 분		고객 서비스와 대응 및 유연성 부족	고객의 불충분한 기획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부족	용역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비용 청구	용역 과정에서의 기술 및 경험 부족	아웃소싱 모델 고유의 약점	고객의 전문회사 관리 부족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41.6	36.4	29.7	28.2	17.3	12.2	10.7	2.3
업종별	제품디자인	32.8	38.0	31.5	30.4	13.6	18.1	11.9	2.2
	시각디자인	45.9	36.1	35.1	21.6	18.8	10.5	10.8	0.3
	환경/인테리어	43.7	30.4	20.3	36.6	19.5	11.5	10.4	4.7
	기타디자인	41.6	44.2	28.9	27.2	16.1	7.8	8.9	3.4



+ 권역별로 보면, ‘고객 서비스와 대응 및 유연성 부족’을 가장 많이 응답한 권역으로는 서울(42.1%), 대구/경북(52.2%), 인천/경기(38.4%), 광주/전라(58.1%)임. 한편, ‘고객의 불충분한 기획’을 가장 많이 응답한 권역은 부산/울산/경남(40.4%), 대전/충청(56.8%), 강원/제주(47.6%)임.

규모별로는 1인 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고객 서비스와 대응 및 유연성 부족’응답이 가장 많으며, 특히 15인 이상 기업(44.9%)에서 더욱 높음. 한편, 1인 기업에서는 ‘고객의 불충분한 기획’이 48.7%로 가장 높음.

매출구성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고객 서비스와 대응 및 유연성 부족’ 응답이 가장 높으며, 특히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기업(44.8%)에서 더욱 높음.

<표 4-2-69>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용역제공이 고객(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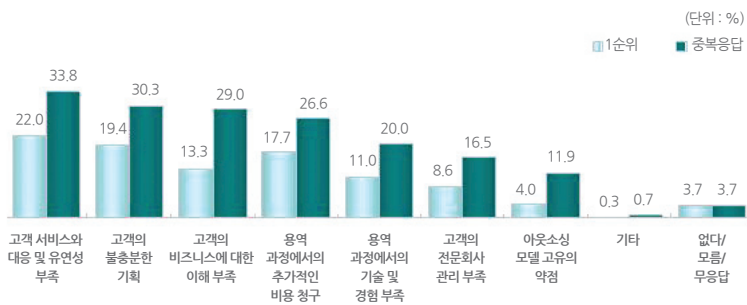
구 분		고객 서비스와 대응 및 유연성 부족	고객의 불충분한 기획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부족	용역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비용 청구	용역 과정에서의 기술 및 경험 부족	아웃소싱 모델 고유의 약점	고객의 전문회사 관리 부족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41.6	36.4	29.7	28.2	17.3	12.2	10.7	2.3
권역별	서울	42.1	30.5	33.1	21.5	15.4	14.3	11.5	2.4
	부산/울산/경남	39.9	40.4	32.4	38.9	26.0	5.1	3.2	0.0
	대구/경북	52.2	51.9	24.9	23.4	22.2	7.9	11.6	0.0
	인천/경기	38.4	32.3	29.9	27.6	17.3	16.2	10.2	2.4
	광주/전라	58.1	38.2	18.0	50.1	18.3	5.9	5.3	3.6
	대전/충청	27.0	56.8	19.4	44.1	13.9	11.5	18.3	0.0
	강원/제주	15.5	47.6	29.8	27.6	17.7	12.1	15.6	15.7
규모별	1인	44.1	48.7	23.4	36.2	14.1	4.3	7.4	1.0
	2 - 4인	42.8	33.2	28.5	25.9	21.4	13.6	10.4	3.0
	5 - 9인	36.1	32.6	35.2	26.6	15.9	16.5	13.3	2.3
	10 - 14인	41.7	29.3	37.3	37.4	10.0	14.8	14.7	0.0
	15인 이상	44.9	40.8	33.8	12.5	8.5	8.4	10.5	3.2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40.4	37.7	29.0	26.7	19.4	12.5	11.4	1.9
	기타 매출 50%↑	44.8	33.6	30.1	31.4	13.5	10.9	9.2	3.6
	반반	39.7	32.4	39.1	31.0	7.5	15.4	9.2	0.0



05-6-1. 디자인용역제공이 고객(기업)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

➤ 고객이 기업인 경우, 디자인용역 제공이 고객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중복응답 기준)로는 ‘고객 서비스와 대응 및 유연성 부족’이 33.8%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고객의 불충분한 기획’(30.3%),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부족’(29.0%), ‘용역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비용 청구’(26.6%) 순임.

〈그림 4-2-35〉 디자인용역제공이 고객(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



➤ 업종별로 보면, 제품디자인업에서는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부족’이 29.1%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고객의 불충분한 기획’(28.5%), ‘용역 과정에서의 기술 및 경험 부족’(23.9%) 순임. 시각디자인업,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 기타디자인업에서는 기업 고객 기대에 못 미친 이유로 ‘고객 서비스와 대응 및 유연성 부족’이 각각 37.2%, 38.0%, 35.0%로 가장 높음

〈표 4-2-70〉 업종별 디자인용역제공이 고객(기업)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

구 분		(단위 : %, 중복응답)						
		고객 서비스와 대응 및 유연성 부족	고객의 불충분한 기획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부족	용역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비용 청구	용역 과정에서의 기술 및 경험 부족	고객의 전문회사 관리 부족	아웃소싱 모델 고유의 약점
전문디자인기업(전체)		33.8	30.3	29.0	26.6	20.0	16.5	11.9
업종별	제품디자인	23.4	28.5	29.1	23.4	23.9	23.3	16.1
	시각디자인	37.2	34.6	30.0	24.0	19.7	11.2	10.6
	환경/인테리어	38.0	27.3	27.8	36.1	17.5	15.6	11.8
	기타디자인	35.0	27.9	27.9	22.8	18.7	20.2	8.6



+ '권역별로 보면, 서울(36.5%), 대구/경북(45.0%), 인천/경기(35.1%)에서는 '고객 서비스와 대응 및 유연성 부족', 부산/울산/경남(35.5%), 광주/전라(64.8%), 강원/제주(38.2%)에서는 '용역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비용 청구'의 응답이 가장 높음. 한편, 대전/충청에서는 '용역 과정에서의 기술 및 경험 부족'(53.2%)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권역별로 차이가 남.

규모별로는 1인 기업(37.5%)과 10-14인 규모의 기업(35.6%)에서는 고객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2-4인 기업(35.6%)과 15인 이상 기업(46.4%)에서는 '고객 서비스와 대응 및 유연성 부족'을 가장 많이 응답함.

매출구성별로는, 디자인 및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기업에서는 '고객 서비스와 대응 및 유연성 부족' 응답이 각각 33.9%, 34.3%로 가장 높고, 반반인 기업에서는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부족'이 41.9%로 가장 높음.

<표 4-2-71>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용역제공이 고객(기업)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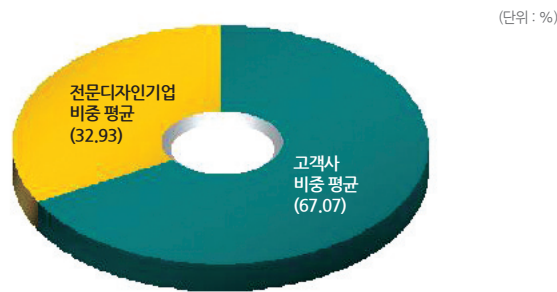
구 분		고객 서비스와 대응 및 유연성 부족	고객의 불충분한 기획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부족	용역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비용 청구	용역 과정에서의 기술 및 경험 부족	고객의 전문회사 관리 부족	아웃소싱 모델 고유의 약점	기타
전문디자인기업(전체)		33.8	30.3	29.0	26.6	20.0	16.5	11.9	0.7
권역별	서울	36.5	30.2	28.1	21.6	16.8	14.8	12.7	1.3
	부산/울산/경남	34.2	32.9	31.8	35.5	19.2	11.6	7.4	0.0
	대구/경북	45.0	32.8	36.0	29.6	15.8	11.0	7.0	0.0
	인천/경기	35.1	27.5	29.1	20.8	15.8	21.2	17.2	0.0
	광주/전라	28.3	34.4	35.9	64.8	17.4	4.4	6.4	0.0
	대전/충청	17.3	30.8	17.9	11.6	53.2	41.4	6.6	0.0
	강원/제주	7.0	15.0	26.4	38.2	27.3	28.8	35.1	0.0
규모별	1인	30.5	23.6	37.5	17.7	24.8	22.2	8.0	0.0
	2 - 4인	35.6	32.7	23.9	29.4	20.4	14.7	11.7	0.9
	5 - 9인	30.4	31.0	28.3	28.7	18.6	14.8	16.3	0.9
	10 - 14인	33.2	29.0	35.6	32.4	14.7	21.8	10.5	0.0
	15인 이상	46.4	35.8	35.8	21.1	9.5	11.3	11.4	1.8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33.9	32.1	27.0	24.1	21.9	17.8	12.9	0.8
	기타 매출 50%↑	34.3	27.3	32.0	33.4	16.6	11.9	9.9	0.7
	반반	28.5	20.2	41.9	22.1	11.4	25.8	7.2	0.0



05-7-1. 디자인권 소유 비중

- + 디자인 최종산출물에 대한 디자인권 소유 주체로 고객사 비중은 평균 67.07%, 전문디자인기업 비중은 32.93%로, 디자인권은 고객사가 2배 이상 많이 소유하고 있음.

〈그림 4-2-36〉 디자인권 소유 비중



- +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에서 '고객사'의 비중이 '전문디자인기업' 비중보다 크며, 특히, 제품디자인업 (75.30%)에서 가장 높음. 한편,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44.14%)에서는 디자인권의 '전문디자인기업' 소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72〉 업종별 디자인권 소유 비중

(단위 : %)

구 분		고객사 비중 평균	전문디자인기업 비중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67.07	32.93
업종별	제품디자인	75.30	24.70
	시각디자인	65.01	34.99
	환경/인테리어	55.86	44.14
	기타디자인	75.19	24.81



+ ‘권역별, 규모별로 보면 공통적으로 디자인권 소유 비중은 ‘고객사’가 더 크며, 특히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5.0%)에서, 규모별로는 15인 이상(74.63%)에서 더욱 ‘고객사’의 비중이 높음.

매출 구성별로 보면, 디자인 매출 및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기업은 ‘고객사’의 비중이 각각 69.79%, 63.74로 크고, 매출이 반반인 기업은 ‘전문디자인기업’의 비중이 61.70%로 더 큼.

<표 4-2-73>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권 소유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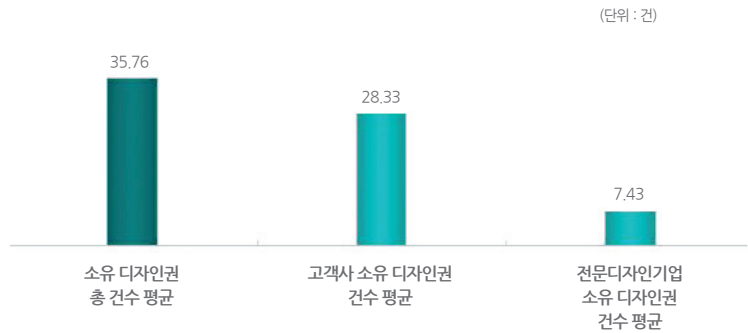
구 분		고객사 비중 평균	전문디자인기업 비중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67.07	32.93
권역별	서울	68.39	31.61
	부산/울산/경남	59.74	40.26
	대구/경북	59.97	40.03
	인천/경기	68.31	31.69
	광주/전라	75.00	25.00
	대전/충청	70.02	29.98
	강원/제주	50.51	49.49
규모별	1인	70.82	29.18
	2 - 4인	63.85	36.15
	5 - 9인	68.97	31.03
	10 - 14인	68.17	31.83
	15인 이상	74.63	25.37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69.79	30.21
	기타 매출 50%↑	63.74	36.26
	반반	38.30	61.70



05-7-2. 디자인권 소유 건수 (평균)

+ 디자인권 소유 건수는 평균 35.76건이며, ‘고객사’ 소유 디자인권 건수는 평균 28.33건, ‘전문디자인기업’ 소유 디자인권 건수는 평균 7.43건임.

〈그림 4-2-37〉 디자인권 소유 건수 (평균)



+ 업종별로 보면, 총 소유건수는 기타디자인업의 평균이 82.18건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많으며, 다음은 시각디자인업(33.07건), 제품디자인업(30.72건)의 순임.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권의 ‘고객사’ 비중이 ‘전문디자인기업’ 비중에 비해 많으며, 특히 기타디자인업(70.67건)에서 더욱 많음.

〈표 4-2-72〉 업종별 디자인권 소유 건수 (평균)

(단위 : 건)

구 분		소유 디자인권 총 건수 평균	고객사 소유 디자인권 건수 평균	전문디자인기업 소유 디자인권건수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35.76	28.33	7.43
업종별	제품디자인	30.72	24.76	5.96
	시각디자인	33.07	25.04	8.03
	환경/인테리어	16.46	10.90	5.56
	기타디자인	82.18	70.67	11.51



+ '권역별로 보면, 총 소유건수는 강원/제주가 평균 44.75건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가장 많으며, 다음은 서울(44.22건), 대구/경북(33.07건)의 순임.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디자인권 소유는 '고객사' 비중이 '전문디자인기업' 비중에 비해 많으며 특히, 강원/제주(41.85건)에서 더욱 많음.

한편, 대구/경북은 '전문디자인기업'의 디자인권 소유 건수가 평균 17.25건으로 '고객사' 평균 15.82건보다 많은 것으로 다른 권역과 차이가 남.

규모별로 보면, 모든 규모에서 디자인권 소유의 '고객사' 비중이 '전문디자인기업' 비중에 비해 많으며 특히, 1인 기업(33.52건)에서 더욱 많음.

<표 4-2-75>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권 소유 건수 (평균)

(단위 : 건)

구 분		소유 디자인권 총 건수 평균	고객사 소유 디자인권 건수 평균	전문디자인기업 소유 디자인권 건수 평균
전문디자인기업(전체)		35.76	28.33	7.43
권역별	서울	44.22	37.09	7.13
	부산/울산/경남	31.39	20.44	10.95
	대구/경북	33.07	15.82	17.25
	인천/경기	22.46	19.07	3.39
	광주/전라	13.19	7.81	5.38
	대전/충청	31.03	23.74	7.29
	강원/제주	44.75	41.85	2.90
규모별	1인	35.54	33.52	2.02
	2 - 4인	39.76	30.20	9.56
	5 - 9인	31.92	23.42	8.50
	10 - 14인	25.09	17.13	7.96
	15인 이상	27.03	24.61	2.42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37.65	28.94	8.71
	기타 매출 50%↑	34.54	30.52	4.02
	반반	9.01	3.78	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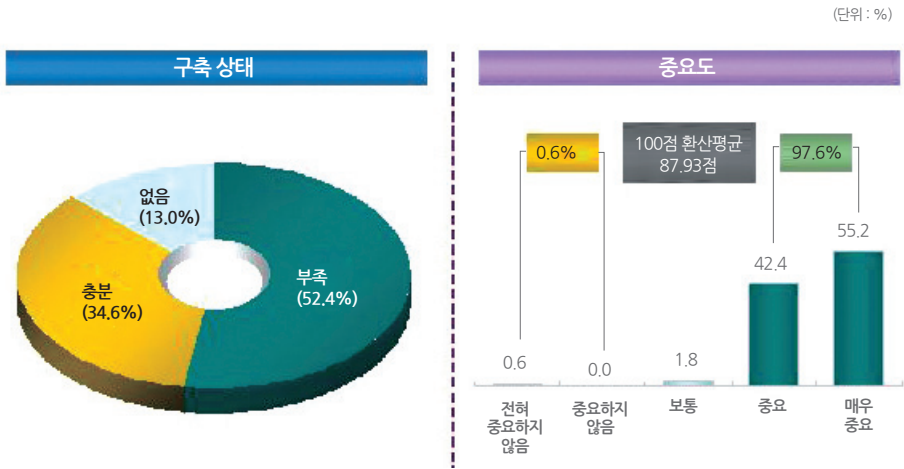


05-8-1.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 디자인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 상태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은 52.4%로 ‘충분하다’ 34.6%보다 많음.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구축의 중요도는 평균 87.93점임(100점 환산 기준).<sup>12)</sup>  
응답 비율별 보면 ‘중요하다’는 응답은 97.6%(매우: 55.2% + 중요: 42.4%)로 매우 높고, ‘중요하지 않다’는 0.6%(전혀: 0.6% + 별로: 0.0%), ‘보통이다’는 1.8%임.

12) 100점 환산 기준: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문항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  
①전혀 중요하지 않음 - 0점  
②중요하지 않음 - 25점  
③보통 - 50점  
④중요 - 75점  
⑤매우중요 - 100점

〈그림 4-2-38〉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구축 상태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특히, 기타디자인업(56.0%)에서 더욱 높음. 중요도는 제품디자인업에서 평균 89.99점으로 가장 높음.

〈표 4-2-76〉 업종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단위: %, 점)

구 분		구축 상태			중요도			
		부족	충분	없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100점 환산 평균(점)
전문디자인기업(전체)		52.4	34.6	13.0	0.6	1.8	97.6	87.93
업종별	제품디자인	50.8	30.9	18.3	0.0	1.8	98.2	89.99
	시각디자인	54.0	38.9	7.1	0.5	1.1	98.4	87.02
	환경/인테리어	49.4	36.0	14.6	1.5	0.7	97.8	87.45
	기타디자인	56.0	27.7	16.3	0.0	5.6	94.4	87.67



+ 권역별로 보면, 모든 권역에서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구축 상태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특히 강원/제주(73.4%)에서 더욱 높음. '충분하다'는 응답은 광주/전라(46.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구축의 중요도는 인천/경기가 90.51점으로 가장 높음. 규모별로 보면, 모든 규모에서 구축현황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특히, 5-9인(57.8%)규모에서 더욱 높음. 중요도는 15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91.10점으로 가장 높음.

<표 4-2-77>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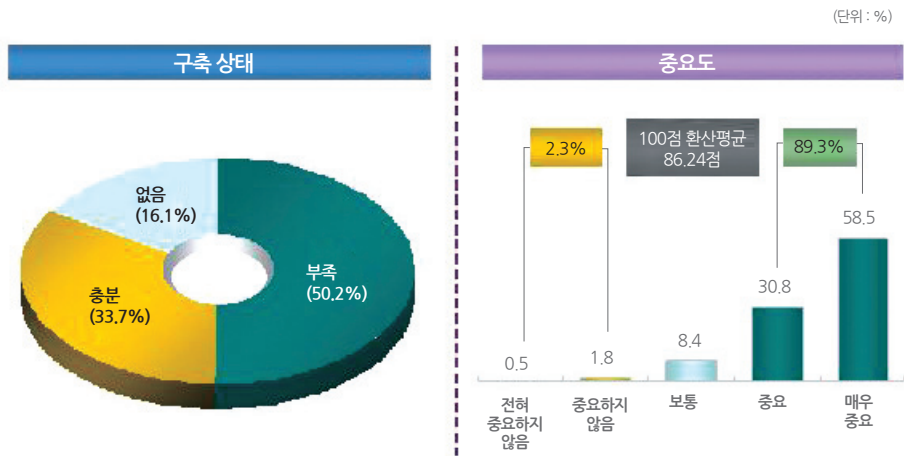
구분		구축 상태			중요도			
		부족	충분	없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100점 환산 평균(점)
전문디자인기업(전체)		52.4	34.6	13.0	0.6	1.8	97.6	87.93
권역별	서울	52.4	33.0	14.6	0.7	2.2	97.1	87.21
	부산/울산/경남	46.3	44.9	8.8	0.0	6.5	93.5	86.78
	대구/경북	45.8	38.7	15.5	0.0	0.0	100.0	88.32
	인천/경기	63.7	29.3	7.0	0.0	0.0	100.0	90.51
	광주/전라	51.6	46.0	2.4	2.4	0.0	97.6	89.36
	대전/충청	44.8	28.4	26.8	0.0	0.0	100.0	88.36
	강원/제주	73.4	23.0	3.6	0.0	0.0	100.0	89.60
규모별	1인	44.7	19.1	36.2	1.0	1.7	97.3	85.17
	2 - 4인	52.8	37.5	9.7	0.4	2.2	97.4	88.19
	5 - 9인	57.8	38.4	3.8	0.7	2.2	97.1	88.98
	10 - 14인	54.5	44.2	1.3	0.0	0.0	100.0	88.82
	15인 이상	54.5	43.7	1.8	0.0	0.0	100.0	91.10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53.1	34.7	12.2	0.0	2.2	97.8	87.81
	기타 매출 50%↑	49.8	34.0	16.2	2.0	1.3	96.7	87.68
	반반	59.4	38.3	2.3	0.0	0.0	100.0	91.85



05-8.2.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 +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구축 상태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이 50.2%로 '충분하다' 33.7%보다 높음.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구축의 중요도는 86.24점(100점 환산 기준)임. 응답 비율별로 보면, '중요하다'는 응답은 89.3% (매우: 58.5% + 중요: 30.8%),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전혀: 0.5% + 별로: 1.8%), '보통이다'는 8.4%임.

<그림 4-2-39>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 +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구축 상태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이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높으며, 특히, 제품디자인업(52.9%)에서 더욱 높음.  
중요도는 제품디자인업이 평균 88.04점으로 가장 높음.

<표 4-2-78> 업종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단위 : %, 점)

구 분		구축 상태			중요도			
		부족	충분	없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100점 환산 평균(점)
전문디자인기업(전체)		50.2	33.7	16.1	2.3	8.4	89.3	86.24
업종별	제품디자인	52.9	31.0	16.1	0.9	8.4	90.7	88.04
	시각디자인	50.9	41.2	7.9	2.2	8.4	89.4	85.55
	환경/인테리어	50.5	29.2	20.3	4.3	7.3	88.4	85.08
	기타디자인	43.5	26.9	29.6	1.4	10.3	88.3	86.99



+ 권역별, 규모별 그리고 매출구성별로 보면 대부분 디자인관련 전문장비 구축현황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으며, 특히, 권역별로는 강원/제주(68.0%), 규모별로는 10-14인 규모의 기업(59.9%) 그리고 매출구성 중에서는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기업(53.2%)에서 더욱 높음. 한편, 광주/전라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44.3%로 부족하다(36.6%)는 응답보다 많음. 중요도는 권역별로는 대전/충청(평균 91.83점), 규모별로는 10-14인 기업(평균 90.50점)에서 높음.

<표 4-2-79>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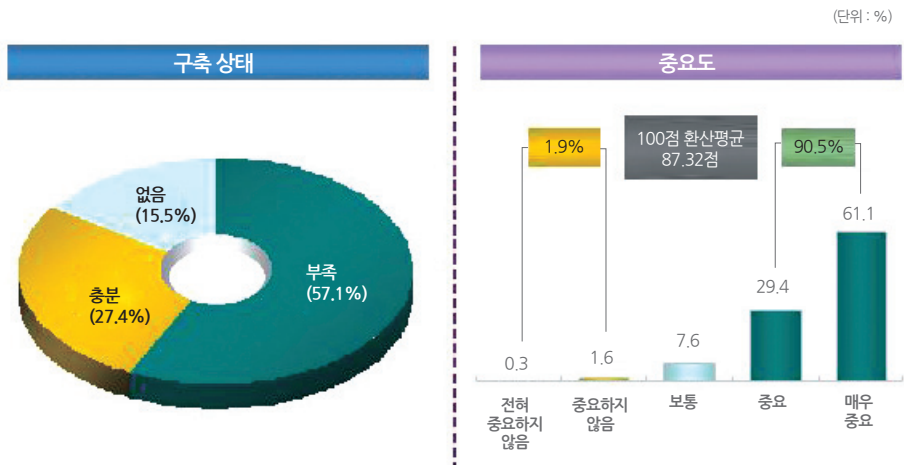
구 분		구축 상태			중요도			
		부족	충분	없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100점 환산 평균(점)
전문디자인기업(전체)		50.2	33.7	16.1	2.3	8.4	89.3	86.24
권역별	서울	50.4	33.3	16.3	3.5	10.1	86.4	84.65
	부산/울산/경남	44.8	35.1	20.1	1.3	15.9	82.8	83.69
	대구/경북	45.6	40.4	14.0	0.0	8.1	91.9	89.28
	인천/경기	50.5	28.4	21.1	0.0	6.7	93.3	86.80
	광주/전라	36.6	44.3	19.1	3.6	0.0	96.4	90.37
	대전/충청	67.2	31.6	1.2	0.0	1.2	98.8	91.83
	강원/제주	68.0	14.3	17.7	0.0	0.0	100.0	88.31
규모별	1인	46.3	21.1	32.6	4.5	10.3	85.2	84.33
	2 - 4인	49.7	34.8	15.5	1.8	9.0	89.2	85.74
	5 - 9인	51.6	41.1	7.3	1.7	6.6	91.7	87.76
	10 - 14인	59.9	38.8	1.3	0.0	4.5	95.5	90.50
	15인 이상	52.3	36.8	10.9	3.3	8.2	88.5	86.94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53.2	33.4	13.4	1.8	8.7	89.5	86.38
	기타 매출 50%↑	43.5	31.6	24.9	3.8	6.6	89.6	85.64
	반반	43.7	54.0	2.3	0.0	17.0	83.0	88.17



05-8-3.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정보

+ 디자인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은 57.1%로, ‘충분하다’(27.4%)는 응답보다 많음.  
중요도는 평균 87.32점(100점 환산 기준)임. 응답 비율 별로 보면 ‘중요하다’는 응답은 90.5%(매우: 61.1% + 중요: 29.4%)로 대다수이고, ‘보통이다’는 7.6%,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9%(전혀: 0.4% + 별로: 1.6%)임.

〈그림 4-2-40〉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정보



+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정보 시스템 구축 상태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이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많으며, 특히, 제품디자인업(62.4%)에서 더욱 높음. 중요도는 제품디자인업이 87.77점으로 가장 높음.

〈표 4-2-80〉 업종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정보

(단위 : %, 점)

구 분		구축 상태			중요도			
		부족	충분	없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100점 환산 평균(점)
전문디자인기업(전체)		57.1	27.4	15.5	1.9	7.6	90.5	87.32
업종별	제품디자인	62.4	22.1	15.5	2.7	7.0	90.3	87.77
	시각디자인	55.4	34.0	10.6	1.9	6.3	91.8	87.47
	환경/인테리어	55.5	26.7	17.8	2.3	8.1	89.6	86.87
	기타디자인	55.1	20.6	24.3	0.0	10.7	89.3	86.98



+ 권역별, 규모별 그리고 매출구성별로 보면 공통적으로 디자인 정보 관련 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이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많음. 권역별로는 인천/경기(73.0%), 규모별로는 5-9인 규모의 기업(62.2%) 그리고 매출구성 중에서는 반반인 기업(75.7%)이 더욱 높음.  
 중요도는 권역별로는 강원/제주(94.12점), 규모별로는 10-14인 이상 기업(92.76점), 매출구성으로는 반반인 기업(90.47점)이 가장 높음.

<표 4-2-81>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정보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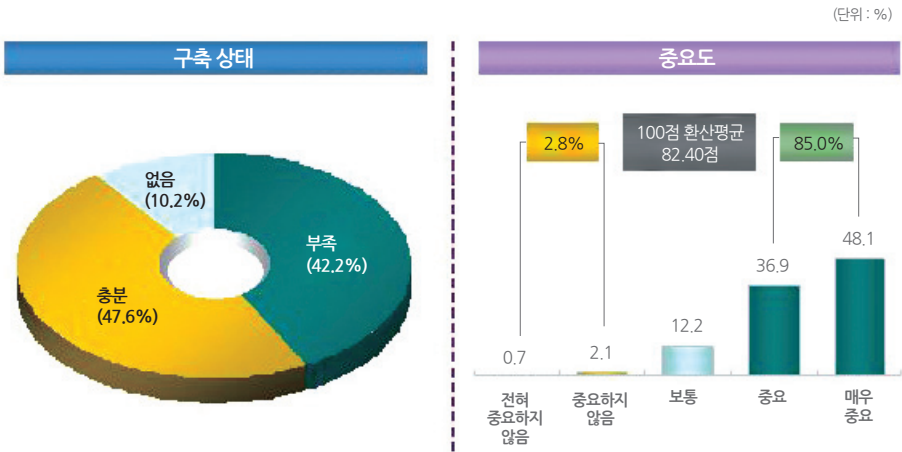
구분		구축 상태			중요도			
		부족	충분	없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100점 환산 평균(점)
전문디자인기업(전체)		57.1	27.4	15.5	1.9	7.6	90.5	87.32
권역별	서울	53.5	27.9	18.6	1.9	9.0	89.1	86.17
	부산/울산/경남	51.6	23.5	24.9	5.6	9.2	85.2	84.42
	대구/경북	62.4	29.8	7.8	0.0	3.9	96.1	92.27
	인천/경기	73.0	13.8	13.2	1.5	4.9	93.6	87.74
	광주/전라	56.6	41.1	2.3	2.4	2.4	95.2	89.81
	대전/충청	64.2	27.7	8.1	0.0	11.1	88.9	88.67
	강원/제주	49.1	36.5	14.4	0.0	0.0	100.0	94.12
규모별	1인	49.7	23.0	27.3	3.5	10.7	85.8	84.81
	2 - 4인	58.2	26.5	15.3	1.6	9.2	89.2	86.13
	5 - 9인	62.2	29.3	8.5	1.3	3.2	95.5	90.65
	10 - 14인	59.7	34.7	5.6	0.0	1.3	98.7	92.76
	15인 이상	50.4	36.0	13.6	3.3	5.9	90.8	87.27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57.9	28.8	13.3	1.0	6.9	92.1	87.38
	기타 매출 50%↑	52.3	25.1	22.6	4.5	9.2	86.3	86.73
	반반	75.7	19.3	5.0	0.0	7.2	92.8	90.47



05-8-4.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작업 공간

✚ 디자인 작업 공간 구축 상태에 대해 ‘충분하다’는 응답은 47.6%로 ‘부족하다’는 응답(42.2%) 대비 높음. 한편, 중요도는 평균 82.40점(100점 환산 기준)임. 응답 비율별로 보면 ‘중요하다’ 85.0%(매우: 48.1% + 중요: 36.9%), ‘중요하지 않다’ 2.8%(전혀: 0.7% + 별로: 2.1%), ‘보통이다’는 12.2%임.

〈그림 4-2-41〉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작업 공간



✚ 업종별로 보면, 제품디자인업(46.3%)과 시각디자인업(58.2%)에서는 디자인 작업공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부족하다’는 응답보다 많음. 반면에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48.7%)과 기타디자인업(46.0%)은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업종별로 차이를 보임. 디자인 작업공간의 중요도는 제품디자인업이 평균 82.40점으로 타업종 대비 높음.

〈표 4-2-82〉 업종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작업 공간

(단위 : %, 점)

구 분		구축 상태			중요도			
		부족	충분	없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100점 환산 평균(점)
전문디자인기업(전체)		42.2	47.6	10.2	2.8	12.2	85.0	82.40
업종별	제품디자인	42.0	46.3	11.7	3.1	10.2	86.7	84.80
	시각디자인	36.5	58.2	5.3	2.3	9.7	88.0	82.61
	환경/인테리어	48.7	38.5	12.8	4.3	15.6	80.1	80.30
	기타디자인	46.0	38.0	16.0	1.4	15.5	83.1	81.45



- +

권역별로 보면 디자인 작업 공간 구축현황에 대해 서울과 대전/충청에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46.8%, 62.6%로 ‘충분하다’는 응답 비율보다 더 높은 반면, 그 외에 모든 권역에서 ‘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음.

규모별로 보면 1인 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충분하다’는 응답이 ‘부족하다’는 응답을 앞서며, 특히 10-14인 기업(59.3%)에서 더욱 높음. 한편, 1인 기업은 ‘부족하다’는 응답이 46.0%로 ‘충분하다’(33.8%)는 응답을 앞섬.

디자인 작업공간의 중요도는 권역별로는 강원/제주(84.58점), 규모별로는 10-14인 이상 기업(86.32점), 매출구성은 반반인 기업(86.16점)에서 높음.

<표 4-2-83>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상태 및 중요도 - 디자인 작업 공간

(단위 : %, 점)

구분		구축 상태			중요도			
		부족	충분	없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100점 환산 평균(점)
전문디자인기업(전체)		42.2	47.6	10.2	2.8	12.2	85.0	82.40
권역별	서울	46.8	42.5	10.7	2.3	12.8	84.9	83.03
	부산/울산/경남	33.9	51.7	14.4	0.0	12.5	87.5	80.85
	대구/경북	21.8	64.9	13.3	3.8	12.4	83.8	82.12
	인천/경기	39.9	48.9	11.2	2.0	16.0	82.0	80.49
	광주/전라	30.3	60.3	9.4	8.3	2.6	89.1	82.95
	대전/충청	62.6	35.2	2.2	5.5	10.5	84.0	81.55
	강원/제주	22.8	77.2	0.0	0.0	15.7	84.3	84.58
규모별	1인	46.0	33.8	20.2	2.5	14.8	82.7	80.00
	2 - 4인	42.2	47.8	10.0	4.8	12.5	82.7	80.87
	5 - 9인	40.1	57.4	2.5	0.0	11.0	89.0	86.24
	10 - 14인	38.0	59.3	2.7	0.0	7.2	92.8	86.32
	15인 이상	41.0	43.9	15.1	1.8	9.1	89.1	84.51
매출 구성	디자인 매출 50%↑	43.9	48.4	7.7	2.8	12.5	84.7	82.06
	기타 매출 50%↑	37.0	45.2	17.8	3.2	11.0	85.8	82.72
	반반	47.8	49.9	2.3	0.0	13.8	86.2	86.16



## IV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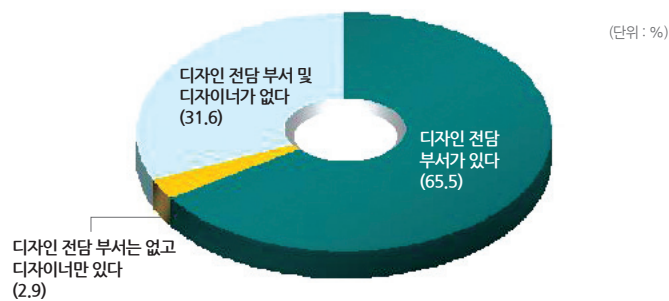
#### 3.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01. 디자인 전담 부서 보유 여부

중양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중 ‘디자인 전담 부서가 있는’ 기관 비율은 65.5%임. ‘디자인 전담 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는’ 기관 비율은 2.9%, 그 외 ‘디자인 전담 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는’ 기관 비율은 31.6%임.

〈그림 4-3-1〉 디자인 전담 부서 보유 여부



중양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해 보면, 지자체는 ‘디자인 전담 부서가 있는’ 비율이 72.1%로 가장 높고, 중양부처는 ‘디자인 전담 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는’ 비율이 67.6%로 가장 높음.

〈표 4-3-1〉 구분별 디자인 전담 부서 보유 여부

(단위 : %)

구 분		디자인 전담 부서가 있다	디자인 전담 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다	디자인 전담 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다
중양부처 및 지자체		65.5	2.9	31.6
구 분	중양부처	17.6	14.7	67.7
	지자체	72.1	1.2	26.7



- 규모별로 보면, 모든 규모에서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고, 시/도(93.8%) 단위에서 더욱 높음.
- 예산별로는, 예산이 클수록 ‘디자인 전담 부서가 있는’ 비율이 높고, 예산이 적을수록 ‘디자인 전담 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는’ 비율이 높음.

〈표 4-3-2〉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전담 부서 보유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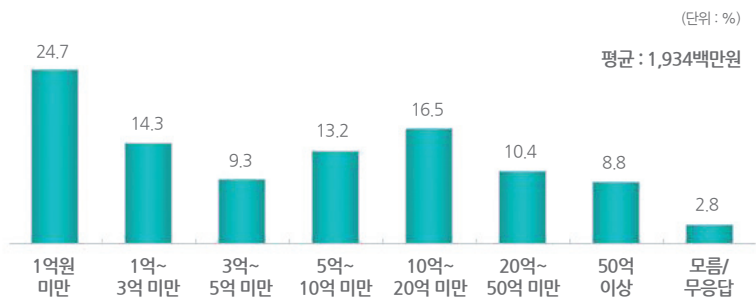
구 분		디자인 전담 부서가 있다	디자인 전담 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다	디자인 전담 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다
지자체		72.1	1.2	26.7
지자체	광역 지자체	93.8	0.0	6.2
	기초 지자체	70.6	1.3	28.1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56.7	0.0	43.3
	3천억원 미만	61.6	2.3	36.1
	5천억원 미만	74.6	1.4	24.0
	5천억원 이상	93.0	0.0	7.0



01-1. 2010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평균

- 중양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전담부서 2010년 예산은 평균 19억 3,400만원임.  
예산 규모별로 보면 ‘1억원 미만’의 비율이 24.7%로 가장 높고, 다음은 ‘10억~20억 미만’ 16.5%, ‘1억~3억 미만’ 14.3%, ‘5억~10억 미만’ 13.2% 등의 순임.

<그림 4-3-2> 2010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평균



- 중양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중양부처의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은 평균 171억 3,300만원으로 지자체 16억 7,200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음.  
세부적으로, 중양부처는 ‘50억 이상’의 비율이 33.3%로 가장 높고, 지방자치단체는 ‘1억원 미만’의 비율이 25.6%로 가장 높음.

<표 4-3-3> 구분별 2010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평균

(단위 : %, 점)								
구 분		1억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중양부처 및 지자체		24.7	14.3	9.3	13.2	16.5	10.4	8.8
구 분	중양부처	0.0	0.0	0.0	0.0	0.0	16.7	33.3
	지자체	25.6	14.8	9.7	13.6	17.0	10.2	8.0
평균 (백만원)		1,934	17,133	1,672				



+ 규모별로 보면, 광역 지자체의 2010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은 평균 98억 3,400만원으로, 기초 지자체의 디자인 전담부서 평균 예산 9억 200만원 대비 월등히 높음.

지방자치단체 예산별로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을 보면, 2천억원 미만 예산의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4억 6,800만원, 3천억원 미만은 9억 5,200만원, 5천억원 미만은 5억 3,900만원, 5천억원 이상은 38억 7,500만원임.

<표 4-3-4> 지자체별/지자체 예산별 2010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평균)

(단위 :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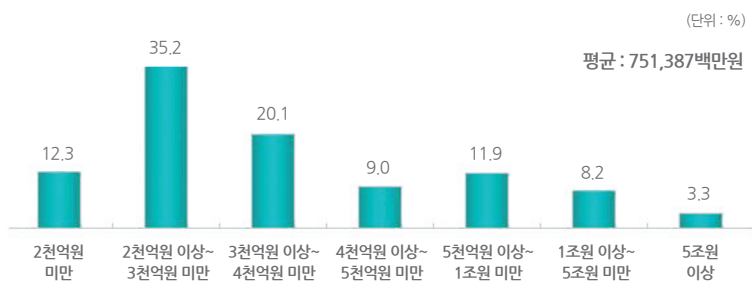
구 분		1억원 미만	1억~ 3억 미만	3억~ 5억 미만	5억~ 10억 미만	10억~ 20억 미만	20억~ 50억 미만	50억 이상	평균 (백만원)
지자체		25.6	14.8	9.7	13.6	17.0	10.2	8.0	1,672
지자체	광역 지자체	0.0	6.7	0.0	6.7	13.3	33.3	40.0	9,834
	기초 지자체	28.0	15.5	10.6	14.3	17.4	8.1	5.0	902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52.9	11.8	5.9	5.9	17.6	5.9	0.0	468
	3천억원 미만	26.4	15.1	9.4	17.0	18.9	3.8	7.5	952
	5천억원 미만	37.7	11.3	13.2	15.1	18.9	0.0	1.9	539
	5천억원 이상	3.8	18.9	7.5	11.3	13.2	28.3	17.0	3,875



01-1-1.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평균

- 2010년 지방자치단체 평균 예산은 7,513억 8,700만원임.  
세부적으로는 '3천억원 미만'이 35.2%로 가장 높고, 다음은 '4천억원 미만'(20.1%), '2천억원 미만'(12.3%), '5천억원 이상~1조원 미만'(11.9%) 등의 순임.

〈그림 4-3-3〉 2010년 지자체 예산 평균



- 디자인 전담 부서 및 디자이너 유무별로 보면, 디자인 전담부서만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 평균이 9,104억 8200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디자이너와 디자이너 전담부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평균 3,423억 2400만원), 디자이너만 있는 지방자치단체(평균 2,808억 900만원)의 순임.

〈표 4-3-5〉 전담부서별 2010년 지자체 예산 (평균)

		(단위 : %, 백만원)							
구 분		2천억원 미만	3천억원 미만	4천억원 미만	5천억원 미만	1조원 미만	5조원 미만	5조원 이상	평균 (백만원)
지자체		12.3	35.2	20.1	9.0	11.9	8.2	3.3	751,387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9.7	30.1	19.3	10.8	15.9	9.7	4.5	910,482
	디자이너만 있음	0.0	66.7	33.3	0.0	0.0	0.0	0.0	280,809
	없음	20.1	47.7	21.5	4.6	1.5	4.6	0.0	342,324



+ 지방자치단체 규모별로 보면,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평균은 5조 9,299억 7,500만원이며, 기초 지자체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평균은 3,879억 7,700만원임.

<표 4-3-6> 지자체별 2010년 지자체 예산 (평균)

(단위 : %, 백만원)

구 분		2천억원 미만	3천억원 미만	4천억원 미만	5천억원 미만	1조원 미만	5조원 미만	5조원 이상	평균 (백만원)
지자체		12.3	35.2	20.1	9.0	11.9	8.2	3.3	751,387
지자체	광역 지자체	0.0	0.0	0.0	0.0	0.0	50.0	50.0	5,929,975
	기초 지자체	13.2	37.7	21.5	9.6	12.7	5.3	0.0	387,977



01-2. 디자인 전담 부서 생성 시기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디자인 전담 부서의 생성 시기는 최근 5년(2007년 이후)이내가 93.5%임.  
'2008년'이 3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09년' 15.9%, '2011년' 15.5% 등의 순임.

<그림 4-3-4> 디자인 전담 부서 생성 시기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8년'의 비율이 37.5%로 가장 높고, 다음은 '2009년' 15.9%, '2011년' 15.4%의 순임.  
한편, 중앙부처는 생성시기로 '2005년 이전'과 '2006년'의 비율이 33.3%로 같고, 다음은 '2009년'과 '2011년'이 각각 16.7%로 같음.

<표 4-3-7> 구분별 디자인 전담 부서 생성 시기

		(단위 : %)						
구 분		2005년 이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3.8	2.7	13.2	36.3	15.9	12.6	15.5
구 분	중앙부처	33.3	33.3	0.0	0.0	16.7	0.0	16.7
	지자체	2.8	1.7	13.6	37.5	15.9	13.1	15.4



- 지방자치단체 규모별로 보면 광역 지자체 단위와 기초 지자체에서 모두 '2008년'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66.7%로 더욱 높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별로는 모든 예산범위에서 디자인 부서 생성시기로 '2008년'의 비율이 가장 많으며, 특히 5천억원 이상(49.1%)에서 더욱 높음.

〈표 4-3-8〉 지자체별/지자체 예산별 디자인 전담 부서 생성 시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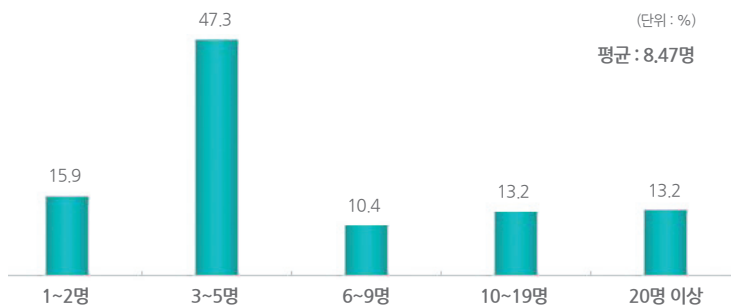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이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자체		2.8	1.7	13.6	37.5	15.9	13.1	15.4
지자체	광역 지자체	0.0	0.0	13.3	66.7	13.3	0.0	6.7
	기초 지자체	3.1	1.9	13.7	34.8	16.1	14.3	16.1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0.0	0.0	11.8	29.4	29.4	5.9	23.5
	3천억원 미만	1.9	1.9	11.3	30.2	15.1	24.5	15.1
	5천억원 미만	3.8	1.9	9.4	35.8	15.1	9.4	24.6
	5천억원 이상	3.8	1.9	20.8	49.1	13.2	7.5	3.7



01-3-1.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 + 디자인 전담부서의 직원 수는 평균 8.47명임.  
디자인 전담부서 직원이 '3~5명'인 비율이 47.3%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1~2명' 15.9%, '10~19명' 13.2%, '20명 이상' 13.2%의 순임.

<그림 4-3-5>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디자인 전담부서의 직원 수는 평균 8.53명으로 중앙부처 6.67명보다 많음.

<표 4-3-9> 구분별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단위 : %, 명)						
구 분		1~2명	3~5명	6~9명	10~19명	20명 이상
중앙부처 및 지자체		15.9	47.3	10.4	13.2	13.2
구 분	중앙부처	33.3	16.7	33.3	16.7	0.0
	지자체	15.3	48.3	9.7	13.1	13.6
평균(명)		8.47	6.67	8.53		



- 지방자치단체 규모별로는,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평균 디자인 전담부서 직원 수가 13.60명으로 기초 지자체의 평균 8.06명 대비 많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별로 보면, 2천억원 미만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디자인 전담부서 직원 수가 평균 9.65명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5천억원 이상(9.47명), 3천억원 미만(8.79명), 5천억원 미만(6.98명)의 순임.

〈표 4-3-10〉 지자체별/지자체 예산별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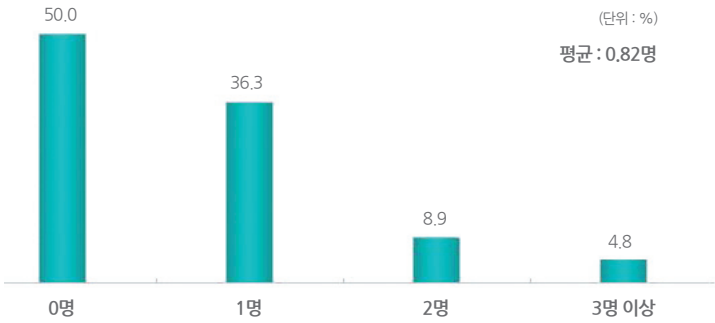
구 분		1~2명	3~5명	6~9명	10~19명	20명 이상	평균(명)
지자체		15.3	48.3	9.7	13.1	13.6	8.53
지자체	광역 지자체	6.7	53.3	6.7	20.0	13.3	13.60
	기초 지자체	16.1	47.8	10.0	12.4	13.7	8.06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17.6	35.3	11.8	11.8	23.5	9.65
	3천억원 미만	15.1	52.8	3.8	13.2	15.1	8.79
	5천억원 미만	13.2	58.5	13.2	1.9	13.2	6.98
	5천억원 이상	17.0	37.7	11.4	24.5	9.4	9.47



01-3-2. 디자이너 수 (평균)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디자이너의 수는 평균 0.82명임.  
디자이너가 없는 '0명'(50%)의 비율이 50%로 가장 높으며, '1명'은 36.3%, '2명'이 8.9%, '3명 이상'은 4.8%임.

〈그림 4-3-6〉 디자이너 수 (평균)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중앙부처는 평균 2.00명으로 지자체 평균 0.74명보다 많음.  
디자인 전담부서 유무별로 보면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는 평균 0.80명,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는 1.13명으로 전담부서 없이 디자이너만 있는 정부기관의 디자이너 수가 더 많음.

〈표 4-3-11〉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이너 수 (평균)

(단위 :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평균(명)
중앙부처 및 지자체		50.0	36.3	8.9	4.8	0.82
구 분	중앙부처	36.4	36.4	18.2	9.0	2.00
	지자체	50.8	36.3	8.4	4.5	0.74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52.2	34.1	8.8	4.9	0.80
	디자이너만 있음	0.0	87.5	12.5	0.0	1.13
	없음	-	-	-	-	-



- + 규모별로 보면, 광역 지자체의 디자이너 수가 평균 2.13명으로 기초 지자체(0.62명)보다 많음.  
예산별로는 5천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이너 수가 평균 1.2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천억원 미만(0.67명), 5천억원 미만(0.46명), 2천억원 미만(0.35명)순임.

〈표 4-3-12〉 지자체별/지자체 예산별 디자이너 수 (평균)

(단위 : %,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평균(명)
지자체		50.8	36.3	8.4	4.5	0.74
지자체	광역 지자체	46.7	13.3	13.3	26.7	2.13
	기초 지자체	51.2	38.4	7.9	2.5	0.62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64.7	35.3	0.0	0.0	0.35
	3천억원 미만	45.5	45.5	5.5	3.5	0.67
	5천억원 미만	61.1	33.3	3.7	1.9	0.46
	5천억원 이상	41.5	30.2	18.9	9.4	1.23



01-4.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공공디자인 담당 사업 부서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중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에 공공디자인을 사업 담당하는 곳으로, ‘기획감사실-기획팀’(5.2%)의 비율이 가장 높음. 그 외에 건축계, 건설도시과, 홍보담당관실, 정책홍보담당관실, 건축문화경관팀 등이 있으며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하는 곳은 다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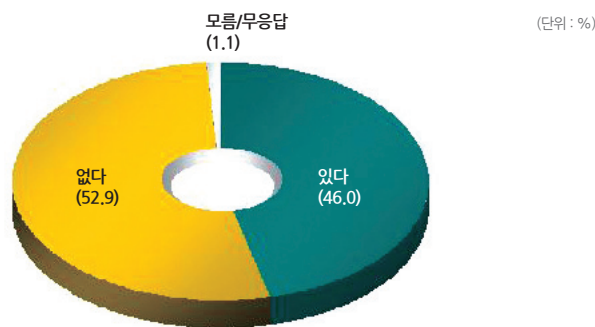
구 분	전체	구 분	전체
전 체	100.0	전 체	100.0
기획감사실-기획팀	5.2	민원봉사과-건축계	1.0
기획감사실	3.1	지역경제마케팅과-도시계획팀	1.0
건축과-건축계	2.1	건설도시과	1.0
건설도시과-도시개발팀	2.1	건설도시과-도시팀	1.0
홍보담당관실	2.1	경제도시과-지역계획계	1.0
대변인실-정책홍보담당관실	2.1	도시개발과-건축계	1.0
건축문화경관팀	1.0	도시개발과-도시팀	1.0
생활공간정책과	1.0	도시개발과-건축허가팀	1.0
경관녹지와-광고물팀	1.0	도시행정과-도시개발팀	1.0
도시과	1.0	지역경제과	1.0
도시과-도시미관팀	1.0	지역경제과-새마을경제담당	1.0
도시과-도시계획팀	1.0	지역개발건축과-건축계	1.0
도시과-도시개발팀	1.0	건설교통과-도시계획팀	1.0
도시과-경비팀	1.0	기획감사실-시책2팀	1.0
도시주택과-건축계	1.0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1.0
도시주택과-도시행정팀	1.0	도시관리과-도시계획팀	1.0
건축과-건축행정팀	1.0	도시관리과-도시경비담당	1.0
건축과-경관담당	1.0	도시계획상임기획단	1.0
건축과-테라노바팀	1.0	태안군청-도시건축과-주택팀	1.0
건축과-도시경관팀	1.0	기획감사실-홍보계	1.0
경제과-기업지원팀	1.0	기획감사실-기획과	1.0
지역개발과	1.0	기획감사실-기획팀	1.0
지역개발과-도시계획팀	1.0	지역개발실-환경인허가팀	1.0
지역개발과-건축계	1.0	건설국-도시공원과-공원시설계	1.0
지역개발과-경관개발팀	1.0	도시국-건축과-건축계	1.0
지역개발과-도시팀	1.0	도시환경국-도시과	1.0
지역개발과-지역계획계	1.0	도시교통국-도시재생추진단-도시활성화팀	1.0
지역개발과-지역개발담당	1.0	건설방재국-지역도시과-국토이용담당	1.0
지역개발과-경관도시계획담당	1.0	홍보기획담당관실	1.0
문화관광과-관광개발계	1.0	시설담당관실	1.0
문화관광과-관광진흥계	1.0	대변인실-홍보담당과	1.0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계	1.0	창의성과담당관실	1.0
공원산림과-경관관리계	1.0	정보화담당관실	1.0
도시건축과-건축계	1.0	세정홍보과	1.0
건설과-도시개발팀	1.0	없다	17.3
건설과-도시팀	1.0	모름/무응답	1.0
외부기술팀	1.0		



0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46.0%이며,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없는 경우는 52.9%임.

〈그림 4-3-7〉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응답은 각각 51.2%, 64.7%로,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다는 응답(각각 48.8%, 26.5%)보다 많음. 지자체(48.8%)가 상대적으로 중앙부처(26.5%)보다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을 많이 갖추고 있음.

디자인 전담부서 유무별로는,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다는 응답이 61.5%로 없다는 비율(38.5%)을 앞선 반면, 디자이너만 있는 정부기관은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유무 비율이 각각 50.0%임.

〈표 4-3-14〉 구분별/전담부서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단위 : %)

구 분		있다	없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46.0	52.9
구분	중앙부처	26.5	64.7
	지자체	48.8	51.2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61.5	38.5
	디자이너만 있음	50.0	50.0
	없음	13.6	83.0



+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광역 지자체에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는 비율이 93.8%로 높고, 기초 지자체에서는 없는 비율이 54.4%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3-15>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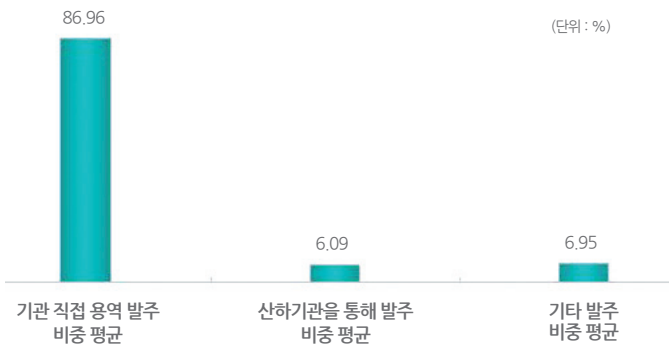
구 분		있다	없다
지자체		48.8	51.2
지자체	광역 지자체	93.8	6.2
	기초 지자체	45.6	54.4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36.7	63.3
	3천억원 미만	32.6	67.4
	5천억원 미만	43.7	56.3
	5천억원 이상	86.0	14.0



03.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별 비율

- + 디자인 관련 예산 집행 시 기관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는 비율은 기관 평균 86.96%,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하는 비율은 평균 6.09%임.  
그 외 기타 발주 비율은 평균 6.95%임.

〈그림 4-3-8〉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별 비율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기관 직접 용역 발주’의 비율이 각각 89.26%, 70.58%로 가장 높음.  
디자인 전담부서의 유무별로는 전담부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기관 직접 용역 발주’의 비율이 80.0% 내외로 가장 높고, 디자이너만 있는 기관은 ‘산하기관을 통한’다는 비율이 16.25%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3-16〉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별 비율

구 분		(단위 : %)		
		기관 직접 용역 발주 비중 평균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 비중 평균	기타 발주 비중 평균
중앙부처 및 지자체		86.96	6.09	6.95
구분	중앙부처	70.58	8.27	21.15
	지자체	89.26	5.78	4.96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88.28	6.91	4.81
	디자이너만 있음	73.75	16.25	10.00
	없음	84.51	1.16	14.33



+ 규모별로 보면, 모두에서 '기관 직접 용역 발주'의 비율이 85.0% 이상으로 '산하기관'을 통하는 비율보다 높음. 한편, '산하기관'을 통하는 비율은 광역 지자체(13.1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예산별로는, 모든 예산규모에서 '기관 직접 용역 발주'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3천억원 미만'(91.0%)에서 더욱 높음.

〈표 4-3-17〉 지자체별/지자체 예산별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별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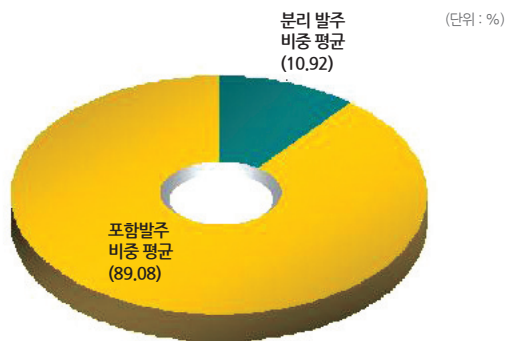
구 분		기관 직접 용역 발주 비중 평균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 비중 평균	기타 발주 비중 평균
지자체		89.26	5.78	4.96
지자체	광역 지자체	86.88	13.12	0.00
	기초 지자체	89.49	5.09	5.42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88.13	1.88	9.99
	3천억원 미만	91.00	5.33	3.67
	5천억원 미만	88.04	4.81	7.15
	5천억원 이상	88.91	8.36	2.73



#### 04. 디자인 발주 방법별 비율

- + 공공디자인이 포함된 사업을 발주할 때, 디자인 사업과 설계 시공 등이 포함된 '포함 발주' 비중은 평균 89.08%로 매우 높으며, '분리 발주' 응답 비율은 10.92%임.

〈그림 4-3-9〉 디자인 발주 방법별 비율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포함 발주'의 비중이 각각 80.00%, 90.08%로 '분리발주'에 비해 크게 앞서며, '분리 발주' 비중은 중앙부처(20.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디자인 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포함 발주'의 비중이 80.0%이상으로 매우 높음. 한편, '분리 발주'의 비중은 디자이너만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14.2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3-18〉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발주 방법별 비율

(단위 : %)

구 분		분리발주 비중 평균	포함발주 비중 평균
중앙부처 및 지자체		10.92	89.08
구분	중앙부처	20.00	80.00
	지자체	9.92	90.08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10.23	89.77
	디자이너만 있음	14.29	85.71
	없음	12.93	87.07



+ 규모별로 보면, 모든 단위에서 80.0% 이상이 ‘포함 발주’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광역 지자체(92.67%)에서 더욱 높음.  
 지자체 예산별로 보면, 모든 예산 단위에서 ‘포함 발주’의 비중이 90.0% 내외로 ‘분리 발주’에 비해 크게 앞서는 가운데, 특히 2천억원 미만(95.63%)에서 더욱 높음.

<표 4-3-19> 지자체별/지자체 예산별 디자인 발주 방법별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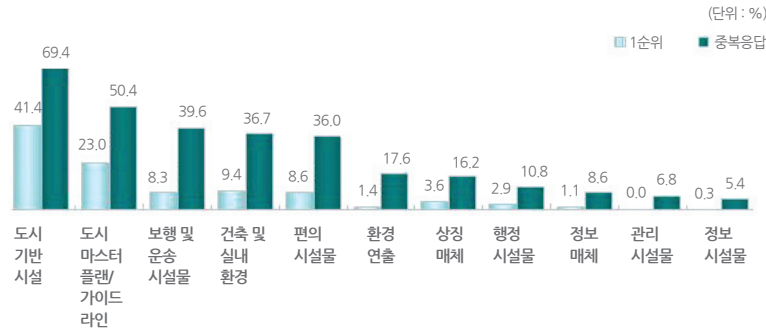
구 분		분리발주 비중 평균	포함발주 비중 평균
지자체		9.92	90.08
지자체	광역 지자체	7.33	92.67
	기초 지자체	10.15	89.85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4.37	95.63
	3천억원 미만	7.93	92.07
	5천억원 미만	8.77	91.23
	5천억원 이상	14.91	85.09



05.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 공공디자인 사업 중 우선되어야 할 정책(중복응답 기준)은 ‘도시기반시설’이 69.4%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도시마스터플랜 및 가이드라인’(50.4%), ‘보행 및 운송 시설물’(39.6%), ‘건축 및 실내환경’(36.7%) 등의 순임.

〈그림 4-3-10〉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중앙부처는 ‘편의 시설물’이 44.1%로 가장 높은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기반 건설’ 74.2%로 가장 높음.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도시기반시설’이 73.1%로 가장 높고, 디자이너만 있는 기관은 ‘건축 및 실내 환경’이 50.0%로 가장 높음.  
한편, 디자이너와 디자인 전담부서가 모두 없는 기관은 ‘도시기반시설’이 67.0%로 가장 높음.

〈표 4-3-20〉 구분별/전담부서별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구분		도시 기반 시설	도시 마스터 플랜/ 가이드 라인	보행 및 운송 시설물	건축 및 실내 환경	편의 시설물	환경 연출	상징 매체	행정 시설물	정보 매체	관리 시설물	정보 시설물
중앙부처 및 지자체		69.4	50.4	39.6	36.7	36.0	17.6	16.2	10.8	8.6	6.8	5.4
구분	중앙부처	35.3	32.4	29.4	32.4	44.1	5.9	35.3	17.6	17.6	8.8	23.5
	지자체	74.2	52.9	41.0	37.3	34.8	19.3	13.5	9.8	7.4	6.6	2.9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73.1	52.7	44.5	33.5	37.4	18.7	12.1	8.8	8.2	7.1	3.8
	디자이너만 있음	12.5	37.5	25.0	50.0	37.5	25.0	37.5	25.0	25.0	0.0	25.0
	없음	67.0	46.6	30.7	42.0	33.0	14.8	22.7	13.6	8.0	6.8	6.8



+ 규모별로 보면, 모든 단위에서 ‘도시기반 시설’을 꼽은 응답이 높으며, 특히 광역  
 지자체(75.0%)에서 더욱 높음. 또한, ‘도시마스터 플랜/가이드라인’을 꼽은 응답도 광역  
 지자체(75.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예산별로 보면, 모든 단위에서 ‘도시기반 시설’이 70.0% 내외로 높으며, 특히, 5천억원  
 미만(77.5%)에서 더욱 높음.

<표 4-3-21> 지자체별/지자체 예산별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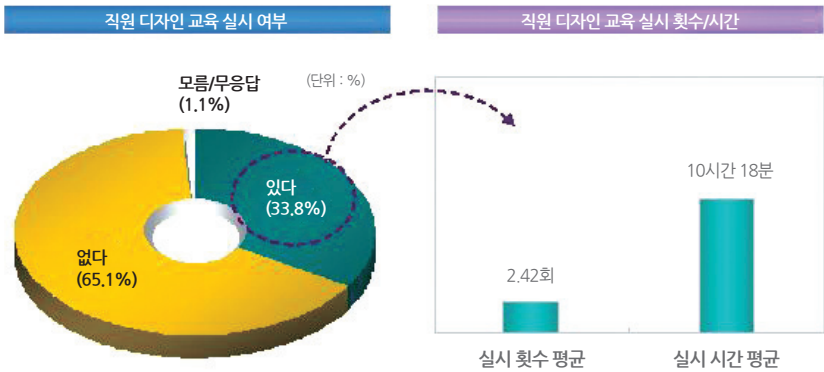
구 분		도시 기반 시설	도시 마스터 플랜/ 가이드 라인	보행 및 운송 시설물	건축 및 실내 환경	편의 시설물	환경 연출	상징 매체	행정 시설물	정보 매체	관리 시설물	정보 시설물
지자체		74.2	52.9	41.0	37.3	34.8	19.3	13.5	9.8	7.4	6.6	2.9
지자체	광역 지자체	75.0	75.0	50.0	31.3	18.8	18.8	0.0	6.3	12.5	6.3	6.3
	기초 지자체	74.1	51.3	40.4	37.7	36.0	19.3	14.5	10.1	7.0	6.6	2.6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73.3	53.3	36.7	43.3	40.0	6.7	23.3	3.3	10.0	6.7	3.3
	3천억원 미만	75.6	48.8	37.2	38.4	37.2	19.8	14.0	12.8	5.8	7.0	2.3
	5천억원 미만	77.5	46.5	43.7	38.0	38.0	22.5	12.7	8.5	7.0	2.8	2.8
	5천억원 이상	68.4	66.7	45.6	31.6	24.6	21.1	8.8	10.5	8.8	10.5	3.5



06. 2010년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 2010년 한 해 동안 직원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 기관 비율은 33.8%임.  
직원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기관의 연간 교육 실시 횟수는 평균 2.42회, 연간 총 교육 시간은 평균 10시간 18분임

〈그림 4-3-11〉 2010년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직원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한편, 직원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횟수는 중앙부처(평균 3.00회)가, 교육 시간은 지자체(평균 10시간 25분)가 상대적으로 높음. 디자인 전담부서 유무에 관계없이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실시한 경우 평균 횟수와 평균 교육 시간은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이 각각 2.50회, 11시간 20분으로 높음.

〈표 4-3-22〉 구분별/전담부서별 2010년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구 분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횟수/시간	
		있다	없다	횟수 평균(회)	시간 평균(시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33.8	65.1	2.42	10시간 18분
구분	중앙부처	14.7	79.4	3.00	7시간 45분
	지자체	36.5	63.1	2.40	10시간 25분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44.5	54.9	2.50	11시간 20분
	디자인너만 있음	25.0	75.0	1.00	2시간
	없음	12.5	85.2	2.10	3시간 48분



+ 규모별로 보면, 광역지자체에서는 직원디자인 교육 실시 비율이 75.0%로 높은 반면, 기초지자체에서는 직원디자인 교육 실시하지 않은 비율이 65.8%로 상대적으로 높아 단위별로 차이를 보임.

예산별로 보면, 5천억원 이상 기관을 제외한 모든 예산 규모에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비율이 높으며, 특히 2천억원 미만(70.0%)에서 더욱 높음. 한편, 5천억원 이상 기관은 교육 실시 비율이 52.6%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비율 47.4%보다 높음.

<표 4-3-23> 지자체별/지자체 예산별 2010년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단위 : %, 회,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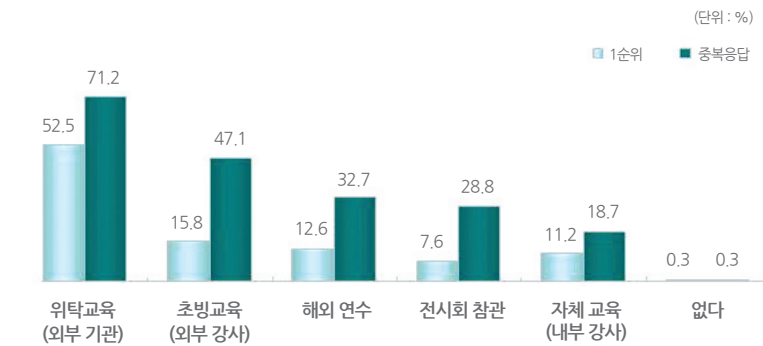
구 분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횟수/시간	
		있다	없다	횟수 평균(회)	시간 평균(시간)
지자체		36.5	63.1	2.40회	10시간 25분
지자체	광역 지자체	75.0	25.0	4.17	19시간 35분
	기초 지자체	33.8	65.8	2.12	8시간 58분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30.0	70.0	2.11	14시간 13분
	3천억원 미만	30.2	69.8	1.80	3시간 50분
	5천억원 미만	33.8	64.8	2.38	8시간 32분
	5천억원 이상	52.6	47.4	3.00	16시간 16분



07.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직원 디자인 교육 방식

+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직원 디자인 교육 방식으로 '위탁교육'(71.2%)을 가장 선호함. 다음은 '초빙교육'(47.1%), '해외 연수'(32.7%), '전시회 참관'(28.8%) 등의 순임.

〈그림 4-3-12〉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직원 디자인 교육 방식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외부기관 위탁교육'이 70.0%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특히, 중앙부처(79.4%)에서 더욱 높음. '외부강사 초빙교육'(48.0%)과 '해외연수'(34.4%)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디자인 전담부서 유무에 관계없이,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꼽은 응답이 가장 높으며, 특히 전담부서와 디자이너가 모두 없는 경우(85.2%)에서 더욱 높음.

〈표 4-3-24〉 구분별/전담부서별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직원 디자인 교육 방식

구분		위탁교육 (외부 기관)	초빙교육 (외부 강사)	해외 연수	전시회 참관	자체 교육 (내부 강사)
중앙부처 및 지자체		71.2	47.1	32.7	28.8	18.7
구분	중앙부처	79.4	41.2	20.6	41.2	14.7
	지자체	70.1	48.0	34.4	27.0	19.3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64.3	48.4	36.8	25.8	23.1
	디자이너만 있음	75.0	50.0	25.0	37.5	12.5
	없음	85.2	44.3	25.0	34.1	10.2



+ 규모별로 보면, 모든 규모에서 '외부기관 위탁교육'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한편, '외부강사 초빙교육'은 기초 지자체(48.2%)에서, '해외연수'는 광역 지자체(5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예산별로 보면, 모든 단위에서 '외부기관 위탁교육' 응답이 가장 높으며, 그 가운데 특히 5천억원 미만(78.9%)에서 더욱 높음. '외부강사 초빙교육'은 3천억원 미만(53.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3-25> 지자체별/지자체 예산별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직원 디자인 교육 방식

(단위 : %, 중복응답)

구 분		위탁교육 (외부 기관)	초빙교육 (외부 강사)	해외 연수	전시회 참관	자체 교육 (내부 강사)
지자체		70.1	48.0	34.4	27.0	19.3
지자체	광역 지자체	62.5	43.8	50.0	12.5	18.8
	기초 지자체	70.6	48.2	33.3	28.1	19.3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73.3	40.0	26.7	26.7	33.3
	3천억원 미만	66.3	53.5	32.6	23.3	24.4
	5천억원 미만	78.9	46.5	33.8	29.6	11.3
	5천억원 이상	63.2	45.6	42.1	29.8	14.0



## IV

### 조사결과

#### 4. 교육통계 (문헌조사)



01. 대학(원)의 디자인과 보유 학교 및 학과 현황

- + 예체능 계열<sup>13</sup> 중 학사 과정에 디자인학과가 있는 학교는 총 220개, 석사 과정에 디자인 학과가 있는 학교는 총 135개, 박사 과정에 디자인 학과가 있는 학교는 총 39개임.
- 비예체능 계열<sup>14</sup> 중 학사 과정에 디자인학과가 있는 학교는 58개, 석사 과정에 디자인 학과가 있는 학교는 23개, 박사 과정에 디자인 학과가 있는 학교는 8개임.

13) KEDI 학과분류체계 기준, 예체능 계열(대계열) > 디자인(중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일체.

14) KEDI 학과분류체계 기준, 예체능 계열(대계열) > 디자인(중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디자인 학과.

<표 4-4-1> 2010년 대학(원)의 디자인과 보유 학교 수

학교구분	예체능 계열			비예체능 계열		
	학사	석사	박사	학사	석사	박사
총합계	220	135	39	58	23	8
전문대학(2년제)	79			27		
전문대학(3년제)	28			5		
대학교	104			24		
산업대학	9			2		
일반대학원		61	33		8	7
전문대학원		10	6		2	1
특수대학원		64			13	

- + 예체능 계열 디자인 관련 학과 수는 학부, 석 박사 과정을 포함하여 총 1,295개임. 학부과정의 예체능 계열 디자인 학과 수는 983개, 석사과정은 256개, 박사과정은 56개임.
- + 학교 구분별로는 2년제 전문대학의 예체능 계열 디자인 학과 수가 420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대학교 408개, 특수대학원 145개, 일반대학원 128개, 전문대학(3년제) 94개 등의 순임.
- 소계열 구분별로는 기타디자인 학과가 663개로 가장 많고, 이어 산업디자인 학과(208개), 시각디자인 학과(169개), 패션디자인 학과(159개), 디자인일반 학과(96개) 순임.



〈표 4-4-2〉 2010년 대학(원)의 예체능 계열 소계열별/학교구분별 디자인 학과 수

(단위 : 개)

학교구분		예체능 계열 디자인 학과 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총합계
총합계		983	256	56	1,295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2년제)	420			420
	전문대학(3년제)	94			94
	대학교	408			408
	산업대학	61			61
	일반대학원		89	39	128
	전문대학원		22	17	39
	특수대학원		145		145
소계열별	디자인일반	49	32	15	96
	산업디자인	153	48	7	208
	시각디자인	143	23	3	169
	패션디자인	128	27	4	159
	기타디자인	510	126	27	663

✚ 비예체능 계열 디자인 관련 학과 수는 학부, 석 박사 과정을 포함하여 총 142개임. 학부과정의 학과 수는 110개, 석사과정은 24개, 박사과정은 8개임, 학교 구분별로는 2년제 전문대학의 비디자인 계열 디자인 관련 학과 수가 53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대학교 41개 등의 순임.

〈표 4-4-1〉 2010년 대학(원)의 비예체능 계열 학교구분별 디자인 학과 수

(단위 : 개)

학교구분		비예체능 계열 디자인 학과 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총합계
총합계		110	24	8	142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2년제)	53			53
	전문대학(3년제)	7			7
	대학교	41			41
	산업대학	9			9
	일반대학원		8	7	15
	전문대학원		2	1	3
	특수대학원		14		14



02. 2010년 대학(원) 디자인학과 학생 현황

(1) 재적학생 수

- 2010년 디자인학과 총 재적 학생 수는 132,196명임.  
그 중 학부 학생 수는 125,967명, 석사과정 학생 수는 5,391명, 박사과정 학생 수는 838명임.
- 계열별로는 예체능 계열 디자인학과 재적 학생 수가 125,531명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함.  
학교 구분별로는 일반대학의 디자인학과 재적 학생 수가 64,780명으로 가장 많음.

〈표 4-4-4〉 2010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계열별 디자인학과 재적학생 수

(단위 :명)

구 분		재적학생 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전체	사회계열	819	246	30	1,095
	교육계열	-	110	-	110
	공학계열	4,013	50	24	4,087
	자연계열	1,361	10	2	1,373
	예체능계열	119,774	4,975	782	125,531
	총계	125,967	5,391	838	132,196
전문 대학	사회계열	601	-	-	601
	공학계열	644	-	-	644
	자연계열	292	-	-	292
	예체능계열	53,669	-	-	53,669
	소계	55,206	-	-	55,206
일반 대학	사회계열	188	-	-	188
	공학계열	2,872	-	-	2,872
	자연계열	1,069	-	-	1,069
	예체능계열	60,651	-	-	60,651
	소계	64,780	-	-	64,780
산업 대학	사회계열	30	-	-	30
	공학계열	497	-	-	497
	예체능계열	5,454	-	-	5,454
	소계	5,981	-	-	5,981
대학원	사회계열	-	246	30	276
	교육계열	-	110	-	110
	공학계열	-	50	24	74
	자연계열	-	10	2	12
	예체능계열	-	4,975	782	5,757
	소계	-	5,391	838	6,229

\*조사기준일 : 2010년 4월 1일



## (2) 재학생 수

- 2010년 디자인학과 총 재학생 수는 92,321명임.  
그 중 학부 재학생 수는 87,293명, 석사과정 재학생 수는 4,332명, 박사과정 재학생 수는 696명임.
- 계열별로는 예체능 계열 디자인학과 재학생 수가 87,87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학교 구분별로는 일반대학의 디자인학과 재학생 수가 48,049명으로 가장 많음.

〈표 4-4-5〉 2010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amp;계열별 디자인학과 재학생수

(단위 : 명)

구분		재적학생 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전체	사회계열	571	194	28	793
	교육계열	-	106	-	106
	공학계열	2,408	46	21	2,475
	자연계열	1,068	6	1	1,075
	예체능계열	83,246	3,980	646	87,872
	총계	87,293	4,332	696	92,321
전문 대학	사회계열	383	-	-	383
	공학계열	202	-	-	202
	자연계열	223	-	-	223
	예체능계열	34,306	-	-	34,306
	소계	35,114	-	-	35,114
일반 대학	사회계열	160	-	-	160
	공학계열	1,870	-	-	1,870
	자연계열	845	-	-	845
	예체능계열	45,174	-	-	45,174
	소계	48,049	-	-	48,049
산업 대학	사회계열	28	-	-	28
	공학계열	336	-	-	336
	예체능계열	3,766	-	-	3,766
	소계	4,130	-	-	4,130
대학원	사회계열	-	194	28	222
	교육계열	-	106	-	106
	공학계열	-	46	21	67
	자연계열	-	6	1	7
	예체능계열	-	3,980	646	4,626
	소계	-	4,332	696	5,028

\*조사기준일 : 2010년 4월 1일



(3) 입학자 수

- 2010년 디자인학과 총 입학자 수는 34,461명임.  
그 중 학부 입학자 수는 32,091명, 석사과정 입학자 수는 2,025명, 박사과정 입학자 수는 345명임.
- 계열별로는 예체능 계열 디자인학과 입학자 수가 33,009명임.  
학교 구분별로는 전문대학 디자인학과 입학자 수가 18,385명으로 일반대학(12,976명)보다 많음.

<표 4-4-6> 2010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계열별 디자인학과 입학자 수

(단위 : 명)

구 분		입학자 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전체	사회계열	311	71	15	397
	교육계열	-	30	-	30
	공학계열	588	22	7	617
	자연계열	403	4	1	408
	예체능계열	30,789	1,898	322	33,009
	총계	32,091	2,025	345	34,461
전문 대학	사회계열	239	-	-	239
	공학계열	-	-	-	-
	자연계열	138	-	-	138
	예체능계열	18,008	-	-	18,008
	소계	18,385	-	-	18,385
일반 대학	사회계열	72	-	-	72
	공학계열	501	-	-	501
	자연계열	265	-	-	265
	예체능계열	12,138	-	-	12,138
	소계	12,976	-	-	12,976
산업 대학	사회계열	-	-	-	-
	공학계열	87	-	-	87
	예체능계열	643	-	-	643
	소계	730	-	-	730
대학원	사회계열	-	71	15	86
	교육계열	-	30	-	30
	공학계열	-	22	7	29
	자연계열	-	4	1	5
	예체능계열	-	1,898	322	2,220
	소계	-	2,025	345	2,370

\*조사기준일 : 2010년 4월 1일



#### (4) 졸업자 수

- + 2011년 디자인학과 총 졸업자 수는 25,276명임.  
 그 중 학부 졸업자 수는 23,912명, 석사과정 졸업자 수는 1,262명, 박사과정 졸업자 수는 102명임.
- + 계열별로는 예체능 계열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가 24,205명이며, 사회계열 등 비예체능계열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는 1,071명임.
- + 학교 구분별로는 전문대학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가 12,985명으로, 일반대학 졸업자 9,901명 보다 많음.

〈표 4-4-7〉 2010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계열별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

(단위 : 명)

구 분		졸업자 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전체	사회계열	133	71	4	208
	교육계열	-	38	-	38
	공학계열	614	22	3	639
	자연계열	184	2	-	186
	예체능계열	22,981	1,129	95	24,205
	총계	23,912	1,262	102	25,276
전문 대학	사회계열	123	-	-	123
	공학계열	188	-	-	188
	자연계열	77	-	-	77
	예체능계열	12,597	-	-	12,597
	소계	12,985	-	-	12,985
일반 대학	사회계열	-	-	-	-
	공학계열	372	-	-	372
	자연계열	107	-	-	107
	예체능계열	9,422	-	-	9,422
	소계	9,901	-	-	9,901
산업 대학	사회계열	10	-	-	10
	공학계열	54	-	-	54
	예체능계열	962	-	-	962
	소계	1,026	-	-	1,026
대학원	사회계열	-	71	4	75
	교육계열	-	38	-	38
	공학계열	-	22	3	25
	자연계열	-	2	-	2
	예체능계열	-	1,129	95	1,224
	소계	-	1,262	102	1,364

\*조사기준일 : 2011년 4월 1일



(5) 취업자 수

- 2010학년도 디자인학과 총 취업자 수는 11,304명임.  
그 중 학부 취업자 수는 10,489명, 석사과정 취업자 수는 748명, 박사과정 취업자 수는 67명임.
- 계열별로는 예체능 계열 디자인학과 취업자 수가 10,676명임.  
학교 구분별로는 전문대학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가 5,564명으로 가장 많음.

〈표 4-4-8〉 2010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계열별 디자인학과 취업자 수

(단위 : 명)

구 분		취업자 수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전체	사회계열	67	55	3	125
	교육계열	-	27	-	27
	공학계열	402	17	-	419
	자연계열	57	-	-	57
	예체능계열	9,963	649	64	10,676
	총계	10,489	748	67	11,304
전문 대학	사회계열	59	-	-	59
	공학계열	124	-	-	124
	자연계열	11	-	-	11
	예체능계열	5,370	-	-	5,370
	소계	5,564	-	-	5,564
일반 대학	사회계열	-	-	-	-
	공학계열	246	-	-	246
	자연계열	46	-	-	46
	예체능계열	4,146	-	-	4,146
	소계	4,438	-	-	4,438
산업 대학	사회계열	8	-	-	8
	공학계열	32	-	-	32
	예체능계열	447	-	-	447
	소계	487	-	-	487
대학원	사회계열	-	55	3	58
	교육계열	-	27	-	27
	공학계열	-	17	-	17
	자연계열	-	-	-	-
	예체능계열	-	649	64	713
	소계	-	748	67	815

\*조사기준일 : 2011년 4월 1일



## (6) 취업률

## + 2010학년도 디자인학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44.7%임.

학부 졸업자의 취업률은 43.9%, 석사 졸업자의 취업률은 59.3%, 박사 졸업자의 취업률은 65.7%로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음.

## + 계열별로보면, 예체능계열 디자인학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44.1%로, 교육계열 디자인학과 졸업자의 취업률(71.1%), 공학계열 디자인학과 졸업자의 취업률(65.6%), 사회계열 디자인학과 졸업자의 취업률(60.1%) 보다 낮은 수준임.

학교 부분별 디자인학과 취업률은 대학원이 59.8%로 가장 높고, 이어 산업대학(47.5%), 일반대학(44.8%), 전문대학(42.8%) 순임.

〈표 4-4-9〉 2010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amp;계열별 디자인학과 취업률

(단위 : %)

구 분		취업률			
		학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전체	사회계열	50.4	77.5	75.0	60.1
	교육계열	-	71.1	-	71.1
	공학계열	65.5	77.3	-	65.6
	자연계열	31.0	-	-	30.6
	예체능계열	43.4	57.5	67.4	44.1
	총계	43.9	59.3	65.7	44.7
전문 대학	사회계열	48.0	-	-	48.0
	공학계열	66.0	-	-	66.0
	자연계열	14.3	-	-	14.3
	예체능계열	42.6	-	-	42.6
	소계	42.8	-	-	42.8
일반 대학	사회계열	-	-	-	-
	공학계열	66.1	-	-	66.1
	자연계열	43.0	-	-	43.0
	예체능계열	44.0	-	-	44.0
	소계	44.8	-	-	44.8
산업 대학	사회계열	80.0	-	-	80.0
	공학계열	59.3	-	-	59.3
	예체능계열	46.5	-	-	46.5
	소계	47.5	-	-	47.5
대학원	사회계열	-	77.5	75.0	77.3
	교육계열	-	71.1	-	71.1
	공학계열	-	77.3	-	68.0
	자연계열	-	-	-	-
	예체능계열	-	57.5	67.4	58.3
	소계	-	59.3	65.7	59.8

\*조사기준일: 2011년 4월 1일







V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 01. 연구 필요성

- ✚ 우리나라는 디자인이 산업의 가치 혁신과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디자인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오고 있음

  -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였던 우리나라 산업은 발전을 거듭, 최근에는 기술융합적 산업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디자인산업도 이러한 변화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제품의 외관지향적 단계에서 최근에는 삶의 질 향상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인간지향적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음
- ✚ 최근 감성소비시대의 도래는 인간지향적 디자인이 국가와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소비자의 개인별 취향에 부응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감성에 호소하는 디자인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한 대표적인 글로벌기업들은 CEO와 별도로 CDO(Chief Design Officer)를 임명하여 디자인경영에 주력하는 움직임을 보여 옴
  - 또한 디자인업계의 통합·컨설팅 기업화 추세가 시도되어, 단품위주의 디자인용역 판매업체에서 시장조사, 디자인개발, 마케팅 등 디자인경영에 필요한 종합 디자인컨설팅업체로 발전해 가고 있음
  - 특히, 패션·생활용품 디자이너가 휴대폰·가전제품·조명디자인에 진출하는 등 디자인 분야 간 교류 현상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개인의 차별화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디자인 기술발전 외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이 부문의 투자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영국 등 디자인 선진국들도 공공건축물, 도시환경개선에서부터 교육, 환경, 행정시스템 개선 등 공공분야 전반에 디자인개념을 적용해 발전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움직임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지속가능 디자인 등 환경분야 이슈가 디자인산업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음.<sup>15)</sup>
- ✚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패러다임은 그 기반이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됨

  - 디자인의 역할이 단순 제품 판매에서 이제는 경험의 가치를 판매하는 수단으로 변화됨

15) 유럽의 경우 WEEE(폐전자제품 처리지침), ELV(폐차처리지침) 등 환경규제 강화로 제품디자인에도 환경친화성 강조



〈표 5-1〉 디자인산업의 패러다임

구분	과거	미래
디자인의 역할	수출 진흥 수단	삶의 질 향상 수단
디자인의 대상	제품	생활환경(국가,기업) 이미지
디자인산업의 성격	제조업 지원 사업 (제조업체 단순용역)	지식서비스 산업 (Total solution 제공)
판매대상	제품(기능과 품질)	경험가치(제품+서비스+이미지)
디자인의 대상	시각을 통한 물성	오감을 통한 감성
주 부가가치	생산(조립,가공) 단계 Made in Korea	생산 전 단계(R&D, 디자인) 생산 후 단계(물류, 마케팅) Designed in Korea

- ✚ 1950년~60년대 기업전략의 핵심은 생산이었으며 단순화, 전문화, 표준화가 전략적 목표였음

-그러나 1970년대 접어들면서 기업전략의 초점이 생산에서 마케팅으로 이동되었으며 과거 생산활동의 부속기능이었던 디자인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부각됨

-전략적 목표는 여전히 세분화, 전문화이며 수출증진의 수단으로 시작한 디자인분야 진흥 정책은 2000년대 들어 지식서비스산업의 핵심 분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디자인 산업은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게 됨

-향후 꾸준한 발전이 예상되며, 이미 해외에서도 경쟁력 10위권 내의 디자인 강국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디자인산업의 규모와 기업의 디자인 투자 등은 아직 디자인 선진국과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경쟁력을 위한 지속적 투자가 요구되는 실정임
- ✚ 해외 선진국가들의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는 영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가들은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디자인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디자인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간주하여 첨단산업기술을 자국의 독특한 문화와 접목시켜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내는 디자인산업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 디자인 경쟁력은 구미선진국들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신흥공업국들과 비교할 때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같은 위기적 상황에서 디자인의 경쟁력 제고를 국가적 차원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화의 전개로 기업간 경쟁의 압력이 무한하게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타 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e)으로서의 디자인에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예상됨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 이미지 형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육성하는 방안에 노력하고 있음

+ 디자인의 경제학적 가치에 관한 정량적 측정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단지 추정에 의해 파악되는 수준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측정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디자인이라는 무형의 가치 개념을 정형화시키는게 필요하며 이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추정이 아닌 보다 정확한 조사,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정책수립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보다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통한 디자인 산업의 발전과 디자인의 국제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02. 연구 목표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디자인이 보다 경쟁력 있고 전략적인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실정에 맞고 고유한 경제적 가치측정 모델의 개발에 의의가 있으며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디자인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함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측정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디자인이라는 무형의 가치 개념을 정형화 시키는게 필요하며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디자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과학적인 접근법에 의해 이해함으로써 이로 인한 디자인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함

-디자인의 구체적인 경제적 측정을 통한 평가로 디자인산업의 현실적인 분석으로 디자인의 발전방향 및 중 장기 발전계획(안)에 활용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측정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미래지향적이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하며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이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추정이 아닌 보다 정확한 조사,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정책수립을 도모함

-나아가 보다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통한 디자인 산업의 발전과 디자인의 국제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음



### 03.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 됨

-1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측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장에서는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측정에 대한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에 대한 내용 이는 해외 선진국들인 영국, 일본, 미국 디자인의 가치측정 연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좀 더 객관성이 확보된 가치측정 모델을 도출하기 위함이며 관련 내용들은 기존 연구내용인 2002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측정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여 요약, 재정리함

-3장에서는 산업과 디자인의 관계와 디자인 경제적 가치의 정의 및 경제적 가치와 산업규모의 차이점

-4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모델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의미에 대한 부연설명을 제시하고자 함



## 04 문헌적 고찰

### 04-1. 기존 연구

#### ✦ KDPI(Korea Design Power Index)모델

-KMA 디자인경영위원회에서 발표한 '2001 한국산업디자인 파워1위 결과보고서'에 보면 디자인파워 조사는 상품의 디자인 가치 경쟁력 파악 및 고객 지향적이고, 독창적인 상품 개발을 주도한다고 말하고 있고 디자인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디자인전략의 마인드 형성, 디자인파워 측정모델로써 국내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업목표와 상품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임

-즉 KDPI는 상품구매시점에서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임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구매의사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출구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면접조사지수(FI: Face-to-face Interview Index)와 인터넷 패널을 대상으로 제품의 디자인 선호도를 비교, 평가하는 인터넷 조사지수(IRI: Internet Research Index)로 부분하며 5:1의 가중치로 총 46개 상품군과 132개 브랜드를 조사하였는데 국내 디자인 수준은 전년도 보다 5.84% 상승하였고 소비재가 내구재보다 조금 더 우수하다고 말하고 있음

-하지만 여기에는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지수에 대한 순위로만 나열되어 있음



KDPI 모델 구조

- + 제품군별KDPI : 전반적인 제품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의 100점 만점 평균값
- + 전체 KDPI : 전체 46개 제품군의 KDPI 평균값

<그림 5-1> KDPI의 개별상품의 디자인 선호지수 산출식

<개별상품의 디자인 선호지수(DPI : Design Preference Index) 산출방법>

$$DPI = (F_o \times W_1) + (E_m \times W_2) + (F_u \times W_3)$$

$F_o$  : Form preference Factor     $E_m$  : Emotional preference Factor     $F_u$  : Functional preference Factor  
형태요소 선호도                      감성요소 선호도                      기능요소 선호도

- $W_1, W_2, W_3$  : 형태, 감성, 기능 요소에 대한 제품별 선호도와 전반적인 제품 선호도 간의 상관분석을 통한 가중치의 백분비임

-개별 면접조사와 인터넷 패널조사를 병행한 제품의 경우, 개별 면접조사 결과와 인터넷 패널조사 결과의 산술 평균값으로 디자인 선호지수를 결정함

04-2. 해외 선진국가의 사례 조사

- + 해외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경제적 가치 측정에 대해서 연구되었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전략이 세워지고 있으며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디자인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목적에 연구가 진행됨
- + Andrew Sentance & James Clark의 ‘영국경제에 대한 디자인의 기여도’ 연구(1996) - 영국
  - 영국경제에 대한 디자인의 기여도 연구에서는 크게 네부분으로 구성됨
  - 첫 번째 부분에서는 디자인이 영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와 관련한 개념과 측정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또한 디자인이 영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①디자인 활동의 기준, ②디자인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력, ③삶의 질에 디자인이 미치는 영향력 등을 얘기하고 있음
  -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영국 산업 연합에 의해 이루어진 800개 제조업에 대한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내 디자인 활동을 보다 구체화시키는데 이용하였으며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제조업이 디자인 및 디자인과 관련된 활동에 쓰는 총비용을 밝힌다거나 이 정보를 산업별, 지역별, 회사의 규모별로 구분함



- 세 번째 부분에서는 디자인 활동과 경제활동 사이의 연계를 분석하였고 이는 수익성, 성장 및 수출 활동에 대한 디자인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된 발견을 종합하고 결론을 도출함
- 결론으로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영국 경제에 미치는 디자인의 평가에 대한 중요한 요소에 대해 설명함
- 결과에 따르면 Design Consultancy는 1985년~1986년 기간 중 영국의 총생산을 11억 파운드를 증가시켰으며 155백만 파운드의 이윤을 창출하였고 30,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175백만불의 수출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Shuhei Mitome**의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라-자동차, 정보통신기기, 가전(家電)의 사례분석에서’ 연구(1997) - 일본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품분야에 디자인이 가지는 중요성, 즉 소비자가 구입하는 경우에 디자인을 어느 정도 중시하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어떤 상품이 시장에 투입된 경우, 아주 새로운 상품분야에서는 디자인의 중요성은 얼마나 있을지를 소비자에 의해 상품전체의 가치를 설문한다면 판매가격조차 모르는 것이 대부분임
- 이것은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하는 경우 그 절대적 가치평가를 직접 도출하기가 어려움을 나타내며 오히려 기준이 되는 상품이 있는 경우에 그 상품과의 비교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는 방법이 현실적이거나 실용성이 높음을 시사함
- 디자인의 가치에는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모두 있다고 주장하여 전자는 작품의 제작수량과는 관계가 적고 시대나 공간을 초월하여 알려져 전해지고 있음
- 한편,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이나 일반소비자의 구매활동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 양적인 측면이 중요한 동시에 유행하도록 시간과 장소에 크게 의존하는 가치가 있음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해 직감적인 현상을 가능한 한 일반화, 논리화해서 범용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하며, 이론에 실례를 들어보고 모순이 없게 적용하고 결과도 실제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음을 알게 됨

✚ **Marjorie B Platt, Julie N Hertenstein, David R Brown**의 ‘디자인 가치: 디자인의 효과를 통한 기업 성과 강화’ 연구(2001) - 미국

- 재무적 성과와 디자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디자인의 영향에 대한 측정과 재무적 성과 측정 하였으며 디자인의 영향에 관한 접근법은 조사대상 기업들에 대해 전문가 패널에 의한 상세한 설문으로 조사함
- 또한 재무적 성과 평가 접근법은 1995년~1999년까지의 표본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재무비율인 자산수익률, 매출에 의한 순현금 흐름으로 접근함
-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생산요소(예를 들어 알루미늄 생산은 매우 자본집약적이나 전략컨설팅은 그렇지 않다)와 산업의 구조(예를 들어 재무수익률은 경쟁, 고객, 공급업자의 교섭력이 높으면 낮은 것 보다 수익률은 더 낮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음



- 기업성과의 디자인 영향을 비추어보기 위해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의 평균성과와 관련한 측정  
에 의한 생산과 구조의 산업 특성적 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그리고 난 후 최종분석을 위한 산업과 관련한 성과 측정을 사용함
- 먼저, 자동차, 가구, 가전, 컴퓨터 산업을 선정하였고 두 번째로 전문가들이 디자인의 영향력에  
기초한 순위를 정하기 위한 산업에서의 기업들의 목록(list)을 선정함
- 다음으로 DMI의 자문위원회 회원들에게 설문 요청을 했으며 위원회 회원들은 좋은 디자인에  
대한 자신들의 정의를 사용하기를 권장함
- 그러한 요소들의 고려 사항은
  - 기업의 디자인 프로그램의 질(예: 디자인 수상의 수 등)
  - 기업의 제품, 서비스, 보충물 등에서의 디자인의 질적 수준이 명백함  
(예: 기업의 제품이나 재료에 대한 기업의 디자인에 대한 견해)
  - 기업의 디자인 프로그램의 중요도(예: 디자인에 대한 많은 투자)
- 이 연구의 결론은 효과적인 디자인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를 통해 경영성과는 디자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



## 05

## 연구 분석

## 05-1. 산업과 디자인

- ✚ 디자인은 심적 계획(a mental plan)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신 속에서 기획되어 실현으로 이끄는 계획 및 설계를 의미함

  - 다른 의미의 디자인은 보다 사용하기 쉽고 안전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조하는 조형행위이며 미술에 있어서의 계획(a plan in art)으로 특히, 회화 제작에 있어서의 예비적인 스케치류를 의미하기도 함
  - 사전적 의미로서의 디자인을 살펴본다면 명사로서의 디자인은 이탈리아어의 disegno와 프랑스어의 dessin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획'이라는 의미로 쓰임
  - 우리는 디자인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먹으며 그 속에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디자인은 우리의 생활이나 환경의 일부분이거나 또는 환경자체이기 때문임
- ✚ 디자인은 생활의 예술 의미를 지님

  - 디자인만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예술은 없다고 할 만큼 우리의 주변은 모두 디자인의 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의 생활 그 자체가 디자인의 영역임
  - 디자인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다양한 경험의 바탕 위에 다양한 표현을 뒷받침하는 공감대 속에서 꽃피는 예술의 한 형태임
- ✚ 디자인은 사회적 과정임

  - 디자인은 가장 기능적이고 합리적이며 우리의 실제 생활을 윤곽하게 해주는 예술의 한 형태로서 우리에게 쓸모있는 물건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디자인의 산물이 어떤 사회적 기능을 가질 것인가를 탐구하는 예술창조의 행위임
- ✚ 디자인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임

  - 디자인은 생활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므로 디자인이라고 할 때는 사회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는 응용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디자인은 모든 사물과 여러 가지 시스템에 관계함

  - 모든 방면에서 인간의 필요를 알아내는 방법과 그것들을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을 자극하는 방법 등에 관계함
  - 따라서 디자인은 지상, 해상, 그리고 하늘을 통해 우리를 수송하는 방법들도 취급하며, 인간과 세계를 보다 폭 넓게 발견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들도 포함함
  - 언어나 문자, 그리고 도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들도 다룸



- 디자인은 단순히 미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거나 쓰기 편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의 한 중심이며, 제품에 새롭게 가치를 더하고 새로운 하나의 시장과 산업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디자인 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의 효율이나 기능보다는 자신의 감성이나 스타일을 중시하게 되고, 소품중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중 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되면서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화 개성화 되는 추세에 있음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 이미지가 강조되고 복지, 소득분배, 작업조건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디자인 산업 자체가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의식구조와 가치관이 변화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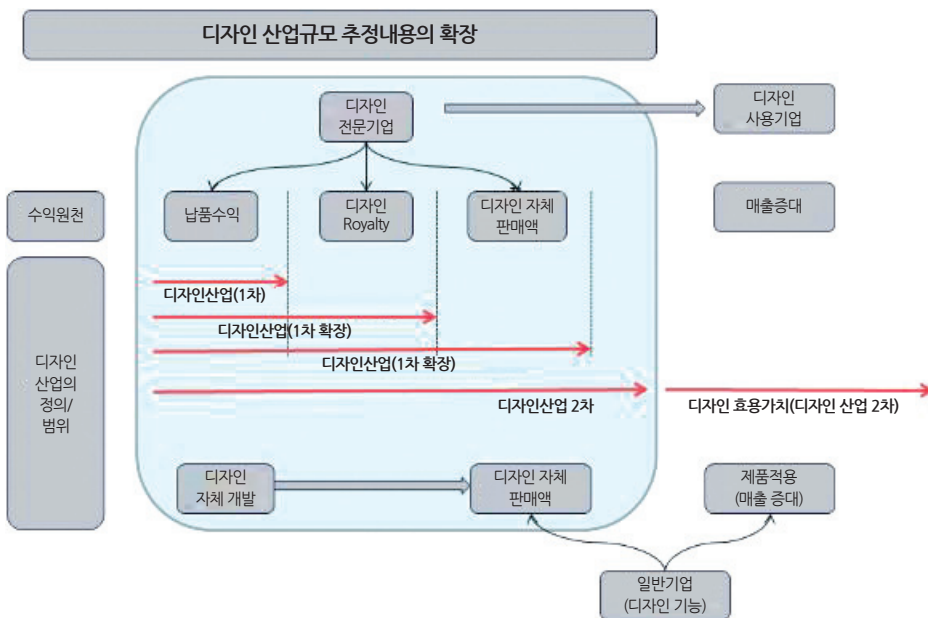
## 05-2. 연구 분석틀

- 디자인의 경제적가치 정의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란 디자인의 경제적 부가가치의 개념으로 정의

-부가가치란 기업이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물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를 말하며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을 합산한 금액임

〈그림 5-2〉 디자인 산업규모 및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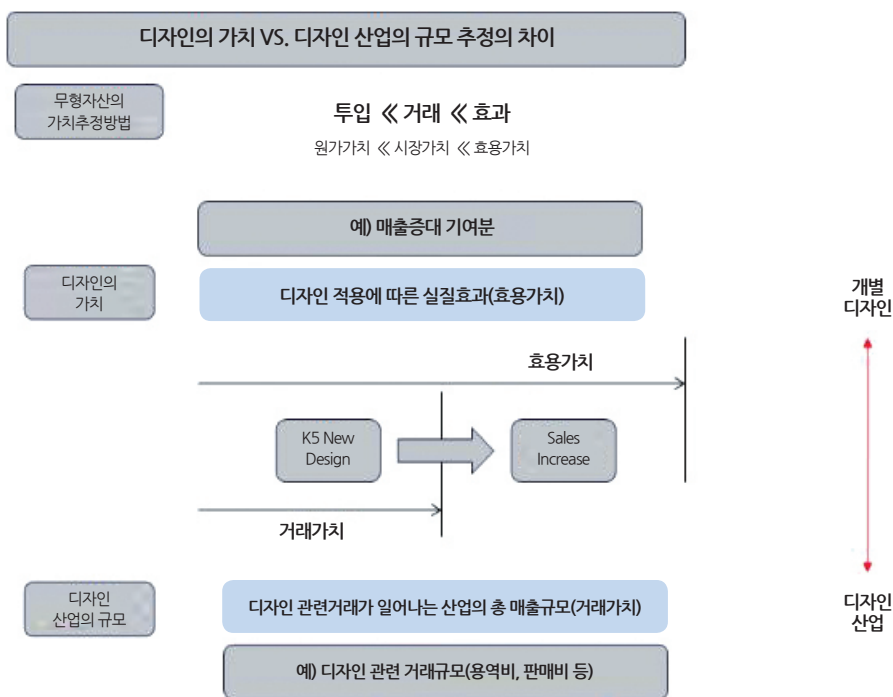




✚ 디자인 경제적 가치와 디자인 산업규모의 차이점

- 디자인 산업의 가치는 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거래가 일어나는 모든 산업의 매출규모의 거래가치를 의미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제품에 적용된 디자인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나타낸 효용가치(매출의 증대 역할)를 의미

〈그림 5-3〉 디자인 가치와 디자인 산업규모 비교





## 06

## 경제적 가치 분석 결과

## 06-1. 추진 전략 및 방법

## + 기존 디자인 경제적 가치 측정 모델

- 既 개발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모델은 회귀분석에 의한 디자인 투자 승수를 정하고 이에, 각 산업별 디자인 관련 투자비용을 투입하여 각 산업별 매출액에서 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추정액을 구하였고 다시 이를 각 산업별 부가가치비율 곱하여 순수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였음

## + (1단계) 회귀분석 모델에 의한 디자인 투자승수 계수 추정

- 디자인 관련 활동에 대한 투자비용과 매출액과의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디자인이 기업의 경영 성과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통계분석

$$\Delta Sales_i = a + \beta_1 \Delta DC_i + \varepsilon_i$$

$\Delta Sales_i$ : 해당기업의 총매출액 변화량

$\Delta DC_i$ : 해당기업의 디자인 관련 투자비용 변화량

$\varepsilon_i$ : i 기업의 잔차

## + (2단계) 부가가치 비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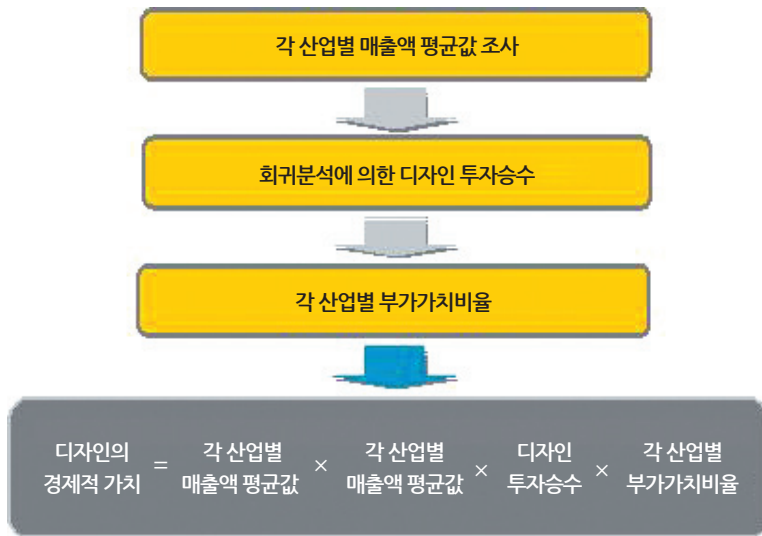
- DIM(투자승수)계수는 탄력도를 의미, 70개 상장기업의 각 산업별 매출액에 이 계수값을 적용하고 그런 다음 각 산업별로 서로 다른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활용

## + (3단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 2단계에서 구한 70개 상장기업의 각 산업별 매출액 평균값에 디자인 투자승수를 적용하고 다시 이 값에 각 산업별 부가가치 비율을 적용하여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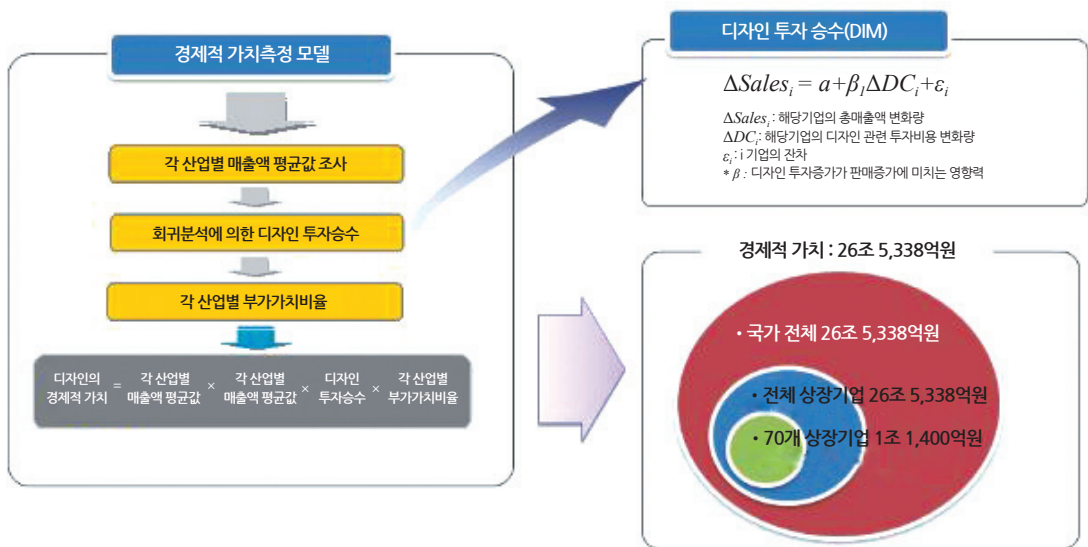


〈그림 5-4〉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그림 5-5〉 기존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

+ 국가 전체 경제에서의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 26조 5,338억원





#### ✚ 현재 시점에서 개선 및 보완점

- 既 개발된 경제적 가치 측정 모형에 대한 타당성 확보 및 모형 개선이 필요함

- ① 2002년 이후 경제적 가치 측정모델의 많은 진화가 이루어짐
- ② 既 개발된 모형에 대한 개념적 재정립이 필요함
- ③ 디자인 가치 = 각 산업별 매출액 \* 산업별 부가가치율 \* 디자인 투자승수

여기서, 투자승수는  $\Delta Sales_i = a + \beta_1 \Delta DC_i + \varepsilon_i$  베타의 값

베타의미 : 디자인 투자증가가 판매증가에 미치는 영향력

#### ✚ 한계점

- ① sales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를 누락시킴으로써 투자승수 값 산출오류 발생(회귀식에서 핵심 변수를 누락시키면, 특정변수의 베타값이 크게 변화되는 오류발생)
- ② '①'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디자인 가치 = 디자인에 의한 산업별 매출증가액(즉 투자승수 \* 디자인 투자액) \* 산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되어야 함  
기존 분석은 매출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며, 매출자체로 계산하여 과대 계상된 한계가 존재함
- ③ 디자인 투자가 매출로 연계되는 기여도를 고려한 모형 개선이 필요  
지식경제부(이전 산업자원부)의 보도자료(08.1)에 의하면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품질, 가격, 디자인, 마케팅 요소로 디자인의 비중이 약 23% 정도 기여, 이를 고려한 디자인 가치 산정 모델은 "디자인 가치 = 투자승수 \* 디자인투자액 \* 디자인 매출 기여도 \* 부가가치"로 수정될 필요성이 있음
- ④ 기존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현재 실현된 산업별 매출액에 디자인 승수를 곱한 만큼 디자인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총 매출액의 약 71.7%를 디자인이 담당한다는 의미가 됨

####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모델

- 디자인의 매출증대예의 기여도를 고려한 디자인 가치 측정

- 디자인 가치 = 디자인투자로 증가되는 각 산업별 매출액 \*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

= (디자인투자액 \* 투자승수 \* 디자인기여율) \*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

여기서, 투자승수는 베타 1의 값을 의미

$$\Delta Sales_i = a + \beta_1 \Delta DC_i + \beta_2 \Delta PC_i + \beta_3 \Delta QC_i + \beta_4 \Delta MC_i + \varepsilon_i$$

$\Delta Sales_i$  : 해당기업의 총매출액 변화량

$\Delta DC_i$  : 해당기업의 디자인 관련 투자비용 변화량

$\Delta PC_i$  : 해당기업의 주요제품의 가격변화량

$\Delta QC_i$  : 해당기업의 주요제품의 품질변화량

$\Delta MC_i$  : 해당기업의 주요제품의 마케팅비용

$\varepsilon_i$  : i 기업의 잔차



다만,  $\Delta PC_i$ ,  $\Delta QC_i$ ,  $\Delta MC_i$ 는 측정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실질적으로 각 산업별 매출총액을 측정하였으며, 이는 매출증대에 따른 다양한 요소(디자인, 품질, 가격, 마케팅 등)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이므로, 디자인 투자승수에 의한 증가매출액에 디자인 기여도를 곱한 값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DesignSales_i = \Delta Sales_i (= a + \beta_i \Delta DC_i + \epsilon_i) * DF_i$$

$\Delta DF_i$ : 매출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중 디자인의 비중

따라서, 최종 디자인 가치평가 모델은

디자인 가치 = 각 산업별  $DesignSales_i$  \*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

## 06-2. 경제적 가치 분석 결과

- 2011 산업디자인통계조사를 통해 도출된 2010년 각 산업별 매출규모, 연구개발비, 디자인투자액, 디자인기여율은 아래와 같음

-상기 산업별 규모에서 연구개발투자승수를 산출, 산출된 연구개발투자승수는 디자인투자승수와 동일하다고 가정

- ① 연구개발투자승수 = 총매출액/연구개발비
- ② 각 산업별 연구개발투자승수는 각 산업별 디자인투자승수와 동일(가정)

-최종적으로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산출하여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

- ①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 (디자인투자액 \* 투자승수 \* 디자인기여율) \*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 = 디자인 투자에 의한 창출시장 규모 \*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
- ②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2010년) 자료에서 도출

〈표 5-2〉 2010년 각 산업별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매출액	연구개발비 총액	연구개발비 중 디자인투자액	디자인기여율
제조업	350,497,743.6	38,212,485.9	2,356,572.1	28.6%
건설업	88,264,659.8	1,209,514.3	404,299.1	27.5%
출판/영상/정보서비스	35,164,977.6	1,341,727.2	513,575.3	23.8%
전문/과학/기술서비스	208,870,443.7	13,414,234.1	960,251.5	31.8%
사업시설 관리	5,922,550.3	210,864.4	133,988.8	26.8%
합계	688,720,375.0	54,388,825.9	4,368,686.8	-



-디자인투자액의 경우, 조사된 각각의 기업별 디자인투자액에 가중치(Wt)를 적용하여 산출함  
A기업의 디자인투자액 조사결과값×가중치(Wt) = 최종 디자인투자액(경제적 가치 추정에 반영)

-결론적으로 이미 디자인투자액에 가중치(Wt)를 적용하였기에, 디자인기여율에 다시 가중치(Wt)를 적용하게 되면 중복 계상됨으로 디자인기여율은 조사된 결과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①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 (디자인투자액(Wt적용) × 투자승수 × 디자인기여율) ×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

② (과대계상 오류 발생) 디자인기여율에 가중치 재적용  
= (디자인투자액(Wt적용) × 투자승수 × 디자인기여율(Wt적용) ×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  
= {Wt<sup>2</sup>(디자인투자액 × 디자인기여율) × 투자승수} ×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

➤ 디자인 투자에 의한 창출시장 규모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전 디자인 투자에 의한 창출시장 규모를 1차적으로 산출한 결과, 산업별 디자인 투자에 의한 창출시장 규모는 23조 2,625억 8,600만원임

-디자인 투자에 의한 창출시장 규모  
=디자인투자액 × 투자승수 × 디자인기여율

〈표 5-3〉 2010년 각 산업별 디자인 투자에 의한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디자인투자액	투자승수	디자인기여율	디자인 투자에 의한 창출시장 규모
제조업	2,356,572.1	9.2	28.6%	6,184,643
건설업	404,299.1	73.0	27.5%	8,113,557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13,575.3	26.2	23.8%	3,199,08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960,251.5	15.6	31.8%	4,757,030
사업시설 관리	133,988.8	28.1	26.8%	1,008,273
합계	4,368,686.8	-	-	23,262,586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산출 방법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실질 효용가치(Benefit)를 의미, 디자인 투자에 의한 창출시장 규모에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으로 정의됨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 디자인 투자에 의한 창출시장 규모 ×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

<표 5-4> 2010년 각 산업별 디자인 경제적 가치

(단위 : 백만원)

구 분	디자인 투자에 의한 창출시장 규모	부가가치율	디자인 경제적 가치
제조업	6,184,643	21.4%	1,324,132
건설업	8,113,557	31.1%	2,521,694
출판/영상/정보서비스	3,199,083	42.8%	1,368,568
전문/과학/기술서비스	4,757,030	52.4%	2,493,635
사업시설 관리	1,008,273	70.5%	711,236
합계	23,262,586.0	-	8,419,265

+ 측정결과, 2010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8조 4,192억 6,500만원임







별첨

표본 설계



## 01

## 디자인 활용기업(일반기업) 조사

## 01-1. 모집단

## 1) 모집단 정의

기본 모집단 목록(표본추출틀)은 2009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DB를 활용하며, 디자인활용기업(일반기업) 조사의 모집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sup>(표 4-1 참조)</sup>.

-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인 기업
  - 상시종사자수(임시 및 일일 종사자수 제외한 종사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기업 구분이 단독기업, 본사/본점인 기업(공장, 지사(점), 영업소는 제외)
  - 조직형태가 개인기업,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전문디자인(M7320)은 제외함.
- 또한 이들 기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디자인활용기업으로 파악되어 있는 소수의 기업들을 조사 모집단에 포함하였다(디자인진흥원에서 제공한 디자인 연구소 보유 기업 및 벤처 기업, 2006년 디자인활용기업 패널조사 등록 기업).

## 2) 모집단 분석

먼저 2009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DB를 이용하여 권역별/업종별/규모별 기업을 파악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기업 수는 187,625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08,835(58.0%),  
 건설업 37,815(20.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760(5.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505(11.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710(5.2%)개이다.

종사자수별로는

5~9인 96,848(51.6%),  
 10~19인 48,384(25.8%),  
 20~49인 28,901(15.4%),  
 50~99인 7,748 (4.1%),  
 100~299인 4,631(2.5%),  
 300인 이상 1,113(0.6%)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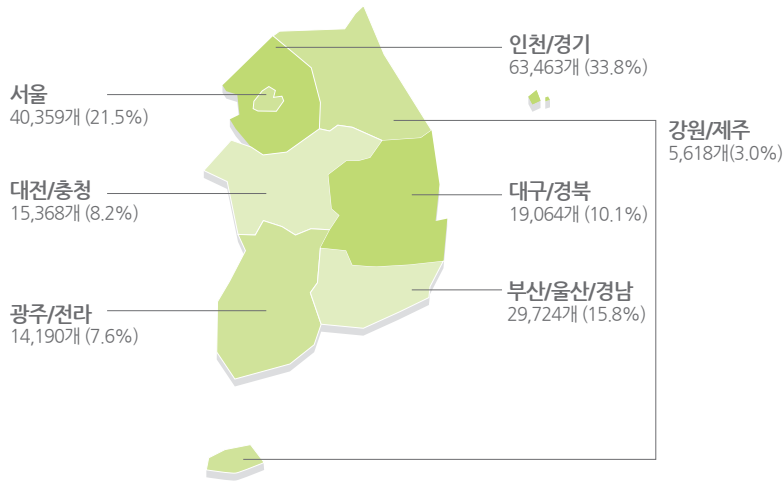
이들 기업 이외에 조사 모집단에 추가로 포함된 기업은 161개이며, 따라서 전체 조사대상 기업 수는 187,786개임 <sup>(표 4-1 참조)</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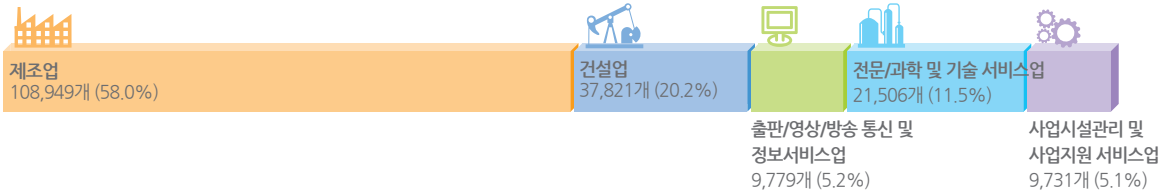
전체 조사대상 기업 수

187,78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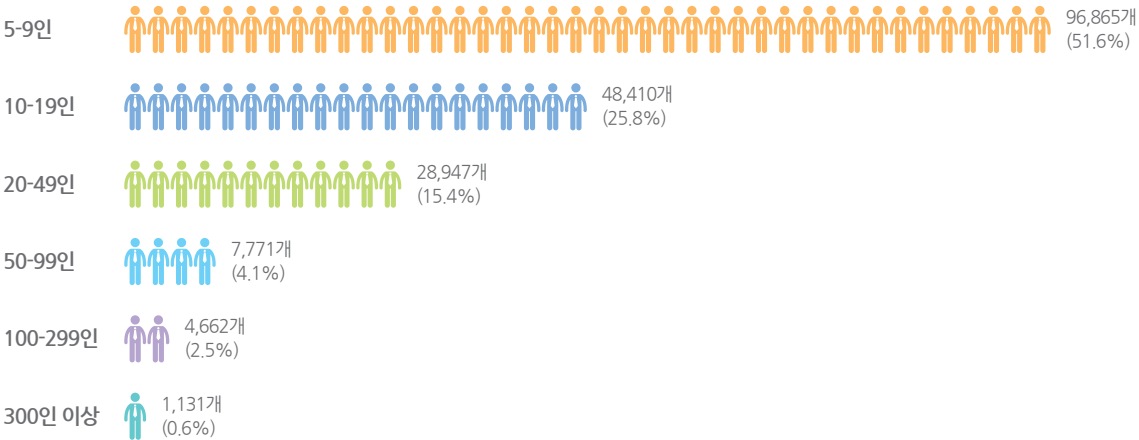
권역별



업종별



종사자 수 별





01-2. 디자인 활용기업 분석

전체 조사대상 5개 업종 기업 187,786개의 디자인 활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권역별/업종별/규모별 추출률 (inclusion probability)을 고려하여 12,185개의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를 실시함 <sup>(표 4-1 참조)</sup>.

1차 표본조사(12,185개)에서 디자인활용기업으로 파악 된 기업 수는 1,907개이었으며,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하 여 전체 디자인활용기업 수(24,054개)를 추정함(표 1-2 참조). 또한 디자인활용기업으로 파악된 기업(1,907개) 중 1,016개를 표본으로 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디자인 활용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표 6-1> 일반기업 디자인활용 여부 조사 모집단 및 표본 크기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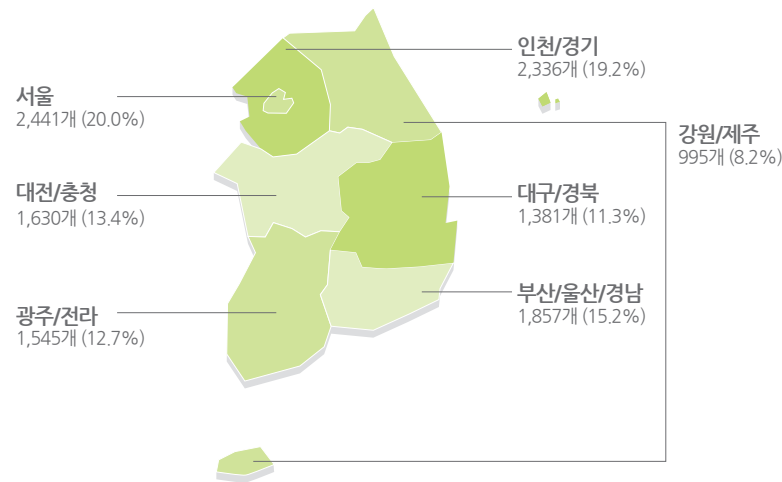
구 분	조사모집단		조사완료 표본		
	기업 수	%	기업 수	%	
전 체	187,786	100.0	12,185	100.0	
권역별	서울	40,359	21.5	2,441	20.0
	부산/울산/경남	29,724	15.8	1,857	15.2
	대구/경북	19,064	10.1	1,381	11.3
	인천/경기	63,463	33.8	2,336	19.2
	광주/전라	14,190	7.6	1,545	12.7
	대전/충청	15,368	8.2	1,630	13.4
	강원/제주	5,618	3.0	995	8.2
업종별	제조업	108,949	58.0	3,451	28.3
	건설업	37,821	20.1	2,884	23.7
	출판/영상/정보	9,779	5.2	1,493	12.3
	전문/과학/기술	21,506	11.5	2,271	18.6
	사업시설관리	9,731	5.2	2,086	17.1
종사자수별	5~9인	96,865	51.6	3,267	26.8
	10~19인	48,410	25.8	2,757	22.6
	20~49인	28,947	15.4	2,357	19.3
	50~99인	7,771	4.1	1,509	12.4
	100~299인	4,662	2.5	1,213	10.0
	300인이상	1,131	0.6	1,082	8.9



디자인 활용기업 조사 표본 크기

12,185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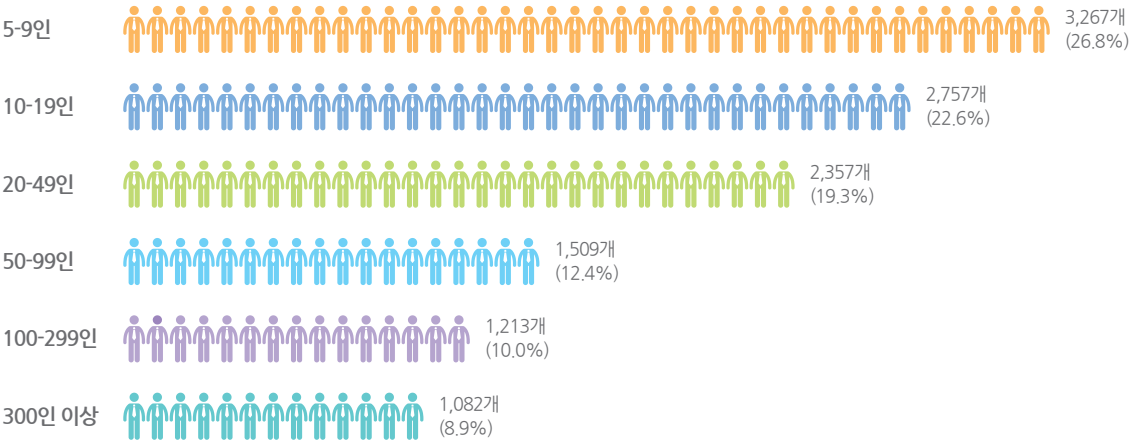
권역별



업종별



종사자 수 별





디자인 활용기업 모집단 전체

24,054 개

〈표 6-2〉 디자인 활용기업 모집단 및 표본 크기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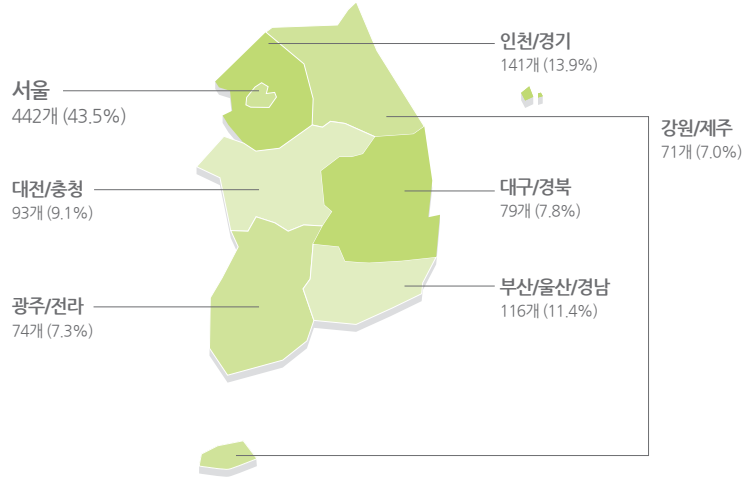
구 분	디자인 활용기업(모집단)		디자인활용기업 조사완료 표본		
	기업 수	%	기업 수	%	
전 체	24,054	100.0	1,016	100.0	
권역별	서울	10,728	44.6	442	43.5
	부산/울산/경남	2,523	10.5	116	11.4
	대구/경북	1,928	8.0	79	7.8
	인천/경기	5,908	24.6	141	13.9
	광주/전라	1,161	4.8	74	7.3
	대전/충청	1,196	5.0	93	9.1
	강원/제주	610	2.5	71	7.0
업종별	제조업	13,679	56.9	311	30.6
	건설업	2,166	9.0	106	10.4
	출판/영상/정보	3,761	15.6	198	19.5
	전문/과학/기술	3,047	12.7	248	24.4
	사업시설관리	1,401	5.8	153	15.1
종사자수별	5~9인	12,176	50.6	192	18.9
	10~19인	5,543	23.1	162	15.9
	20~49인	3,682	15.3	182	17.9
	50~99인	1,306	5.4	148	14.6
	100~299인	976	4.1	144	14.2
	300인이상	371	1.5	188	18.5
규모별	소기업	18,871	78.4	407	40.1
	중기업	4,607	19.2	387	38.1
	대기업	576	2.4	222	21.8
디자이너 고용별	고용	15,644	65.0	712	70.1
	비고용	8,410	35.0	304	29.9
디자인 외주 여부	있음	13,695	56.9	633	62.3
	없음	10,359	43.1	383	37.7
2010년 매출액	10억 미만	6,966	29.0	164	16.1
	10-30억 미만	9,752	40.5	231	22.7
	30-100억 미만	4,044	16.8	182	17.9
	100-500억 미만	2,450	10.2	217	21.4
	500-1000억 미만	410	1.7	61	6.0
	1000억 이상	432	1.8	161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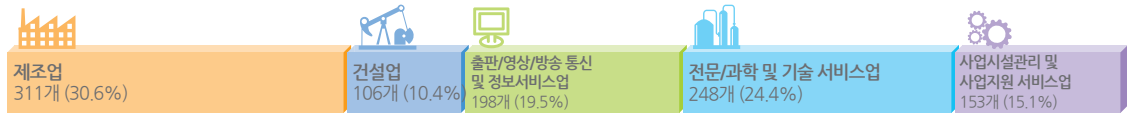
디자인 활용기업 실태조사 응답자 전체

1,016 개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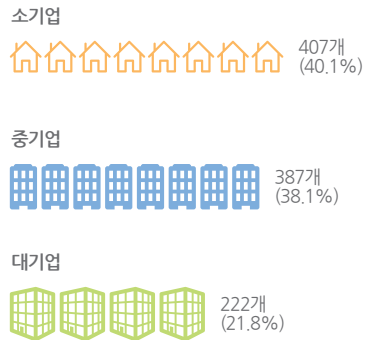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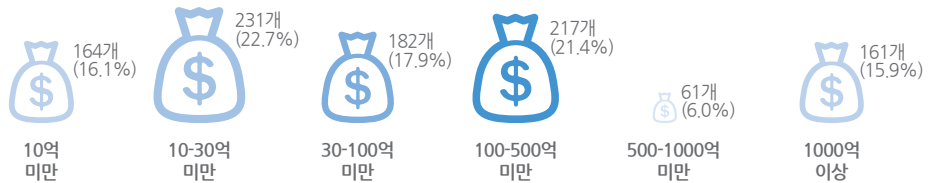
종사자 수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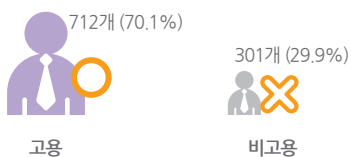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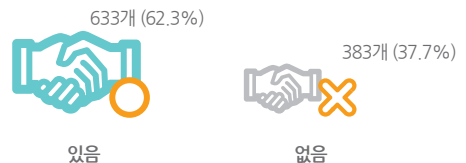
2010년 매출액



디자이너 고용별



디자인 외주 여부





# 02 전문디자인기업 조사

## 02-1. 모집단 분석

- 2009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DB를 이용하여 전문디자인업의 권역별/업종별/규모별 사기업수를 파악함. 2009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전문디자인기업수는 총 3,117개임.
- 본 조사에서는 전문디자인기업 조사의 모집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인테리어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기타전문디자인업인 사기업
  - 기업 구분이 단독기업, 본사/본점인 기업(공장, 지사(점), 영업소 94개는 제외)
- 본 조사 모집단 크기는 3,023개 기업임.

## 02-2. 전문디자인기업 분석

- 전문디자인업 모집단(3,023개) 중 권역별/업종별/규모별 추출률(inclusion probability)을 고려하여 624개 표본을 추출하고, 전문디자인업에 대한 모수 추정 및 실태조사를 실시함.

전체 조사대상 기업 수 **3,023개**

〈표 6-3〉 전문디자인기업 조사 모집단 및 표본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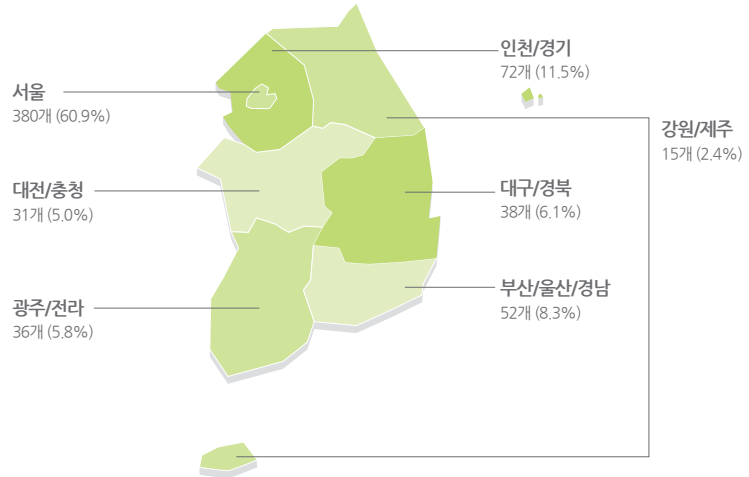
구 분		전문디자인기업 조사모집단		전문디자인기업 실태조사 원료 표본	
		기업 수	%	기업 수	%
전 체		3,023	100.0	624	100.0
권역별	서울	1,940	64.2	380	60.9
	부산/울산/경남	214	7.1	52	8.3
	대구/경북	159	5.2	38	6.1
	인천/경기	371	12.3	72	11.5
	광주/전라	160	5.3	36	5.8
	대전/충청	120	4.0	31	5.0
	강원/제주	59	1.9	15	2.4
업종별	제품디자인	717	23.7	124	19.9
	시각디자인	1,118	37.0	280	44.9
	환경/인테리어	733	24.2	125	20.0
	기타디자인	455	15.1	95	15.2
규모	1인	621	20.5	87	13.9
	2-4인	1,398	46.2	222	35.6
	5-9인	673	22.3	181	29.0
	10-14인	181	6.0	66	10.6
	15인이상	150	5.0	68	10.9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이상	2,075	68.7	436	69.9
	기타매출 50% 이상	832	27.5	160	25.6
	디자인, 기타 매출 반반	116	3.8	28	4.5
디자인 고용별	고용	15,644	65.0	712	70.1
	비고용	8,410	35.0	304	29.9
해외교류 여부	해외교류 있음	247	8.2	63	10.1
	해외교류 없음	2,776	91.8	561	89.9
2010년 매출액	1억 미만	692	22.9	96	15.4
	1-3억 미만	653	21.6	108	17.3
	3-5억 미만	525	17.4	110	17.6
	5-10억 미만	540	17.8	128	20.5
	10억 이상	613	20.3	182	29.2



전문디자인기업 실태조사 완료 표본 전체

624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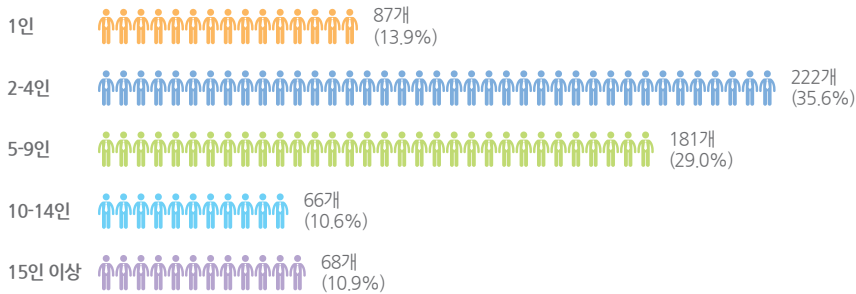
## 권역별



## 업종별



## 종사자 수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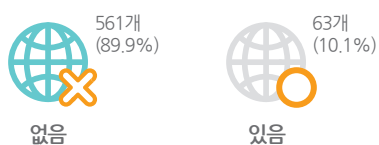
## 매출구성



## 2010년 매출액



## 해외교류 여부





# 03 공공부문(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조사

## 03-1. 모집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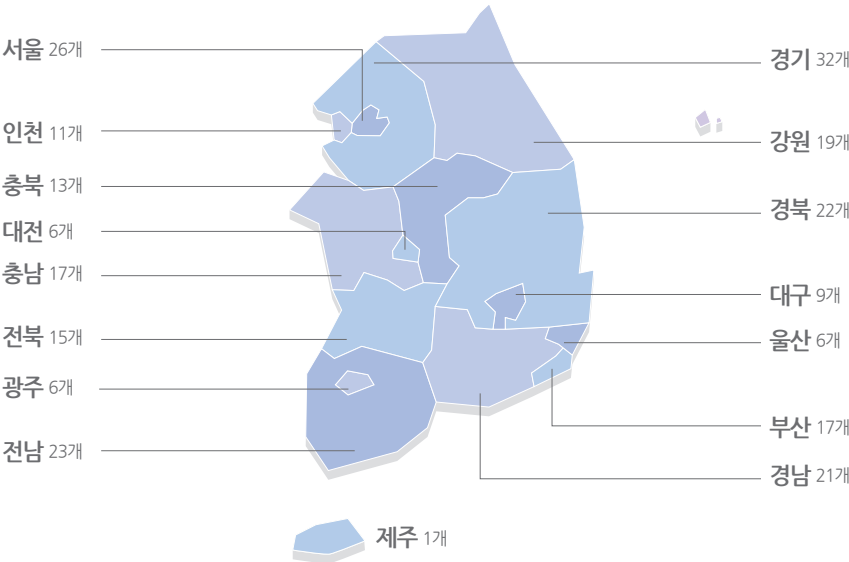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수조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16개, 시/군/구 228개로 구성됨.
- 응답대상은 디자인관련부서(도시경관과, 도심개발사업단, 도시디자인팀, 건축미관과)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고, 없는 경우는 기획예산실, 정책기획실, 홍보실 소속의 공무원이 대상이 됨.
- 중앙부처는 15부 2처 18청(총 35개) 중 총 34개 기관 조사 완료(경찰청 미실시)

<표 6-4>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모집단 크기

구분	시도	행정시/자치구			전체
		시	군	구	
계	16	73	86	69	244
서울	1			25	26
부산	1		1	15	17
대구	1		1	7	9
인천	1		2	8	11
광주	1			5	6
대전	1			5	6
울산	1		1	4	6
경기	1	27	4		32
강원	1	7	11		19
충북	1	3	9		13
충남	1	7	9		17
전북	1	6	8		15
전남	1	5	17		23
경북	1	8	13		22
경남	1	10	10		21
제주	1				1

<표 6-5> 중앙부처 조사 대상

15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2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18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국세청, 경찰청, 기상청, 검찰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11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463-8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우로 170번지 코리아디자인센터  
tel 031-780-2022 fax 031-780-2040 [www.kidp.or.kr](http://www.kidp.or.kr)

비매품



9 788992 695497



ISBN 978-89-92695-49-7